

함흥고보(함남중학) 동창회 간행
동창회지 반룡 제9호
간행일 2009년10월
총 372쪽

盤
龍

盤龍

— 同窓會誌 第9號 —

會誌9號

2009 · 10 · 30

咸興高普(咸南中學)同窓會



咸興高普(咸南中學)同窓會

盤龍

— 同窓會誌 第9號 —



威興高普(威南中學)同窓會

(표지 그림)

張成旬 (28回)

서울대 美大 修學

현대 미술가 협회, Actual展, 서울 70회 창립 멤버

미술대전 심사위원 미협이사 단원 미술제 심사의원 역임

개인전 8회, 해외전 3회, 초대전(단체전) 70회

국립 현대 미술관, 서울대 미술관, 워커힐 미술관에 작품 소장

(표지 글씨)

金淳郁 (29回)

서울 醫大卒 神經外科醫

鐵農 李基雨 先生 師事

書藝 個人展 6回 團體展 多數

美洲咸興高普/咸南中學同窓會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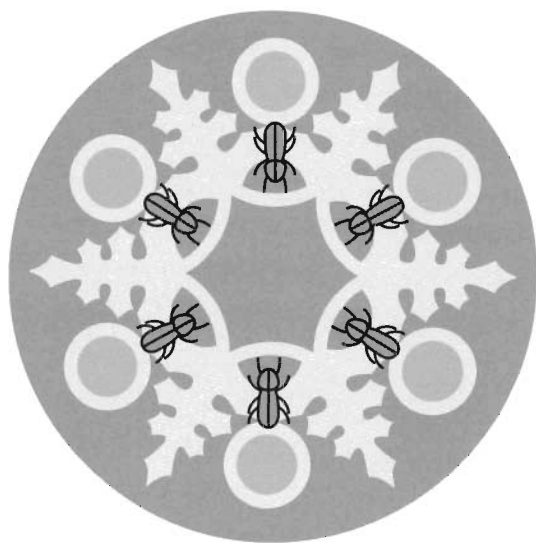




城東公園西門

盤龍

— 同窓會誌 第9號 —



2009.10.30.

威興高普(威南中學)同窓會

盤 龍

— 會誌 第9號 —

發刊을 衷心으로 自祝합니다

同窓會 任員

會 長	李三悅(26回)	011-284-4692(현) 02-3147-2797(집)
副 會 長	韓承五(25回)	031-897-7226(집)
副 會 長	朱赫淳(28回)	031-488-8061(집)
副 會 長	鄭哲周(29回)	02-2266-8305(사) 019-9214-2729(현)
監 查	金明哲(31回)	02-916-8712(집)
總 務	염창록(33回)	031-898-3724(집) 011-9811-3724(현)

目 次

■ 校旗, 沿革, 校歌		10
■ 歷代會長		13
■ 간행사	李三悅(26回)	14
■ 아~ 咸興高普의 追憶	조한용(18회)	17
■ 老人의 歲月	東橋 朱權源(19回)	23
■ 꿈(1)	金興洙(20回)	27
어느날의 日記(2)		29
■ 멋진 통곡(1)	이기형(20회)	31
떡잎(2)		33
■ 70년전 이야기(1)	주진순(21회)	35
세계적인 수학자 이임학(李林學) 형을 그리워하며(2)		39
■ 크리스천 세계선교센타	全明洙(21回)	45
■ 그리운 山河 그리운 中學時節	金禧庚(22회)	47
■ 국적포기	유병천(25회)	51
■ 歲暮 思友(1)	韓承五(25회)	54
여보 벗이어!!(2)		55
內村鑑三의 직계제자 楊仁性선생을 追慕하면서	李三悅(26회)	56
복식 심호흡과 장수(1)	석동수(26회)	63
大運河에 대한 나의 생각”(2)		66
■ “토고란트”이야기	吳炳憲(26회)	68
■ 일백일 간의 구금생활	柳榮海(26회)	77
■ 양인성(楊仁性) 선생	박재빈(26회)	83

■ 無題	朴昭會(27回)	96
■ 그날은 일요일(1)	韓淳輔(27回)	100
사람의 아들, 예수 가시다(2)		100
■ 인생은 아름다워-80세 인생의 회고-	한형주(28회)	101
■ 八旬의 望郷 엘레지	申道均(28回)	106
■ 不孝子息' 이로소이다	朱赫淳(28回)	121
■ 내 故郷 定平	魯一協(28回)	131
■ 2009년에 생각나는 우리들의 자랑과 추억		135
■ 생각	金在楨(29回)	146
■ 아! 咸州여!!	韓依天(29回)	150
■ 1학년 때의 추억	문창기(29회)	159
■ 아버지의 장례	金淳郁(29回)	165
■ 두루미(丹頂鶴)	孟厚彬(시인, 29回)	170
어느 開院醫의 하루	韓鎮慶(29回)	172
이명(耳鳴)	김용철(30회)	178
■ 한자(漢字)의 위력(威力)(1)	한만섭(韓萬燮, 30회)	179
8.15 解放前夜의 興南工場과 우리들(2)		189
■ 서울 숲	김면섭(30회)	195
■ 부산 피난 정부시절의 서울대학교 편입시험 실시와 아버지 趙哲(30回)		200
■ 咸山幼稚園	申裕恒(30回)	205
■ 映像으로 가보는 咸興	한만섭(30회)	209
■ 追憶속의 테니스	고명삼(30회)	219

■ 멸종위기 야생조류의 복원사업	원병오(30회)	222
■ 나의 이상 2 제	李南杓(30回)	229
■ 성천강에서 월미도와 관악산까지	俞焄(30回)	237
■ 보청기에 대한 불평	朴鎰忠(31回)	250
■ 健康과 물	林浩(31回)	260
■ 저주의 38선은 이렇게 확정되었다	韓東相(32回)	264
■ 흥남 대철수 작전	韓東相(32回)	270
■ 實錄小說〈北韓38度線〉顛末記	鄭源石(32回)	274
■ 黃昏의 삶을 더욱 豊饒롭게(1) 子息을 위한 祈禱文(2)	宋榮達(33回)	277 280
■ 통한의 흥남 대탈출	朱宣淳(33回)	283
■ 사랑과 정	李七煥(33回)	288
■ 나의 투병기	염창록(33회)	291
■ 「日本語의 悲劇」	徐潤煥(33回)	299
부 록		309
■ 咸興 高等普通學校(咸南中學) 同窓會 會則		310
■ 同窓會基金 贊助內譯		313
■ 同期別 名單		322
■ 海外同窓會 會員 名簿		335
■ 作故者 名單		342
■ 編輯後記		348

校旗



咸興高普(咸南中學) 沿革

- 1897 : 咸興鄉校에서 私立學校로 發足
- 1905 : 私立豐興學校
- 1908 : 咸興私立高等學校(豐興學校와 日新學校併合)
- 1911 : 咸興私立高等普通學校
- 1918 : 官立咸興高等普通學校
- 1925 : 咸興公立(道立)高等普通學校
- 1938 : 咸南公立中學校
- 1945 : 咸興中學校
- 1947 : 學制改編으로 閉鎖

校歌

Andantino

金東一 採譜(32回)

韓承五 譜

校歌

麻生磯次 作歌

- | | | | |
|---|--|---|--|
| <p>四. 發誓の杖 杖 아래 다져진 터전
 賑兒의 참뜻으로 마음 가꾸어
 배움의 한 길을 닦아 나가세</p> | <p>三. 흐름도 해맑은 君子江 물결
 舊空에 빛난 별 드리우고서
 말없는 눈동자 빛나는 밤에
 거룩한 使命을 일깨워 주네</p> | <p>二. 우람찬 盤龍을 우러러 보라
 山嶺氣 永遠히 살아 숨쉬어
 그윽한 그 모습 눈(雲)에 어리고
 술(松)빛엔 千萬歲 榮光 빛나라</p> | <p>一. 가없는 東녘 하늘을 바라보아라
 어둠바다 저멀리 먼동이 뜬다.
 찬란한 아침 햇살 누리 밝히고
 희망은 넘쳐서 天地를 덮네</p> |
| <p>四. 發誓の杖 なびくもと
 東へる 賑兒 意氣 高く
 恩恵にこたへ 誠意もて
 學びの業につとめばや</p> | <p>三. 流れも 清き 君子河
 み空の星は 影やとし
 黙示の 瞳うるませて
 尊き 使命 語らなり</p> | <p>二. そがひに 仰ぐ 盤龍の
 山嶺 永久に 輝もりて
 ゆかしき 姿容に 映え
 松に 千歳の 榮あり</p> | <p>一. 東の方見はるかす
 海原 遠く 明けそめて
 朝の 陽光は なやかに
 希望の 光みな ざりぬ</p> |

歷代會長



初代會長 李東準



二代會長 金連珪



三代會長 姜洙楨



四代會長 金載元



五代會長 朴東昂



六代會長 李三悅

간행사



盤龍 9號를 내면서

李三悅 會長(26回)

동창 여러분, 그 간도 안녕하셨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盤龍 8號를 낸지도 벌써 4년이 되어 이제 다시 9號를 발간합니다.

그 동안 세상도 많이 변했습니다. “못해 먹겠다.” 던 아무개 씨도 비명에 갔고 햇빛 타령만 하던 아무개 씨도 뒤따라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그 패거리들 짓거리는 여전하군요. 보다 못한 金芝河 시인이 한마디 하였습니다. “지난 집권 기간 얼마나 많은 나라 돈을 처먹었는데… 바로 그들이 ‘주둥이 까는 자리’에 있다고” 운운하고 말입니다.

다행이 까마귀 싸우는 데 끼지 않는 백로 같이 우리 동창들은 조용히 그리고 고고하게 노령의 건강을 보존하신 것 진심으로 치하합니다. 특히 계간으로 나오는 “미주동창회보”로 자주 소식을 나누면서 친하게 지내시는 미주동창들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막내가 80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이제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남은 세월 건강하게 외롭지 않게 살다가 가는 것 밖에.

바라옵기는 우리 회지 “盤龍”이 여러분들의 향수를 달래고 젊은 날의 추억을 되 새기는 옛기름 구실을 다한다면 분외의 영광이겠습니다. 이 번 號에도 좋은 글과 자료를 보내주신 국내외 동창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특별히 귀한 북한 사진들을 구해주신 재미 韓萬燮 동창(30회)과 새로운 그림으로 표지를 빛내주신 張成筍 화백(28회)에게 각별한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韓承五 편집위원장(25회) 이하 여러 편집위원들, 특히 교정 또는 사진편집을 위하여 새로 가담하신 申道均 위원(28회)과 高明三 위원(30회)의 협력을 치하하여 마지않습니다.

2009년 10월

盤龍

아~ 咸興高普의 追憶

조 한 용 (18회)

(1) 咸興高普 咸南中學

우리가 普通學校 5,6 學年때가 1930年인데 그 當時 咸興은 人口가 5萬이나 됐는지 咸興府가 됐다고 慶祝行사가 있는 것이 그 때쯤이었다.

그 閑暇한 歲月의 古邑에 겨울이면 흰줄 띠 校帽에 망토를 휘날리며 다니는 咸興高普 學生들이 어린 마음에 둘도 없는 羨望의 對象이었다.

咸興高普에 가겠다니 母親은 아들의 이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學校에 가면 잘못되는 일이 많다고 反對하는 것을 그 憧憬의 心情을 끝내 屈伏시키지 못하고 咸興高普에 들어갔다.(1931年)

入學式 때였던지 講堂에서 日本國歌를 부르는데 노래하는 사람은 先生과 新入生들 뿐이고 上級生들은 모두 아래만 보고 있는데 式은 그대로 進行되는데 놀랐다. 또 咸興高普 때는 校歌도 없어 “金剛石云云”의 노래로 代身하고 있었다. 놀란 일은 그뿐 아니라 學校에서 내준 時間表를 上級生들이 집에 찾아와서 國語라고 쓰인 것을 日語라고 다시 쓴 時間表를 프린트 해서 나눠줬던 일이다.

또 1學年 어느 때였던지 講堂에 全校生이 있었는데 警察이 왔다고 하니 카이젤 수염의 吉田先生이 나가더니 校門을 닫고 警察이 들어

오지 못하게 하고 上級生들에게 同盟休校를 하지 말라고 說得하려 했지만 1學年生만 빼고 우르르 밖으로 나가더니 그 이튿날 아침 校庭에서 朝會하는데 바지저고리 입은 1學年生만 나와 있고 上級生은 모두 스트라이크해서 놀랐다.

校服은 5월부터였던가 夏服부터 입고 그 前에는 흰 끈 3줄로 똑바로 돌린 校帽를 쓰고 바지저고리를 입고 신발도 各各이었던 것 같이 記憶 된다. 그러니 規律이 嚴하지 않았던 것이 特色이다. 또 各 學級이 獨立의이고(上級生도 下級生을 下待하는 말을 쓰지 않았다) 級長이 없으며 週日마다 順番으로 週番이 級長의 責任을 맡고 있었다. 그래서 週番이 各 學級이 決議하는 意思를 代表하는 것이고 各 學級의 意見에 따라 全校의 意思를 定하는데 強要가 없었다고 하니 咸興高普는 箇箇의 意見과 自由를 尊重하는 氣風이어서 日帝의 植民地 政策에 鬭爭한 것도 바로 이 情神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음력설은 空日, 대보름은 半空日이었다.

내가 나이 60을 넘은 다음에야 어릴 때를 懷古하니 우리가 다니던 훨씬 前부터 咸興高普에 온 日人 先生들이 그런 氣風을 심어준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즉 咸興高普에 赴任되는 日人 先生들이 거의가 日本 本土에서 就職이 힘든 ‘뺨’ 없는 一般大學 卒業生이었고 不況時代에 그나마 일자리가 있다니 朝鮮의 地方都市까지 왔던 ‘恨’이 많은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그들을 日本 知識人들에게 左翼思想이 판치고 있을 때의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2學年때 太平洋事件이 있는 후 宇垣이 總督이 되어 咸興高普에 와서 “自力更生” 등을 말하면서 가르치니 廣島高等師範出身의 橫田峯三郎을 校長으로 보내고 次席으로 早川이라는 別란 人物이 있으면서부터 每年 廣島高等師範 出身이 불어나고 英語에 福田, 日語에 高橋(後에 國學院 教授), 修身吉田, 歷史에 高橋, 生物에

野村 等 先生은 轉出 되더니 3學年부터 敎鍊이 始作되고 配屬將校가 왔다.

咸興高普가 日本 京都의三高를 Model로 한 左翼的 自由主義를 氣風으로 한 것 같은 것은 예전에 敎鞭을 잡은 日本人 先生들의 影響도 많았을 것인데 橫田 校長 以後는 所謂 皇國化가 始作되었다. 그래도 2學年때 太平洋事件, 4學年때 讀書會事件이 있어 卒業할 때는 110余名에서 40余名뿐이었다. 물론 咸興高普의 이제까지 卒業生이 大體로 入學當時의 半을 前後하는 것이 傳統이었으니 別로 적은 數는 아니다.

생각해보면 1學年 2學期였든지 校庭에서 朝會하면 1學年 列만 길고 上級生들은 大體로 半程度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5學年때는 바로 아랫반부터는 國防色 校服에 編上靴 신고는 各 學年이 비슷하게 列이 길었으니 아마 우리가 所謂 咸興高普로서는 마지막이랄 수도 있을 存在였을지 모르겠다.

2學年 때에는 社會主義와 數는 적지만 無政府主義에 關한 팜프렛을 配布 받았지만 잘 理解를 못 해 읽지 않았다. 3學年때부터는 아르세느 루팡全集이라든가 佐藤紅綠의 (少年讚歌, 젊은이여 왜 우느냐, 아! 옥배에 꽃을 받아서) 作品 그리고 世界文學全集을 읽기 시작했다.

꿈 많은 思春期도 咸興高普 때였고 한편 봄에는 盤龍山에 진달래 보러가고 여름에는 西湖津에 海水浴 갔다가는 저녁에는 城川江 “防川”에서 하모니카 불며 노래 부르고 가을에는 定和陵, 歸州寺에 가보고 겨울에는 城川江에서 skate 타며 놀던 浪漫的 歲月이었다.

咸興高普와 咸南中學은 우리 5學年 때 服裝의 差異에서 보듯 日本의 敎育政策의 強壓의 度數에 따른 變化를 말할 것이다. 宇垣이 總督으로 3번이나 온 것은 咸興高普가 유일한 中學이라면서 화를 냈던

만큼 橫田이 校長으로서 예전에 같은 日本人이 심어준 自由의 뿌리를 뽑느라고 무진 애를 썼을 것이다.

解放 후 1946년 3월 食糧不足에 대한 蹶起示威를 咸興의 어린 中學生들이 敢行한 것은 그 精神이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으니 앞으로도 그런 期待를 하면서 언젠가 될지 몰라도 統一이 되면 咸興高普 再建이 이뤄질 것을 祈願하는 마음 懇切할 뿐이다.

(2) 咸興高普 追憶의 토막토막들

1學年 바지저고리에 고무신, 2學年부터 스트라이크, 반달노래, 北間島는 우리 땅, 李英純先生, 헤이그 割腹事件, 五十嵐, 韓恂憲, 高橋, 金秉魯先生(綴字法), 韓憲教先生, 李冕弼, 韓祥鳳, 朱基鼎, 李觀燁, 金教完, 萬歲다리건너, 개천거리, 鳳仙花 임을 그리워서, 그림자를 그리워서, 루팡世界文學全集, 샤록홈즈, 演劇號, 城川江의 防川, 盤龍山, 西湖津, 佐藤紅綠의 (少年讚歌, 아! 옥배에 꽃을 받아서, 젊은이여 왜 우느냐) …그 咸興高普의 追憶의 토막토막 들이다.

우리 18회는 入學 때 校服 맞출 때까지 바지저고리에 고무신 신고 다니고 여름放學 끝나고 나오니 1學年만 朝會, 그 다음은 모두 스트라이크 했다. 5學年이 되니 우리만 옛 校服에 短靴, 運動靴, 帽子 쓰고 4學年까지는 國防色 校服에 帽子和 編上靴였는데 咸興高普로는 마지막 在學生이었든지 卒業生 數는 50名도 못된 것 같다.

2學年 여름放學 前이었던 것 같은데 先輩라고 紹介하면서 講堂에서 演說했는데 아마 滿洲大同學院에 다닌다고 記憶. 당시 日本이 滿洲進出에 血脈이던 때이니 承認됐을 것이다. 그분이 間島는 우리 땅이라고 歷史와 現實을 이야기하고 間島를 잊지 말라고 몇 번이고 말하고는 希望을 갖이라고 ‘반달’을 노래하는데 그 노래 그때 처음 듣고는 感激돼서 ‘鳳仙花’ ‘死의 讚美’와 더불어 平生 잊지 못한다.

1學年 때 큰 吉田이 警察이 學校에 들어온다고 하니 나가서 校門 닫고 警察을 막고는 上級生들 講堂에 불러서 訓示하던 일. 1學年 때는 漢文에 老 韓先生(韓蒙淑祖父), 習字에 文先生이 제셨는데 2學年 때 橫田峯三郎이 와서 閉止시켜 두 분이 그만 두셨다.

金秉魯先生 그분이 大端한 분이었다고 생각한 것은 解放 後다. 2學年 때부터 每年 綴字法이라며 우리말로 Print 해 주었는데 지금은 읽기도 싫고 보기도 싫거든 그냥 모아 두었다가 먼훗날 다시 보며 아이들 가르치라고 하며 모아놓으면 방대한 量의 Print를 해 주셨다.

2學年 때 小笠原先生 그 분 또한 잊지 못할 先生이다. 學校教科書는 2學期까지 끝내고 여름放學과 그 후에는 알라덴의 램프, 파이프 파이파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Print 해주고 英語는 單語暗記가 第一이라고 教科書를 暗記시켜서 그때 외웠던 것들 중 몇 가지는 아직도 記憶하고 있을 정도였다. 그분 教室에 들어오면서 Lesson Two 하던 목소리가 아직도 生生하다.

3學年때 온 英語先生은 高商 갓 卒業한 櫻井先生. 콘사이스 몇 번은 외워야 한다며 외우고는 한 장씩 뜯어서 먹어버려 콘사이스 몇 개를 먹었다는 이야기한 것이 記憶.

1,2學年 數學의 宮崎先生. 키가 아주 작고 콧수염 진했는데 그분은 高工 卒業하고 바로 갓 赴任해 와서 그 당시 數學先生이 20세 넘는 사람이 많고 아이를 둔 사람도 있었다는데 韓先生이 缺勤해서였든지 5學年에 授業하러 갔다가 “先生 귀엽다”라고 덩치 큰 늙은 學生들 소리에 겁이 나서 그 다음부터 콧수염 길렀다고 한다.

우리가 入學했을 때에는 校歌가 없어 “金剛石 云云”라는 노래로 代身했고 日本國歌는 부르지 않아 先生들 목소리만 들었는데 橫田 校長에 曹川 教務主任으로 編成되더니 (廣島高等師範體制) 校歌도 만들고 “君が代(기미가요)”도 불렀다. 우리 先輩들은 左翼全盛의 京

都의三高를志向했던 것 같다. 上級生 大部分이 社會主義를 選好했는데 소위 아나키스트도 있어 2學年 때 放課後 運動場에서 싸움이 있었는데 1,2名 밖에 없는 아나키스트가 短刀로 對應, 負傷者가 난 일도 있었다. 어쨌든 思想面이 강한 學校여서 宇垣이 3번이나 와서 廢校脅迫까지 했고 廣島高等師範體制로 結局 統制됐는데 우리가 舊時代 咸興高普 마지막 卒業生이었던 것 같다.

4學年 때는 滿洲修學旅行, 서울運動場食堂에서 처음 먹어본 라이스카레가 그 얼마나 맛있었던가. 奉天밤거리 “後美人 前吃驚”. 北大 駭가는 馬車의 車掌女人이 다보산즈 입은 아름다운 姿態. 平壤에서는 비가 와서 冷麪만 먹었는데 맛은 어쨌는지(?) 잊었다.

5學年 때는 永女 卒業마자에 朱基鼎이 가지고 즐라서 끝날 시간 10분 前인가 뛰어가서 한바퀴 돌고 나왔는데 金鏞福을 만난 것은 記憶나는데 生前 처음 女學校에 갔으니 興奮해서 어떻게 하고 왔는지 모르겠다. 眞心으로 사귀었던 친구들!

내가 그런대로 올바르게 人生觀을 갖게 되는 契機를 마련해 준 내 人生의 참된 스승은 五十嵐 先生이었다. 그이가 2學年 여름放學 때 찾아와서 나를 激勵해주고 옆길에 빠지지 않도록 忠告善導해주어 내가 學校工夫에 열심히 하게 되고 여러 가지 冊을 보게끔 해주신 분인데 끝내 感謝와 眞心을 전하지 못한 게 平生의 後悔이다!

老人의 歲月

東橋 朱 權 源 (19回)

사람들이 歲月이 덧없이 빠르게 또는 느리게 느껴지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며 나이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노년기에 접어들면 지난 세월이 너무 빠르다는 것이 실감나게 느껴지며 때로는 스스로도 놀란다.

이제 한국도 75세가 되어야 노인으로 간주되는 세상이 된 듯하다. 나이가 많을수록 지난 1주일, 지난 한달, 또는 지난 한해가 너무 빠르게 후딱 지나가 버린 것 같아 마냥 아쉬워진다.

흔히 같은 1년이면서도 10대는 시속 10km로 느리게 지나다가, 나이가 들면서 30대는 시속 30km로, 70대가 되면 시속 70km의 고속으로 지나고 만다고 아쉬워한다. 특히 노인들이 하는 일 없이 지나면 세월은 더 빠르게 지나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기에 앞에서 오는 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세월, 항우장사도 피할 수 없고, 독 속에 숨어도 귀신 같이 찾아오는 것이 나이 들이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면 좀더 당당하게 세월에 맞서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90이 넘은 노인으로서 그런 용기도 생기지 아니한다. 인생의 종말인가 생각해 보게 된다.

어린시절에는 왜 그리도 빨리 나이가 들었으면 했을까? 그때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막상 나이가 90이 넘는 노인이 되고 보니 세월의 깊이를 더 심각하게 느껴진다는 의미보다 서글픔으로 다가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마에 주름이 더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마음까지 늙어간다고 한탄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즐거움(樂)과 고독(孤獨)은 정반대의 어휘인바 노인들은 즐거움을 갖는다는 노력을 한다고는 하지만 자연히 밀려오는 『쓸쓸함과 고독』을 즐겁게 이겨내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기에 노인들은 아무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면서 황홀경(恍惚境)속에서 사라간다는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본인은 물론 주위가족들이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제일 중요한 것은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낮 11시경부터 오후 1시경 햇빛을 보면서 걷는 것이 중요한 예방법이라고 의사들은 권하고 있다. 나 자신은 이 권고를 열심히 실천하고 있다.

늙어서 종교(宗教)에 귀의(歸依)하는 방법도 내 마음의 안정을 위해 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믿어진다. 지난 2월 선종(善終)하신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의 마지막 간단한 한마디인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 하세요』라는 간단한 한마디로 그 거룩한 일생을 마치신 인간사랑의 실천이라고 숭앙(崇仰)하게 된다. 또 조계종 종정(宗正)이었던 『성철』 스님은 열반에 들기 전 임종 하실 때 『일생동안 남녀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이 수미산을 지나친다.』고 하셨지요. 종교인들의 이 사랑이나 속죄는 다 우리 인간존중의 가르침임을 알 수

있지요. 종교에 귀의 하여 내 마음의 안정을 취함은 치매예방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베푸는 마음을 간직하면 노인이라도 자연히 나 스스로가 무엇을 한다는 의욕이 생기고 적극성을 유지하게 됨으로 마음의 여유가 생겨 사회생활에 잘 순응하게 되어 노후를 지탱하기 많이 쉬워집니다. 그러기에 노후 종교에 귀의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정신력을 발휘 한다는 것이 노인 건강유지에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80세를 넘고 보면 인제 얼마나 더 살런지는 모르나 하느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또 부처님의 자비를 믿음으로 천국이나 극락세계로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함도 우리 노인들에게는 현명한 노후생활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한다.

늙어감에 따라 기억력의 감퇴가 심해짐을 누구도 느끼게 되며 다른 사람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고 금시 한일도 모를 때가 있으니 머릿속에 있던 기억창고가 고장난 듯하게 느껴지는 것도 늙어가는 증거이지요. 물건을 옮겨 놓고 어디다 두었는지 갈팡 질팡 하는 것도 늙은 탓임을 부정할 수 없지요.

많은 선각자들은 늙어도 주위에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자주 대화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일 행복한 것은 늙어도 부부가 함께 동고동락함이 최상의 행복이지요. 프레임의 저자 최인철 교수는 삶의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긴밀한 관계를 맺은 그 누군가가 주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놀라운 통계는 배우자가 사망한 후 일주일 이내에 남은 배우자가 죽

는 확률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나 높다 한다.

얼마 아니 남은 우리 동창들 지혜롭게 여생을 즐기시고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매번 회지에 기고하였습니다만 이번 원고가 마지막이라 생각되어 읽어주신 동창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9. 5. 29

서울의과대학 동창회관 702호에서

꿈 (1)

金 興 洙 (20回)

누가 나를 선인이라 했소.
보슬비 내리는 밤거리…… 빠리는 고요히 잠자고
노스탈지에 잠긴 나의 명상 속에서
고국의 아가씨는 불안에 잠긴 눈동자로 호소하오.

허영과 탐욕과 중상에 얽매어
피투성이가 되어 춤추는 무리
살인·강도 그리고 자살……
풍부했던 옛시인의 주제와도 같이
악의 꽃으로 장식된 회고의 날
어제…… 그제…… 그리고 그 전전날.

그것은 화려한 꿈이었다고 해두어요.
내 가슴을 졸이듯
추억속에서 아가씨는 구슬피 울고
꿈자리 사납다고 말하는 어머니와도 같이
애달픈 심정을 고하는 적막……

오! 내가 좋아하는 그 옛시인은 말했을 것이오.

제1의 아가씨가 울고 있소

제2의 아가씨도 울고 있소

제3의 아가씨도 울고 있소

해가 바뀐 오늘 나는 그의 말을 편곡하는 꿈을 꾸었소.

제1의 아가씨가 웃고 있소

제2의 아가씨도 웃고 있소

제3의 아가씨도 웃고 있소

누가 나를 선인이라 했소.

빠리는 잠자고 보슬비는 아직도 내리고 있소.

1957년 빠리에서

어느날의 日記(2)

정지된 時間의 그림자가
로봇트를 흘겨보고 지나간다.

말뚝을 박아라...
가루가 되어 흐트러진 꿈이
남시에 걸려 허우적 거리면
나는 노래가 되어
밥상 위에서 춤춘다.

꿈에 포승을 쳐라.
남시대를 꺾어버리고
로봇트가 울고있다.
아이도 울고있다.
멍어리도 울고있다.

정지된 時間의 그림자가
로봇트를 흘겨보고 지나간다.

저녁노을을 삼키고

모랫바람이 불면
말뚝이 쓰러지고
로보트가 웃는다
아이도 웃는다
병어리도 웃는다.

내일은 그름이 되어 안된다오
모레는 초하루가 되어 안된다오
글피도
그 글피도
모두가 뒤틀리면
꿈에 포승을 치고
말뚝을 박아라...
말뚝을 박아라.

(88년 5월 1일)

멋진 통곡(1)

이 기 형 (20회)

‘낮에 짜면 일광단이요
밤에 짜면 월광단이라’
옛 삶은 멋졌구나
오늘 세상이 뽀뽀해
멋과 흥은 어디로 갔나요
선(線)이 흐르는 기와지붕
흐르다 오뚝 치켜 선 막새
한옥의 멋과 흥은 가물가물
아파트 깡마른 네모 벽만 솟아
노들 강변 휘휘 늘어진 실버들
천안 삼거리 머리 풀은 능수버들
멋과 흥은 어디여
속도에 밀려 찾는 이 없어라
놀이못 물길 꽃 이파리에 술잔을 띄워 놓고
멋과 흥을 읊조리던 풍류는 흔적 없고
달라와 권세에 핏대만 올려
나운규는 아리랑고개를 한과 흥으로 넘었거니
청바지들은 박달재를 꼬부랑 혀로 출랑대며 넘누나

황진이 서경덕, 한우 입제, 사랑의 멋과 흥은
녹수에 흘러갔다
꽃사랑만 사고 팔아

봄풀은 세세연년 푸르건만
가신 님 첩첩 백발에도 돌아오질 않아
분단고개를 멋지게 통곡하지 않고야
어찌 시인일까
못 가슴 꽃보라 울림으로
잃어버린 멋과 흥을 되돌려 봐야

- 2008. 7. 4 서울 상서로운 풀골에서

떡잎(2)

아내가 보시기에 고구마 한 개를 놓고 물을 부어
가을 내내 놔 두었다
아침마다 일과처럼 물을 갈아 주었다
줄기가 여섯 가닥이 돌아나면서 푸른 잎새도 싱싱 생겨
보시기 위에서 제법 생명력 푸른 잔치가 벌어졌다
동짓달이 거의 갈 무렵엔
푸른 잎파리가 누렇게 변색하면서 하나 둘씩 떨어져
양상한 줄기가지만 남았다
쌀쌀한 계절의 힘에 겨워
생명력의 종말에 이른가보다 했다
그래도 호기심과 기대로 물을 계속 갈아 주었다
어느 날 아침, 이견 웬일
말라가던 줄기 한 가닥에서
떡잎 하나가 파랗게 뽀족 얼굴을 내밀지 않는가
놀라워 감탄했다
물 준 보람이구나 신이났다
선달 중순도 지났건만 떡잎은
여전 푸르게 악전고투하는 눈치다
오늘 2007년 12월 19일 대선 선거날 아침에도

새싹을 바라 물을 갈아 주었다
 떡잎은 보들보들 떨고 있었다
 대한민국을 죽이느냐 살리느냐의 심정으로
 한 표를 던지고 돌아와 돌아난 떡잎 앞에 섰다
 내 어머니에게 계속 생명줄을 대 주십사
 애원하는 눈빛이 역력했다
 떡잎의 부활
 우린 패배하지 않았어! 투표자가 졌을 뿐이야
 유권자의 부활
 세상 만사 바로 살리고자
 널 널 널니리야 날닐리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외세를 걷어차고
 삼팔선 고개를 넘어간다
 사랑아 손길을 다오 싸움을 흥겨웁게 펼치자
 낙동강 백사장, 두만강 기암괴석,
 어라연, 삼지연 거울 얼굴
 그 어디쯤에선가 하늘이 터지는 절박한 역사의 순간
 우린 꼭 얼싸 안아야 한다
 그때까지 알뜰히 생명수를 부어 주는 게
 역사의 부활
 산 자의 도리가 아닐까

- 2007. 12. 19 서울 상서로운 풀골에서

70년전 이야기(1)

주진순 (21회)

나는 지금부터 70년전인 1939년 3월 7일에 함남중학교(咸南中學)를 졸업하였다. 1934년 4월 1일에 함흥공립공등보통학교(咸興高普)에 입학하였다. 이해 신입생부터 교복과 교모는 그전과는 달리 새로이 사시사절(四時四節) 황초록색(국방색=國防色)으로 일본의 본격적인 전쟁준비-군대체제화(軍隊體制化) 교육의 시작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래도 교과내용은 영어교육(英語教育)도 충실하였고, 조선어(朝鮮語), 조선어한문(朝鮮語漢文)이라는 과목의 수업도 졸업할때까지 계속 이루어졌다.

함흥고보는 요고다(橫田) 교장을 비롯하여 일본 광도고등사범학교(廣島高師) 출신 선생님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으나 그 외에 매우 우수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다. 입학했을 당시 영어(英語) 선생으로는 사구라이(櫻井), 하야가와 루이(후에 청주고보 교장으로 전임)라는 분들이, 그후에는 이시가와(石川, 후에 함흥중학 교장으로 전임)와 검정시험(文檢) 합격으로 중학교영어교사로 된 우찌다(內田)라는 우수한 선생이 열심히 우리 영어교육에 수고하신 덕분에 함남중학생의 영어실력이 만만치 않았고 상급 전문대학교에 다수진학(進學) 한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믿는다. 물론 수학(數學)에는 한순현(韓詢鉉) 선생님과 니시사가(西阪, 文檢合格) 선생이라는 우수한 실력을 지닌

선생이, 국·한(日語, 日語漢文)에는 다가하시(高橋, 文檢合格) 선생이. 물리, 화학에는 나가다(永田, 日本九州帝大卒. 후에 만주 新京工大 教授로 진출) 선생이 담당하셨다.

함흥고보-함남중학의 학생들이 모두 심한 입학시험경쟁을 겪고 입학한 우수한 인재들이었고 교육에 전력해 주신 선생님들 또한 매우 우수하신 분들이어서, 경기중(경성제1고보) 평양2중(평양고보), 경북중(대구고보) 등과 더불어 조선4대명문중학교임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다.

우리 21기 졸업생은 개교이래 처음으로 4학년수료로 경성제국대학(城大)예과에 2명이 합격하였고, 전체 86명 졸업생 중에서 경성제국대학예과에 23명, 일본고등학교:(동경고, 사가고, 야마구찌고, 제7고 등)에 각 1명, 경성의학전문에 3명, 평양의전 1명, 동경의전 1명, 경성고공 3명, 경성고상 1명, 경성법전 1명, 수원고농 2명 등 60여명의 전문 대학에 진학하였다.

이보다 앞서 1938년 여름에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사 주최 일본전국 중학교 야구대회(갑자원대회=甲子園大會) 조선-함경남도 대표선발대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우리 함남중학교 야구팀이 우승하여 경성(京城)에서의 조선중학교 대표 선발대회에 출전하였다. 비록 1차전에서 졌지만, 함남중학이 운동경기에서도 우승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었다. 또 이해에 처음으로 일본국책으로 중학생들을 강제로 근로봉사(勤勞奉仕)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을 7월 중·하순 여름방학 직전에 강제(強制) 노역(勞役)에 약 2주간 동원하였다.

나는 함흥고보 4학년 여름에 늑막염(肋膜炎)에 이환되고 5학년 가을에 객혈(咯血)하는 등 불치병이라는 폐결핵(肺結核=소위 肺病)으로 해서 학교성적도 부진했고 건강도 좋치 못하여 상급학교 진학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집에서 요양해야 하는 처지였다. 1939년 3월초에

함남중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할일없이 빈둥거리며 소일한지 약 3주간이 되었을 무렵 나와 같이 진학 못하고 있는 친구들 소문으로 함경남도 학무과에서 금년도 중학교-여학교 졸업생으로 국민학교 교원희망자를 모집하여 4주간 국민학교 대용교원(3종훈도=준교사)임용 강습교육을 실시하니 희망자를 모집한다는 것이었다. 내 건강이나, 내 병이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것인지에 대한 개념이나 심각성이 전혀없이 이에 응모하여(남학생 약 30명, 여학생 약 20명)하여 4주간 초등학교 교사로서의 상식적이며-형식적인 교육을 마치고, 형식적인 3종훈도 자격시험을 치르고-합격하였다.

그러나 소학교교원 임용 발령을 받으려면 요식행위로 여러 가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의사의 [건강진단서]가 문제였다. 흉부X-선 사진에 “폐결핵음영”이 뚜렷하니 [건강진단서]를 써줄 의사는 아무도 없었다. 친척인 공립의원 원장님은 저를 위해 타 이르듯이 “건강한 사람도 힘든 소학교 교원을 2,3년 하다보면 건강을 해치고 폐병에 걸리는 경우가 허다한바 지금 너의 건강이 좋지 않으니 집에서 요양하는 길이 최선이라” 하시며 극구 말리셨다. 하는 수 없이 함흥도립병원 내과의관으로 계시는 최해봉(崔海鵬) 선생님(家兄 주익순의 京城醫專 동기생)께 “집에서 요양해도 폐병으로 죽을 것이 뻔하고, 소학교 교원이 되어도 죽을 위험이 있다면 교원이 되는 소원(所願)이나 풀어보고 죽었으면 하오니” “건강진단서”를 써주기를 간청했다. 최선생님은 장고(長考) 끝에 “정 그렇다면 써줄터이니 후에 만일 교원생활로 건강이 더 나빠져도 나를 원망하지 말라고”고 하시면서 “건강진단서”를 써주셨다. 이 서류를 그날로 도학무국에 제출하여 수속이 완료되어 소학교 3종훈도(준교사)로 임명, 발령되었다. 임지(任地)는 함경남도 신흥군 영고면 당복리 [영고공립소학교=永高公立小學校]였다.

1939년 5월 3일에 발령통지서를 받은 다음날 곧바로 부임하였다. 서함흥역(西咸興驛)에서 오로리역(五老里驛), 천불산역(千佛山驛), 신흥역(新興驛), 동흥역을 지나 종점 송흥역(松興驛) 직전인 경흥역까지 약 50km 거리, 승차시간 약 3시간이며, 경흥역에서 하차하여 걸어서 고개하나 넘어 약 4km 되는 곳에 영고소학교가 위치하고 있었다.

학교 뒤로 산을 끼고 앞-남북 폭2-3km, 동-서로 길이 약 20km의 긴 기름진 계곡 평야-농지 그 남쪽으로 가파른 산아래 수량(水量)이 풍부한 남강(南江, 城川江의 지류)이 흐르는 공기맑고 물 좋고 풍요롭고 인정 두터운 고장이었다. 두메산골인데도 밭(田)보다 논(畓)이 많고 농촌경제 사정이 비교적으로 부유하여 초가 하나 없이 모두 기와집 부락들이다.

이곳에 정착한 날부터 저는 식욕이 좋아지고 잠 잘자고 지병(持病)에 대한 근심걱정은 잊어버리고 교원생활에 몰두하며 즐거운 나날을 보냈다. 이리하여 만 3년 10개월간의 영고소학교의 교원생활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고 1943년 4월에 경성의학전문학교(京醫專)에 입학-수학하여 1947년 7월에 서울대학교의과대학 전문부로 졸업하여 의사(醫師)로 되어 의료인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지금도 “폐결핵”이라는 질병은 난치병의 하나이다. 나는 다행히도 결핵치료약은 전혀 쓴 일 없이 공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은 고장에서 잘 먹고, 마음 평안히, 정신적으로 쾌적한 생활을 이어나온 덕택으로 난치병인 폐병이 완치되고 생명이 부활되어 지금도 건강함은 오로지 영고면(永高面), 영고학교라는 [나의 제2고향] 덕분으로 그 고마움과 신세진 그 고장을 잊을 수 없다. 영원한 그 고장!! 내 생명을 부활시켜준 高山땅 영원하리!!

2009. 5. 5. 어린이날에

세계적인 수학자 이임학(李林學) 형을 그리워하며(2)

나는 1934년 4월 1일 함경남도 함흥공립고등보통학교 제1학년 신입생으로 입학하여 이임학 형과 동급생으로서의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는 함흥 제1공립보통학교 6학년을 나는 함흥 제2공립보통학교를 각각 졸업하고, 그 해 제법 경쟁이 심한 입학시험에 합격, 입학한 어린학생들이었다. 특히 입학생 100명 중 그는 100번째 나는 95번째로 가장 키가 작은 축에 속했다. 또 그는 학교에서 동북방향으로 약 5km 거리의 농촌에서, 나는 남쪽방향 약 5km의 농촌에서 매일 도보로 등·하교하는 사정이었다. 경제적으로 다소 여유 있는 함흥시 근교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은 대개 자전거로 통학하였지만, 이형이나 나는 도보로 보통학교 6년, 중학교 5년, 도합 11년간을 매일 왕복 10여km를 도보 통학해야만 했던 비슷한 처지였다.

입학 1개월이 지난 5월 1일은 “May Day”로 이날을 기하여 우리 상급생들이 “조선독립만세…” 등의 구호를 부르며 동맹휴업(휴교)을

감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수업은 전폐되고 학내 여기저기에 경찰, 헌병 그리고 사복형사들이 설치며 분위기가 매우 삼엄하고, 교실, 사무실, 도서실 등은 모두 폐문되어 멋모르고 등교한 신입생인 우리 병아리들은 물론 많은 상급생들도 사정을 모른채 어리둥절하며 운동장에서 서성대는데 두 시간쯤 후에 교무주임 선생과 어떤 경찰 간부가 나타나서 아무 설명 없이 “경거망동 하지 말고 집에 돌아갔다가 내일 아침에 등교하라”며 반강제적으로 해산, 학교를 당했다.

이는 3.1 민족운동, 광주학생사건 등 반 일제항거운동의 최종적인 일환으로 보여지며 함흥고보에서는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와 유사한 맹휴(盟休) 사건으로 해서 우리 상급생 중 그 주모자로 지목된 학생이 많이 퇴학당하여 각 학년 재적생 수는 5학년이 20여명 4학년이 50여명 정도였다. 그 해 이 사건 후 한달 조금 넘어 6월 중순 매우 더운 날 오후에 조선 총독 우항일성(宇恒一成)이 기차 편으로 경성에서 함흥에 도착한 막바로 함흥고보에 내교하여 학생, 교직원 전원과 함경남도 도지사 및 그 간부, 경찰, 헌병대 간부 함흥 부윤(시장) 등을 교정에 집합시켜 총독 자신이 매우 과격하고 심각한 어조로 경고 연설을 하여… “또 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는 영원히 폐교할 것이며 주모자와 그 학부형까지 엄벌에 처할 것이며 관계 기관장들도 엄히 문책할 것이다”라고 외치니 요코다(横田 峰三郎) 교장이 나아가서 머리 숙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명을 바쳐 예방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라고 엎드려 맹세한 바 있다. 이날 이후 많은 선배 학생들이 주모자로 지목되어 퇴학당하고 학교의 제반 규율이 매우 엄해져 학생들은 자유없는 수용소 같은 분위기 속에서 오직 공부에만 전념하는 기풍이 생겨났다. 그리하여 이해 2학기부터 4, 5학년생들은 공동으로 상급학교 입학시험 실력향상 목적의 교내 실

력테스트 모의시험(영, 수, 국한(일본어 및 한문) 3과목)을 매 3개월마다 실시하고 그 성적을 공개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실력향상을 꾀하였으며 이 제도는 그 후 오래 계속되었다. 우리는 그저 열심히 공부만 하였고, 3, 4년 후 우리가 4학년, 5학년이 되었을 때 그 성과가 여실히 나타났다. (4년 수료로 2명이 5년 수료로 3명이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합격하였고, 또 5년 수료로 일본 고등학교 4명이 관공립전문학교 - 경성의학전문학교 3명, 평양의학전문학교 1명, 경성고등공업학교 2명, 경성고등상업학교 3명, 수원고등농업학교 2명, 경성법전 1명 등 86명 졸업생 중 그해에 약 3분의 1이, 그 후에 또 3분의 1이 상급학교에 진학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취직하였다.)

우리가 5학년이 된 1938년 4월 1일부로 학교명이 함남공립중학교(함남중)로 개명되어 함흥고보로 입학하고 함남중학으로 졸업하였다. 이입학 형은 1939년 3월에 함남중학 5학년을 1등으로 졸업하고 그해에 경성제국대학 예과, 이갑(理甲; 이공계)에 입학하여 순조로이 수학하여 1944년 9월에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 물리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졸업 후 곧바로 만주 봉천시(지금의 중국 동북부 심양시)에 있는 화신산업계열의 항공회사에 취직했다가 1945년에 일제가 제 2차대전에 패망하기 직전에 함흥에 귀향하여 8.15 해방을 맞이하였다. 얼마간 체류하다가 1947년 초에 모교인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직(전임강사-조교수)에 있다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생하여 그해 말에 부산으로 피난하여 1953년에 캐나다 밴쿠버 시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UBC)에 유학할 때까지 부산 전시연합대학에서 수학교수로 수고하였다.

나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건강이 안 좋아 함경남도 두메산골에서 4

년간 초등학교 교원 생활을 하다가 건강이 회복되어 1943년 4월에 경성의학전문학교에 입학, 1947년에 졸업하고 곧바로 국립화학연구소에서 식품, 영양고학 연수를 한 뒤 1950년 3월에 국립부산수산대학교 교직원으로 부산에 있었는데, 1951년 가을 어느날 부산 시내 길거리에서 우연히 이임학 형을 만났다. 중학 졸업 후 12년만에 재회이니 얼마나 반가웠는지 참 감개무량하였다. 이 후 그가 캐나다로 떠날 때까지 2년여 동안 가끔 만나 그의 노총각 피난생활의 외로움을 다소나마 달랠 수 있었다.

그는 USC에서 가진 고난을 이겨내 Ph. D. 학위를 받고 미국 동부의 Yale 대학에서 Post Doc. 연수 후 다시 밴쿠버에 돌아와서 UBC의 수학과 교수로 - 한 때 한국 영사관에 의해 여권을 몰수당하고, 무국적자로 되어 유형, 무형의 정신적, 경제적 수모와 괴로움을 이겨 넘으면서 - 연구에 몰두하여 천신만고 끝에 캐나다에 정착하고 급기야 “Rec 군”이라는 새로운 군을 발견하여 전 세계 수학계에서 인정받는 대수학자로 추앙받게 되었으니 참으로 기쁘기 한이 없다.

1953년 부산에서 작별한지 22년이 되는 1975년 8월 17일~29일(13일간) 태평양과학협회대회(Pacific Sciences Association Congress)가 밴쿠버 UBC에서 개최되었다. 이 학술회의에는 한국에서 이태규, 현신규, 손치무, 강영선, 이민재, 전풍진, 김옥준 등 대한민국학술원 회원과 7, 8명의 중진 과학자가 참가한바 대부분이 이임학 형의 옛 서울대학교 동교 교수들이었다. 필자도 함께하여 이임학 형과 옛 정을 나눌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학회 기간 중 하루 저녁에 이임학 교수가 한국에서 온 학회참가자 전원을 자택 만찬 파티에 초청한 바 대성황을 이루어 이 교수와 그 부인의 수고가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모두들

깊이 감사하면서 옛날 회고담에 밤이 깊어감을 모르고 즐겼다. 그러나 이런 즐거운 뒷면에서 한국말을 못하는 이 교수의 부인 Rhoda 여사는 외톨이 신세가 되어 매우 적적해 하심을 눈치 차린 나는 혼자서 그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니 참 다행이었다. 그는 처음 이 교수를 사귀게 된 옛 이야기부터 지금의 가정생활을 많이 이야기해 주었다. 자기가 의예과 학생 때 이 교수가 수확 강의 담당교수였는데 그 때 이 교수가 상당히 오랜 기간 열렬한 구애를 하였는데 자기가 잘 응대하지 않으니 자기 아버님을 설득하여 마침내 아버님이 자기에게 “이 교수는 동양인이니 백인보다 좋지 않느냐!! 또 유망한 학자이니 신랑감으로 적격 아닌가?”하며 설득함에 겨역 못해 “다시 생각하고 사귀어보니 호감이 싹트고 정이 들게 되어 마침내 결심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는 우리가 결혼한 후에는 연애할 때의 로맨틱한 정열은 찾아볼 수 없으리만큼 공부와 연구에만 열중하고 가정생활이나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 같다”고 농담 같은 어조로 이 교수의 연구와 공부 일변도의 생활 철학에 대하여 존경하면서도 다소 섭섭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하는 아름다운 심정을 알 수 있었다.

1975년 가을 캐나다에서의 PSA 학회를 마치고 돌아온 얼마 후에 나는 서울 장충동에 계시는 이임학 형의 어머니 댁을 문안차 찾아뵙고 이임학 형 내외 분의 안부를 전했다. 어머니는 이임학 교수에 대한 이야기는 제쳐놓고 며느리 Rhoda 여사의 시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심, 효행을 감회 어리게 극찬하시며 남편 이임학에 대한 헌신적 내조를 태산 같이 자랑하셨다. 위대한 업적을 이룩한 이임학교수의 영예의 그늘에는 Rhoda 부인의 큰 도움이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음을 새삼 느꼈다.

또 1985년 8월 하순에 이임학 교수는 모교 서울대학교와 대한수학회 특별초청으로, Rhoda 여사는 같은 시기에 서울 워커히 호텔에서 개최되는 세계여의사대회에 참가차 두 분이 같이 서울로 온다는 전갈에 접한 바 마침 워커히 콘도 회원으로 그 객실, 시설의 무료이용권의 여러 장이 있었기에 그분들이 약 2주일간 무료로 그 콘도 시설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서 매우 보람있게 느꼈다. 그러나 나의 불찰로 그분들의 서울에서의 일정을 잘 깨우치지 못해서 그 이외의 접대나 관광 등 좀 더 다정하고 따스한 우정을 나누지 못하고 모처럼의 두 분의 서울 나들이를 허송한 아쉬움은 돌이킬 수 없이 후회막심한 통한지사로 못내 잊을 수 없다. 더욱이나 그 후 그 두 분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내외를 밴쿠버에 내유하라고 초청하였으나 운이 닿지 않아서 그분들의 호의에 응답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러 이임학 교수의 타계소식을 접한지 오래건만 무심히 허송세월 하고 있으니 나는 참말로 무능한 범인임이 한탄스럽다.

세계적 위대한 수학자 이임학 교수는 가셨지만 그가 이룩한 위대한 학문적업적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번에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이 교수가 봉헌된 일은 늦게나마 대한민국정부가 이임학 교수의 세계적인 위대한 업적을 확인하고 만방에 그리고 영원히 선포-봉헌함은 고인이나 그 유족은 물론이고 한국 수학자들이며 그분의 친지들에게 더없는 영광스러운 처사라 하겠다.

못난 옛 친구 주진순 또한 기쁘기도 하지만 한없이 애통합니다. 형의 명복을 빕니다.

(2006년 대회일(大晦日)에)

크리스천 세계선교센타

全 明 洙 (21回)

서울시 이문동에서 살고있을 때 서울 성락교회에 처음나가게 되면서, 10년이 지나도록 예배에 참석했고, 성찬식에도 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평에 와서는 예배만 참석하던 차 가평교회의 헌신예배가 원주교회에서 2009. 5. 21 헌신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원주교회에서 생각지도 못한 단임감독 김기동목사님을 만났기에 감사인사 했더니, 목사님은 저를 기억하시고는 ‘건강하다’며 칭찬하셨습니다.

함흥고보(한남중학) 동창총회가 2009. 5. 29 프레지덴트호텔에 예정되어있었기에, 참석차 지나던 시청앞 광장은 노무현전대통령의 7 일째 사망추모제로 하여, 그 넓은 시청앞 광장은 빈자리가 없습니다.

저는 예정된 동창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프레지덴트호텔 31층에 올라갔었습니다. 총회가 시작되면서 동창총회장은 아무 예고도 없이 제 이름을 부르며, 일어서게 하시더니, 100여명이나 모인 동창회원에게 ‘21회 졸업한 91세되는 사람’이라고 소개해주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술담배를 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답례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전도하려는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가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흘리고 극심한 고통을 받으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죽

은 아들을 보시고 부활하게하시고 하늘에 올라가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가 죽음으로서 우리 인간들의 죄 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주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으므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마귀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면서 마귀에게 속고 이용되면서 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한 기도를 하면서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귀신들이 가져오는 각종 질병, 갖가지 불편, 고통등을 안수 받고,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 김기동목사님은 성경말씀대로 환언신앙생활교육을 하는 교회임으로 베뢰아운동으로 영적 지도자를 이미 만명을 넘게 양성하시고, 온세계 각 나라 각 지역에 가서 헌신봉사하고 전도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임감독 김기동목사님은 십년 이십년전에 기도하고 강구하신 크리스천세계선교센터의 건축이 완공되어서 2009. 5. 23 입당감사예배를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하여 크리스천세계선교센터 건축을 장기간 아무 사고없이 완공하게하시고, 성락교회 단임감독 김기동목사님께 주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완공된 크리스천세계선교센터는 지하6층 지상13층으로 대지면적 $10,303m^2$ (3,116평) 연면적 $77,195m^2$ (23,458평) 최고높이 65.3m로 건축되어있고, 이면주차를 포함할 경우 1500여대까지 주차수용 가능하고, 지하3층부터 지하1층까지의 대예배당에는 1만 5000명이 동시에 예배드릴 수 있게 건축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리운 山河 그리운 中學時節

金 禧 庚 (22回)

2月初 京畿道 楊平에 다녀오다가 날이 저물어 서울에 들어와 大峙洞의 한 飲食店에서 家族들과 夕食을 하였다. 食事後 나오다가 壁에 붙은 食單 說明文을 보고 놀랐다. ‘가릿국’에 對한 說明이다. 그 前에 咸興엔 ‘가루국’이란 飲食이 있었는데, 說明인즉, 咸興 盤龍山 근처의 飲食으로서 맛 좋고 營養分이 豊富하며 이 調理法의 命脈을 오늘날 잇고 있는 사람은 3,4名 밖에 안된다고 한다. 나는 半世紀만에 맛본 셈이다. 그 前에 李在亨 先輩(이장호 監督의 父親)로 부터 越南한 人士 한분이 가루국 집을 냈으나, 제맛을 내려면 採算이 맞지 않아 그만두었다는 말을 들었던 일이 있고, 우리 同期인 유형은 學窓時節 가루국을 종종 愛用하였는데, 主人집 아주머니가 가끔 만들어 人心 좋게 豚肉을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듬뿍 넣어 맛있게 먹었다는 자랑도 들었다. 나는 집에서 고깃국을 끓여주는 일이라도 있으면 국물을 먼저 마시고 국물이 거의 없어지고, 밥과 같은 높이가 되었을 때 고추장을 비롯한 양념을 넣고 비벼 먹는 것이 가루국 먹는 방식이라고 자랑을 한다.

三·一節에 다시 그 집을 찾아 主人을 빌려고 하였으나 不在中이라고 한다. 壁에 女學生 5名이 찍은 寫眞이 걸려있어 ‘함흥제1여고 시절’이라고 써있다. 나의 記憶으로는 그런 學校가 없었던것 같은데,

異常하여 가까이 가보니 寫眞背景에 높은 城門같은 建物이 보여서 아마도 九天閣 같았다. 山 頂上에는 다른 큰 建物은 없었으니까 主人은 解放後에 卒業한 분이 아닌가 한다. 나오다가 看板을 보니 ‘반룡산’이라 써 있었다. 우리 22회 졸업 앨범 뒷면에 10年後에 다시 九天閣에서 만나지는 문구가 머리에 떠올라 옛 時節이 그리워졌고, 집에 돌아온 나는 咸興周邊 山川과 지난날 中學時節의 追憶에 잠기게 되었다.

봄날에 우리 學校 校門을 들어서면, 兩쪽에 활짝 핀 벚꽃, 本館앞 老櫻木이 흐드러지게 꽃을 피운 光景은 그야말로 壯觀이었다. 그리고 盤龍山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키다리 아카시아 울타리 사이로 나르는 꽃 香氣를 맡으며 축구하던일 ‘징공’ 崔仁根兄의 冷麵을 나무 젓가락에 돌돌 말아 순식간에 먹어 치우던 妙技(?) 등의 追憶이 모락 모락 떠올랐다. 요즘은 집앞 公園의 人造잔디 運動場에서 축구공을 한 망태기 메고 와서 靑少年을 볼때, 지금은 뒤에 앉아서 求景만 하고 있지만, 나도 한때는 運動場 안에서 뛰었던 時期가 있었다고 自慰하는 일도 가끔 있다.

말사당(馬祠堂)은 盤龍山頂 가까이 골짜기가 있어 친구들과 같이 놀러간 일이 있는데, 따뜻한 봄날이 되면 버들강아지가 피는 아늑한 곳이었다. 李成桂가 젊은 時節 弓術訓練을 할때, 自己말을 보고, 네가 화살보다 빨라야지 늦으면 목을 베겠다고 하며, 활을 쏘고 말을 달려 目的地에 到着하였으나 화살이 보이지 않아 그만 말목을 베어 버렸는데 그때야 화살이 앞쪽에 꽂혀 그는 매우 後悔하여 愛馬의 鬃을 달래기 위하여 사당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傳해 온다고 한다.

定和陵 低學年때 學友들과 놀러간 일이 있었다. 定陵은 太祖 李成桂의 父親인 桓祖(追尊)의 陵이고, 和陵은 桓祖의 妃인 懿惠王后的

陵이다. 陵의 뒤쪽 松林 사이에 그 時代로서는 보기 드문 벽돌집이 보이며 마당에 크고 넓은 나무잎이 바람에 하늘거린다. 생전 처음 보는 風景이다. 마치 桃源境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好奇心으로 가까이 가보니 한 中年婦人이 나와 ‘問福하러 왔는가?’고 물어왔으나 그 뜻을 몰라 어리둥절 하였는데 뒤에 들었지만 ‘占치는 집’이라고 한다.

萬歲橋 다리밧기 正月 대보름날에 둥근달이 환히 뜨면 善男善女들이 먼곳에서까지도 모여들어 한 해의 無病壽福을 祈願하며 다리밧기를 한다. 3번 往復하면 厄運을 免한다고 하여 우리도 친구들과 같이 “옛”을 사 들고 먹으면서 거닐었는데, 지금도 달은 그 것처럼 萬歲橋를 환히 비춰주겠지…

盤龍山에 올라 赴戰湖쪽으로 누렇게 익은 논 사이를 달리는 汽動車를 보면 성냥갑 같은 작은 車가 마치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가는것 같아서 귀엽기도 하여서 슬그머니 웃음이 터졌던 일도 생각한다.

咸興差使의 본고장 本官

興南에서 汽動車 通學을 하다보니 하루 두번씩 그 쪽을 바라보며 지나게 되었다. 建物 앞에는 一直線 긴 道路가 나 있으며 그 兩쪽에 수양버들이 나란히 서 있었다. 그 사이로 금방이라도 어미말을 그리워하는 새끼말의 애달픈 울음소리가 들려 오는듯한 情景이다.

校內生活에서의 追憶談 몇 가지만 들면, 點心時間 食後 남는 時間이 지루하게 느낄때는 유모아 感覺이 남달리 뛰어난 조그마한 體軀의 崔九潤君이 特技를 發揮한다. 卽 금방 入學한 新入生을 보고 ‘아도(後) 고(5)넌다 간빳(頑張)때오꼬’(某先生의 名談이라나) 그리고 黑色表紙의 기다란 出席簿를 들고 教室에 들어온 H先生은 일일이 呼名하는 것이 귀찮았던지 ‘교오(今日) 겻세끼(欠席)시따모노 데오아게’

그리고 나서는 ‘라이슈(來週)노 긴요비(金曜日)와 난요비까.’ 한바탕 웃을때 授業始作을 알리는 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면 다시 조용해진다. (믿거나 말거나) 가다뽕 같은 그 時代의 生活 속에서도 이러한 유모아는 한줄기 생물 같이 우리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는것 같았다. 우리들은 崔君에게 ‘챗프린’이라는 愛稱을 鄭重히 贈呈(?)하였다. 道國語時間에 先生한테 야단맞은 한 친구는 억울하였던지 讀本을 읽으라는 指名을 받고 일어서서, 도니가꾸(兎角)을 ‘우사기니 쯔노’라고 천연스럽게 읽어대었다. 모두 웃음보따리를 터득했던 것은 勿論이다. 運動會날은 手旗信號 가운데에 物品을 놓고 서로 마주보고 一列橫隊로 서서 始作 호각소리가 나면 信號한 物品을 뛰어가서 가져오는 教練의 一種이었다. 그런데 영리(?)한 친구들은 미리 서로 짜고, 가령 受信者의 右側3번째 物品이라면, 右足を 3번 흔들여 준다. 이리하여 시작을 알리는 호각소리에 手旗는 펄럭거리는데 信號가 끝나기도 전에 뛰어나가는 바람에 白井教官이 몹시 당황해 하던일 등등.

스케이트 타기

추운 겨울날 우리가 下校한뒤, 廳夫아저씨들이 校舎西쪽 테니스코트에 水道물을 뿌려두면 밤 사이 얼어서 다음날이 되면 멋진 빙판이 된다. 우리는 點心時間에 여기에 나가 스케이트를 즐겼다. 그리고 때로는 겨울體育時間엔 城川江에 나가 잘 얼어붙은 自然 빙판링크에서 마음껏 運動을 하고 나서는 일단 集結하였다가 그 자리에서 解散하고 歸家하였다. 그 넓은 빙판을 달리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서 스트레스 같은 것은 말끔이 날아가 버리고 만다.

아아! 지난날의 아름다운 追憶이여.

국적포기

유 병 천 (25회)

내가 한남중학을 나와 일본 동경의 제일 고등학교에 진학한 것이 1943년이었으니 지금부터 66년전 일이다. 입학식을 마치고 첫 수업 시간에 담임선생의 권에 따라 우리 반 42명은 자기소개를 시작했다. 내 차례가 왔기에 “조선 출신” 말고 당시 관습대로 “반도 출신” 아무개라고 짤막한 인사를 하니 “자긴 조선 경성 태생”이라고 뒷자리에서 터져나오는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뒤따른 설명인즉 그는 때마침 청량리에 개설된 경성제국대학예과 중국 고대철학 교수로 부친이 부임하여 온 바람에 경성에서 출생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물론 나와는 달리 규슈에 본적지를 가진 어엿한 일본인 학생이었으나 다같이 조선이라는 한 고장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로써 그날 그 자리에서 맺어진 우리 두 사람의 우정은 오늘날까지 아무런 변함없이 계속해왔다. 지금도 동경에 가면 그 친구 집에 묵고 그러면 그는 이젠 반박에 안 되는 동기들을 소집해 나를 맞아준다. 부친의 대를 이어 중국사상 전문가로 많은 저서를 발표해왔는데 권말에 나오는 저자 약전은 항상 “1925년 조선 경성에서 출생”이란말로 시작되고 있다.

나 또한 국경을 초월한 우정을 다룬 중편소설 “바다의 소리”(1974)

에서 일본인 여성으로 하여금 말하게 한다. “전 늘 그 청진을 제 고향이라고 해요-- 그럴 수밖에 없잖습니까. 사람이 타고난 곳이란 하나 밖에 없으니까.” 이 말의 발상이 과연 어디서 비롯한 것인가는 짐작하기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출생지란 우리 인간이 간직할 수 있는 얼마 안되는 근원전 권리들 중 하나로 아무도 아무 정부도 박탈할 수 없는 생존권에 속한다. 가령 미국이 그 영토에서 태어난 자에게 무조건 시민권을 부여하는 데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대통령 선거에서 항상 이 점을 새삼 강조하는 것도 이해가 간다.

이러한 신성한 권리를 나는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 출입국관리국의 강요로 말미암아 포기하고 말았다. 내가 미국대학을 그만두고 1990년부터 5년간 고대, 성대, 인제대에서 객원교수로 있으면서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 둘 중 하나를 포기하라고 강요당해 마침내 전자를 포기할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내가 반골정신이 투철한 원칙주의자였던들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러한 부당한 강요에 최후까지 항소했었을 것이다. 그런 위인이 아닌지라 나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계속 남아 가르치기로 했다. 그러나 차츰 깨닫기 시작한 것은 내가 비단 한국 국적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밑바닥에 깔린 근원적인 나의 생존권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이다. 국적은 선택할 수 있어도 출생지는 생존 그 자체처럼 모든 선택에 선행하는 뜻에서 운명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20년전과는 달리 지구촌이니 세계화라는 구호가 나돈 지가 꽤나 오래되건만 오늘날엔 이러한 부당한 처사가 통하지 않을지 모르겠

다. 얼마전 일이지만 미국태생인 내 조카 역시 KBS 교향악단의 첼로 연주자로 활약하다가 나와 비슷한 이민국 압박에 마지못해 미국 국적을 포기하기 직전 사립대로 자리를 옮겨 무사했으니 말이다.

어쨌든 문제는 우리 한국정부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강경책에서 비롯한 것 같다. 가령 일찍이 미국 대학원에서 불란서 청년과 만나 결혼해 파리에 살고 있는 우리 딸은 미국과 불란서 두 나라 국적과 여권을 가지고서도 아무런 불편없이 살고 있다.

근래엔 날로 증가하는 해외교포에게 정치참여를 허용하자는 주장도 나와 있고 또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하는 우리 국회 선량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내 생전에 이들 덕분에 호적에서 그 동안 삭제당해 왔던 내 이름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이와 같이 바라는 사람은 결코 나만이 아닐 것이다. 법적문제란 워낙 까다로워 그리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근원적인 인권부터 하나하나 되찾아 주는 게 법의 순리가 아닌가 싶다.

歲暮 思友(1)

韓承五 (25回)

八十路程多奇峯
暮雲影裏寒鴉寂
又去又來增歲月
送舊迎新祈無恙

人生 八十길이
 險難도 한데
해 저무는 하늘가엔
 외로운 가마귀 한 마리
歲月이야 가고 또 오고
 자꾸자꾸 쌓이는 것을
묵은 해 보내고 새 해 맞으매
 그저 益壯健勝을 비울뿐...

여보 벗이여!!(2)

(白髮이 늘어만가는 아내를 바라보며...)

여보게! 벗이여
그 어느날 우리 하나 되어
太陽을 맴돌기 어느 새 예수 돌
돋는 해 지는 달에
울고 웃기 그 얼마
구름따라 뛰고 달려
가쁜 숨 몰아쉬며
이제 여기 와 섰다네

오롯이 피어고인 情과 믿음
가슴에 고이 보듬고 키워
새 하늘 밝은 햇살 아래
뽕히 자란 씨알들 바라보며
주름진 손 따스히 마주잡고
저 地平線 위에 다시 서세나

여보 사랑하는 벗이여!
영원히 부르다 죽을 이름이여!
죽어서도 또 부를 그 이름이여...

內村鑑三의 직계제자 揚仁性선생을 追慕하면서

李 三 悅 (26回)

머리말

얼마 전 입수한 미주동창회보 <盤龍25호> (2008년 12월 발행)에서 朴世雄동창(30회)의 글 “金敎臣과 興南工場”을 감명 깊게 읽었다. 한 때 그의 역작 “聖書朝鮮”을 탐독하면서 흠모하여 마지않던 金敎臣선생이기에 그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반가웠고 그가 興南工場에 있었던 같은 시기에 내 후배들도 그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니 무슨 인연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어 좋았다. 그런데 그 글 중에 內村鑑三의 조선인 제자 咸錫憲과 宋斗用의 이름은 거명되면서 우리 동창이요 스승인 揚仁性선생에 대하여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는 것이 좀 섭섭하였다. 혹시 朴世雄동창이 揚仁性선생에 대하여는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 비재를 무릅쓰고 몇 자 적어 보기로 한다.

內村鑑三의 朝鮮人 弟子들

內村은 일본을 대표하는 지성인이요 세계가 알아주는 성서학자다. 그는 일본 군국주의를 비판하다가 東京高師의 교수직에서 쫓겨났었다. 그러자 그는 자기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철저히 성서연구에 몰

두하였다. 이 연구회원 중에서 패전 후 東京大學의 이대 총장 矢內原 등 많은 전후파 일본 인재들이 배출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연구회원 중에는 조선 청년 다섯 명이 끼어 있었다. 모두 東京高師 학생들이었다. 위에 거명된 세 명과 서울 출신 盧平久, 그리고 함흥 출신 揚仁性의 다섯 명이었다. 나는 이런 저런 일로 이들 다섯 분들과 모두 다소나마 관계되는 특별한 인연을 가졌었다.

1961년 5.16 혁명 후 나는 잠시 仁川기독병원에서 일한 적이 있었다. 이때 내가 맡은 부서에 宋喜子라는 매우 총명한 처녀가 있었다. 진명여고 출신으로 의당 대학에 갔어야 할 인물이었는데 여학교만 나온 채 이 병원에 취직하고 있었다. 날이 지나면서 차츰 그녀의 신상을 알게 되었다. 素沙쪽 지주의 딸이었는데 아버지가 해방과 함께 그 모든 소유를 소작인들에게 나누어주고 자신의 딸들은 고교까지만 공부시키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자신은 당시 仁川 앞 바다의 어느 작은 섬에서 학교도 못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것이 그냥 흘러버릴 이야기 같지 않아 좀 더 알아보았더니 놀랍게도 그 아버지가 東京高師출신이요 유명한 內村鑑三의 직계제자 宋斗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咸錫憲이나 金教臣 같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는 않았으나 진짜로 성서대로 실천한 고지식한 크리스천이었다. 하도 감격스러워 그 후 나는 그녀를 세브란스병원으로 불렀고 임상병리사 자격도 얻을 수 있게 주선하였다. 재치 있고 성실한 그녀는 오랫동안 내 밑에서 수족같이 일하다 기회가 되어 미국으로 이민갔다.

1960년대 후반 나는 한국기독교의사회를 조직하면서 가톨릭의대인 孫禎均교수와 가까이 지내게 되었다. 천성이 온화한 안과 의사로서 참으로 모범적인 크리스천이었다. 그러나 이분이 양정고보 출신으로

金敎臣 선생의 애제자였음을 미처 몰랐었다. 金敎臣은 달리기를 좋아한 孫禎均 학생을 격려하여 민족의 자랑으로 대성시켰고 성서를 사랑한 孫禎均 학생을 지도하여 훌륭한 크리스천 의사로 길러낸 전설적인 스승이었다. 후일 孫禎均 교수는 그의 자서전에서 “金敎臣 선생은 내가 아직 京城醫專 학생일 때부터 나를 <나의 누가>라고 부르면서 주치의 대접을 하여 주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나는 孫교수와 가까이 지내면서 그의 안내로 咸錫憲 선생의 강연회에도 갔었고 그 모임을 주관하던 盧平久 선생과도 만나보고는 하였었다. 이런 孫교수와의 친분도 귀한 일인데 후일 그의 아드님이 또 내 밑에서 레지던트를 하였으니 인연치고는 각별한 인연이라 하겠다.

咸南中學에 온 博物敎師 揚仁性

揚仁性은 咸興高普를 졸업하고 일본의 명문 東京高師를 나온 박물관 교사다. 일제 때 일본에는 두개의 高等師範이 있었다. 東京高師와 廣島高師다. 조선에 나온 일본인 교사들은 대개 廣島高師 출신들이었다. 東京高師 출신들은 朝鮮 같은 식민지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런 귀하신 東京高師출신 揚仁性 선생이 우리 학교에 부임하여 온 것이다. 1940년대 초의 일이다. 이웃 永生高普에 계신 것을 三宅교장이 스카우트하여 온 것이다. 전임자 橫田교장 같으면 어렵없는 일이었다. 橫田교장은 廣島高師 출신으로 결코 東京高師 출신을 쓰려하지 않았다. 라이벌 의식도 있었겠고 우수교사에 대한 경계심도 있었을 것이다. 더더욱 그는 東京高師 출신 조선인 교사를 채용할 아량도 배짱도 없었다.

그런데 三宅이란 교장은 이런 소인배들과는 바탕이 다른 인물이었다. 그는 高師출신이 아니었기에 학벌에 대한 편견이 없었다. 그는

그 자신 일본 황실과 인척관계라고도 하고 귀족들 학교 學習院에서 가르친 경력이 있다고도 하였었다. 그가 보통 신분이 아니라는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8.15때 일본의 항복을 미리 알고 전 가족이 미리 일본으로 빠져나간 사실, 부임하자마자 자신의 취미인 승마를 즐기기 위하여 74聯隊에서 군마 4필을 빌려다 南中에 승마부를 창설한 사실 등 내가 아는 것만도 여러 가지가 있었다. 행인지 불행인지 이런 인물 덕분에 楊선생은 자신의 모교이기도 한 咸南中學에 부임하게 된 것이었다.

楊선생이 맡은 박물이란 과목은 생물학과 광물학을 합친 그런 과목이었다. 그 때까지 우리는 水原高農 출신 일본인 교사로부터 교과서 중심의 따분한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楊선생의 교육방침은 전혀 달랐다. 시간만 있으면 학생들과 함께 들로 산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곤충채집이다 식물탐사다 하고 말이다. 채집된 곤충이나 색다른 풀들은 그 자리에서 설명도 하여 주고 나중에 학교에 돌아와 도감도 찾아주고는 하였다. 자연을 관찰하는 법과 스스로 공부하는 요령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 덕분에 나는 비록 일본말 이름이지만 한국에 흔한 나비들은 한 눈에 그 이름을 딸 수 있을 정도로 안목을 높일 수 있었다. 후일 한국의 나비박사 石宙明 선생과 교분을 가지게 된 것도 그런 연유에서였다. 그는 안타깝게도 6.25때 납북되고 말았지만 그의 동생 石宙一 박사와는 한때 같은 연구소에서 친하게 지내기도 하였었다.

生物 同好會

무미건조한 암기과목이던 생물학이 생동하는 인기과목으로 바뀌자

楊선생을 중심으로 생물동호회라는 모임도 생겨났다. 나는 처음부터 이 모임의 열성분자가 되었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거의 빠짐없이 야외로 쏘다니고는 하였다. 비단 생물학뿐 아니라 楊선생은 우리에게 학문하는 즐거움을 일깨워 주셨다. 그리고 진정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 주셨다. 그것은 오늘날 같이 대학입시의 준비교육으로 전락한 고교교육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감수성이 예민한 10대 청소년들이 선생님과 함께 들로 산으로 나비를 쫓아 뛰어다니는 것이 지금 회상하여도 싱그럽기 만한 한 폭의 그림 같다.

나는 楊선생의 영향으로 하마터면 생물학자가 될 뻔도 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東京農大를 다니던 사형의 서재에서 우연히 발견한 “화불 昆蟲記”를 열심히 읽고 있을 때라 생물동호회의 매력은 나로 하여금 무조건 생물학과에 가고 싶게 만들었다. 당시 조선 안에는 생물학과가 없었다. 따라서 생물학을 공부하려면 일본으로 건너가야 하였다. 그런데 關釜連絡船 金剛丸이 魚雷에 맞아 침몰하는 사건이 일어나 겁을 먹고 일본행은 포기하게 되었다. 전화위복이라 할까. 결국 나는 의사가 되고 말았지만 내 후배들 중에는 끝까지 생물학을 고집하여 毛麒喆 교수 같은 수의학자도 나왔고 元炳旣 교수 같은 조류학자도 나왔다. 음으로 양으로 楊선생의 영향이 많았을 줄 안다.

조선 말 授業과 受難

어느 해 가을엔가 학기 초 첫 시간에 楊선생은 묵묵히 칠판에 漢詩 한 수를 적어 내려갔다. <二十樹下 三十客 四十女家 五十食...> 하고 말이다. 그런데 이것을 일본식 발음으로는 아무리 읽어도 아무

뜻도 통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그는 조선말로 읽어 내려갔다. <스무나무 아래 설은 객이 망한 년의 집에서 흰밥을 먹으니...> 하고 말이다. 그의 설명은 계속되었다. “아마도 김삿갓 시인이 어떤 중년 여인네 집에서 흰밥으로 푸대접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점잖게 잘 먹었다고 시치미를 떼고는 이 諧謔詩 한 수로 단단히 복수한 것이지요”하고 말이다. 우리 학생들은 우선 선생님이 교실에서 조선말 하는 것이 하도 신기하여 떠들어댔고 다음으로 그 김삿갓의 기지가 놀라와 박장대소 하였었다.

이것이 1943년의 일이니 참으로 큰 일 날 사건이었다. 이 당시는 학생이 길거리에서 조선 말 한마디만 하여도 처벌당한 때였다. 하물며 교사가 교실에서 조선말을 썼다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일이 있는 지 얼마 후 소리 기별 없이 그는 교단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소문에 그는 高等係로 잡혀갔다는 것이었다. 내가 그를 다시 만난 것은 해방 후 도청 앞 길거리에서 있었다. 그는 당시 함경남도 인민위원회 교육부장으로 추대되어 있었다. 아마도 8.15와 함께 감옥에서 풀려난 그에게 공산정권에서도 그런 감투를 씌워 준 것 같다. 풍문에 그의 두 아들들이 학병으로 끌려갔다가 중국에서 도망쳐 延安으로 갔다는 소문이 있더니 그 덕을 본 것인지도 모른다. 좌우간 모든 것이 혼란하던 해방 직후의 일이라 공산정권에서 그가 고위직 감투를 쓴 것까지는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공산당이 될 수는 없는 인물이었다. 오히려 얼떨결에 쓴 감투 때문에 끝내 월남도 하지 못하고 이북 땅에서 머물다가 곤욕스러운 말년을 보내지 않았나 싶다.

맺음말

나는 楊仁性 선생이 內村鑑三의 제자로서 또는 크리스천 지성인으로서 어떤 행적을 남겼는지 아는 바 없다. 다만 그의 인품으로 보아 그는 그 나름대로의 몫을 충분히 다하였으리라고 믿는다. 하나 분명한 것은 그는 신병의 위협을 무릅쓰고 일제에 항거한 용기 있는 조선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나는 그에게서 과학 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뒤늦게나마 그가 지녔던 그윽한 민족혼의 향기를 회상하면서 삼가 그의 명복을 빈다.

복식 심호흡과 장수(1)

석 동 수 (26회)

내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가 1930년대의 중간이었는데 그 때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50세 미만이었다. 그러나 의학의 발전과 사회의 발달로 2000년에 들어온 지금 여성은 80세이고 남성도 80세에 가까이 와 있다. 그러니 지금은 우리 TV에 노인건강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우리들이 80세를 넘어서도 앞으로 더 오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실지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일찍이 잘 인식한 사람들은 동서를 막론하고 여러 선진국가에서는 심장발작, 뇌혈관 발작으로 많은 노인들이 사망하던 추세가 지금은 차차 감소되어 가고 있다.

2~3개월전에 미국 에모리의대의 내과교수로 계신 이준남선생님의 초청강연을 SBS TV에서 보고 나는 매우 감동을 받았다. 그 분은 인간의 자연치유 기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이다. 그 분의 말씀은 의사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이 자연치유의 기전이 달라 도와주어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하셨다. 그 분의 강연의 제목이 또 매우 재미있었다. ‘잘 살고 잘 죽는 법’이다. 나는 옛날부터 막연히 느끼고 있던 것이 평상시에 건강관리를 잘 하면서 살아온 노인들은 평상시에 큰 병이나 작은 병이나 잘 걸리지 않고 오래 살다가 죽을 때는 밤중에 자다가 죽던가 앓아도 며칠만 앓다가 죽는다는 것이다.

즉, 건강한 노인들은 죽을 때도 이렇게 자기도, 남에게도 큰 고생을 시키지 않고 촛불이 바람 앞에서 꺼지는 것 같이 그들의 생을 끝낸다는 것이다. 이준남 교수는 이 현상을 ‘질병의 경과를 농축시킨다’라고 말했다.

우리 인류가 300만년전에 이 지구상에 인류라는 한 족속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던 중에 효과있는 의학의 혜택을 입은 것은 지난 200년 정도라고 말할 수 있으니 참으로 인간은 이 긴 300만년 동안 우리 신체가 가지고 있는 자연치유의 힘만으로 살아왔다. 지금 우리들은 무엇이 우리 건강에 좋고 나쁜가를 모두 잘 알고 있다. 그러니 건강관리를 잘 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들은 자연치유의 힘으로 잘 살아 간다는 것이다.

지금은 전세계에서 인정해 주는 바와 같이 ‘요가’가 우리들의 건강에 크게 도움을 준다는 것을 우리 의사들도 반대는 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면 그 이유를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며칠 전에 우리 TV에서 인도사람이 요가를 설명해 주는데 복식심호흡으로 우리 인체의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심장을 잘 보호해 주고 머리에 많이 차있는 스트레스를 풀어준다고 말하였다. 그렇다. 요가의 신비는 부교감신경인 것이다. 인간은 낮에는 신경을 날카롭게 해서 많은 힘든 일을 해야 하니 교감 신경이 오랫동안 긴장해서 몇시간이나 지내야 하나 저녁에는 부교감신경이 강하게 되어 머리에 많이 가던 혈액들을 신체의 탄 장기들과 말초의 조직들에 많이 가게 한다.

심장, 뇌, 관절들은 동맥들이 종말동맥이라고 해서 탄 동맥하고 연결이 없는 소동맥들로 혈액공급을 받는다. 그러니 무슨 질환으로 그들의 종말동맥이 협소하게 되면 참 곤란하게 된다. 즉, 심장발작과 김근경색증, 뇌발작, 관절염이 발생하게 된다. 이 때 그 좁아진 종말혈관이 부교감신경이 자극으로 조금이라도 확장된다면 그것은 참으

로 구세주가 오신 것 같이 기뻐할 것이다. 내가 20년 전에 좌골신경통으로 매우 고생했는데 그때 가톨릭대병원에서 좁아진 혈관을 찾아내서 수술로 치료할 수 있다고 했으나 나는 우선 물리요법으로 무난하게 치료하기로 하고 매일 걸으면서 차차 내 혈관이 확대되기를 기대하였다. 다행히도 나는 자연치유의 힘이 잘 발휘되어 조금씩 조금씩 나아갔다. 그리하여 꼭 3년이 되어서 완치되었다.(좌골신경통이 처음 시작해서부터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될 때까지 진행되는데 역시 3년이 걸렸다)

나는 이준남 교수의 강연을 들은 다음 당장 복식심호흡을 나의 일상생활의 모든 곳에서 실천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에 1시간 반씩 하는 산책과 등산을 하면서 걸음의 리듬에 맞춰서 이 호흡을 한다. 그리고 집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도 심심치 않게 이 호흡을 자주 한다. 또 지하철을 타고 30분, 한시간, 한시간 반을 갈 때도 이 복식심호흡을 했다. 이렇게 나는 복식심호흡과 항상 함께 하는 생활을 하니 피곤한 일이 없어지고 복부에 힘이 항상 들어 있어서 그러는지 내가 약간 허리가 앞으로 굽어진 것이 지금은 젊은 사람같이 똑바로 서게 되었다.

이것 뿐이 아니다. 나의 노인성 변비가 없어졌다. 입속에 염증이 나서 매우 붓고 통증도 있었는데 이것도 복식심호흡후 며칠내에 다 없어졌다. 지금 나는 이 새로운 생활을 한지 3개월이 된다. 나는 복식심호흡을 나의 보약이요 페니실린, 변비약, 소화제, 아스피린이라고 말할 정도로 귀중하게 여기고 있다. 실제있어 배 힘이 강한 사람이 장수한다는 연구결과가 미국에 있다.

“大運河에 대한 나의 생각”(2)

자동차가 없었던 100년 전의 우리 세상에서는 배를 타고 다니는 것이 가장 중요한 交通 수단이었다. 그러니 구라파의 여러 국가들은 運河를 많이 만들어 잘 이용했다. 中國도 北京과 南京을 이어주는 大運河를 만들어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잘 使用했고, 未來도 많은 사람들이 잘 使用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國土가 적은데다가 같은 동족끼리 싸우든가, 당파 싸움만 하다 보니 運河를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 요즈음 우리 TV에서 “대왕 세종”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는데 세종께서 한글을 만들어서 우리 온 국민이 漢文을 몰라도 쉽게 글을 쓰고 읽을 수 있게 해 준 것을 우리 韓民族은 永遠히 크게 감사를 올리고 있지만 그분이 運河까지 생각해 주었더라면 먼 旅行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便利했겠는가 생각하게 된다.

나는 미국에서 의사로서 다년간 살면서 아이 4명의 대학 공부도 다 끝내면서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있게 되어 적은 요트를 3년 동안 재미있게 잘 타고 놀다가 한국에 16년 만에 처음 나와 보니, 한국의 戰後 再建이 잘된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그리고 나는 한국에서 다시 살 것을 決心하고 1983년 완전히 이사왔다. 나는 그 후 인제 醫大 教授로서 보람있는 10년을 잘 지내고 지금까지 정년퇴직한지 16

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냈지만, 요트를 다시 타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서울에서 사니, 이것이 쉽지 않았다. 만약에 運河가 있어 한강을 낙동강과 연결시켜 있었다면, 나같이 시간이 많은 은퇴생활을 하는 노인들은 요트나 작은 돛단배를 한강에 띄어 부산까지 일주일이 걸려 고기도 잡으면서, 물과 산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우리 한반도의 대 자연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한 날을 보낼 수 있었겠는가 하고 생각해 보기도 했다.

註) 이명박 대통령께서 갑자기 大運河라고 말하는 바람에, 국민들은 모두 놀라고 힘이 빠진 것 같았다. 큰 江과 큰 江을 水路로 연결시켜도 적은 배는 잘 지나 갈수가 있다. 미국에 내가 살던 곳은 5大湖 중의 하나인 Eri호에 가까이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New York의 Hudson강까지 요트로 갈 수 있다고 해서 나는 앞으로 1~2년 더 연습을 한 다음 Hudson강을 내 요트(19ft)로 가볼 생각도 해 보았다.

2008. 4. 23

“토고란트” 이야기

吳 炳 憲 (26回)

분립되었던 한 정치단위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혹은 다시 원상대로 복귀하는 수도 있고 또는 재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따로 분리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한반도의 장래를 예상할 때 외국의 예가 어떤가를 고찰해 보는 것은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 까하는 생각을 해 본다. 이와 같은 고찰에 참고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의 몇 가지 유형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 分裂

1. Togoland

아프리카 중서부의 바다에 접한 지역에서 ‘이위’(Ewe)족은 단일 국가를 형성하는 일 없이 수백에 달하는 추장들이 이끄는 작은 단위의 집단으로 분립하여 800년 동안 살아오던 중, 1884년에 독일의 식민지가 되어 Togoland(토고란트)라고 부르게 되었다. 독일은 이 미개지역을 하나의 근대 국가로 형성하고 교통, 교육,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근대화를 추진하여 꽤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위 족은 단일 정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던 중,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이위’족의 운명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서쪽 국경을 넘어서 Gold Coast의

영국군이 들어와서 서부의 반을 점령하였고, 동쪽 접경에 있는 Dahomey의 프랑스군은 동반부를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1차 대전이 끝나고 국제연맹이 생기면서 두 지역은 각각 영국과 프랑스가 주관하는 위임통치령이 되었고, 2차 대전의 종결과 더불어 국제연합이 생기면서 두 지역은 다 같이 신탁통치령이 되어 영국과 프랑스의 영향권 내에 머물게 되었다.

1950년대에 들어와서는 아프리카 대륙을 풍미한 독립운동의 회오리바람 속에서 두 지역 다 같이 독립을 지향하였으나, 원래의 단일국가로 돌아가기는 불가능하였다. 두 지역 사이의 교통과 통신도 완전히 자유로웠으나, 불과 40여년에 걸친 영국과 프랑스의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영향이 통합을 위한 독립움직임보다 더 강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Gold Coast를 Ghana로 개칭하여 독립시키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된 Nkrumah는 서부 ‘토고’의 편입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결국 서부 ‘토고’는 Ghana의 일부로 편입되고, 동부지역은 Togo로서 따로 독립하게 되었다.

원칙으로 말하면, 독립하면서 원래의 단일국가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나, 그 당시의 정치적 역학관계로 말미암아 분립 독립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韓半島의 경우,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면 저절로 남한 주도하의 통일국가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 안이하다는 것을 ‘토고’의 예가 말해준다. 저절로가 아니라, 무수한 요인이 작용하여 김정일 후의 상황에 영향을 줄 것임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2. Tanzania

동 아프리카의 가장 큰 나라인 ‘탕가니카’(인구 2,100만명)와 섬나라인 ‘잔지발’(인구 57만명)의 두 나라가 합쳐져서 이룩된 연방국가

가 ‘탄자니아’이다. ‘탕가니카’는 처음에는 독일의 식민지, 후에는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으며, 제1차 대전의 발발과 더불어 영국의 국제연맹 위임 통치하에 들어가고, 1946년에 국제연합의 신탁통치령으로서 역시 영국의 통제를 받게 되었으며, 1961년에는 독립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잔지발’은 처음에는 포르투갈, 후에는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으며, 1963년에는 독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하는 내란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혼동속에 빠지게 되었으며, 간신히 사태를 수습한 다음 인접한 ‘탕가니카’에게 질서유지를 도와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으며, ‘잔지발’이 공산세력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잔지발’은 ‘탕가니카’와의 연합공화국을 형성하였다.

이 성급한 통합에 불만을 품은 시위가 ‘잔지발’에서 자주 일어났고, 복잡한 종족간의 분쟁으로 확대되기도 하고, ‘잔지발’과 ‘탕가니카’사이의 분쟁으로 번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잔지발’은 영토의 넓이로 보거나 인구 수로 보거나 월등히 우세한 ‘탕가니카’에 맞설 수는 없었으며, 정치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탕가니카’에 예속되는 위치를 감수하면서 ‘탄자니아’ 연합공화국 속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을 맞게 되었다.

왜소한 독립국가가 깊은 사려 없이 서둘러 내린 결정 때문에 큰 나라에 흡수되어 버리면서 생긴 것이 ‘탄자니아 연합공화국’이며, 이제 ‘잔지발’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걷게 되었다.

큰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정치가의 냉철한 사려와 계산을 해야 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잔지발’의 경우가 가르쳐 주는 동시에, 연방제도가 가지는 강제성을 새삼 일깨워 준다.

□ 재통합

단일 민족이나 국가가 일단 분열되었다가 다시 통합되는 경우는 독일과 월남 등 잘 알려진 경우가 있으나, 여기서는 잘 알려지지 않으면서 한국의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를 들어 보기로 한다.

1. Mozambique

아프리카 동남부의 해안을 따라 한반도의 3.6배에 달하는 면적과 1,700만명의 인구를 가진 ‘모잠비크’는 16세기 초부터 ‘포르투갈’의 경제적, 종교적 영향을 많이 받았고 19세기에 이르러서는 그 식민지가 되었다. 제2차 대전의 종료와 더불어 정치가, 학생, 노동자 사이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은 1962년에는 Frelimo (프렐리모 - 모잠비크 해방전선)로 발전하면서 독립을 요구하였으나, ‘포르투갈’ 정부가 이에 불응하자 ‘프렐리모’는 전국적인 독립운동을 벌였으며, 1964년부터는 지방에 본거지를 두고 게릴라 전술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1970년에 포르투갈의 독재자 ‘사라잘’이 사망하고 뒤이어 1974년에는 식민통치가 끝나자, ‘모잠비크’는 1975년에 독립하게 되었고, ‘프렐리모’는 ‘프렐리모 당’이 되면서 좌경화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표방하고 소련과 우호 협정을 체결하면서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산업을 국유화하고 농촌을 집단화하기에 이르렀다. 사회주의 정책의 실시와 더불어 사업가, 기술자, 의사, 교사들은 대거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고, 반 정부 세력인 ‘레나모’(Renamo)가 전국 각지에서 게릴라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레나모’는 처음에는 서부 국경에 인접한 ‘로데시아’의 도움을 받고, 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후원을 받아 중앙정부를 괴롭혔다. 사회주의정책으로 인한 경제파탄도 겹쳐서 더 이상의 강경책을 계속

할수 없게 된 ‘프렐리모’의 정권은 사회주의 정책을 일부 완화하였으며, 마침내 1986년에 비행기 추락사고로 대통령이 사망하자 총선거를 실시하고 3년후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노선의 포기를 선언하고 내란의 수습에 착수하였다.

주변국가들의 알선과 국제연합의 후원으로 헌법 기타의 기본적인 기구 구성안이 작성되고 양측 군대의 무장해제가 진행되고, 1994년 10월에는 마침내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모잠비크’가 보여준 내란수습 및 정치통합의 과정은 다음과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

- (가) 공산독재와 민주체제 사이에서는 통합이 논의될 수조차 없음을 말해준다. ‘프렐리모’정권이 공산주의 정책의 지양을 선언한 것이 1989년 7월이었고, 그때 비로소 통합협상이 시작하였고 새 민주정권이 수립되는데까지 5년 이상이 걸렸다. 독재 정권이 민주화의 뜻을 밝히기 전에는 민주 통합의 과정이 시작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나) 정치통합 교섭에 있어서 당사자들끼리의 직접적 협상 보다는 제3자에 의한 중재와 조정이 유익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 (다) 정부군과 반란군이 완전히 해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중에서 선발된 요원들로 하나의 새로운 국방군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통일에 따르는 복잡한 문제들이 무사히 해결되었다는 것은 크나큰 행운이었다.
- (라) 정부군이나 반란군이나 국제 여론과 재정 결핍 때문에 더 버틸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도 타협을 용이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다.
- (리)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들은 보통 복수의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반하여, ‘모잠비크’는 Bantu족이 주된 구성

종족이라는 점이 통합 과정을 덜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 (b) 모잡비크 국민의 강렬한 통합 의욕이 없었으면 통합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군이나 반란군이나 다 같이 국제연합군의 도움을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상황은 도와주는 이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던 것이다.

2. Yemen

아라비아반도의 西南端에 위치한 ‘예멘’은 그 위치 때문에 역사적으로 주변국가의 지배를 받아 왔던 바, 무역과 농업을 주로 하는 북부는 1918년에 터키로부터 독립하였으며, 1956년에는 ‘이집트’, ‘시리아’ 및 ‘사우디 아라비아’와 군사동맹을 맺고, 소련과도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외교정책을 썼다. 1962년에는 이집트와 ‘사우디 아라비아’가 각각 지지하는 두 반란 집단 사이의 전투가 진행 되었으며, 1970년에는 평온을 도로 찾았으나, 정세는 계속 불안한 상태를 계속하였다.

다른 한편 ‘남예멘’은 1893년 이래로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으며, 1956년 이후에는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1967년에는 좌익 정권이 수립 되었으나 정변은 그칠 줄 몰랐고 소련의 원조를 받아 ‘북예멘’과 전쟁도 시도한 일이 있었다.

아랍연맹의 주선으로 양측은 화해를 이룩하게 되고, 양측의 통합 문제가 정식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서로 무력충돌을 계속하면서도 1981년에는 통합 헌법 초안이 마련되었고, 주변의 여러 아랍국가들의 주선으로 공동회의가 간헐적으로 열리던 중, 1988년에는 휴전 지대가 설정되고 일반 시민의 왕래도 허용되었다. 1989년 7월, 남예멘은 공산주의를 지양하고 자유경제로의 개혁을 시작하였으며, 11월

에 양측 수뇌는 통합국가를 이루기 위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12월 1일 통합국가헌법안이 발표되었으며 6개월 이내에 비준 절차를 마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 헌법초안은 “사실상 같은 기원을 가지고 같은 종교를 믿고 같은 전통과 관습을 가진 같은 민족이 두 개의 서로 다른 국가로 나뉘어서 존재한다는 이 분단은 용서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

1990년 5월, 남, 북의 예멘은 각기의 군대를 제도상 해체된 것으로 발표하여 각각 수도로부터 지정된 지점으로 철수할 것도 발표되었고, 22일에는 남북예멘의 통일이 공포되었다. 새 예멘공화국의 대통령은 전 북예멘의 대통령, 부통령은 전 남 예멘의 대통령이 맡고, 국무회의도 양측으로부터 파견된 적절한 인원으로 구성되었고, 1991년 5월에는 헌법이 정식으로 비준되었으며, 1993년 1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문제는 대통령과 부통령이 서로 다른 정책을 주장하게 되어, 부통령, 즉 옛 남측 대통령이 정부 참여를 포기하고 남으로 돌아갔다는 것뿐만 아니라, 양측 군대가 사실상에 있어서는 해체되지 않고 있었으며, 각각 전직 대통령의 지휘를 받고 있다는 데 있었다. 자연히 두 군대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났으며, 여러 나라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대립은 계속되고 1994년 7월에는 최종 전투에서 북부군이 승리를 거두고, 정부는 북부의 인사로만 구성되기에 이르렀다.

모잠비크의 경우에는 국제연합의 주재아래 군대가 완전히 해체되었으나, 예멘의 경우에는 군대가 그대로 존속하여 각기 다른 지휘관의 통솔을 받는 기묘한 존재를 계속하고 있었으며, 군대가 실력으로 해산된 후에 비로소 통일정부는 기능을 발휘하였던 것이다. 한반도의 경우, 남, 북을 합치면 1백 80만명에 달하는 군대를 어떻게 다루는가는 통일 과정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큰 장애가 될 듯하다.

□ 슬기와 행운 - 오스트리아

1867년 이래로 헝가리와 더불어 중부 유럽을 지배해 온 ‘오스트리아’는 1차 대전의 종말과 더불어 1918년에 단독 주권 국가가 되었으나, 1938년에 ‘히틀러’의 독일에 합병되는 운명을 겪게 되었다. 2차 대전의 종료는 ‘오스트리아’에게 새로운 운명의 길을 가리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미 1943년 모스크바회담에서 미국, 영국 및 소련은 ‘오스트리아’가 전후에 해방되고 독립을 성취하도록 결정한 바 있었다. 소련군은 오스트리아를 해방하기 시작하였고, 1945년 4월에는 ‘비엔나’를 점령하였다. 사회주의자인 칼레너는 소련군의 동의하에 임시정부를 수립하였으며, 그의 임시정부는 그 후에 미국, 영국, 프랑스 3개국의 승인을 받았다. 독일이 항복한 후에는 오스트리아는 원래는 미국, 영국, 소련 및 프랑스에 의한 분할 점령을 받고, 또 소련 점령 구역내에 들어있는 비엔나 역시 네 나라에 의한 분할 점령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처음에 소련이 레너에게 정권 수립을 허용한 까닭은 사회주의자인 레너를 통하여 오스트리아 전역의 공산화 통합을 이룩하려는데 있었다. 그러나 노련한 레너는 이 속셈을 간파하고 소련에게 이용당하는 체 하면서 오스트리아 전역에 대한 통치권을 얻어 냈다. 분할 점령된 독일의 경우와는 달리 오스트리아는 레너의 슬기로운 책략으로 말미암아 단일 지역으로서 오스트리아인에 의한 통치를 하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1945년 10월에는 연합국 평의회가 覺書의 형식을 빌려서 레너의 정부를 최종적으로 승인하였다.

이로써 오스트리아는 처음부터 단일 정부로서 출발하였으며, 1955년 5월 15일에는 드디어 오스트리아가 4대 강국과 국가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10년만에 통일 독립 정부를 갖게 되었다. 종전 후 몇 달

동안은 독일이 겪은 경우와 같이 오스트리아도 두 개의 점령지역으로 분단될 위험성을 많이 안고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오스트리아의 행운은 훌륭한 정치가를 가지고 있었다는데 유래한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행운의 더 깊은 뿌리는 국민에게 있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완전한 정치적 통일과 독립을 쟁취하려는 합일된 국민적 의지였고, 아울러 정치 엘리트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준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었다. 소련은 동유럽의 여러나라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오스트리아의 정치의식 수준에 압도되어 1950년 이후에는 사실상 오스트리아의 적화를 포기하였다. 소련 주둔군은 사회주의자 레너를 앞세워서 임시정부를 수립한 후 이를 인민 전선으로 전환시켜서 공산화하려고 꾀하였으나, 레너는 이 기회를 역이용하여 오스트리아 전역에 걸치는 통일적 행정체계를 구축하였던 것이다.

이 오스트리아의 예가 해방후 한반도에서 벌어졌고 지금도 진행중인 수치스러운 사태와 비교해 볼 때, 오스트리아 국민이 보여준 지혜와 의지는 한민족이 지금이라도 본받아 마땅할 것으로 여겨진다.

일백일 간의 구금생활

柳 榮 海 (26回)

“잘들 한다”

1946년 3월 11일 오후 4시경 권진성군과 같이 황금정 사정목 네거리에 다달았을때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흘러나온 한마디였다.

황금정 삼정목에 있던 삼성의원(원장 류칠석박사·류궁군의 부친)에서 함흥의학 전문학교에서 퇴교하던 길에 동기생이던 류궁군과 헤어져서 황금정 사정목에 있던 진성군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약 200명~300명 되는 함흥농업학교 학생들이 사포리 방향으로 늘어져서 “우리의 쌀은 어디로 갔나” “우리의 쌀을 돌려 달라”라고 외치면서 시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많은 시민들이 둘러서서 구경들 하고 있던 중 어떤 사람이 진성군과 나보고 같이 가자고 한다. 후에 알고 보니 보안대 관계 인사였던가 본데 결국에는 함남중학교 앞에 있는 경찰서까지 끌려갔던 것이다.

“왜 아이들이 시위를 하는데 선동을 하느냐”

“그게 무슨 선동이냐 우리는 함흥의학 전문학교 학생인데 친구인 류궁군과 같이 놀다가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아이들이 어이없이 길거리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길래 빈정대는 야유로 한마디 던진 것이다.” “요즘 흥남에서 소련 선박들이 쌀을 실어간다고 시끄러운판에

너희들이 길에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BD를 아느냐” “잘 모른다 무슨 소리냐” “백단을 모른다는 말이냐” “모르는데”

후일에 들은 것으로는 반공단체인 백의민족단 또는 지하비밀결사 단체였던 백단(白檀)을 일컫는 것으로 짐작된다.

옥신각신 자정 너머까지 선동이냐, 아니냐, 아느냐, 모르느냐로 끝 없는 공방을 되풀이 한 끝에 나를 조사 심문 하던 사람이 나에게 던진 한마디는 지금도 내 머리에 남아있다.

“모노 이에바 구찌비루 사무시 아끼노가제”

(物言えば 辰零し 秋の風)

이튿날 3월 12일 깨어보니 함흥형무소의 어느 독방, 가로 약 2미터 세로 약 3미터 정도의 네모진 방, 구석에는 요강 비슷한 그릇이 하나 있는 것이 전부였다. 창문은 없었던 것 같고 출입문이 하나 있었는데 가로 1미터 높이 2미터 정도의 두꺼운 목재로서 눈높이 정도의 위치에 10×15cm 정도 크기로 밖에서만 열고 볼 수 있는 구멍이 있었다. 문턱에서 20cm 정도의 높이에는 15×20cm 크기의 소위 개구멍이 있어서 하루 세끼 틀림없이 보리밥 덩어리는 들어오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무 기별이 없다. 그야말로 독방이라 사람이 오고가는 소리도 들을 수가 없고 얼굴은 더군다나 볼 수도 없는 나날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원래가 신경이 좀 느긋한 편이라 잠은 잘 자고 근심걱정을 할 정도의 철은 털 들어 있었던 터라 세월만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다.

돌이켜보면 1945년 8월 15일은 우리로서는 36년간 잃어버렸던 나라를 되찾은 전무 후무한 유일한 기회와 행운이 있었다. 물론 많은 애국지사들과 순국선열들의 결사적인 항쟁과 숭고한 공헌이 있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본제국의 과대한 욕망과 무모한 도발 그리고 대동아공영권이란 허망한 몽상이 진주만 폭격이라는 망동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주권회복은 얼마나 어려웠었겠느냐 하는 생각도 지울수가 없다.

1945년 8월말 경에 함흥에 진주항 소련군은 보나마나 공산주의 사상을 강요하는 입장이었고 손목시계 등 물품을 강탈하였고 부녀자 겁탈 등을 저질렀음. 세상이 다 아는 일이고, 함흥평야에서 생산된 쌀과 흥남에 있던 공장의 기계 등을 흥남항구를 통하여 소련으로 운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추종하는 소위 보안대원들의 우익 계통 인사들의 투옥·추방·심지어는 살인 등 만행을 조장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을 보다못한 흥남과 함흥의 많은 학생들 뿐만 아니라 뜻있는 시민들도 가세하기 시작하였으며 제1차로 1945년 11월 7일 사회주의 기념일에 시작 되었던 것이다. 이날 행사는 함흥역전 광장에서 열었는데 여기에 모인 학생들의 반발로 중단되고 함남중학교 한순현교장 선생 이하 교원 전원과 주동 학생들이 보안대에 구속되었던 것이다.

제2차로 1946년 3월 1일 3·1절을 기하여 봉기하고자 하였으나 적색교원의 밀고로 플랜카드, 뼈라, 격문 등을 자전거로 운반하던 함흥농업학교 학생들이 함흥교 근처에서 체포되는 바람에 실패로 돌아갔다.

제3차는 1946년 3월 11일이었는데 함흥농업학교 뿐만 아니라 흥남공업학교 학생들이 자유와 쌀을 달라고 가두 행진을 하였고 나와 권진성군이 보안대에 끌려간 시간 이후에는 이 행렬이 함흥시가지에 진입하고 함흥의전학생 100여명도 가담하여 도 인민위원회 문전에서 “우리의 쌀은 우리에게로”라는 구호를 외치기 시작하였던 것

이다. 함흥시내 전역의 분위기가 이같이 술렁거리기 시작하니까 도 인민위원회에서 함흥 각학교 교장회의를 긴급히 소집하여 3월 20일 경에 봄방학을 하려던 것을 앞당겨 3월 13일에 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3월 12일에는 산발적으로 데모가 일었으며 제4차로 본격적이고 대대적인 데모는 3월 13일 오전 11시 함흥 황금정 네거리에 집결하여 결사 항쟁에 돌입하였던 것이다. 영생중학교 600여명, 함남고녀 500여명, 흥남고녀 300여명, 함남중 800여명, 함농 600여명, 영생고녀 500여명, 실과여중 600여명 등이 가장 용감하게 열열히 활약하면서 행진하였고 여기에 일반시민 1만여명이 가세하여 진격하였다고 기록에 나와 있다.

이때 수세에 몰린 보안대원의 권총발사를 신호로 소총, 따발총, 기관총 등으로 무차별 사격이 시작되었고 총소리와 더불어 유리창 깨지는 소리, 우렁찬 구호와 만세소리가 어울려서 천지가 진동하였다고 한다. 특히 명보극장 앞에서 함남중학생과 영생중학생이 합류한 다음에는 영정초등학교를 거쳐서 실과여학교로 행진이 계속되니 그 기세가 대단하였다. 심지어 보안대원들과 함흥시 인민위원장을 개울창에 쳐박아 넣었다고 하니 데모대의 흥분은 점차 가열되었다고 한다.

학생과 시민이 한덩어리가 되어 황금정 네거리가 꽉차서 군영통으로 행진하니 드디어 소련군이 출동하고 기관총과 따발총이 발포가 시작되니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데모대는 어쩔수 없이 분산 또는 해산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다음날 약 200여명이 검거되어 투옥되고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 고문과 재판으로 소련에 유형 또는 처형되었다고 기록에 나와 있다.

이것이 소위 함흥학생의거의 개요이며 지금까지도 함흥시민회는 해마다 3월 13일날 기념식을 거행하여 오고 있다.

나는 3월 11일 사건 발생 첫날에 구속·수감되어 버렸으니 핵심적인 3월 12일과 3월 13일의 결과를 후일에야 듣고 접하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다.

1946년 5월 말경에 밖에서 문을 두들이는 일이 발생하였다. 3월 11일 밤에 구금 투옥된 후에는 조사하는 법도 없고 호출하는 법도 없이 매일 세번씩 보리밥 덩어리만 던지고 가던 참에 생긴 일이나 나 자신이 놀랄 수밖에 없었다.

출입문의 위쪽에 있는 10×15cm 정도의 구멍 뚜껑이 열리면서 누군가가 나를 유심히 들여다 보고 있었던 것이다. 나도 마주 쳐다보기는 하였으나 상대방의 두 눈만 반짝이고 있을 뿐 아무말도 없었고 나도 할말도 없었다. 몇분이나 지났을까? 쪽문을 열어 놓은채 옆에 있던 사람에게 한말이 아직도 내 귀에 남아 있다.

“이런 아이들을 독방에 가두어서 뭘 어찌자는거요” 그러면서 가 버렸다.

1946년 6월 20일 아침에 또한번 출입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의아한 심정으로 쳐다보았는데 이번에는 출입문이 열린다. “나와요, 집으로 가도 좋소”

지금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두가지 있다. 하나는 100일간이나 형무소 독방에 구금하여 놓고 첫날 말고는 조사, 심문 심지어는 재판 한번 없이 풀어준 내용은 무엇인가 혹시 구금 당시에는 대단한 거물급 죄인으로 판단하였다가 알고 보니 별것이 아니었던 말이던가. 또 하나는 고위급 인사가 얼굴만 쳐다보고 “이런 아이들을 독방에 가두어서 어찌자는 거요” 함은 형무소가 가진 독방의 사용을 남용하였다는 말인가. 내가 얼굴이 본래 둥글고 한참 젊었을 때였으니 많은 사

람들이 날보고 양쪽 볼에 사과를 달고 다닌다는 정도로 말하는 것을 보니 너무 어리고 철없는 존재로 보았다는 말인지.

60여년이란 길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이해 하기 힘든 세상사의 허무함을 잊을 수가 없어서 이글을 쓴다.

양인성(楊仁性) 선생

박 재 빈 (26회)

동문 중에는 나와 의견을 같이하지 않는 이들도 많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를 선생의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비난하는 분도 계실 것이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다닐 때의 함남중학의 이른바 “선생”이란 대부분 교육자가 아니라 약자를 한없이 괴롭힌 깡패의 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물론 그들로부터 알팍한 지식의 전수를 받은 것은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리 식민지의 교사였다고 하여도 교육자는 아니었다. 대학 다닐 때 사립중학을 나온 학우들과 중학교 때 얘기를 나누면서 남중생활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었는가를 새삼 실감하기도 하였다. 그런 선생님들 중에서 나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준 분이 계시다. 바로 2학년 때 부임해 오신 양인성선생이다. 양 선생은 남중에 오래 계시지 못했다. 따라서 그분을 모르는 동문이 많을 것이다. 어린 나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나의 여생에 많은 영향을 준 양선생의 일화를 남기고 싶다.

우리가 함남중학에 입학한 것은 1939년이니 지금부터 꼭 70년 전이다. 일본이 대륙 침략을 시작했다가 꺾도 박도 못하는 수렁에 빠졌었고 자멸의 무덤을 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기 2년 전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 학교는 독립운동, 사상문제, 동맹휴학 등으로

이름나 있었다. 1934년엔가에는 당시의 총독 우가끼(宇垣)가 학교에 와서 다시 문제를 일으키면 폐교조치를 하겠다고 추상 같은 경고를 내리고 갔다. 이것은 대단한 사건이었을 것이다. 그들의 아라히도가 미(現人神)인 천황을 대리해서 조선을 통치하는 총독이 일개 지방 중등학교에 일부러 와서 학생을 모아 놓고 이런 경고를 했으니 말이다. 우리는 잘 모르는 일이지만 아마 당시의 여꼬다(橫田)교장을 위시해서 전 교원들은 대책을 강구하느라고 부심하였을 것이다. 황국 신민(皇國臣民)화 교육에 더욱 광분하게 된 것은 물론이겠지만 그 내용과 방법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다.

좌우간 남중에 입학하고 우리는 새로운 낱말들을 상급생들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우선 배운 것이 우리가 받고 있는 교육은 “가다빵 교육”이라는 것이었다. 이 낱말은 당시의 남중교육의 실태를 아주 단적으로 적절히 표현했다고 본다. 누가 지은 말이고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이것이 남중교육의 진수(真髓)이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하는 말이었다. 가다빵이란 물론 건(乾)빵을 말하는 일본어이다. 요즘은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군대에서 휴대용 식품으로 나누어주던 마작(麻雀) 패만 한 크기의 비스킷 같이 생긴 굳은 식빵 말이다. 생각해 보라. 개성도 없고 융통성도 없으면서 천황만을 받들 줄 아는 소인물을 천편일률적으로 계속 찍어내려는 당시의 남중교육이야말로 가다빵 교육이 아니고 무엇이었겠는가.

가다빵 교육의 주입에는 물리적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는지 그들은 무던히도 우리를 때렸다. 우리를 전후한 수년간의 동문들이면 누구나 경험한 바겠지만 그들은 무슨 일이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를 죽도록 두들겨 패곤 했다. 나름대로 짐작하건대 이런 육체적 학대는 요꼬다 교장이 우가끼 총독의 내교이래로 시작된, 혹은 강화된 교육방법이 아닌가 한다. 우리의 대선배들과 얘기해 보면

그전에는 특별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지 않은 까닭이다. 물론 그때는 아마 선생과 학생들의 나이도, 몸 크기도 차이가 별로 없었을 터니깐 손찌검이 쉽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선생이라는 그들은 조그마한 일이라도 교무실에 불러 마음껏 때리고 낭하에 한두 시간씩 벌 세우곤 했다. 이런 꼴을 당하면 우리들은 “마른 목강”을 했다고 하였다. 어원은 알 수 없다. 생각하건대 매를 많이 맞았으니 목덜미건 얼굴이건 할 것 없이 별장게 된 것이 꼭 목욕하고 나온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물 한 방울 쓴 것이 아니다. 그러니 짓궂은 선배들이 마른 목강이란 속어를 창조했었는지 모르겠다. 나는 이 마른 목강이란 말과 가다뺑 교육이란 말을 접할 때마다 우리선배들의 유머감과 재치 있는 표현력에 감탄한다.

나 자신 입학하는 날부터 마른 목강의 신세를 졌다. 격심한 경쟁을 뚫고 당대의 명문교에 합격했다는 긍지와 미래에 대한 벅찬 희망을 품고 등교한 날부터 사흘을 연거푸 매맞는 신세가 된 것이다. 이유는 별것이 아니었다. 같이 입학한 학우에 지금은 LA서 사는 이근호(李根虎)군이 있었다. 반가웠다. 이군은 이름난 산골 삼수(三水)의 보통학교에서 같은 반에서 공부하다가 내가 3학년 때인가에 단천(端川)으로 전교하는 바람에 헤어진 절친한 친구가 아닌가. 기뻐서 둘이 교실 안에서 씨름을 하다가 영켜 뒹굴다가 그만 넘어지며 유리창을 하나 깨고 말았다. 이것이 화근이 된 것이다. 담임이었던 영어교사 우찌다(內田)에게 교무실에 불러가서 두들겨 맞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연 사흘이 계속되었다. 깨진 유리창 변상도 하였지만 맞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다. 도수 높은 안경 너머로 나를 노려보며 신이 나서 때리던 cat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우찌다의 눈초리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같은 반에 황만기(黃晩起)라는 친구가 있었다. 나는 언젠가 교무실

에서 교사들이 그를 둘러싸고 축구 볼을 차듯이 하며 매질을 하는 것을 보았다. 웬일인지 그는 마른 목강을 많이 받았다. 나도 매를 많이 맞았지만 황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그는 이러한 육체적 학대만 당한 것이 아니다. 그는 특히 우찌다 교사의 좋은 먹이감이 아니었던가 한다. 물론 황군은 별로 야무진 측에 들어가지 못해서 지각하는 경우도 가끔 있었다. 그러면 우찌다는 됐다 하듯이 네 애비는 이름도 잘 지어줬구나, 만기라, 밤에 일어나니 늦을 수 밖에 없잖아 하며 놀려대곤 했다. 당시에는 우리도 킁킁 웃고 했으나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가지고 놀림 받은 본인의 가슴은 어찌했으랴. 교육자로서의 sensitivity 같은 것은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자들이었다. 황군은 진급을 못했다. 그리고 당시의 경성제국대학 부속병원의 정신과에 입원하였고 거기서 세상 떠났다고 들었다. 정확한 것은 모른다. 그러나 황군이 정신과에 가게 된 이유의 커다란 부분은 남중에서 받은 육체적 정신적 학대에 있었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다.

요즘 인터넷에서 가장 애국자인 떠드는 젊은이들 눈으로 보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친일파 매국노로 매도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 교문을 들어서면 봉안전(奉安殿)이라고 하며 천황 부부의 사진, 교육칙어(勅語)니 군인칙유(軍人勅諭)니 하는 것을 “모시고” 있던 일본신사모양의 조금마한 건축물이 있었다. 우리는 등교할 때나 하교할 때나 이 봉안전의 앞을 지나갈 수 밖에 없었고 그때마다 모자를 벗고 허리를 90도로 굽혀 절을 해야만 했다. 아침조례 때마다 “우리는 대일본제국의 신민이다. 충성으로 군국에 보답하리라”로 시작되는 3개조의 “황국신민의 서사(誓詞)”를 부르짖어야 했고 천황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절하는 이른바 궁성요배(宮城遙拜)를 해야만 그날의 수업을 할 수 있었다. 물론 봉안전에 절하는 것을 거부해야 했고 매달 한두 번씩 있었던 신사참배에 동참하지 않았어야 했고 창씨개명도 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러나 중국의 어느 형제처럼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 고사리나 먹고 살지 않는 한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현금의 잣대로 당시를 측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하기야 베를린 올림픽의 마라톤경기에서 우승한 손기정 선수도 현금의 잣대로는 전형적인 친일파고 매국노다. 가슴에 일장기를 달고 뛰어 우승하여 일장기를 높이 올리고 일본국가를 올리게 하여 일본의 국위를 전세계에 선양했으니 손 선수야말로 친일의 표본이 아닌가. 그러나 아무도 그를 친일파로 몰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도리어 민족의 영웅으로 떠받친다. 일본을 놀렸다는 것이 우리의 큰 자랑이고 영광된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면 당시 우리는 일본인보다 앞지르는 것이 큰 목표의 하나였다. 우리 남중동기 중에도 일본 육군사관학교나 육군유년학교에 간 친구들이 있다. 그렇다고 그들을 친일파로 모는 학우들을 본 일은 없다. 장교가 돼서 일본인에 호령하고 지휘하는 것을 우리는 자랑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나아가서 후에 독립운동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한다. 일본군에서 소위, 중위로 있었다고 친일파 명단에 올리는 현금의 잣대와는 너무나 다르다.

“국어상용”이라는 것도 황민화 교육의 일익이었다. 우리말을 쓰지 말고 일본어만을 쓰라는 것이다. 그래도 집에서는 누구나 다 조선말을 쓴 것은 물론이고 학교 안에서도 친한 친구들끼리는 조선말을 했다. 그러나 들키면 벌을 받았다. 함흥에 유명한 외과의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집에서도 일본말 만을 사용했다고 한다. 우리들은 그 사람을 비웃던 생각이 난다. 그러니 설사 한국인 선생이라 하더라도 이른바 국어라는 일본말을 해야 했고 그들 역시 꼭 일본말로 우리를 대하였다. 나는 여기서 언제나 깊이 자괴하는 사건을 하나 털어 놓겠다. 집도 같은 동네에 있었고 키도 비슷해 교실에서나 행렬을 하

거나 늘 옆에 있어 가깝게 지낸 친구로 구(具)모군이 있었다. 그런데 구군은 원래 남도 출신이지만 부친의 직장관계로 함경남도에 거주하고 남중에 들어왔던 것이다. 그런데 남도출신이라 우리하고는 악센트가 아주 틀렸다. 아마 소학교 때 이 악센트 때문에 무척 학우들의 놀림감이 되었던 모양이었다. 구군은 자위책으로 일본말만을 사용하였다. 그가 일본말을 고집하니 나도 그와 같이 놀 때는 의례 일본말로 상대하였다. 하루는 무슨 일이 원인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운동장 철봉 밑에서 그와 싸움이 벌어졌다. 둘이 싸우는 모습을 멀리서 본 노친이라는 별명을 가진(본명은 생각나지 않는다) 동급생이 말리려고 뛰어 왔는데 우리가 일본말 하는 것을 보고 “쳇, 싸움하는데 일본말을 하네” 하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이 말을 들은 나는 어쩌나 창피했는지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식은 땀이 나올 지경이다.

양선생 얘기를 소개한다는 것이 많이 빗나갔다. 그런데 양선생의 일화는 이 국어상용과 연관이 깊다. 우리가 남중에 입학했을 때에는 한국인 선생은 두 분 밖에 없었다. 이 상태는 꽤 오래 유지되었던 모양이었던 모양이었다. 그런데 일본이 대륙침략을 시도하다 차츰 인적자원에 문제가 생겼는지 한국인 교사가 늘기 시작하였다. 우리 1학년 2학기에 영생중학에 있던 이영필 선생이, 2학년에 들어서서 영생고녀에 있던 양인성 선생이 부임해왔다. 두분 다 우리 남중의 선배였는데 한국인 선생이 100% 증가한 셈이다. 양선생은 한국인으로서는 드문 동경고등사범출신으로 박물(博物), 즉 식물학이니 동물학이니 하는 과목의 담당이었다. 그때 관행대로 선생의 별명을 지어야 했는데 양선생은 고개를 한쪽으로 약간 굽히고 있어 처음에는 영생고녀에서 부르듯이 6시5분전이란 별명을 바치려는 기운도 있었으나 너무 길어서인지 “양장이”라는 별명으로 낙착되고 말았다. 이미 수학

의 한순현선생을 “한장이”라고 부르고 있었으니 그 뜻은 모르면서 그저 양장이, 양장이 하였다.

당시 이 “장이”라는 말이 선생을 뜻하는 줄을 한학에 약한 나는 몰랐다. 장이는 匠(장), 즉 師匠(사장)이며 선생이라는 칭호이다. 지금도 한순현선생은 술을 좋아하셨기에 별명을 한잔이라고 했었는데 발음관계로 한장이가 됐다는 학설을 신봉하는 동문들을 보는데 한선생은 우리 아버지세대부터 남중에서 가르쳤던 만큼 그때의 선배님들은 한학에 조예가 깊었었으니 한선생에 대한 존칭인 한장이를 별명으로 봉정(奉呈)하였다고 나는 믿는다. 그렇지 않으면 술과는 별로 인연이 없었던 양선생을 양장이라고 했을 리가 없지 않은가. 좌우간 양선생은 고등사범을 나온 교사답게 가르치는 내용도 멋졌다. 첫 시간에 natural history라는 단어를 칠판에 쓰고 박물을 영어로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무척 신기하게 느끼기도 했고 왜 자연역사가 박물이 되는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2학년 여름방학이 지나고 2학기가 시작되었다. 그때 양선생은 식물학을 가르치셨는지 생물학을 가르치셨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나 첫 시간은 갑을조(甲乙組)가 합병하여 받게 되었었다. 여기서 나로서는 상상도 해 보지 못한 일이 발생하였다. 이제 70년이 지난 일이니 자세하고 정확한 정황은 생각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비좁았던 합병수업에서 양선생은 학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이것도 당시로는 상례를 벗어난 일이었지만) 여름방학에 읽은 책 이야기를 하면서 칠판에 한시(漢詩)를 하나 쓰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二十樹下三十客

四十村中五十飯

이것이 그때의 한시인데 선생은 “스무나무 밑의 설은 손이요, 망한 마을의 쉼 밥이라” 하며 방랑시인 김삿갓(金笠)이 어느 마을에서 밥 한끼를 구걸했더니 쉼 밥을 주어 이런 시를 지었다고 하는 얘기를 조선말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런 풍자적인 시뿐만 아니라 김삿갓은 야밤에 눈오는 산중을 헤매면서

月白雪白天地白

山深夜深客愁深

과 같은 격조 높은 시도 지었다고 말하였다. 나는 무슨 격렬한 전격(電擊)이라도 받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선생이 교실에서 조선말을 쓰다니! 일찍이 생각해 본 일도 없고 당해 본 일도 없는 일이었다. 물론 우리가 소학교 다닐 때는 조선어 수업도 있었으나 나의 반은 불행히 4학년서부터 졸업 때까지 일본선생이 담임으로 있어 조선어를 교실에서 들어본 일이 없었다. 더욱이 남중에 들어가서부터 교내에서는 “국어상용”을 강요했기 때문에 교실에서 정규 수업시간에 선생이 담당학과와는 무관한 문학적 얘기를 조선말로 태연히 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사건이라고 밖에 할 수 없었다.

나는 전격이란 말을 사용하였다. 그때의 나의 놀라움과 마음의 동요는 전격이란 말로도 모자란다고 생각한다. 후에 가끔 이때의 일을 학우들과 얘기하기도 하였는데 그들은 나같이 깊은 감동을 받은 것 같지 않다. 물론 당연하다고 생각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때 양선생이 조선말을 하니 킬킬대면서 서로 얼굴을 마주 대보던 기억이 난다. 당연했다고 생각했다면 그랬을 리가 없지 않은가. 왜 내가 그렇게 깊은 충격을 받았고 7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低學年(저학년)때 키가 작아서 나보다 작은 동급생은

5,6명에 불과했다. 아마 키가 작았던 만큼 지능발달도 낮아 순진하다 못해 유치했는지 모르겠다. 그때 나이가 15세에 불과하였지만 감수성은 누구보다 강했던 것 같다. 황국신민교육의 무제한 주입은 나름대로 자신의 identity에 대하여 방황케 하였으리라. 그런 때에 교실에서 선생이 조선말을 하는 그런 ‘가당찮은’ 일에 그 누구보다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이 사건은 나에게 민족이란 관념을 뇌 깊이 새겨 놓았다. 문학소년은 아니었지만 일본인의 소설은 꽤 읽었다. 반면에 한국의 문학은 그때까지 읽어본 일도 없고(그때의 내 한글 실력으로는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었겠지만) 한국인 소설가로서 이광수라는 사람이 있다는 정도나 알고 있었으니 말이다. 물론 김삿갓이란 처음 듣는 이름이고 조선말을 한자를 사용하여 표현했다는 것이 신기하고 놀라웠다. 나는 내 삶, 생각이 그 사건을 계기로 달라진 것을 알았다. 그 당시에는 그런 말이 없었지만 나의 ‘정체성’을 찾은 것이었다. 그로부터 양선생을 무척 따르기 시작하였다. 누가 주동이었는지 잊어버렸으나 곧 선생을 중심으로 ‘박물관회’가 조직되었다. 지금은 어느 학교에서나 흔하고 흔한 것이 동아리이고 또 그런 조직을 장려하는 모양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모임이 그렇게 곱게 보이지 않았거나 금지되었던 시절이었다. 일종의 비밀결사에 속해 있는 것 같은 흥분도 있었고 하여, 다음 모임이 기다려지곤 하였다. 좌우간 우리는 꽤 자주 뒷산으로 올라가 식물채집, 곤충채집, 심지어 광물수집이랍시고 돌덩어리도 열심히 줍던 생각이 난다. 회원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학우 중 누구누구가 회원이었는지는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 그저 양선생과 같이 산을 돌아다니며 신나게 조선말을 하던 기억만 날뿐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 남중시절의 가장 행복한 때였다. 그러나 이런

즐거울 때도 오래 가지 않았다. 얼마나 계속되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으나(한 1년 정도로 생각하지만) 어느날 갑자기 양선생이 우리 시야에서 사라졌다. 아무도 선생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이 학생, 저 학생이 전하는 귀뜸으로 양선생은 경찰에 구금되었다는 것이 알려졌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사상문제라고 추측할 수 밖에 없었다. 나는 지금도 정확한 이유를 모른다. 동기인 이삼열군에 의하면 양선생은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무정부주의자였다고 한다. 진위는 알 수 없다. 또 그분이 우리 앞에서 무정부주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다. 물론 그 비스듬한 얘기를 했으나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가능성은 크다. 언젠가 선생은 칠판에

空手來空手去

운운하는 시를 쓰고 인생이란 이런 것이라고 하신 생각이 난다. 그러니 무정부주의라기 보다 혹시 허무주의와 무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어떤 사상이건 혼자서 생각했다면 구속될 리가 없고 무엇인가 외부적인 활동이 있었을 것은 확실하다. 어쨌든 선생이 경찰에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나는 겁이 나던 것이 생각난다. 만일 그가 이끌던 박물동호회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경찰이 회원을 그냥 뒤둬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경찰에 연행되지도 않았고 심문 당하지도 않았다. 선생이 입을 굳게 다물었는지 경찰이 그런 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지 알 수 없지만 좌우간 우리는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다.

해방 후 나는 양선생을 한번 만나 뵈는 일이 있다. 해방한 해는 그래도 38선이 느슨해서 12월 겨울방학에 서울서 함흥까지 우리는

무리를 지어 내려갔다. 물론 숨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철원서부터 화물차에 뺨뺨이 실려 가기도 했다. 일행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학술원 부회장으로 계시는 우리 남중선배 주진순(朱軫淳)선생 외에는 기억에 남는 사람이 없다. 반면 방학이 끝나고 다시 서울로 올라올 때는 누구하고 동행했었는지 전혀 기억이 없고 다만 38선 넘어 동두천에서 미군이 뿌리는 디디티를 흠뻑 뒤집어썬던 생각만 난다. 어쨌든 함흥에 가서 양선생을 수소문해 봤더니 함경남도 인민위원회의 교육부장(국장?)으로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옛 도청자리에 가서 선생을 만났었다. 무슨 얘기를 얼마나 했는지 전혀 기억에 없다. 그러나 선생께서 무척 반가워 하시던 것은 생생히 기억한다. 이것이 나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민족정신을 심어 주신 양선생을 최후로 본 기회였다. 그 후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양선생은 숙청되었다고 한다. 선생은 말년에도 불행했던 모양이다. 이제 양선생은 이승에 안 계실 것이다. 선생님 고이 잠드세요. 명복을 빕니다.

양선생의 얘기는 이것으로 끝이다. 그러나 한가지만 더 적고 붓을 놓겠다 선생들이 학생을 괴롭히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 같았으나 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따뜻했다고 생각한다. 왜냐, 남중에서는 상급생 선배들이 하급생 후배를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으로 대했기 때문이다. 이런 관계는 당시의 공립학교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었다. 일본인의 습관으로 상급생은 하급생에게 괜히 폭력을 사용하였다. 일본 군대에서 하루라도 먼저 입대한 군인이 후에 들어온 신병을 마구 다루었는데 그 악습을 무슨 미풍양속으로 여겼는지 중등학교에서도 성행했다. 그런데 남중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 우리 학교에서 상급생과 하급생이 특히 화목한 것을 나는 선생이 학생을 못

되게 균 것에 대한 代償(대상)으로 조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많다. 전반적인 학교 분위기뿐만 아니라 나는 개인적으로 선배, 상급생에게 많은 귀여움과 도움을 받았다. 2학년인가 3학년인가 될 때 우리 집 앞 길 건너에 하숙하고 있는 상급생이 있었다. 그는 남중의 축구선수로서 체격이 좋았다. 가냘픈 나를 늘 끌고 다니면서 내가 모르는 세상을 알려주었다. 또 고등학교 시험을 친다고 일본으로 건너갔을 때 일면식도 없으면서 단순히 선배라는 인연 하나로 자기 자취방에서 숙식을 하게 해 준 일도 있었다. 오늘날의 나를 형성하는데 선배들이 기여한 바 크다고 나는 생각한다.

상,하급생의 관계를 적은 김에 한마디 더 해야겠다. 나는 우리 26회가 나쁜 의미에서 남중의 전통을 두 가지 꺾었다고 본다. 우리에게도 하급생이 생겼을 때 그들을 강당에 불러놓고 일찍이 남중에서 볼 수 없던 일을 저질은 것이다. 즉 폭력을 사용한 것이다. 무슨 핑계가 있었을 것이지만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제로 폭력을 사용한 동급생은 극히 소수였다고 기억하지만 우리회는 남중 역사상 일대 오점을 남겼다고 생각한다. 또 한가지는 나뻐다기 보다는 무기력했다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회는 경찰에 집단 검거되는 일 없이 졸업한 것이다. 우리는 어느날 학교에 가면 상급생들의 신발장이 텅 비고 하는 것을 보곤 하였다. 이것은 그 학년 학생 대부분이 경찰에 연행됐다는 것을 뜻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들은 무슨 운동이 있었다는 등 사상문제가 있었다는 등 하며 웅성웅성 하던 것이 생각한다. 우리 다음 회도 우리 졸업 후 미국의 소리 방송을 듣고 전파했다고 해서 거의 전부 경찰에 연행된 일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유독 우리회는 “상처 없이” 5년을 보냈다. 그때의 선생들은 모범회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유난히 무기력했던 모양이다. 참회의 뜻에서 우리 회

의 부끄러움을 고백한다. 흥안의 남중생활이 어느덧 70년 전 일이 되었다. 슬픈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다. 이제 많은 급우들이 이 세상에 없거나 이북 땅에 있다. 다시 만나는 날이 있겠지. 망언 다사.

無題

朴 昭 會 (27回)

時間의 흐름은 정말 빠르다. 내가 美國 땅에 온지가 벌써 53년이 지났고, 外科醫師 開業에서 隱退한지가 22年, 그리고 咸南中學을 卒業한지가 於焉 64年이 되었다. 隱退 後에 種種 받는 質問에 「그많은 時間을 어떻게 消耗하는가」라는 것이다. 勿論 相對에 따라서 答辯도 多樣하지만 雜想 또는 夢想(DAY DREAM, REVERIE, BROWN STUDY)을 한다는 말을 흔히 하여 왔다. 여기에 쓰는 글도 이런 雜想中의 한토막이며, 「지렁이의 잠꼬대」라고 할까. 닭갈비(鷄肋) 같아서 전혀 價値없는 글이다.

ROBERT FULGHUM이란 사람이 「ALL I NEED TO KNOW, I LEARNED IN KINDERGARTEN」 卽 「내가 必要로 하는 것은 다 幼稚園에서 배웠다」라는 冊을 썼는데, 나는 이것을 달리 말하여서 「내가 必要로 하는 것은 다 咸南中學에서 배웠다」라고 말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자랐던 곳은 咸鏡南道 長津이란 산골짜기여서 幼稚園 같은 것은 없었고, 電氣불, 汽車 等도 내가 中學校에 入學하여 咸興에 와서 처음 求景하였었다.

돌이켜 볼때 우리 中學校의 教育은 서울의 그 어떤 名門 中學校에 比하여 조금도 遜色이 없었다. 先生들의 質도 그렇커니와 훌륭한 同窓들이 多數였다. 多數의 親舊들이 벌써 別世하였으나, 남아있는 同

窓들로부터는 아직도 많은 敎訓을 받고 있다. 어렸을 때 一般的 敎養으로 들었던 「中庸을 지켜라. 남을 해치지 말라. 三端(筆端, 舌端, 足端) 꿈은 事實보다 더 힘있고, 希望은 經驗보다 오래가며, 사랑은 모든것을 克復한다」 등의 俗言들은 古今을 莫論하고 그 眞理에 變함이 없다. 外科學에서도 첫번째 가르침이 「PRIMUM NON NOCERE」라고, 「첫째로 害를 주지말라」라는 말이 있다. 患者에게 完全治療는 못한다 하여도 더 나쁘게 하여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先生들 中에서 몇몇 分들의 얼굴은 지금도 눈앞에 생생하게 떠오른다. 英語의 津田文平 先生의 住所를 約35年前에 어떤 同窓으로부터 알아서 便紙를 드렸더니 곧 流暢한 墨筆로 答狀을 주셨다. 生物學의 楊仁性 先生은 우리의 視野를 많이 넓혀주셨다. 金笠(金笠)을 紹介해 주셨고(二十樹下三十客, 四十村中五十食을 비롯하여 여러 諷刺와 作亂기 있는 詩들을), 人生의 虛無함을 뜻하는

空手來空手去
世上事如浮雲
成墳土客散後
山寂寂月黃昏

란 詩는 지금도 가끔 외치고 있다.

中學時節에 읽은 冊中에 「아라비아인의 天幕」이란 小冊이 있었다. 要約하면 어떤 아라비아國의 皇太子가 王位에 오르기 前에 民生을 살펴보기 爲해 暗行査察을 떠난다. 어떤 오아시스村에서 그는 젊고 어여쁜 處女를 만난다. 사랑이 깊어갈수록 時間은 빨리 가서 來日이면 還都하여야 하는 그 전날 저녁 두 戀人은 椰子樹 그늘 밑에 앉아서 沙漠 저편에 떠있는 반달을 쳐다보면서 사랑을 속삭인다.

皇太子가 「여보 당신에 對한 내마음 이처럼 불타오르니 아마 世上

에서 가장 강한 것은 사랑이겠지요」라고 하였더니 女人은 곧 「아닙니다 사랑도 時間의 험한 波濤 앞에는 結局 쓰러지게 마련이지요」라고 답하니 皇太子는 「그러면 世上에서 가장 강한 것이 時間인가요?」라고 말한다.

女人은 말을 이어서 「아닙니다. 아무리 時間의 波濤가 힘차게 닦쳐와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皇太子는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지요」라고 물으니, 女人은 조용하게 「그것은 追憶입니다」라고 답한다.

每年 줄여가기만 하는 우리 同窓들 생각을 하니 「SIC TRANSIT GLORIA MUNDI」-世上의 榮華는 이렇게 지나가는구나-라는 말이 切實히 느껴진다.

흘러가는 歲月을 붙잡아 둘 수 없고, TIME MACHINE으로 過去를 찾을수도 없으니 우리에게는 다만 今日, 現在, 只今만이 存在한다. 그러기에 옛사람들도 말하였던가-CARPE DIEM, QUAM MINIMUM CREDULA POSTERO(未來에는 期待를 두지 말고, 今日을 捕捉하라는 要旨의 말)라고 今日을 捕捉하라는 말에는 옛노래처럼,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노나니”라는 뜻만이 暗示되어 있지 않은것 같다. 每日每日을 充實히 살며 自己向上에 努力을 하라는 뜻도 있으리라. 詩人 LONGFELLOW도 “人生禮讚”이란 詩에서 슬픔이나 기쁨이 우리의 窮極의 目的이 아니고 “自己向上”에 더 큰 뜻이 있다는 要旨를 말하고 있다.(NOT ENJOYMENT, AND NOT SORROW, IS OUR DESTINED END OR WAY; BUT TO ACT, THAT EACH TOMORROW FIND US FURTHER THAN TODAY)

TOLSTOY는 삶의 目的을 “善行을 함에 있다”라고 하였고, GOETHE도 이에 同意하여, “DIE TAT IST UBER ALLES, NICHTS RUHM”(行動 卽 善行이 가장 重要的 것이지 名譽가 重要的 것이 아

니다)라는 要旨의 말을 하였다.

只今 이 時刻은 하늘이 준 膳物이라 生覺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인지 現在를 英語로 PRESENT라고 하는데 이 單語 속에는 膳物이란 뜻도 있다. 이런저런 雜想을 하고 있는데 부엌에서 “点心食事 하세요”라는 소리가 들려와 精神을 차려 時計를 보았더니 벌써 正午가 넘어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글도 여기서 終止符를 찍기로 한다.

그날은 일요일(1)

韓 淳 輔 (27回)

그날이 오면
또 잠을 설치겠지요
죽는 날까지 외쳐도
못다 할 말은

“그날은
일요일이었어요
분명 일요일이었어요.”

사람의 아들, 예수 가시다(2)

맑고 슬픈 종소리가 하늘을 때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그 한마디
나 이제 사랑을 보고 만져본 것 같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 80세 인생의 회고 -

한 형 주 (28회)

회고해 보건데 내가 원고지에 글을 쓰게 된 것은 1971년 봄 「남시春秋」라는 남시 월간 잡지를 창간 발행하면서 부터였다.

발행인으로, 인사말을 게재하고, 남시인으로서 독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부지런히 글을 쓰고 편집에 참여하며 몇 년이 흘렀다. 그런 가운데 나의 주변에는 많은 「남시春秋」 벗이 생겼고, 특히 문인(文人) 남시인들이 「남시春秋」에 관심을 보이며 솔선하여 잡지 편집에 참여하고 도움을 주어서 나는 잡지를 발행하면서 많은 문인들을 알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1976년) KBS 사장을 지낸, 지금은 고인이 된, 소설가 서기원(徐基源)의 제의로 남시수필을 모아 「魚信을 기다리며」라는 수필집을 공저로 내게 되었고 그것이 나의 수필계 입문의 동기가 되었다.

그 뒤 남시수필을 모아 「八字섬의 메뚜기」라는 수필집을 선보였더니 상상외로 남시계 뿐만 아니라 많은 독자들로부터 환대를 받았다. 그 뒤 글쓰는 의사들이 만드는 잡지나 동인지에도 알려져서 원고 청탁이 들어와 수필을 많이 기도하게 되었다.

1977년 수필문학진흥회가 탄생될 때 초대 회장으로 우송(友松) 김태길(金泰吉) 선생이 추대되고 부회장 3인 중에 나도 끼게 되었다.

그 당시 유일한 수필 월간지인 「수필문학」에 힘을 보태려고 한 것인데 그 잡지가 문을 닫게 되자 계간 수필잡지 「수필공원」의 탄생으로 수필문학진흥회 수필가들과 활발한 교류가 시작되었고, 1981년 <수필문우회>의 창단 멤버로 의사 수필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나는 많은 것을 얻었다. 그 중에서도 마음으로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스승이나 선배 문인과 지성과 따뜻한 감성을 지닌 많은 수필 문우들과 사귀게 된 것을 행운으로 생각한다. 이분들과의 아름다운 친교는 오래도록 나의 마음속에 행복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

금아(琴兒) 피천득(皮千得) 선생님은 나의 서울대학교 예과 시절 영문학을 가르치던 은사다. 수필을 쓰면서 마음속으로만 흠모하던 중 나의 칠순 기념 수필집 「물같이 바람같이」 출판기념회(1997년)에 모시게 된 후 사제간이 수필문우로서 스승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그날, 칠순기념으로 당신이 평생 손에서 놓지 않으시고 아끼시던 파카(paker) 볼펜을 주셔서 지금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서울대학 예과 제자가 수필을 쓰는 동인으로 나타나기는 처음이라며 기뻐하셨고, 더구나 의사가 수필을 쓰는 것이 신통하다며 내게 남다른 관심과 사랑을 기울려주셨다.

선생님의 미수연(米壽宴)에 초대되었을 때, 우리 내외를 선생님 매인테이블에 앉히시고 나에게 건배제의를 하라고까지 하셨으니 선생님의 제자사랑이 어떠하셨음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다.

우송(友松) 김태길(金泰吉) 회장과는 1977년 수필문학진흥회에 회장과 부회장으로 만나면서, 그리고 1981년 <수필문우회>의 동인으로

30년 세월을 보내면서 우송선생과 나와서 관계는 형제처럼 다정한 사이가 되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우송선생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그 명석한 두뇌에 그저 감탄을 금치 못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더욱이 윤리철학을 전공하고 인생을 성찰하고 고뇌하신 분이래 항상 겸손하고 허세를 모르고, 일상생활에 탐욕이나 거짓은 있을 수 없는 분이다.

나는 우송선생을 한마디로 이 나라의 석학 중에 석학이고 우리나라의 보배로운 인물로 숭배하고 존경하여 왔다. 따라서 선생님이 노후에 정열을 쏟은 사회사업에 나도 적극 참여하여 선생이 이사장이신 심경문화재단(心耕文化財團)이 재단 이사로 <성숙한 사회 가구기 모임>의 운영위원으로, <계간수필>의 운영위원으로 따르게 되었다.

그분들이 곁에 계셨기에 큰 힘이 되어 내가 쓴 수필집이 7권이나 출간하게 되었다. 「魚信을 기다리며(1976)」, 「八字섬의 메뚜기(1978)」, 「한형주의 봉어낚시(1978)」, 「사랑과 미움의 세월(1988)」, 「물같이 바람같이(1997)」 그리고 수필선집 「2 그리고 나(2002)」, 「세월을 낚다(2009 출판예정)」 등이다.

또 하나 수필에 관한 나의 회고 중에서 잊을 수 없는 추억거리는 <계간수필> 1999년 봄호부터 2001년 겨울호까지 3년간 <계간수필>의 표지를 내유화 작품으로 꾸몄다는 것이다.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 사계절에 맞추어 춘하추동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 그림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때의 즐거운 추억으로 마음속에 기쁨을 간직하고 있다.

그 당시 인쇄술이 지금과 같이 발달하지 못하여 그림의 색도가 제대로 인쇄되어 나오지 못하는 불만에 마음 조였던 기억도 잊지 못한다.

나는 80여 년을 살아왔다.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는 인생의 종착역

이 가까워 옴을 느낀다. 이 나이가 되니 새삼 지나온 세월을 회상과 추억 속에 더듬어 보는 시간도 가져보며, 산다는 것이 무엇이나? 나의 삶은 과연 만족스러웠는가? 하고 제법 심각한 인생문답에 골똘히 빠져들기도 한다.

나의 지난날을 생각할 때 나는 그런대로 무난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있다. 천성이 비교적 낙천적인 성격 탓도 있겠으나 무엇보다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가졌다는 사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수궁한다.

나는 의사로서 평생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도와 그들에게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게 하는 일에 종사해 왔다. 그래서 위로와 격려로 아름다운 정을 수많은 환자들과 나눌 수 있었음을 큰 보람으로 지니고 있다. 또한 수필을 쓰면서 좋은 선후배 문인들과 교류하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물고기보다 대자연을 낚으며 순박한 시골 인심 속에 팔도강산을 누비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낚던 낚시도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던 시간이었다.

어려서부터 예능에 눈 떠 연극무대에 섰고, 대학시절에도 연극경연대회 무대에 서서 「베니스의 상인」의 공연도 했다. 그 후 「인조인간」 등 몇 차례 시공관 무대에 서기도 했고, 또 ‘메디칼 코러스’에 합창단원이 되어 오페라의 유명한 합창곡들의 공연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클래식 음악이 들려오면 함께 흥얼거리며 즐거워지는 것은 그런 추억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또, 자연의 아름다움을 유화(油畵)로 그리는 즐거움을 누렸고, 지구상에서 아름답다고 알려진 많은 곳을 찾아서 여행 다니는 행운도 누렸다.

독일의 시인 칼 뵘세는 「산너머 먼 곳에」라는 시에서 행복은 산

넘고 물 건너 백방 찾아다녀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가슴 속에 즉 마음속에서 만날 수 있다고 읊었다.

그 시처럼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상에는 아름다움이 널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지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언제나 내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값지고 보람되게 즐기며 살아왔기에 그 시간들이 돌아보면 모두 행복된 시간이었던 것 같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몇 가지 조건이 따르지만, 살면서 행복이 머무는 곳은 각자의 가슴 속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는 언제나 나의 마음속에 아름다움을 보듬으려고 하며 오늘까지 살아왔다. 아름다움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준다. 행복이란 한마디로 ‘마음의 평화와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만족’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나는 이 회고담을 쓰면서 나의 지난날을 돌아본다. 삶을 살다보면 힘들고, 외롭고, 절망하고 두렵고, 벅찬 날들이 왜 없었을까 만은 그런 기억에 메이지 않고 그런대로 후회 없이 즐겁게 살았다고 다시 한 번 독백하게 된다.

八旬의 望郷 엘레지

申 道 均 (28回)

1. 양그러진 고향 산천

함흥의 30리 남쪽 ‘함주(홍상)’라는 고장의 서쪽 산줄기 중에 수려하게 돋은 봉우리가 있었다. 한동안 쳐다보지만 했던 그 산이 ‘천덕산’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실향 50년 후이다.

사실은 사춘기를 회상하던 중에 떠오른 ‘한이사’를 예전 지도로 찾다가, 그 사찰의 바른 이름이 ‘환희사’인 것과 함께, 그 소재가 ‘천덕산’인 것까지도 알게 된 것이다.

그 산명이 인륜의 철리 탐구도장을 시사하는 천덕산(泉德山, 709m)이기에, ‘중생의 환희(歡喜)’를 기원하는 불당을 지으면서, 음양설에 좇아 비구니사찰로 작정한 것으로 생각했다.

함주의 들판과 성천강, 광호와 동해는 물론 함흥과 정평 시가까지도 굽어보는 천덕산이, 아침햇살에 더욱 수려하던 정경을 통학차창 너머로 쳐다보았던 풍경이 아스라이 떠오른 것이다.

그 천덕산에서 조망하는 동편의 산과 들, 강과 바다, 내와 호수 등 자연조형 모두가, 방위와 위치에 들어맞으면서 멋지게 어우러졌으니, ‘하나로 양그러진 산천’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 정경에 대한 정감을 맛깔스럽게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2. 그 봄날의 망각

천덕산의 환희사계곡에 다녀온 것은 온 세상이 소란스러웠던 1943년의 봄과 여름이었다. 그 시국에 어쩔사리 다녀온 두 번 중, 어이없게도 봄철 야유회를 망각했었다. 그런데 그 봄날이 50년 후에 소생했기에, 이제 그 경위를 더듬으려한다.

소년기를 중일전쟁과 2차대전으로 지새운 전란세대가, 광복된 청년기에는 동족상잔의 참극까지를 천리 타향에서 겪으면서, 소년기 이전 성장자료 전부는 포화에 소멸되었고, 포부나 야망 성취보다는 전쟁폐허 복구와 곤궁했던 생존문제 해결에 투신했던 장년기의 고초 속에서, 그 봄날을 까마귀가 슬그머니 채간 듯했다.

덧없이 고회를 지낸 어느 날, 그 봄날의 증거인 사진 한 장을 친구가 제시할 줄이야! 그 기념사진 속 여러 사람 중에는 틀림없는 나와 그 친구의 모습은 물론, 일본년호 昭和를 아예 빼버린 ‘一八(1943), 四, 二三’과 ‘歡喜寺까지도 또렷했다.

그리고 폭포주변에 흠어진 여남은 학생 중, 중앙의 맨 앞 복판에 서있는 자가 나였다. 물에 서서 멋을 부린 듯한 나의 그 포즈는, 학동기를 지낸 수려했던 산촌에서 움트고, 그 산천이 키워준 정서적 취향의 자세였으리라! 것처럼 감성이 풍만했던 나를 재발견하고는 사춘기적 감격의 눈시울을 적시기까지 했다.

그 봄날을 망각한 것은 초출교사에 의해 제안된 동향학도 전인원의 집회여서, 동참이 웬지 내키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었을 것이다. 불편했던 그 심기에, 그 고향의 그 봄날이, 그 나이의 그 감성에 제대로 인상되었을 리 없다. 그에 따라 그날 일기를 두세줄로만 갈겨 쓴 것도 2H연필이었을 것이다.

3. 꺾꺾한 모래톱 낭만

서구 문물을 일찍부터 수입한 일본의 식민통치하였던 우리의 소년기는, 학업이 인생의 전부로 알아야했던 중학시절이었다. 학업에 따라 지능과 함께 감성도 신장하면서, 자아가 태동하고, 이성을 연모하는 사춘기이기도 했다.

그 5년인 중학교 이수 중, 사춘 중기에 늑막염이 발병했다. 그 육신의 치유를 위한 2개월 결석에 대한 학교당국의 운영 착오에 의해 1년을 유급해야했다. 그로 인해 빚어진 분개, 우울, 고독 등 스트레스로 인한 자폐증세에 이어, 염세주의자로 변모될 수도 있었을 내가, 그 비극에서 도피할 수 있었던 것은 정서적 소양이라는 생각이다. 그 소양은 소화 5학년 과정을 객지에서 이수하면서 생긴 고독증상으로 탐독한 순수아동문학에 의해 배양되었다고 믿는다.

3학년에 진급하면서 문학을 사랑하는 <칠우아(七羽鴉)> 동아리가 절로 생겼고, 그 일곱의 낭만을 위한 첫 모임이, 마침내 3학년 여름 방학 첫날, 오로리 역사계의 성천강 모래톱에서 벌어졌다.

오로리 갑부이자 양조장집 귀동자인 김 군이 마련한 소주 한 양동이와 가마솥에 끓인 닭백숙으로 풍류까지 맛보려 했다.

화조월석(花朝月夕) 아니기 망정! 갈증으로 들이킨 소주와 허기로 삼킨 닭고기가 설빔어진 주기와 패기로, 강물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던 태양더러 <李太白이 예 왔노라! 달이 될지어다!> 호령하더니만 꺾꺾한 모래밭에 나자빠졌고, 사지를 벌린 그 <太>를 詩題로한 적비가(赤鼻歌)를 드르렁 읊더니, 정작 달이 떠오르자 잠꼬대 투정만 부리더라하더이다.

정확처분감인 그 칠우아의 주연이, 오로리 유지들에 의해 소리나지 않도록 수습되었으니 망정. 꺾꺾한 모래톱에서 낭만을 찾다니!

4. 낭만의 지리적 조건

나의 생애에서 영광과 환희를 함께 감치도록 맛본 것은, 1940년의 4월 5일이면서, 관북 제일 학당의 제복을 착용하고, 한남중학교에 입학한 사실이면서, 그 한 번 뿐이었다 하겠다.

그 벅차던 감격이 어려운 학업과 엄한 교칙으로 차츰 오그라들고, 철이 들면서 자아와 이성을 자각하자, 갖가지 생각과 느낌이 잇달아 피어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쟁을 확장하던 일본의 강압정책이 지각과 감성의 싹을 뭉개버리려 했으니!

그 무렵 전쟁광 일본은 우리 언어 사용금지에 이어 창씨개명까지도 강제했다. 그에 따라 조장된 반일감정은 민족의식의 각성과 함께, 외신에 따른 독립에 대한 희망을 소생시켰다. 그에 따라 학업에 더욱 매진하는 한편 정서적 소양의 신장도 소홀히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전시통제에 간혀 움짱달짱할 수 없었다.

중3이 되자 독립사상 파급방지책으로 집회를 금지했던 터라, 계절적 풍광에 대한 낭만적인 감상과 표현은 물론, 그 방식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예민해진 감성이 빚어내는 민족감정, 이성의 연모, 생리현상 등이 복합된 격정에 못이겨, 앞뒤 가리지 않고 저질렀던 사건이, 바로 한여름의 대낮, 오로리 성천강변 모래톱에서 감행했던 <七羽鴉>의 酒宴이었다.

감격시대였던 그 무렵 사춘아들의 낭만풀이 아지트로논, 봄에 다녀온 적이 있는 한이사 계곡만한 곳이 없다는 나의 견해에 따라, 그 날 결정한 2차 모의 풍류를 위해, 등산이 어려운 오로리의 V군, 고원으로 귀향한 P군이 빠진 네 명(朴, 李, Y, K)이 7월 30일 오전 9시께 내가 기다린 함주(홍상)역에 내려섰다. (한자 성씨는 현 생존자)

5. 길상지 함흥과 그 평원

동서로 100리요, 남북으로도 100리인 함흥평야는 이 나라 3대평야의 하나이면서도, 유독 백두대간 동편에서 동해에 면하고 있는 옥야이다. 하천과 수리사업의 정비에 이은 수도경작지 확장과 함경선 철도 완공으로, 함흥의 동과 북쪽에는 흥남과 서호진, 흥원이, 남쪽으로는 함주, 정평, 영흥 등 농어촌 취락이 철도 연변을 따라 원산, 안변까지 발달했다.

함흥의 진산 盤龍山은 동해의 해풍을 받은 청정한 精氣로 李成桂에게 경국의 대업을 계시했고, 英氣를 불어넣은 산록의 함흥고보, 함남중학 학도들에게서는 많은 英才와 奇才를 배출했건만! 붉은 장막에 덮여 귀향 단절의 통곡소리도 못 들으니!

평원의 동편은 신선한 수산자원의 보고인 동해가 양양하게 펼쳐있고, 북과 서쪽에는 함흥과 인근 부촌의 보루라고 할 산줄기가 겹겹이 솟아있고, 서쪽 산줄기 바로 뒤에는 우리 강토가 조성될 당시의 척추인 백두대간이 땅 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늘 높이 솟아올라, 동식물의 낙원을 위한 금수강산을 보장하고 있다.

이같은 지리적 여건에 따라 동해에서 돋은 태양은 하루의 천기를 품은 햇살과 열기로, 사람에게는 영기를, 해양생물에게는 생기를 쏘이고는, 해풍과 더불어 이 나라 산야의 백화방초와 수목을 가꾸고, 오곡백과를 살찌우고나서야 서해에 저서 안식한다.

함흥에서 정평에 이르는 광활한 전답과 그 젖줄인 성천강, 거울같은 광호와 동해. 여느 곳에선 보기 드문 그 시원스런 풍광을 천덕산에서 조망하노라면 참평화와 참사랑이 가슴을 부풀리면서, 타향살이 60년동안 가슴 태운 향수의 양금이 말끔히 스러지련만! 어찌타!...

6. 심산유곡의 기운

함주에서 환희사까지의 노정은 30리는 실하다. ‘신작로’라고도 말했던 국도에서 발머리를 북서쪽으로 돌린 논밭셋길 10리쯤 되는 산기슭 일대는 사과뿐인 과수원지대이다.

1km나 되는 과수원 셋길을 걷고나면, 갑자기 남서쪽으로 크게 휘면서 폭이 좁아진 산길이 된다. 거기서 부터가 바로 환희사 오름길이다. 수도승과 신도들에 의해 다져진 산길은 차츰 더 비탈지면서 옷깃을 스쳐야만 지나다닐 수 있게 된다.

피약별이 쪼는 평일, 인적이 없는 산길에 접어든 일행은 태평양 전황과 일본의 패망임박 등에 관한 수다를 떨었다. 그러다 길가에 핀 고운 들꽃, 산새의 지저귀, 짹짹 드나드는 다람쥐, 그리고 장마에 솟은 돌부리와 깎아지른 낭떠러지 등이 눈길과 마음을 앗아가면서 수다를 거두어 갔다.

입산하면서 들이마신 공기와 샘물이 우리의 감성과 지성까지도 맑게 다듬어선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상쾌함을 느낀다.

한층 비탈진 산굽이를 돌면서 갑자기 커진 물소리와 전망에 난데 없이 나타난 하얀 유동체에 눈길과 걸음이 멈췄다. 높은 벼랑 위에서 물보라를 날리며 곤두박질하는 물기둥이었다. 그 장쾌하게 낙하하면서 동천을 울리는 폭포수의 장관과 음향에 경탄하면서, 난생 처음 겪는 심산유곡의 경지인 천덕산의 산기에 감싸여 한동안 무아지경에 이르렀다. 그 때의 心象이 仙童의 그것과 같았으리라!

목적지에 도착한 우리는 암벽을 타고 동천의 아래로 내려갔다. 폭포 바닥계의 맑은 물에서, 고운돌 줄기와 어린 물고기와 물가의 돌에 숨은 가재와의 술래잡기에 정신이 팔려서는, 환성과 괴성을 내지르는 동심의 세계에 빠지고 말았다.

7. 사찰의 계율

동심의 물장난에 정신이 팔려 시간을 까먹고 있다가, 속이 쓰려오는 배고픔을 모두가 호소하게 되었다.

국거리와 술안주로 쇠고리를 사들고 왔던 나는, 그것의 조리를 위해 절에 올라갔다. 전면의 건물에다가 가서 등을 돌리고 토방에 서있는 여승에게, 무턱대고 ‘이것을 먹게 해주세요!’하며, 겹친 신문지에 싸인 쇠고기를 내밀었다. 돌아서며 어이없다는 표정이던 여승은 명문교의 학생복을 착용한 흥안의 미소년이 마음에 들었던지, 그것을 받아들고는 부엌 안 누군가에게 뭐라고 지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토방 아래에 서있는 나에게 몸을 돌리더니 ‘절에서는 고기를 못 먹읍매! 장만해준 것을 폭포에서 끓여먹읍세!’라는 것이었다.

그 사찰의 계율에 대한 수궁의 답을 하려는 찰라, 주방 안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튀어나왔다. 계율인데다 난생 처음 만진 짐승의 날고기에 놀란 여자의 시각과 촉감이 목청으로 바뀐 소프라노였다.

여승은 들은 척 않고 넓은 툇마루에 올라서기에, 주방에서 발사될 눈총을 피해야하는 나는 그 앞들을 거닐기 시작했다.

피약별 아래서 걸식하는 처지를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다. 갑자기 뒷쪽에서 날이 선 목청이면서, 악센트를 몽땅 말끝에 모은 불호령 ‘이거 가져갑세!’에 기겁했다. 하지만 고대하던 명령이기에, 그 즉시 교련시간에 숙달된 내 두 신발이 부딪치며 비명소리를 냈다. 뒤돌아섰다. 소녀가 보였다. 손에 들린 냄비가 눈동자에 클로우즈업되었다. 그와 동시에 내 신발은 ‘반룡산의 외승!’도, ‘오매불망의 소녀’도 아닌, ‘일편단심의 냄비’에게 달려가려다 말고, 남아의 체면이 당당한 보보행진을 하게했다. 킁킁기운 돼지가죽구두 바닥의 장이 한여름이 달군 땅바닥에서 고통 소리를 높이고 있었건만…!

8. 경천동지한 눈맞춤

냄비로 다가온 소년은 걸음이 멎기도 전에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내밀던 냄비를 멈칫 뒤로 물린 소녀는, 손잡이를 쥐 손가락을 풀면서 손바닥으로 받든 냄비를 다시 내민다. 소년의 구두가 울렸다. ‘차렷!’ 자세에 이어 경례하려던 오른손을 멈칫하더니 영겁결에 왼손과 함께 내민다. 서로의 손가락 하나 닿지않은 냄비의 인수인계가 끝났다.

그런데 그 순간 두 사람의 눈길이 부딪쳤다. 0.01초의 오차도 없이. 대면한 적이 없는 인수인계자가 서로의 면상을 확인하려 한 것은 아니었을 터인데 말이다. 게다가 토방의 위와 아래에 서있는 소녀와 소년의 눈 높이도 약속이나 한듯이 같았고, 둘 사이의 거리도 한 자를 넘지 않았다.

‘남녀 七세 부동석’ 시절은 아니었어도, 면식도 없고, 같은 또래이고, 사춘기인 남자와 여자가, 불시에, 불의의 눈맞춤했으니! 그 시선의 합선에 경천동지하면서 그저 당황할 뿐, 서로가 그 처리의 선후에도 낭감해지면서 한동안 상대를 보고만 있었다.

‘인스피레이션’ 또는 ‘교감신경의 작용’이라고나 할까!

산사에 살면서 의상으로만 남녀를 분별하던 소녀와, 이성애 눈뜨면서 여성을 사랑하던 소년이 난생 처음 눈맞춤했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처음으로 겪는 눈맞춤에 의한 시선의 처리에도 난감해 하는 듯했다.

그리하여 소녀를 쳐다보던 소년은, 산사에서 자란 탓인지 소녀의 유난히 희고 말쑥한 안색, 놀라면서 커진 눈, 보기 좋게 둥근 얼굴 등 소녀의 용모 모두에 매혹되고 있었다.

한편 소녀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중학생의 절도 있는 행동거지와 용모에서, 선천적인 본능이 작용하면서 그제사 그가 계집과는 다른 사내인 것을 느끼는 듯했다.

9. 스즈란 가로등 밤거리

1940년경 사춘아들은 H시인(일본)의 서정시를 애송했었다. 그의 포켓판시집의 어느 시의 여백에, 난초 잎 사이로 솟은 긴 꽃대에 흰색의 작은 꽃 서너 송이가 달린 삽화가 있었다. 깊은 산속에서 피는 고개 숙인 은방울모양의 그 스즈란을 ‘청순하고, 다소곳한 소녀’로 표상한 시정에 대한 인상이 그 그림을 오늘까지 기억하게 한 듯 싶다.

그 무렵 함흥의 본정통에 설치된 가로등의 갓이 바로 스즈란 모양이었다. 백열구의 누런 광선이, 아래를 향한 우유빛 유리의 스즈란갓을 통해 맑게 퍼지면서 밤거리를 밝혔었다.

그 스즈란 가로등은 달빛이 안기는 감상적인 회상이나 향수와는 달리, 사춘아들에게는 이성에 대한 연모를 북돋았다. 그러나 초저녁 뒤따른 짝사랑의 등 뒤에서 ‘널 좋아해!’ 한 마디 만을 던지고 내뺀 속 조차도 드물었다. 세계명작을 탐독하던 문학도들도, 서구인들의 애정표현인 ‘셋분(接吻)’의 행위동작을 생각하다가, 아침녘에 아랫녘이 축축해진 몽설의 代答마저 解析하려던 性盲(?)들이었다.

한편 계절없이 낭만적인 정취를 조성하는 스즈란 가로등의 밤거리를 테이트하는 청춘남녀나 신혼부부는 고사하고, 노령 내외의 산책도 볼 수 없었으니! 그것은 일본이 모든 전쟁터에서 패퇴하면서, 우리의 독립운동 모의 탐색 목적으로 설치했다는 생각에서였다.

함흥에서 풍류문인 배출을 위한 낭만의 사명을 다하려던, 스즈란 가로등의 비련을 애달파한 자 과연 몇이었을까?

산속에서 피는 스즈란 처럼 해사하게 곱던 환희사의 소녀를 애뜻하게 그리는 가슴과, 함흥 밤거리를 따스한 빛으로 밝혔던 스즈란 가로등을 떠올린 팔순의 머리가, 과연 그 심정을 그 언제까지 지닐 수 있을런지!

10. 이성의 발견과 인생의 개벽

서로에게 매혹되었던 두 사춘기 중, 환희사의 소녀가 별안간 냅다 달리는 게 아닌가! 승방 대청 앞 토방으로 말이다.

금남의 산사를 찾아온 소년의 얼굴을 코앞에서 말끔히 쳐다본 것은 잠깐이지만, 소년의 눈빛과 얼굴에서 풍기는 기운, 반바지 아래 다리통 등에서, 자신과는 신체구조가 다른 사내인 것을 짜릿하게 느끼면서, 야릇한 수줍음과 함께 얼굴이 화끈해지기에, 무턱대고 내달은 것 같았다.

너무 갑작스러운 그녀의 행동에 놀란 소년은 냄비를 들고 있는 그대로 눈으로만 뒤쫓더니, 소녀가 승방 대청 기둥을 돌면서 가려진 벽체계에 시선을 고정한다.

잠시 뒤 사내가 궁금해진 소녀는 손으로 가린 얼굴을 벽체 모서리에 살그머니 내민다. 그러리라 짐작한 술래의 핏발선 눈에 까만 머리에 이어, 그녀의 눈이 잡혔다. 소년의 눈길과 부딪친 소녀는 기겁하며 엉덩방아를 찧는다.

그리고도 양과 음의 마음의 방전에 의한 눈길의 술래잡기는 되풀이되고…………

두근대는 가슴을 부여안고 토방에 주저앉아버린 소녀는, 그 학생을 사내로 안 것 때문에, 이처럼 가슴이 뛰고, 야릇한 부끄럼과 함께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 영문과, 그 여드름 얼굴이 왜 자꾸 보고파지는 것인지가 궁금했다.

그러다가 문득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 영문으로 해서 이내 사미니 운명이 속세의 인물로 개벽되는 것이나 아닌지? 그렇다면 그 영문을 묻느니, 내 입을 봉해버리고 말리라!>

11. 시간과 공간 모두가 멋어버린 산사

한여름의 대낮 피약별이 내리쬐는 산사는 시간과 공간 모두가 멋어버린 듯, 바람 한 점, 개미 한 마리 없다.

그 산사의 마당 복판에 오전까지도 없던 돌부처 하나가 서있다. 급조된듯 여느 돌부처와는 다른 괴이한 모습이다.

폭포 계곡의 소년들은 절에 올라간 친구가 ‘금남의 산사 주지승에게 혹여 함흥차사가!?’며 걱정되자 탐색하기로 결정했다.

산사의 고요는 여전했다. 초입에서 사찰 주위를 살핀 탐색자는, 돌부처가 된 친구를 발견하고 포복자세로 기어가기 시작했다. 친구 뒤에서 허리를 세우며, 오른 쪽 어깨에 손을 얹고는, 숨넘어가는 소리로 ‘뭘해?’에 이어 ‘얼른 내려가아!’라는 말과 동시에, 냄비를 빼앗고는 먼저 내뺐다.

‘공수래공수거’ 교리 본산에서 공수가 된 소년은 童僧 처지로는 그 사찰에 있을 수 없기에 퇴거해야했다.

거북이걸음으로 승방쪽을 힐끔힐끔 훑쳐보던 눈길은 사찰축대가 가로막았고, 서로가 느꼈던 심정을 연정으로 가다듬지 못한 것에 대한 탄식마저 폭포가 물보라로 말끔히 흘러버리니!……

한편 소년이 물러간 뒤 법당에 올라간 비구니는 관음보살께 그 사내에게의 대자대비를 축원했으련만!……

매정한 인간세는 그 순수한 두 애정의 왕래마저 단절했으니!

난생 처음 감각적으로 지각한 이성에게는 연정을 품기 마련이다. 환희사에서 의 그 두 남녀도 오매불망하면서, 단꿈을 만리장성 쌓듯 하였으련만! 매물찬 흥진세에……!

12. 센터멘탈한 낭만

폭포로 내려온 소년은 친구들의 물음에 대꾸는 않고, 원하는 정중한 잔을 단숨에 들이키고는 녹초가 되더니, 금방 고목처럼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시간은 흘러만가고……

잔잔하던 동천에 낮으막한 멜로디가 퍼진다. <울밑에 선 봉숭아야!>였다. 일제치하 민족의 비애가 김형준 가사에는 물론 흥난과 작곡의 멜로디에 질게 뻗어 올랐었다. 그 금지곡에 가장 민감했던 것은 그 무렵의 청소년들이었다.

한여름의 대낮 청량감이 비할 데 없는 계곡에서의 음주로 단잠에 빠지기는 했지만, 정서적 감성이 예민했던 소년들의 청각에 그 멜로디가 어찌 울리지 않았겠는가! 선창한 친구의 첫 절이 끝나자, 어느새 제창이 되면서 멜로디는 더 비통해졌다. 알고 있었던 1절의 가사만을 되풀이하더니, 폭포소리와 물보라를 믿은 듯, 비분감개의 격정이 농익은 곡조를 울먹이며 노래하더니, 멜로디는 어디론가 가고.

흐느낌이. 그리고는 고요가. 이어서 어스름.

비구니 사찰에서 술래가 되었던 소년은, 연가와 비가의 멜로디가 상통하는 것을 기화로, 연꽃처럼 해사하고, 스즈란처럼 조출하던 소녀에 대한 연정까지를 덧실어, 더 비통하게 노래했다하더이다!

환희사 계곡에서의 야유회가 어설프기는 했어도, 심산유곡의 기운에 도취되었던 五思春兒는, 소위 태평양전쟁에서의 패색이 짙어가던 일본의 발악적인 전시통제도 아랑곳않고, 센터멘탈한 낭만을 그런대로는 맛보았다 하겠다.

그리고 친덕산은 정서적 정취에 민감했던 한 소년으로 하여금, 훗날 연하고질의 성벽이 되도록 훈도했던 성싶다.

13. 마무리하면서

이 회상기의 진실이 천덕산에 닿은 것이리라! 고심 중이던 마무리를 스스럼없게 할 수 있는 소재가 생겼으니 말이다.

2005년 3월 28일의 동창회에서, 1945년 졸업 후 처음 만난 韓군의 ‘천덕산 환희사가 남하하여 서울의 인왕산에 불사처를 차린 지 오래다’는 전언이 바로 그것이다.

침략전쟁과 패권쟁탈을 위한 냉전이 종료된 20세기말에는, 왕래와 거주가 자유로운 세계화시대가 되었건만! 귀향이 봉쇄된 지 60년에, 고향 땅과 육친에 대한 모정 마저 노구화에 따라 감퇴되고, 이제는 <향수>의 가사와 멜로디를 담담하게 듣다보니, 새천년기로 접어들며 팔순에 이르렀으니! 그 장수는 ‘지각과 감성의 발흥기에 찾은 천덕산 산기가 배양한 정서적 소양과 심기’ 덕분이라고 믿으며, 그 믿음은 연하고절로 순방한 우리 산악 모두가 안긴 심증이기도 하다.

4월 17일 등산복 차림으로 홍제역에 하차했다. 인왕산 남서향 사면의 중간 지점이면서 동남향 골짜기를 차지한 절이 바로 환희사였다. 돌계단 위 절터에 온통 깔린 잔디의 신록이, 올봄 첫 상쾌감을 가슴 가득 채웠다. 그 잔디밭에 석탑과 석등이 섰고, 그 뒤 토방에 새로 단청한 대웅전이 있었다. 그 밖에 초입의 별채 하나가 전부였다.

천덕산 환희사는 폭포 상단계에 자리했고, 초입의 사천왕을 모신 건물의 2층은 종각이었다. 그 안쪽 대지에 대웅전을 비롯한 서너 채의 불당이 있었던 대찰로 기억하고 있다.

우리 조상들이 장구한 세월 신앙해온 불교가, 100년도 안 되어 신봉자들 스스로가 모멸하게 된 공산주의 이론으로 집권한 세력에 의해 불심마저 추방했으니!

관음보살은 그 심오한 미소의 뜻을 알 리 없는 그들에게도 자비심을 베풀고만 있었건만!

환희사가 인왕산에 자리잡은 것이 무척 반가우면서도, 그 단출함에서 본산으로의 귀향에 대한 갈망을 읽을 수 있었다.

주변에 자생한 노송의 신록과 진달래의 분홍꽃은, 아담하고 조출한 대웅전의 외형과 색조와는 대조적이면서도, 서로가 보완하고, 의지하는 듯했기에 언짢던 가슴도 차츰 풀렸다.

등산차림의 과객인 나를 반기며 녹차를 권한 주지스님의 따뜻한 대접이 고마와 옛날 사연을 털어놓았다. 귀부인 용모의 미인이던 주지스님과 대화하면서 그 소녀를 떠올렸다.

그녀가 간곡히 원하는 공양을 사양하고 등산로로 접어들었다. 평지의 봄꽃들은 벌써 다 저버렸는데, 인왕산 서향 골짜기의 진달래만은 한창이었다. 그 유난히 색깔이 짙고 고왔던 진분홍색은, 옛적의 그 날을 못잊어 찾아온 나를 반기는 그녀의 진정과 환희의 표상이라 여겼다.

관세음보살님! 고맙습니다! 영적인 상봉을 도와주셔서!

이성의 지각과 연정을 동시에 품었던 두 사춘아가 팔순이 되도록 서로 연모하기에, 그 가륙한 진정을 불쌍하다 여기신 천덕산과 인왕산 산신께서, 오늘의 만남을 주선해주신 자비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그녀의 건강과 환희사의 융성을 기원하다가 서운함을 접고 산고개를 넘어섰다.

〈後記〉

팔순을 꼭 채워가던 2005년 11월 16일 오른쪽 폐에서 암덩어리를 도려냈다. 이듬해 정월 오랜만에 서재에 앉아 컴퓨터를 회생시켰다. 한글 모니터 중 '최근작업문서'를, 다시 '환회사'를 클릭했다. 한 번 읽고는 퇴고의 필요와 함께 고향산천에 관한 것의 보충을 작심했다. 그리고는 무료할 때 마다 자구의 교정과 함께, 그 시대적, 사회적 배경에 대한 잘못이 없도록 퇴고를 거듭했다.

사회적 또는 역사적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감정, 견해, 사상, 이론 따위를 이르는 것이 意識이건만, 이 나라의 치욕적인 실향민인 우리만이, 누구나 누리는 그것을 그들에게 박탈당하고는, 두 세기에 걸친 긴긴 세월동안, 매정하고 무능한 지상의 정치꾼놈들의 권모술수에 의해, 우리의 연륜만이 팔순을 넘으니!

우리 생애에서 의식적인 사고와 함께 움튼 자아로 대망을 품기도 했었고, 이성의 감지와 함께 애정이 싹트면서 짝사랑도 했었던 시절인 그 사춘기야말로 '인생의 고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내 인생의 망향속에서 건진 보잘것없는 낙수이기는 하지만, 자주 떠오르기에 적어 내려온 것이다.

회상할 그리운 소재가 수없이 많은 그 인생의 고향에나마 수시로 드나들면서 만년의 무료를 달래면서, 기약 없는 그 날까지만이라도 큰 탈없이 지냈으면……!

더불어 나를 키워준 고향 산천이여! 桑田綠海라면 모를까, 그 〈종간나새끼〉들에 의해 碧海로는 변치않기 만을……!

- 2009. 6. 00 그런대로의 교정과 퇴고를 마치고. -

‘不孝子息’ 이로소이다

-‘子息’은 ‘놈’보다 낮추어 욕하는 말 (옛센스 國語辭典)-

朱 赫 淳 (28回)

왜 불효자식인가?

불효자의 ‘자’를 우리는 ‘子’로, 日人은 ‘者’로 표기한다. 不孝子는 불효한 ‘아들, 딸’이고, 不孝者는 불효한 ‘놈’이다. 대통령 當選者를 대통령 當選人으로 호칭 변경하더니 며칠 전 신문엔 국회의원 當選人이라는 글도 보인다. ‘者는 사람을 가리켜 얹잡아 이르는 말’(국어사전)이기도 하기에 귀한 자리에 앉을 사람에게 붙이는 건 불경스럽다는 예의지국다운 발상의 배려일 것이다. 예의지국의 발상은 逆으로도 통해야 한다. 그렇다면 不孝者(huko-mono)가 옳다. 그러나 부모를 찾아뵙기는 고사하고 문안조차 못 올린 채 60년을 보내고도 또 기약 없는 세월을 이어가야 하는 ultra-불효엔 不孝者의 호칭도 아깝다. 그래서 우리는 不孝子息인 것이다.

소년시절에 본 활동사진

보통학교의 운동장에 급조 간이 映寫幕을 치고 영사기를 돌려 무료 관람케 하는 행사엔 개구쟁이들도 많이 모인다. 비가 오는 ‘산’이 아닌데도 영사막에 심심치 않게 빗줄을 보게 하는 것이 野外 映畫館(?)의 특징이다. 그런데도 그때 본 활동사진(문화영화)의 줄거리가 70

년도 더 지난 오늘까지 기억에 생생하다.

작은 고을에 칭찬이 자자한 효자 A 소년이 있었다. 마을 개구쟁이들은 그놈의 A군 때문에 피해(?) 막심했다. 어른들이 야단하실 때마다 그와 비교하기 때문이다. 도대체 집에서 행실을 어떻게 하기에 그는 늘 일등이고 우리는 꼴찌냐? 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를, 그가 모르게 따라가 울타리 빈틈으로 집안 동정을 살폈더니 이게 뭔가! 그놈은 마루에 앉아 있고, 어머니가 그놈의 발을 씻어주고 있질 않겠는가!

다음 날 개구쟁이들이 그를 둘러싸고 한바탕 한다. 효자라더니 다가짜가 아니냐? 우린 어머니에게 발을 씻게 하지 않는데, 효자라는 놈이 당당히 발 내밀고 있으니 나쁜 놈이라는 것이다. 개구쟁이들의 세찬 비난에 A 소년은 울음을 터트리며 하는 말이

“미안해, 나는 부모님께서 좋아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게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孝의 출발점은 부모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일! 그렇다면 우리의 지난날과 오늘은 어떻게 해석돼야 하는가?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찾아뵙지 못하는 곳에서 살고 있는 우린 어쨌건 불효자식이다.

김 先輩의 號泣

칠팔년 전의 5월 모일, 우이동 파크호텔 정원에서 우리들의(동창회) 봄철 총회 겸 야유회가 있었다. 年 2회 있는 동창회의 모임은 끝나고 헤어질 때는 늘 아쉬움을 남긴다. 그래서 귀로엔 몇몇 회원--동기생 또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 선후배--끼리 2차회를 갖곤 한다. 그 날은 김민하(25회)선배, 김명철(31회)후배와 함께 미아리고개 북쪽,

길음시장 어구의 정릉천변 판자집에서 다시 한잔 했다. 사전 계획이 있었던 동행이 아니었다. 김 선배와는 전쟁 전에 대학의 같은 학과에 다녔고, 전쟁 후엔 여러 가지로 신세를 많이 진 사이여서 자연스럽게 호텔 정원 대문을 함께 나오게 되었고, 동창회 총무인 김명철 후배도 김 선배와 그냥 헤어지기 어려운 사정인 것 같았다. 그 무렵 나는 김 총무와는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親交가 별 것인가? 동문에다 고향을 등진 외롭고 고달픈 긴 세월에 지친 동병상련의 짐승들이 아닌가! 곧 의기투합 김 선배의 선도로 우리 일행에겐 더욱 어울리는 천변 주막에 자리했다.

두 김씨는 6년이나 차이 나는 선후배인데다 김 선배는 8.15후에 遊學(얼마나 부럽고도 여유로운 낱말인가!!)차 상경(!!!)하였고, 김 총무는 5년 후의 잘못된 오욕의 전쟁 때 전세가 혼미해져 잠시 피난한 후 곧 귀향한다는 돌발 남하로 고향을 떠난 것이어서 두 사람 사이의 간절한 특수 사연이 무엇일까 궁금하였는데 듣고 보니 기연이었다. 김총무는 피난 남행 도중 어찌어찌하여(생사를 건 고난의 과정을 간략하게 쓰느라 이렇게 표현하는 무정을 김 총무여 용서하라) 부산의 육군병원 병상을 차지하는 신세가 되었는데, 옆 병상에 비슷한 처지의 10년 정도 연상인 환자가 있었다. 그 환자가 동문 선배(23회)임을 알게 되었을 때 고립무원의 아픈 몸인 피난지에서의 김 총무에겐 지옥에서 부처님 만난 기분이었을 것이다. 병상의 선배를 문병 오는 고교 교사인 동생을 소개 받았는데, 그 역시 동문 선배였더라. 형님이 김영하 선배, 동생이 바로 김민하 선배였다.

어쨌건 이러한 인연으로 25회, 28회, 31회의 동문 셋은 목룻집을 독점하여 주모가 우리만을 위해 (다른 손님이 없었다.) 열심이 부친 빈대떡과 전과 함께 옛 이야기를 안주삼아 통음하였다. 우리들의 옛

이야기엔 두고 온 고향 이야기, 재회 기약 없는 가족 이야기가 빠질 수 없었다. ……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갑자기 김 선배가 호흡한다.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어린 아이처럼 엉엉 운다. 깐깐한 성격의 김 선배의 호흡이어서 놀라웠다. 우리들은 혼자 나왔지만 선배에겐 아버님과 형님이 계시지 않으냐고 통곡을 멈출 것을 바랐지만 선배의 울음을 멈추게 하는 데는 별무효과였다. 나도 엉엉 소리 내어 울고 싶다. 그런데 왜 나는 울지 못할까! 우는 데도 용기가 필요해서?

김 선배의 통곡의 뜻을 나는 안다. 김 선배가 유학차 상경(해방된 해부터 다음, 다음 해까지는 고생스럽기는 했지만 북쪽 고향 집에 다녀올 수 있었다. 그래서 부산의 학우에게 너희들이 서울로 오는 것과 우리가 서울에 오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똑 같은 상경이 아니냐고 의식적으로 우겨댔다.) 했을 때만 해도 가족은 모두 고향에 계셨지만 잠시 후 부친이 단신 월남 하셨고 전쟁 중에 장남인 형님도 피난 남하하셨다. 고향에 남아계시는 어머니에겐 동생이 있을 뿐이다. 어머니와 동생을 안 데리고 오신 부친이 원망스럽고, 자신의 불효가 서러운 것이다.

不孝子息의 통한

“나는 불효한 놈이다!”의 자책에 박차를 가하는 다음의 정황들은 나를 더욱 비참하게 하였다.

1) 내 남편은 효심이 두터워서……

제3공화국 초기(?), 관료 출신 A씨가 만주(중국 동북부)에 잔류 거주 중이던 노모를 환국케 하는데 성공했다는 뉴스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탈북 입국자가 연간 수백 명이라는 오늘의 시각으로는 북한도 아닌 중국에 계시는 어머니를 모셔오는 게 무슨 뉴스 감이나 하

졌지만 그 땐 중국은 “무찌르자 오랑캐……<어찌구 저찌구>…”하는 노래의 적성 국가여서 국교는 당연히 없었다. 그러니 만주에서 어머니를 모셔온다는 것은 보통 사람에겐 감히 생각도 못할 일이었지만 신의주 동중(東中) 출신의 A씨는 정부 외청의 미국 주재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중국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영국 정부 및 국제 적십자사의 도움을 받아 노모의 永久 移住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김포 공항 입국시의 보도 사진엔 가족 간의 감격스러운 상봉을 입국장 후면의 기둥 뒤에서 부러운 듯 바라보는 한 신사의 모습이 삽입돼 있었고, 모 대학 교수 X씨라는 설명이 곁들어 있었다. 사진의 X씨는 고향에 부모를 두고 온 우리들 모두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러한 감회에 잠기면서 기사를 읽어 나가다가 A씨 부인의 남편 자랑의 다음 말에 숨이 막힐 듯 괴로웠고 부끄러웠다.

“남편은 효성이 두터워서 바쁜 직무 수행 중에도…… 거듭 교섭하여 성공하였습니다.”

2) 延吉에서 누이동생을 만나 달러(\$)와 옷가지를 주고 왔다

회령 출신 대학 동문인 친구 최 박사가 수소문한 끝에 고향의 여동생을 중국 연길에 불러내어 만나고 돌아왔다.

羅南중학교 졸업의 최 박사는 같은 중학교 후배인 동생과 8.15 후에 청량리 대학예과에 함께 입학, 동학한 친구다. 형의 최 박은 理甲, 동생은 理乙을 거쳐 각기 理博, 醫博이 되었다. 일찍이 도미, 미국에서 의업에 종사하고 있는 동생은 형의 친구인 우리에게 같은 학년이면서도 깎듯이 형님 대접을 해준 일이 기억에 생생하다. 전쟁 중엔 형이 피난지 대구에서 중학교 교사를 하면서 동생이 의대 학업을 경북대에서 계속할 수 있게 한 후 대학원은 전쟁전에 다녔던 서울대에서 마칠 수 있게 하였다. 그래서 최 박은 학사도 박사도 동생보다 훨씬 늦다.

최 박은 부모님 임종 때의 이야기 등, 그새 있었던 북쪽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동생과 며칠을 함께 보내고 준비한 달러와 의류를 모두 주고 돌아왔기에 한결 마음이 가볍다고 했다.

최 박이 할 수 있는 일을 왜 나는 못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까? 고향의 지리적 조건이 달라서? 수행과정의 위험부담이 염려되어서? 그러나 부모에게 향한 효심과 동생들에 향한 우애가 부족해서라고는 결코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래도 어쨌건 나는 불효자식이다.

어렵게, 어렵게 延吉까지 나온 동생을 왜 서울로 데려오지 못했느냐 하는 사람은 딱한 단세포의 사람이다. 60년 이상이 지난 세월이 다진 새로운 血緣은 60년 이상의 공백의 오빠를 따라갈 수 없게 한다는 이치를 모르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남북 日女 ‘소가 히토미(蘇我 瞳)’ 일가의 행복한(일본에의) 귀국의 성공은, 일본 정부의 외교력 때문이라기보다 그녀에겐 북에서 결혼한 남편이 미국인(젠킨스 중사)이고, 그들 부부사이의 아이들이 모두 미혼이어서 가족 외엔 북에 혈연(친인척)이 전무했다는 점이 더 유효했다 하겠다.

3) 형님은 전쟁 발발 직전까지 거의 한 주에 한번씩 집에 편지를 보내왔다

조선일보 토요일 판엔 주간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기획 취재면인 특별 편집 “Why?”가 있다. 09년 2월 21일의 Why?는 살아 있는 영어 전도사라는 ‘YBM시사사’의 민 회장 이야기다.

황해도 신천(38선 이북)에서 태어나 김일성 대학에서 러시아어도 잠시 배웠던 민 회장은 1.4후퇴 때 남하해 당시 대구에 피난 가있던 고려대 영문과에 편입, 영어를 배우고 YBM사를 경영하게 되는데, 그 동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국문과를 졸업한 형부터 ‘사회에 나가보니 영어가 제일 중요하드라’는 말을 들은 것”이라고 대답하면서,

뒤이은 “가족이 모두 나왔어요?”의 질문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신천에서 살다가 나왔지요. 서울대 국문과를 다니고 교사를 하던 형님은 북한군에 납치되었어요.”라고 대답했다.

“Why? 기사엔 why?가 남지 않아야 하는데, 형님이 납치된 후에 월남한 민 회장이 어떻게 ‘영어가 중요하다’는 형님의 말을 들었을까?”하는 필자의 의문에 ‘Why?’면 편집부장의 해명은 “민 회장이 ‘6.25 직전까지 형님은 거의 한 주에 한번 씩 편지(남북 교환 우편)를 보냈는데 그 편지로 들었다’고 했다”였다.

민 회장의 형님은 거의 한 주에 한번 씩 고향에 편지를 보냈는데 한번도 보내지 않았던 나는 틀림없는 불효자식이다. 그런데 그때 고향 집에 편지를 보낸 내 주변의 친구는 전무다. 왜였을까? 그들이 모두 효심이 없어서였을까?

玄 先輩님과 호텔 대문 소변소에서

3년(?) 전의 5월 총회장은 역시 우의동 파크 호텔 정원이었다. 그 해 초에 국내 마스크에선 2차대전시 다수 유대인을 ‘나치스’의 학살에서 구한 ‘쉰들러’의 이야기가 화제 거리였다. 미국 의대의 병리학 교수인 현봉학 선배(23회)를 우리는 ‘한국의 쉰들러’라고 부른다. 阿鼻叫喚의 흥남 부두에서 민간인 철수를 성사시킨 주역 배우가 현 선배이기 때문이다.

선배님이 모처럼 참석했었다. 선배님의 두 동생과는 알고 지낸 사이였지만 선배님과 인사조차 못한 사이였기에 만날 기회를 엿보았지만 여의치 않았다. 말제인 ‘현 웅(雄)’은 반은 다르지만 같은 소학교(함흥 錦町)의 같은 학년이였다. 중학은 영생이다. 그는 8.15 후 곧 상경했지만 남이 다 하는 진학을 마다하고 도시락 싸들고 국립 중앙도서관에서 살더니 친구 가운데 도미 제일호가 되었다. 영중 재학

중 문학 습작인 연애물이 발각되어 교무실로 불려가 호되게 야단맞은(당시는 단말마의 일제 말기) 이력의 소유자답게 간간이 들려오는 소식엔 미국 고등학교 시절부터의 艷聞이 끼어 있었다. 양인과 결혼하고(오래 못살고 사별) ‘피터 현’이라는 이름의 꽤 알려진 명사가 되었다. 선배님과 이 동생 사이인 해군 소장 경력의 이란 대사를 지낸 時學 씨도 영중 출신이다. 그는 일제 말기에 ‘북선 전기’의 말석 사원으로 근무 중 (일본)해군으로 징병되었다. 곧 8.15가 되어 북선 전기에 복직하게 되었으나 남하, 해사 1기생으로 해군의 일원이 되어 위와 같은 경력을 쌓지만 애석하게도 요절했다. 시학 씨와는 북선 전기의 사택(한인 거주자는 기술계와 사무계의 고참 사원이 각각 한 사람 뿐)에서 만나 지인이 되었으나 남에서는 그의 고속 출세로 친교하지 못하였다.

파크 호텔(건물)은 입구의 정문에서 꽤 멀다. 건물과 정문 사이엔 가든 파티장이 있고 정문에 부설 화장실이 있다. 小用 차 화장실로 갔다. 소용 처리의 시원함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더구나 대낮에 맥주 마신 뒤처리가 아닌가!

정말 기연이었다. 현 선배님이 소용의 옆자리에 서는 것이 아닌가. 자연스럽게 立小便(tachi-syoben)단독 대담이 되었다. 28회 후배임을 신고한 후 두 동생과의 지기 관계를 말씀 드리고, 한국의 선들러에 대한 경의를 표했더니 선배님은 “이렇게 분단이 길어지고 보니 잘한 일인지 회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선배님의 말은 사회적인 칭송에 대한 겸손의 말이겠지만 脫分斷이 遲遲不進한데 대한 답답함과 분격의 분출은 아니었을까!?

(한국의 선들러 현봉학 선배님도 불효자식들이 불효의 한을 푸는 날을 기다리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셨다. 삼가 선배님의 명복을 빕니다)

불효자식의 독백

something wrong! someone wrong!

What was wrong? Who was wrong?

What was wrong? Who was wrong?

왜 오스트리아인이 존경스럽고 부러운가?!

나는 오스트리아 인을 경애한다. 崔仁鎬(28회) 친구가 생전에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 상무관으로 장기간 근무했다 해서가 아니다. 그 나라가 음악의 나라여서도 아니다. ‘국모(?)’의 친정 나라였기 때문은 더욱 아니다. (자유당 정권 초기, 阿附輩들은 이승만 대통령 영부인 <오스트리아 출신>을 국모라 불렀다)

오스트리아는 나치스 독일군 진주를 요청하는 형식을 밟아 1938년에 독일과 합방, 39년 9월 독일국으로 2차 대전에 돌입하였다가 1945년 4월 13일의 소련군의 수도 빈 점령으로 종전을 맞고, 英 佛 美 蘇의 4國管理理事會(4개국 군대 진주)의 관리하에 들어갔다. 그 후 오스트리아는 4개국과의 260회의 회의 결과 중립체제를 조건으로 하는 ‘오스트리아 국가조약’을 1955년에 체결하는데 성공하여 신생 오스트리아 공화국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해 12월엔 UN에 가입했다. 그 나라라고 해서 친미, 친영, 친불, 친소파 정치인이 없었겠는가? 그러나 그들은 각기 미, 영, 불, 소를 찾아다니며 신생 공화국 탄생이 4개국에도 이롭고 세계평화에도 공헌할 것임을 역설, 10년간이나 꾸준히 협의 설득했다. 그 결과 그들에겐 국토의 분단도 없었고 타의에 의한 불쌍한 불효자식의 탄생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부럽고 경외하는 것이다.

그들은 4개국을 상대로 지루한 설득과 협의를 계속해서 성공했는데, 우린 전승 연합국의 공약(우리의 독립정부 수립)의 실천 창구인

미소 공동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얻도록 당사자들을 督勵 설득하는데 왜 실패했는가? 미,소는 전중에 거듭 선언한 공약의 실천을 이행할 의무가 있었다. 그렇게도 자랑하는 단일민족이라면 힘을 결집하며 미,소 간의 의견 대립을 메우는데 전력투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하고 여러 정파들이 자파 이익을 위해선 미소공위 해체가 오히려 유리하다는 매국적 착각에 빠져 공위 해체의 빌미 제공에 앞장서지나 않았는지? 우리들을 돌아볼 때 불효자식이 된 우리들은 그들이 부러운 것이다. 한 없이 존경스러운 것이다.

내 故鄉 定平

魯 一 協 (28回)

나는 지금 환상의 열차를 타고 경원선을 따라 내 고향 정평으로 가고 있다. 출생하고 성장한 그 고향을 찾아가기는 한다면 나의 이 모습을 보는 고향 친지들이 알아 볼런지가 걱정스럽다. 중학교를 졸업한 봄에 서울로 온 지 3년도 안 되어 왕래가 단절되고는, 인생 일대가 바뀌고도 남은 65년 세월이 지난 팔순에 찾아가기에 문득 그런 걱정을 하게 되었다.

성성하던 머리카락이 몇 안 되도록 황폐되면서 경계의 분간이 사라진 이마와 머리. 여드름을 대신한 수많은 검버섯, 전기면도기로 밀고 남은 수염부리, 험준한 산의 고도선 같은 주름 등등으로 스산하도록 폭삭 늙은 외모에다가, 조는 듯한 생기 잃은 눈동자, 간살스런 서울말의 동문서답, 입심도 없거니와 느려빠진 보행 등 거동…….

가없다는 생각에 앞서 호감이 갈 만한 곳 하나 없는 나의 외모와 거동에 실망하면서, 환영은 커녕 경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귀향에 대한 회의가 생긴 것이다. 그렇더라도, 나의 조상과 부모님의 체취가 배어있고, 바램과 생각이 아로새겨졌을 것이고, 내가 자란 소년기까지의 유적인 생각과 바램의 낙수가 남아있을 고향 산천만은 나를 반기며 따듯이 맞아 주리라 믿기에 가려고 작정했던 것이다.

떠나기 전부터 설레던 가슴이 연이은 터널 속에서 이런저런 의문과 번민에 사로 잡혔다가, 차창이 환히 트이면서부터 내 기분도 차츰 맑아졌다.

내 기분 따라 속도를 높인 열차는 어느 새 三防약수터, 사과와 명산지 安邊 인근의 釋王寺를 스치고, 明沙十里로 유명한 元山の 松島해수욕장을 지나자, 흰하게 트인 시계 가득히 咸興平野가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그 중심부에 위치한 내 고향 <定平>에 도착했다.

서두에서 환상의 열차라고 했거니와 귀향할 날만을 위해 부지해온 목숨이 여든살이 넘도록 귀향길은 단절된 그대로이고, 이제는 기력이 쇠진하여 제 몸뚱이 가누기조차 힘들거니와, 남몰라라하는 여생의 그 날은 다가만 오기에, 생전에 망상적인 귀향이나마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 적어가는 글은 <定平邑誌>에서 추린 것이기에, 예전 지명도 있음을 밝혀둔다.

‘定平’은 예전에 ‘定州’로 불리었던 것을, 타도 지명과 혼동될 소지가 있기에 개칭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定平의 명물인 親見臺는 康獻大王(李成桂)이 이 곳에서 글공부를 하였으며, 그의 소원에 따라 1395년 自超禪師(無學大師)가 창건하였다 한다. 기암이 서로 얽히고, 거꾸로 선 듯한 괴석 밑에 觀音殿, 仁法堂 그리고 七星閣이 있다. 그 일대의 풍치가 아름다워 관광객이 그치지 않는 곳이다.

白雲山 歡喜寺는 신라 때 승 道詵이 창건한 사찰이라며, 여러 寺蹟碑文중 ‘定平府白雲山歡喜寺’碑銘과 ‘白雲山歡喜寺佛亭’ 碑銘은 名碑라고 듣고 있다.

이 歡喜寺(천덕산)는 비구니(女僧)만이 수도하고 있었고, 일대 풍치가 아름다워 청년들이 많이 찾았다. 나도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

께 암자에 유숙하면서, 여승들이 서랍 속에 소중히 간직해둔, 애정 사연이 담긴 편지들을 몰래 읽었던 기억이 새롭다. 그 실례를 이제 와서 후회하거나 사죄한들 무슨 소용이겠느냐마는, 내 가슴까지 설레게 하면서 애정을 싹트게 했던 것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면서 사죄로 대체하는 바외다.

정편군과 함주군의 군계에 있는 廣浦라는 호수를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 81개 호수 중 가장 큰 호수라 한다. 면적은 14평방Km나 되고, 그 유역 일대는 비옥한 수도경작지이다. 그리고 그 중앙의 서남쪽에 龍岩이 있고, 그 남쪽 언덕에는 五賢書院이라는 客堂이 있었다 한다. 어패류가 많아서 드리운 낚시에는 팔뚝만한 잉어가 물리고, ‘가막조개’라고 했던 그 구수한 조개국을 먹었던 기억이 군침을 솟게한다.

金津江 등 풍부한 수자원에 의해 수리사업이 일찍 정비되면서, 비옥한 수도경작지에서 생산되는 쌀은 명품이었다 한다.

鼻白山에 남아있는 高麗때 축성한 定平邑城에는 북방 야인의 외침을 중앙에 통보했던 봉화대 옛터도 있다. 봄 마다 진달래로 하여 만산홍해가 되는 鼻白山은, 해동되면서 수량이 불어난 계곡의 풍치도 유명해서, 봄과 여름은 물론 단풍드는 가을에도 소풍갔던 즐거운 기억이 그리움으로 다가온다. 그 산의 연봉들에서 흘러내린 물이 모여 이룬 것이 金津江이다.

그리고 平北 義州의 鴨綠江口로부터 동으로 大嶺을 넘어 내 고향 定平까지 축성된 千里長城이 있다. 이 長城은 渤海가 망한 뒤 高麗가 女眞과 契丹의 남침을 방지하기 위해 축성한 것이며, 定平邑城과도 연결되어있다.

定平邑城에는 10개의 우물과 3개의 못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흔적이 남아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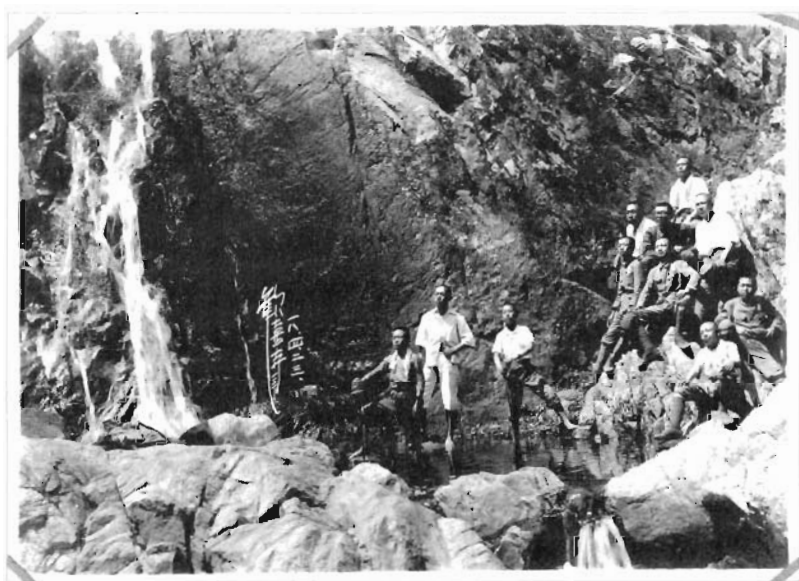
高句麗와 渤海 유민의 남하 이주와, 高麗와 新羅의 북방진출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리고 이조 때의 야인대접 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심성이 자연히 자주와 진취적인 기상으로 변하면서, 자영적 근면성 성품이 된 것이라고 한다. 그에 따라 아부할 줄 모르고, 독립심이 강하면서도 대의명분을 존중하는 심성이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내 고향 풍습을 소개할 차례인 듯하다.

정초 초저녁의 햇불싸움. 남성의 진취적 기상을 키우기 위해 정초의 초저녁, 장정들에 의해 햇불싸움이 감행되었다.

단오절 남성의 씨름대회와 여인의 그네뛰기는 지금까지 전한다.

이상이 望鄉의 정 따라 알아본 내 고향 定平에 대한 것이다.



歡喜寺는 主山인 白雲山(1077m)의 산릉에 있는 泉德山에 있음

2009년에 생각나는 우리들의 자랑과 추억

-동문 자랑을 빠뜨리면 동문회지(盤龍)가 아니다-

1945년도의 졸업생은 특이한 졸업생이다. 일정하의 마지막 졸업생이다. 2개 학년이 함께 동일자격으로 학교를 떠난 졸업생이다. 급진한 전세에 놀란 일제가 중학교 수업 연수를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한 결과다. 그래서 27회의 5학년생과 28회의 4학년생은 같은 날에 같은 45학년도 졸업생이 되었다. 입학연도는 다르지만 졸업연도는 같기에 대학에선 같은 학년이 된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다른 이어진(직.상하) 回期의 선후배 사이와는 또 다른 有別하되 더욱 친숙한 ‘pseudo-동기 동문’이라 할만도 하다. 2009년에 생각나는 자랑스러운 동문의 세 사람이 27회의 변 훈, 28회의 홍현걸, 김경언 고인들임은 그래서 우연만이 아닐 것이다. <거명 순서는 언론매체에 오른 순서>

1. ‘녹 슬은 기차 길’의 홍현걸

일본 야꾸자의 애인(?) K양(국내 탤런트)과 비정상적 교분이 있었다 해서 남성의 상징물을 잃었다는 악성 뜬소문에 시달리다 못한 가수 나훈아가 기자회견을 자청, 衆人環視하에 바지를 벗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나훈아는 누군가? 왕년의 톱 여배우 김지미의 한 때의 낭군이였다. 김지미는 사랑하기 때문에 간통제의 굴레에 굴하지 않고 옥중 결혼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명 ‘대사’를 남기고 헤어진 최무룡의 아들을 한 때 키우기도 했었다. 그 아이는 성장하여 브라운관의 더프가이(tough guy)로 군림했었다. 그는 바로 우리

고장 출신인 왕년의 눈물의 여황 '전 옥'(고인. 본명 全德禮 1911~1974)씨의 외손자이기도 하다. 그런데 전 옥씨의 두 동생이 우리 동문이다. 두 동문의 소식은 모른다. 이름도 기억에 없다. 작은 동생(27회)은 6.25 前에 그와 동기인 김병준, 이 진 두 선배를 찾아왔을때 인사를 나누었던 일이 희미할 뿐이다. 전 선배는 음악 소양이 있고 악기를 다루는 솜씨가 있어 누님 가극단의 일원으로 동행중인 듯 했다. 큰 동생(다른 사람을 오인하고 있었는데 모르지만 내 기억속의 그 선배)은 24회(?) 선배인데 경성제대 예과로 진학했으며, 강당이기도 한 武道場(정확히 말하면 生徒控室!)에서 보았던 kuro-do (黑胴)의 선배는 늙음하면서도 늘 미소를 지녔었다.- 여담이지만, 필자는 무도장을 생각할 때는 창문 틈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 줄기에 춤추는 먼지가 브라운(brown) 운동인지 틴들(tyndall) 현상인지 하는 형상을 연출하는 모습과 함께 검도 교사(副島선생)님의 앞 금니에서 반사되어 발산된 한 실오라기의 빛을 잊을 수 없다! 검도 선생이면서 한번도 화내시는 얼굴을 보이지 않으신 소이지만 선생은 검술사범이 아니라 틀림없는(正眞正銘)검도 선생님이셨다.

나훈아의 해프닝적 해명이 성공하자 방송사는 그의 노래를 다투다 시피 돌리기 시작했다. 고철 기관차를 배경으로 한 그의 18번 '녹 슬은 기차 길'의 주가가 다시 상승했다. 분단의 아픔을 표현한 가사도 그렇거니와, 비록 우리들이 음치 생산의 지난날의 공립 인문중학교 출신이긴 하지만 그 음률과 곡조는 고향 길을 잃은 우리들의 심금을 울린다.

휴전선 달빛 아래 녹 슬은 기차 길/어이해서 핏빛인가 말 좀 하려무나/ 전해다오 전해다오 고향 잃은 서러움을/ 녹 슬은 기차 길아/ 아버이 정 그리워 우는 이 마음/ 대동강 한탄강은 서해에서 만나/ 남

과 북의 이야기를 주고 받는데 / 전해다오 전해다오 고향 잃은 서러
움을 / 녹 슬은 기차 길아 / 너처럼 내 마음도 울고 있단다

이 노래가 반 음치의 우리의 심금마저도 울리는 까닭은 고향 길
잃은 우리가 녹슬은 기차 길의 고물 기관차와도 같은 신세이어서기
도 하지만 우리 동문이 작곡한 노래이기 때문이다. 28회 동문 洪鉉
杰(1923~1998)이 70년대 초의 남북정상회담의 취재기자 김관현씨의
글을 받아 9시간 만에 작곡한 노래다.

작곡가 홍은 필자와 같은 금정(錦町)소학교 41년도의 졸업생이지
만 학급은 다르다. 그의 학급은 진학률에선 우리 학급(모교 진학 8
명, 당시의 학급 정원 80명 기준으로도 관북 제일의 모교 진학률이
10%!) 보다 못한데 예술 부문 전문가를 배출한 특이한 학급이다. 남
에서만 작곡가 홍 이외에 추상화의 장성순 화백(28회 동문)도 있고,
함흥 상업학교를 거쳐 8.15 후에 서울대(문리대) 영문과를 졸업한 최
문일 영화감독도 있다. 최 감독은 30회 동문 문일(文平 一夫, 서울
고등학교 거쳐 연대 진학)군의 여동생을 주연으로 한 처녀작에서 성
공치 못했지만 필자 기억으론 소학교 시절의 그림 솜씨는 장 화백과
난형난제였다. 두 사람은 중학, 대학이 다르면서도 남에 와서도 최
감독이 사망한 최근까지 돈독한 관계를 쪽 유지했었다. ‘論yori 證據’
장화백 부인은 최 감독이 중매한 재원이다.

홍현걸 동문의 작품에는 우리가 오늘 같은 노구가 아니었던, 감정
도 풍부했고 제법 흥도 알았던 ‘청춘 브라보’의 시절에 많이 들던
인기절정의 히트곡이 적지 않다.

‘꽃집의 아가씨는 예뻐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빨간 장미
보다 새하얀 백합보다 천 배나 만 배나 예뻐요’의 “꽃집의 아가씨”

는 紳士의 봉봉 사중창단의 노래였지, 동문의 노래가 아니었다. 대부분의 우리는 그의 작곡인지 모르고 있었으니까!

후에 국회의원도 지낸, (법)학사 최희준이 불러서 천하의 엄치가 공처가의 共鳴를 자아낸

열아홉 처녀 때는 수줍던 그 아내가/ 첫아이 낳더니만 고양이로 변했네/ 눈 밑에 잔주름이 늘어가니까/ 무서운 호랑이로 변해버렸네/ 그러나 두고 보자 나도 남자다/~~~~/ 큰 소릴 쳐보지만 나는 공처가 “엄처시하” 제목의 이 노래는 최희준의 익살스러운 노래일 뿐이었다. 우리는 동문의 작곡인지 모르고 지냈으니까! 그러다가 다섯 살의 박혜령 어린이가 부른 외국 풍 편곡 “검은 고양이 네로”가 음반계를 휩쓸게 되자 편곡 자 ‘홍현걸’의 이름이 부상했다.

‘될 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했다. 중학교 시절의 그의 별명은 시종일관 거시(거시기의 거시가 아니라 거위 ‘蝸蟲’의 우리들의 방언)였다. 일인 기무라(木村) 음악교사의 별명 역시 거시였다. 선생님의 피부가 乳白色인데다 行動舉止마저 연체동물을 연상케 한다는데 유래했지만 결코 악의적인 별명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그 역시 피부색, 행동거지가 腺病質的이라는데 유래하기도 하지만 기무라 선생의 아들이라는 뜻도 내포한, 말하자면 음악성이 있는 친구라는 애칭이기도 했다. 당시 우리들에겐 특정 선생님이 맡으신 학과에 소질 있고 열성적인 친구에게 그 선생님의 아들이라는 애칭을 진정하는 불문율이 있었다. 행동적이지 못해 악동들의 ‘밥’이 되기 십상이었던 정적인 그는 늘 그늘(?)에서 조용히 음악에 정진했었다. 당시는 나팔이라면 군대의 나팔수-우리들의 나팔수는 김민학 선배(25회, 작고)와 하홍권 선배(27회)-가 신호로 부는 ‘군용 나팔’이어서 브라스 밴드를 선두로 행진하는 일은 없었는데 꼭 한번 음악

반의 소규모 밴드가 전교생이 모인 운동장에서 그들만의 행진을 보여준 적이 있었다. 자기 상체보다 작지 않은 큰 북(철저한 문외한의 필자는 악기의 이름을 모른다)을 메고 안고, 두들기고 치는 그의 얼굴은 북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그는 체격에 맞는 클라리넷 주자였는데 그땐 임시 鼓手였었던 모양이다. 그 후부터 그의 애칭은 ‘클라리넷’으로 승격했고 고인이 될 때까지 우리들 사이에선 실명보다 이 애칭이 상용됐었다. 그의 악동들부터의 피해는 소학교 시절부터의 일이다. 필자의 눈에 비친 첫 치맛바람은 바로 그의 어머니였다. 그의 집이 학교에서 5분 거리도 못되는데다 담임 선생이 우리말을 하는 한인 교사였기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그의 어머니를 교실 밖 복도에서 자주 보았다. 그의 집은 교실 청소용수의 펌프장에서 작은 개울 건너 10m도 안되는 근거리였다. 이러한 통학로와 통학시간이 불필요한 소학교 생활이 고립적인 그의 성격 구성에 영향했는지도 모른다. 작곡가로 성장하는 동기가 되었는지도 또 모른다.

해방 후의, 고향 친구가 간절했던 서울생활에서도 그의 옛 학우들과의 사귀는 태무나 마찬가지였다. 얼굴도 보기 어려웠다. ‘국립서울대학교’가 성립되기 전의 ‘서울 음대’인지 ‘음전’인지에 다닌다는 풍문이 있던 게 전부였다. 우리는 몰랐지만 그는 이때 이미 대중 가요계에 입문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으로 추측하건대 용산의 미군병영 연예기관에서 활약하고 있었던 것 같다. 적은 나이에 운신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의 연보의 탄생년도 **1923**이 무엇을 의미할까? 필자의 과민추리인지도 모른다. 착각인지도 모른다. 어쨌건 28회 동문의 정상 출생연도는 **1928**년이다.

만년에서야 그는 우리들 앞에 나타났다. 예능계 사람의 품모와는 거리가 먼, 옛 중학시절의 수줍음을 잘 탔던 ‘클라리넷’으로 돌아왔다. 때마침 편집 중이던 光復 分斷 卒業 50년을 복잡! 하게 회고하는

28회 동문의 동문지 “回想”(96년 3월 발간)에 작사 작곡 자작의 “눈이 오면”을 선사하고는 98년에 학우들에게 역시 소식 없이 표현이 영원의 길로 떠났다. 늦게나마 그의 명복을 빈다.

2. ‘明太’의 변흔

지난 6월 24일의 노 성악가 바리톤 오현명씨(1924~2009)의 별세 비보와 함께 ‘명태’ 이야기가 다시 방송계의 화제로 되고 있다. 명태는 우리 고장의 대표적인 물고기였다. 함경도 明川의 명품이라 해서 부친 이름이라 한다. 일정 때의 소학교 국어(일어)독본의 한 문장의 제목이 “新浦의 明太”였다. 신포는 오늘의 식자에겐 북의 원자로 유관의 함경도 지명이지만 우리에게 명태가 우리나라의 대표어종임을 확증해주는 지명이기도 하다.

명태는 서면적 기품마저 풍긴다. 오늘의 유행어인 ‘실용적’ 어종이다. 6.25의 월남 시인 양명문(평양, 1913-1985)이 명태의 일생을 읊은 아래 시가 이를 잘 표현하고 있다. 양 시인은 시를 쓰다가 소주를 “카-ㄱ” 마실때 짹짹 찢어서 안주로 하는 ‘호사’도 했지만 가난했던 월남 고학생의 단골 막걸리 집의 안주는 인심 좋은 주모가 퍼주는 공짜 명태 ‘대구리’의 비지 찌개였다. 신촌(당시는 정말 新村이었다) 연대의 백양로를 나오면 이런 막걸리 집이 이곳 저곳에 있었다.

검푸른 바다, 바다 밑에서/ 줄지어 떼 지어 찬물을 호흡하고/ 길이나 대구리가 클 대로 컷을 때/ 내 사랑하는 짹들과 노상/ 꼬리치며 춤추며 밀려다니다가/ 어떤 어진 어부의 그물에 걸리어/ 살기 좋다는 원산 구경이나 한 후/ 에지프트의 왕처럼 미이라가 됐을 때/ 어떤 외롭고 가난한 시인이/ 밤늦게 시를 쓰다가 씨주를 “카-ㄱ” 마실 때/ 그의 안주가 되어도 좋다/ 그의 시가 되어도 좋다/ 짹짹

찢어지어 내 몸은 없어질지라도 / 내 이름만은 남아 있으리라 / “명태 명태”라고 이 세상에 남아 있으리라

이 시가 변훈 동문(27회, 1926~2000)에게 전달되어 토속적인 씨주, 막걸리 풍(한국적 리어리즘)의 가곡이 되었다. 바리톤 오현명이 양시인의 위 시에다 곡을 부친 변훈 동문의 “명태”를 피난지 수도 부산의 시민극장에서 초연했을 때 관중부터 그것도 노래냐는 혹평을 받았다고 한다. 변훈 동문의 체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환도 후 서울에서의 공연에선 최상급의 호평이었고, 오늘도 우리나라 대표적 가곡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런데 明太의 트리오는 왜 몽땅 8.15, 6.25의 월남인이어야만 했을까?

전쟁이 한창일 때의 1951년 여름, 대구 거리(육본이 대구에 있었다)에서 계다짜(중위 계급장)의 변 선배와 참으로 우연히 마주쳤다. 경주 소재 육군병원(그 곳에선 18을 일·팔로 읽어야 무사? 하다)에서 영내 거주 8개월만의 첫 외출인 출장 길이었기 때문이다. 八字에 없는, 서로의 군복생활의 근황을 짧은 시간에 주고 받고 수일내에 일팔병원에 들리겠다는 약속을 하고선 길에서 그대로 헤어졌다.

며칠 후 변 선배는 처남이 군의관으로 있는 ‘일팔 육군병원’에 찾아왔다. 선배의 장인은 당시 서울대학교 의대 소아과 주임 교수였다. 그때 선배는 제주도(모슬포) 훈련소 근무에서 타 부대로 전속 대기 중인 것 같았다(?) ‘명태’ 작곡이 답답했던 이 대구 시절의 작품일 것이라고 이젠 추측할 뿐, 세월도 갔고 사람도 갔다.

변훈 동문의 작곡엔 ‘명태’와 함께 널리 알려진 ‘떠나가는 배’도 있지만 김소월 시인의 시에 부친 ‘금잔디’, ‘진달래꽃’도 있고 김광섭 작사의 ‘나는야 간다’ 조병화 작사의 ‘낙엽끼리 산다’ 비극의 天真無垢의 시인 千祥炳의 ‘歸天’ 등등 많다.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 새벽 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 노을 빛 함께 단둘이서
/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질 하며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김소월 시인의 ‘금잔디’에 부친 곡에 대해선 아득한 60여년 전의 추억이 있다. 그때 동문 선배(27회)인 니끼비 김병준(연대), 나무꾼 이진(고대)형들과 청파동에서 입주 가정교사를 하고 있었다. 이름 앞 니끼비, 나무꾼은 27회 동문 사이에서 재학중 통용된 애칭인데 전자는 안면 청춘 심벌을 뜻하고, 후자는 일본식 성씨 德山에 연유한다. 회구심을 돌기 위해 쓰는 것이니 저 세상 어느 곳에서 후배의 별명 호칭을 용서하리라 믿는다. 입주한 집의 세 가구주는 일제 시부터 같은 마을에서 각자 개인사업을 하던 지인 사이여서 김병준 선배가 음악을 통해 친해진 토박이 음대생의 주선으로 처음에 김시 집에 입주하게 되고 김이 이를, 이가 다시 필자를 릴레이식으로 소개하여 실현된 입주였다. 필자까지 합하여 서·연·고의 TRIO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셈이다. 김 선배는 문학전공의 음악청년, 이 선배는 경제전공의 문학청년이었고, 필자는 미래의 에디슨을 꿈꾸는 어설픈 과학지망생이었다. 6.25 전쟁의 한 두해 전의 어느 저녁, 이 선배가 배재학당의 강당에서 청년 음악도의 작곡 발표회가 있으니 꼭 가야 한다고 하며 재촉한다. 음표 하나도 모르는 주제에 작곡 발표회는 무슨…!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김 선배의 작품도 발표된다고 하기에 동행했었다. 예상대로 필자에게엔 그리 흥나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날

밤에 변훈 선배의 금잔디도 발표된 것으로 안다. 이즈음 변 선배는 서울역 앞 경성전기(한전 전신) 부설 공업고등학교의 음악강사로 출강하고 있어 Trio의 이 김 두 선배를 따라 청파동 굴다리 주변의 다모틀이집에서 함께 막걸리 잔을 나누었다.

3. '한국 만화 100주년'의 김경언

올해가 한국 만화 100주년이라고 한다. 기념사업도 푸짐하게 한다고 한다. 공립인문 중학교와는 인연이 없을 것 같은데 웬걸 한국 만화 이야기에서 김경언 동문의 이야기를 빼면 바람 빠진 풍성이란단.

우리들 동문 세대는 어릴 적에 보통은 일제의 幼年俱樂部, 小學1學年, 小學2學年~, 少年俱樂部 등을 읽고 자랐다. 이들 유 소년 월간지에는 연재 만화도 많았지만 아무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田河水泡(1899~1989)의 野良 黒(norakuro) 만화일 것이다. 군국주의 대두에 영합, 족보 없는 야성의 들개가 犬公의 부대에 입대하여 병졸에서부터 연대장까지 진급하는 과정을 그려 전시 분위기의 고양에 기여한 시리즈 만화다. 그런데 우리 만화의 역사가 100년이라면 70 유여년 전의 그 시절에는 우리들의 고유 만화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노라구로'니 '다가와 수이호' 따위는 얼마나 열심히 읽었기에 70년이나 지난 오늘까지도 이역하고 있으면서 우리 것에 대한 지식은 전무하니 아무래도 부끄럽고 죄책감을 갖게 한다.

김경언은 서울대학교 문리대 자연과학부 생물학과 출신의 이학사 만화가란 특이한 존재다. 부끄럽지만 다시 일제 때의 나의 유 소년 시절을 돌아본다. 그때 소년 모험/탐험 소설의 인기 작가는 南洋一郎이었다. 그가 명문 대학의 이학사라는 이력에, 그래 모험소설이나 탐험소설을 쓰자면 이학사적 소양이 필요하겠지 하는 생각에 도달했었다. 그래서 김 동문의 만화가 생활에 대해 모험소설이나 탐험소설

이면 몰라도 하는 아쉬움을 가진 적도 있었다.

김경언 화백의 만화 주인공에는 피똥이, 고구마, 깔꿈이, 어수선, 사공선생 등이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필자도 그렇지만, 아마 동문 여러분의 기억에도 없을 것이다. 동문의 만화가 인기가 없었다거나, 그래서 괜히 동문이라 편드느라 자랑하고는 있지만 별 볼 일 없는 만화가 아닌가 하는 오해를 풀기 위해 한마디만 하겠다. 우리가 이들 주인공을 모르는 이유는 단한가지. 우리가 너무 늙었다는 사실이다. 이들 주인공은 우리들 次次세대의 독자를 위한 만화의 주인공이었던 것이다. 그래도 ‘두꺼비’를 기억하시는 동문은 좀 있을 것이다. 진로소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1960년대까지 계속된 조금은 성인 취향인 4컷 만화의 주인공 이야기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만화는 김경언 동문이 시작(1955년 4월 1일, 두꺼비 1) 했지만 곧 안의섭 만화가에게 인계했기에 안의섭을 떠올리게 하는 주인공으로 변했다.

우리들 연령층에 만화 주인공의 지명도를 물어 지난날의 또는 과거에서 지금까지의 만화가의 순위를 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짓인지 자명해졌지만, 그래도 또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 동문의 정당한 역량을 찾아 자랑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들 后後世대의 만화 애호가 대상의 입찰 관련 기사와 만화가 중 제일의 아이디어맨이라고 격찬한 漫畫史의 일부를 정리하여 소개 한다.

만화와 추억 / 김경언의 ‘모래알 전우’ 190만원에 낙찰

지난 3월 29일, 주말에 열렸던 근 현대사 코베이 111차 경매에서 62년도 김경언의 ‘모래알 전우’가 사전 예약 주문과 몇몇 수집자들의 시소 경쟁 끝에 190만원으로 낙찰 되었다. 낙찰자는 경매 수수료 10%를 포함 209만원에 물품을 인도 받게 된다. ‘모래알 전우’는 김경언의 60년대 초의 인기작으로 ‘칠성이’ ‘의사 까불이’와 함께 선호

도가 높은 작품이었고 만화 박물관을 비롯하여 10여년 이상 수집해 온 수집가들 사이에서도 한권도 볼 수 없었던 귀한 책이었다.

아이디어 왕 김경언

인터넷은 없고 TV도 대중화 되지 못했던 시절엔 ‘만화방’이 마을의 유일한 오락 휴게소였다. 한때 전국엔 5000店 이상이 성업했었다. 이들 만화방이 유지 되려면 새 만화가 계속 공급되어야 했지만, 스토리의 개별과 그림 그리기를 신속히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50쪽 짜리 단행본 만화를 이틀에 한편 이상 그려내는 김경언 씨의 speed를 어느 작가도 따라 잡을 수 없었다. 그렇게 양산하는 가운데서도 최고의 인기를 누렸으니 그것은 그의 기발한 아이디어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신속한 대량 생산을 위해 번쩍이는 스토리를 신속 정리하여, 분업화한 스킷치맨, 펜터치맨, 배경맨, 먹칠과 지우개질맨, 수정맨 등의 팀에게 내려 보내 만화로 완성케 했는데, 이들 파트 능력에 따라 서열을 정해 임금도 성과주의로 차등화 했다. 스토리 산실로 집의 화장실을 증설하여 전용 화장실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이에 여타 만화가도 그의 제작 시스템을 따라 하게 되었다.

그의 산문집 ‘地獄에 가보셨나요?’(1978년)엔 생물학도 다운 아이디어가 번쩍이는 글이 많이 보인다. 이 산문집을 발간하고 그는 미국 이민을 감행했다. 미국이민 감행으로 한국 생활을 정리한다는 뜻에서 산문집을 간행했다고 보는 것이 옳은지도 모른다. 그는 한국 만화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지만 미국 이주 생활은 행복하지 못하여 병마에 시달리다 한 많은 생을 이국에서 마쳤다. 미국에서 그를 마지막 만난 국내 동기 동문이 된 필자는 그래서 더욱 슬프고 서럽다.

(2009. 7. 28. 편집위원 CHS)

생각

金 在 楨(29回)

“Ich denke; also bin ich.”(이히 덴케; 알조 빈 이히.) 이것은 독일의 철학적인 용어다.

직역하면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있다.”이다. 생각함이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 되지만 보다 더 넓고 깊은 뜻을 포함하고 있는 짧은 글이다.

은퇴후의 즐거운 일들 중의 하나는 독서(공부)하는 시간이다. 과거에 잊었던 것을 되새기던 중에 전혀 모르고 지내던 것을 새로 발견하면 시간의 제한이 없이 이책 저책을 뒤져보면서 철저히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재미있고 만족스럽다. 공부하는 시간에는 자기의 나이도 잊고 어린시절로 되돌아가는 듯하여서 좋다.

그 대신에(반면에) 은퇴후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불편한 것)은 밤에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는 일이다. 과거의 자기성격의 결함을 후회(後悔)하는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

부모형제들에 대한 후회 : 나는 부모형제들께서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기만 하고 그 은혜에 보답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다. 결국은 받을줄만 알고 드릴줄을 모르는 이기주의자가 되고 말았다. 그때 부모형제들과 같이 지낼 수 있을때에 좀더 다정(多情)

하게 대해 드리지 못하였던 것이 한(恨)이 된다.

조카들에게 대한 후회 : 나는 어린 조카들을 부드러운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였다. 철없는 어린 조카가 내맘에 들지 않는 일을 저지르면 구타하였다. 이 얼마나 야만적인 행위였을까. 지금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어린 사람을 구타하는 야만행위는 일본 군국 사회에서 자기 모르게 본받은 나쁜 버릇이었다.

이북사회에서 식량난으로 굶주리는 조카들을 이제 다시는 만나볼 수 없다고 생각하면 슬프고 가슴이 터지도록 괴롭다.

친구들에 대한 후회 : 나는 친구들과 잘 어울려서 놀지름(지내지름) 못하였다. 나는 Texas 대학의 Hematology fellowship로 도미하였던 관제로 미국에서 인턴(intern) 생활을 하지 않았다. 인턴생활은 모교 서울의과대학병원에서 마쳤다. 주근원(朱權源) 선배님(19회)께서 인턴지도 위원장으로 계시던 해였다.

인턴생활을 마칠 무렵에 모든 인턴들에게 별명을 지어서 붙였는데 그 당시 내 별명은 “돌부처”였다. 얼마나 사교성이 없고 재미없는 성격이었는지 알 수 있다.

친구들과 좀 더 어울려서 재미있게 지내지 못하였던 것을 생각하면 섭섭하다.

이생각 저생각 후회한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일들로 생각을 하니 잠을 이루지 못하였고 잠을 이루지 못하니 생각이 나고 그야말로 악순환의 계속이었다. 이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가지로 애쓰는 생각을 하여 보았다.

인간의 행동과 사고방식은 주위환경의 지배를 받고 태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평탄하지 못한 사회환경(일본 제국주의 독재사회, 공산주의 독재사회 자본주의 독재사회 그리고 해외유학생생활) 속에서 지내는 동안에 피할 수 없이 자연히 구성된 자기의 성격을 탓하며

자책하며 후회할 것 없이 잠이나 자라고 자신에게 타일러도 아무런 효과없이 불면(不眠)의 악순환은 계속되었다.

나는 과거에 자신이 너무나도 비사교적이었고 농담을 할 줄도 모르고 농담을 받아드릴 줄도 모르는 재미없는 사람이었던 것을 후회하고 있지만 현재의 자기의 성격을 과거의 성격과 대비하여 볼때에 별로 크게 변한 것이 없다고 느끼면서 내게는(나에게는) 과거를 후회할만한 자격이 없으니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고 잠이나 자자고 자신에게 타일러 보아도 여전히 효과가 없었다.

그러던 중에 어느날 저녁 “Ich denke; also bin ich.”라는 말을 깊이 생각하면서부터 생각과 불면의 악순환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되었다.

내가 생각(비록 소용이 없는 생각이라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직도 살아서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잠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부터 영원히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지금까지 생각을 하지 말고 잠을 자려고 애쓴 것은 그릇된 일이라고 느끼게 되었다.

인생은 후회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본다. 내가 과거의 대인관계를 후회하는 것은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살아 있으면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잠을 자려고 애쓰는 것도 역시 어리석은 일이다. 죽으면 할 수 없는 생각이니 살아있는 동안 마음대로 생각이나 하여 보자.

죽으면 영원히 잘 수 있는 잠인데 잠을 자려고 애쓰지 말자. 살아있는 동안에 잠은 필요하면 자연히 올 수 있는 것이니 잠이 오지 않으면 생각이나 하자.

이세상에 살아 있을 수 있는 여생(餘生)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생각한다면 생각과 불면은 ‘악순환’이 아니고 ‘양(良)순환’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제는 “Ich denke; also bin ich.”라는 용어를 되풀이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들면 편한 마음으로 생각이 나는대로 생각하다가 자연스럽게 꿈을 꾸면서 잠을 이루게 된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38선이 열려서 부모형제들의 산소(묘지)를 찾아뵙고 조카들을 만나볼 수 있는 날이 있게 되기를 꿈같이 원하여 본다.

아! 咸州여!!

韓 依 天 (29回)

盤龍이 꿈틀거려 九天에 높이 솟아오른 곳에 九天閣이 우뚝 솟아
나, 關北의 第一閣이 되고 萬歲橋의 銀盤이 樂民樓 발아래 감싸안고
默默히 東海로 이어졌었네.

咸州都護府 · 咸興監營의 營史廳
昇將廳 · 進聽閣 · 進上廳 · 靈鼓廳

審藥廳等은 간데없이 사라져 宜化堂과 懲聽閣만 남아있고 鄉校의
霽月樓 언덕은 壬亂의 倡義功臣 金應福의 兄 金應佑와 使相과의 和
答詩가 마냥 그림계 한다

松林이 우거진 連浦의 祭星壇에서 太白星에 빌고 빌어 하늘을 나
는 駿馬를 얻어 활쏘기로 競馬하고 心身과 武藝를 鍊磨하여 李成桂
가 靑雲의 꿈을 꾀 저 높은 馳馬臺의 가을달이 유난히도 밝게 비추
었네.

校帽와 소매에 白線 세줄을 두르고 만포를 펼럭이며 軍營通을 지
나 校門에서 庭球場, 園藝場 사이 언덕 길을 올라 講堂을 지나 벚꽃

나무 아카시아나무 아래의 넓은 木造教室과 넓은 運動場 傳統의 咸興高普 咸南中學의 英才들이 螢雪의 功을 닦았네.

咸興에 醫大, 南中, 南女, 永中, 永女, 咸女, 師範, 商業, 實科女中이 있고, 興南에 工大, 農校, 化專, 咸中, 工業, 興女校가 있어 教育熱이 하늘을 찢러 人智가 함께 開明하여 멀리 멀리 波及되어 文明을 開化시켰네.

道廳, 市廳, 郡廳, 法院, 刑務署, 軍營, 練兵場 등과 各處驛, 金融組合, 水利組合 등 魚市場과 牛市場이 興盛거렸고 明太, 도루무기, 고등어, 정어리, 가재미, 게, 백합, 새우, 홍합 그리고 食醢가 그리움고 사과, 복숭아, 배 등이 먹고 싶다.

咸州城의 正門, 南華門과 南華門의 東樓, 鳴劔樓는 간데없이 歲月속에 사라지고 客舍 豐浦館은 道立病院이 되고 南門밖 新昌리의 彰義祠도 간데없고 壬辰彰義의 12賢과 8公의 靈도 간데 없구나.

烽火峰 高峴山 葛味峰 雲桂山 天柱山 鷹峰等 咸關嶺 連峰들이 줄줄이 이어져 東海로 떨어져 내려서 멀리 永興灣를 바라보는데 退潮의 陵洞에는 老松이 우거진 속에 純陵이 600年을 잠자고 있었네.

돌아오는 漁船은 興겨운데 鵲島 漁港 東쪽에 龜景臺가 靑沙를 쓰고 東海一隅에 軒豁하고 鵲島海水浴場의 白沙場이 大陳島와 小陳島를 부르고 西湖津 海水浴場이 덩달아 출렁 거리었네.

鵲島의 海水浴場은 水泳내기 조개잡이에 해를 보내 달 맛이 하고

西湖에 돌아오는 고깃배를 두 大小陳島가 마중하여 漁場이 終日 興盛 거렸는데 6·25때 슬한 難民들의 슬픈 離別의 場所가 되었네.

興南雲興里的 義陵에는 老松들이 조용히 즐고 있는데 長津 赴戰의 水力發電으로 興南의 5大工場 돌리고 肥料, 製鍊, 火藥, 카아바이트, 航空油等 만드니 工場 굴뚝의 煙氣가 壯하게 하늘에 펴렸네.

古宮一部는 壬亂에 불타고 咸興本宮의 正殿과 典祀廳, 御井, 豐沛樓, 御帽閣이 고요한 夜雨에 深嚴한데 平植盤松이 蓮池에 늘어져 差使朴淳의 슬픈 恨이 되어 九天에 오래도록 떠돌다가 울고 울고 또 울었네.

興南九龍里的 바닷가에서 武藝를 닦고 擊毬를 치던 擊毬亭은 李成桂와 같이 간데없이 白沙場만 波濤치고 退湖麻田 海水浴場의 白沙場松과 붉은 海棠花가 望鄉의 詩情을 돋구는데 몸이 갈수가 없구나.

咸關嶺 擺撥嶺 車踰嶺에 내린 빗물이 德山古城 草原古城 적시고 壬辰亂 彰義功臣 李惟一의 號令에 倭兵이 도망하고 李成桂는 瑚璉川 냇가에서 목마른 渴症을 풀고 韓氏處女와 好緣을 맺어 天下에 새로이 號令하였네.

東川의 定和陵과 慶興殿이 雲峰山下에 幽邃한데 老松에 白鷺가 날아들어 저마다 둥지에 깃들고 歸州寺에 丹楓이 들때 逍風 나온 學徒들이 李成桂가 冊을 읽던 讚書閣에 발을 멈추어 섰네.

沙浦의 咸興盤松이 가지마다 꿈틀 거리고 瑚璉川은 營堡를 지나

城川江과 합쳐졌네 세차게 몰아치는 寒風에 雪中行軍의 凍傷과 江上의 水上競技가 아련한 追憶으로 떠오른다.

長津湖의 물이 黃草嶺을 넘어 堡庄에 第1, 下岐川에 第2, 龍水에 第3, 東陽에 第4, 네個의 水力發電所를 지나 咸州의 드넓은 哈蘭坪에서 靑波 黃波 波濤치게 하고 汝渭川이 廣浦에 흘러들어 花島 東쪽에 吐해 냈네.

6·25의 黃草嶺 激戰地 眞興里的 中嶺堡, 黃草嶺碑 遺趾 아흔아홉 구비의 黃草嶺길 할달새바위, 萬丈峰아래 溪流邊 煙臺峰 아래 金城洞口 蜜橋아래 巨碧灣 물결 龍泉의 兩碧灘 등이 黑林川의 絶勝이었네.

性理學의 巨儒 艮齋先生이 岐川西商洞에 隱居하여 關北經學齋를 세워 南北 千餘名の 선비에게 孔子, 朱子, 宋子의 教를 繼承케 하고 川西 御殷洞에 箕聖廟를 세워 順事齋先生과 더불어 民族魂을 鼓吹하였네.

天依山에서 뺏어내린 白雲山 그 산에 古城을 남기고 險한 山줄기 우뚝 솟은 溪谷에 奇妙한 바위 즐비한데 萬丈瀑布 散珠瀑布 흘러내려 龍興寺 無量壽殿에 風磬 울리고 香上殿 雲河樓에 白雲이 깃들면 佛地庵도 世俗을 잊었었다.

咸興의 咸州城, 退潮의 雄州城, 上朝陽의 福州城, 州西의 崇寧鎮, 興南의 通泰鎮과 公險鎮, 五老의 眞陽鎮, 咸州의 九城이 尹瓘의 이름만 남기고 中峯古城과 白雲山古城, 德山古城, 草原古城, 安陽堡古城들은

자취만 남기고 쓸쓸하였네.

壬辰亂 彰義功臣 金應福이 樂民樓에 檄文 붙이고 下朝陽 獨山에는 幕을 덮어 軍糧庫로 假裝하고 城川江에 白灰를 풀어 쌀뜨물로 보이게 하는 等 壬亂의 彰義功臣 12賢과 8公은 南門밖 新昌里 彰義祠에 모셔졌네.

또 州北社祠에는 金應福이 岐谷社祠에는 李惟一, 朴仲立, 朱應武가 興南 震田鄉賢祠에는 文鰲, 崔德詔이 그리고 殉國한 明川府使 韓琛이 모셔지고 朱應武는 朱地에 韓敬商과 文德教는 三平에 白應祥은 西咸興에 韓琛은 興南에 後孫들이 살았다네.

어여쁜 咸興女人 金蟾이 東萊府史 宋象賢의 小室이 되어 倭兵과 東萊에서 싸워 忠義節烈이 되었고 下岐川 上通 개인둔지의 農夫의 딸 崔淑嬪이 上京入宮하여 무수리가 되어 張禧嬪의 猜忌에 苦楚 當했네.

濟州말이 萬歲橋를 넘어오는 꿈을 꾸고 태어난 李濟馬 四象醫學發明하고 匪賊 崔文煥을 잡아 咸興의 亂 平定하여 高原郡守가 되었네.

正月 대보름 날 밤 萬歲橋에는 다리밟기 하는 男女老少가 興겹게 月下에서 所願 빌었네.

富寧都護府史 韓仁濟는 州西人으로 倡義하여 中衛將 鄭見龍을 代身하여 明川の 古驛驛에서 功을 세우고 吉州의 長坪과 臨溪雙浦에서 는부신 活躍을 보여 吉州城의 敵將 加藤清正을 南으로 몰아내 北道

의 虞侯가 되었네.

器局이 雄偉하고 智慮가 過人한 韓仁濟는 兵曹參判에 追贈되고 新興西古川 出身의 萬戶 柳應秀는 元坪社와 五老에서 敵을 물리치고 軍功으로 三水郡守가 되고 嶺南에 가던 中 宣祖를 謁見하고 蔚山營에서 別將으로 力戰하다. 慶州花院에서 戰死하였네.

慷慨하고 大節이 있는 柳應秀는 忠莊公 兵曹判書에 追贈되고 風采가 奇偉하여 남과 比較할 수 없는 萬戶 鄭海澤은 東古川人으로 心志가 굳고 射藝가 絶倫한 萬戶 朴仲立과 더불어 天坪社와 五老에서 敵을 물리쳐 다 같이 漢城右尹에 追贈되었네.

府使 李惟一은 思慮가 깊고 勇力이 있어 勝을 期하고 나아가고 臨機應變하고 計巧가 있는 參奉 韓敬商과 더불어 倡義하여 討賊將으로 咸關嶺과 洪原의 咸原驛에서 싸워 敵이 嶺을 넘지 못하게 하니 그 號令에 德山の 敵이 물러가 海邊으로 달아나 다녔네.

李惟一은 兵曹參判에 追贈되고, 韓敬商은 三水の 別害堡 後衛將과 丁西再亂때 部將이 되어 承政院 左承旨로 追贈되고, 延安人 判官 白應祥은 柳應秀와 더불어 五老와 加平 州北에서 奮戰하고 富寧府使로 勃介退를 討伐하다 殉國하니 戶曹參判에 追贈되었네.

膽力이 있고 謀事を 잘한 監正 朴吉男은 倡義하여 功을 세우고 兵曹參議에 追贈되고 危險을 돌보지 않는 儒生 李希錄은 三水の 別害堡에서 義兵을 일으키고 新興의 高遷社에서 募兵하고 僉正이 되어 活躍하니 兵曹參議에 追贈되었네.

영특하고 熟成하여 識見이 透徹한 儒生 李思悌는 20歲에 倡義하여 李希錄과 같이 別害堡에서 義兵을 모으고 高遷社에서 募兵하고, 判官으로 功을 세워 軍器監副正에 追贈되고 軍官 朴應嵩은 萬戶가 되어 丁酉再亂때 戰死하였네.

形容이 峻整하고 旨意가 明白한 朴應嵩은 軍器監寺正으로 追贈되고 學業을 닦아 忠義를 蓄績하고 孝道로 神明을 感動케 한 直長 金應福은 樂民樓에 檄文을 붙여 司憲府監察에 追贈되고 參奉 柳應春은 獨山戰에 戰死하여 左承旨에 追贈되었네.

全北高敞의 興德縣監을 지낸 文德教는 賦性이 剛正한 父親 軍器監 奉事 文鰲와 같이 復讎廳器機를 整備하여 모았네. 父親과 아우 文善教가 敵에 殺害되고 戰後에 壬辰錄을 써서 남기니 文公은 兵曹判書에 追贈되고 文鰲는 戶曹參議에 追贈되었네.

재주가 敏捷하여 計劃에 遺漏가 없는 生員 崔德翊은 功을 세워 承政院 左承旨에 追贈되고 武略과 知略이 있고 敵愾心을 일으키는 재주가 있는 別將 朱應武는 全州防禦에 功을 세우고 慶州花院戰에 副將으로 戰死하니, 兵曹參議에 追贈되었네.

柳應秀의 아들 柳繼男은 龜城府使로 遼東出征에 나아가 救明討淸에서 功을 세우고 殉國하니 左承旨에 追贈되었네.

아! 義로운 12賢과 8公.

우리에게 피를 물려준 功臣들. 咸州의 彰義祠에 모셔져 높이 높이고 功을 기리네.

壬辰亂에 倡義討賊한 12 彰義功臣과 8公. 憂國에 憤然히 일어난 3

· 1 運動과 抗日, 反共에 鬪爭한 義士들 그리고 排共清算團의 氣概가 咸州의 魂으로 九原에 맴도는데 우리는 南으로 避難와서 先烈의 恨을 잊고만 있네.

아! 著明한 官吏와 詩人
友愛가 깊은 사람
뛰어난 재주가 있는 사람
軍士를 부리는 꾀가 많은 사람
文學을 義롭게 行할 사람
불쌍히 여겨서 도와준 사람
남들보다 뛰어난 聰明한 사람
이들이 우리의 咸州人 先祖였네.

興南工場과 萬歲橋의 爆擊. 黃草嶺의 싸움과 阿鼻叫喚의 血肉의 離別, 興南撤收의 슬픔이 東海의 물결을 타고 아직도 腦裡에 남아 눈을 감으면 메아리쳐 永遠히 맴돌기만 한다.

盤龍山의 知樂亭과 北上樓는 간데없고 汝渭川이 廣浦에 들러 맴돌다가 花島의 秋氏始祖墓 흘러들고 廣浦의 社倉과 咏歸亭 五賢書院과 海月亭 자취 등은 老松의 그늘아래 즐기고 湖上의 龍岩이 舟遊를 부추겨 白鷗는 湖上에 날아들었네.

廣浦의 잔잔한 물은 宣德, 定平에 흘러들고 長津의 물은 터널을 지나 上朝陽, 川原, 川西, 州西, 三平, 朱地, 連浦에 흘러들어 黃波의 穀倉을 이루고 宣德, 連浦에는 軍用機가 川原에는 民航機가 날아들었네.

東興의 東興橋와 千佛橋, 河大의 阿大橋, 東井의 蜜巖橋와 五老의 黑林橋 또 五老南東의 黃門橋, 院水橋는 川西, 朱地, 州西間에 있고, 咸興에는 萬歲橋와 興南間的 營堡橋가 三平과 興南間에는 君子橋가 城川江 河口를 가로 질렀네.

咸鏡線은 興上, 咸興, 本宮, 興南, 西湖, 麻田을 지나고, 狹軌鐵道는 西湖津에서 內湖, 天機里, 九龍里, 君子, 西本宮, 營堡, 沙浦, 西咸興에 이르고 또 咸興, 西咸興, 興祥, 州北, 長興, 五老, 中上을 거쳐 赴 戰湖畔 쪽으로 갔네.

또 五老에서 長津 泗水쪽으로 東陽, 松堂, 東井, 上通을 지나 龍水, 下岐川, 三巨, 堡庄에 이르러 인크라인을 타고 黃草嶺에 오르니 海邊과 工場, 市街와 平野와 峽谷의 絶勝을 두루 구경하고, 기쁨과 슬픔, 먹이와 살림을 실어 咸州의 血脈으로 疏通하였네.

아! 보고 싶구나, 咸州여 가고 싶구나 咸州여 故郷에 가고 싶은데 血肉이 시달리는데 어찌하여 못 가는가 千秋의 恨이여 萬古의 恨이여 보고 싶구나, 가고 싶구나 눈을 감을수가 없구나!……

1학년 때의 추억

문 창 기 (29회)

1. 1942년 4월

입학의 기쁨도 잠시 군사훈련 행사가 많았다.

한 여름 피약별 아래, 훅훅 찌는 더위 속에서, 열병행렬 연습에 온몸이 축 늘어지는 날이 많았다. 함흥시가가 생각난다.

2. 물상시간에 물리교실 실험대에 머리를 올려놓고, 선생님 교단 쪽으로 얼굴을 비추인채, 잠이 들어버린 적이 있었지. 무섭다고 소문난 물리선생님이 그날 따라 나를 깨우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 어린 내가 불쌍해 보였는지? 귀엽게 보였는지?... 나도 알 수 없지!... 이로부터 나는 한평생 동안 “자부렘이(잠보)”라는 별명이 붙어 따라다녔다.

지금도 나는 조금만 피곤하면 잠이 저절로 온다. 전철을 타면 으레 옆에 있는 손님, 영감들도 좋고, 할머니들 노인도 좋으니, 덮어놓고 못하는 말이 “어디까지 가십니까?” “왜요?”... “내가 잠이 많아서 내려야할 역을 지나쳐버리는 것이 일수이니, 만약 그렇거든 잠 좀 깨워주시면 고맙지요.”

3. 1학기 때는 함흥 과일 시장에 있는 <선만타이어>라는 타이야

수리소 사장님 댁에서 아명=국시돌이라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 가정 교사로 들어가서 공짜 하숙생으로 지냈는데, 1학년 아이한테 가르칠 것이 뭐 있겠소! 돌이는 이방, 저방, 방 기둥을 안고 돌아다니면서, 뛰노는 장난꾸러기가 일어났다.

1학기말 성적표에 150명중 148째 꼴찌에서 3번째의 낙제 점수. <먹고자고, 놀고먹고, 놀고자고, 먹고놀고> - 의 연속 이었다. 그래도 한번도 후회해 본적이 없다. 물론 그 집에서 쫓겨났다.

4. 2학기는 정평에서 기차통학, 아버지가 함흥 철도국 건설사무소 용지계에 근무하고 계시는 바람에 기차는 공짜다. 우리 집은 정평읍 4동 천리-울타리 없는 집이다. 2학기는 삼촌한테서 물려받은 수학 참고서 문제풀이에 정신이 흠뻑 빠져서 집에서는 밤중 또는 새벽에 일어나서는 그 책의 문제를 푸는데 온몸이 집중하였고, 학교가면 점심시간에 꾸벅꾸벅 조는 것이 나의 일과였다. 공부라야 국어사전, 영어사전을 뒤지면서 단어 외우는 것이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수학 문제.

5. 수학선생 <한장이 선생> 본명 (한 순현) 선생님이 차례로 칠판에 나와서 문제를 풀어라 해서 나갔다. 차례차례 문제를 풀어가면서 답을 내야하는 <테스트>인데 - 그까짓 것 암산해서 답만쓰고 내려왔다. 선생님이 나오라고 해서, 또 나갔다. 다짜고짜로 콤파스로 나를 후려갈기는 것이 아닌가?! -이유인즉- 참고서를 외워왔다는 것이다. “이 썩을놈의 새끼야” 하시면서... 콤파스가 부러졌다.

6. 담임선생 <가나새끼> 선생은 별명이 <간나새끼>인데, 우리에게 자유사상을 불어넣어 주었다. <너희들! 교실에서도 뛰어 다니며 놀

아라! 책상이 빠개지면 내가 물어주마! 기죽지 말고 활발히 놀아라!>
<그대신, 공부만은 다른 반에 지지마라! 알겠니!> 결과는 우리반이
평균점수가 다른반보다 우수했다.

7. 가을이 되어 어느날 정평에서 기차통학 함흥역에 도착 조금전
인테 창밖으로 “저거봐라!!” 차 안의 손님들이 일제히 창밖을 내려다
보는 것은 바로 “저거봐!!” 하면서 감탄하는 소리 그게 바로 뭐냐?
성천강 철교밑을 굽은 아낙네 2,3명이 한때는 5,6명이 떼지어, 치마
를 완전히 벗어 걷어 올리고 머리에는 쌀 몇 말씩을 이고 지고 얇은
곳에서 깊은 곳을 지나, 얇은 곳으로 다시나와서 함흥 쪽으로 들어
오는 행렬이다... 시꺼먼데를 다 내놓고, - 그들은 쌀의 암거래 장사
꾼 아낙네들이다. 쌀이 귀한 때라서 만세교 다리로 건너가다가는 쌀
을 몽땅 빼앗기니까 성천강 철교밑으로 간다. 생존을 위해서는 부끄
럼은 아무것도 아니다!!

8. 나는 또 머리비듬이 많은 인간이다. 지저분할 정도로 말이다.

그 때 머리는 뽀뽀 깎은 민대머리지만 비듬이 허영계 우수수 떨어
진다. 이만저만 귀찮은 것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울고 싶을 정도로
학교에서 바리깡으로 머리는 싹박 깎아주었다. 다음 순간 나는 크레
졸원액(물에 타면 뿌연 소독약인데)을 뽀뽀 깎은 머리위에 들어부었
다. 선생님이 나중에 와서 알고서는...

“너... 참... 큰일 날뻔했구나” 하는 것이었다.

하루도 머리를 안감으면 비듬이 우수수 벚꽃 떨어지듯 옷깃위에
하얀 반점무늬를 이룬다. 그러니 그때 추억도 곱해서 생각하게 된다.

9. 기차통학으로 창밖에 사계절을 빠짐없이 구경하게 된다. 봄에

는 가로수의 꽃과 수양버들, 여름은 포플러, 가을에는 누런 황금빛 들판 어느날 기차창밖을 내다보다가 잠이 들었다. (예쁜 여학생을 바라보다가 그렇지 않았나? 모르겠다!) 정평에 도착하니 모자가 없지 않은가?! 머리를 여러번 쓰다듬었다.

그래봤자 모자 없는 머리를 쓰다듬어 봤자 뭐해?!

나는 정평에서 흥상역 (함흥가기 전역)까지 철길을 걸어 가보기로 결심했다.

... 결과 ... 물론 모자는 찾지 못했다.

... 나무아미타불 ... 같잖은 일이다!!

그때부터 나는 미리 판단해서 안되는 일은 통쾌하게 포기해 버리고, 상쾌한 새아침을 맞이하여 유쾌하게 살아나가는 그야말로 멋진 인생살이를 하는 것이 나의 인생관이 되어버렸다.

생각만 해도 후련한 일이다.

10. 함경도 함흥의 겨울은 추웠다. 개마고원 아니 만주별판 아니 그 북녘에서 불어닥치는 무섭도록 차가운 바람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인생살이다.

봄을 기다리는 마음은 가슴 한구석에 간절한 믿음과 소망으로 지니고 있는채...

아버지가 출장에서 돌아오시면서 스케이트를 사오셨다.

마침 겨울방학이 닥치면서 정평의 동천냇물은 얼음으로 퐁퐁 얼어붙었다.

거기서 광포(포구)까지, 정평학생들이 스케이트를 타고 오르 내리자만...

나는 못타는 스케이트로 내 두발을 퐁퐁 묶어 놓아 죄수같이 되어버렸다. 조금 가다 쉬고, 또 조금 가다 쉬고... 발목이 아프니까. 그

나마 내 고향 경북 고령에서는 구경도 못하는 스케이트 놀이에 익숙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웬걸... 가다가 발목이 아프고 다리가 고달파져도 광포에서 정평읍으로 되돌아가자면 얼음길은 너무 멀다. 석양의 해 떨어지기 전에 어서가야지... 하면서도 10번인가 20번인가 쉬었다. 어름길도 오르막은 그나마도 더 어렵다. 이곳의 학생들은 벌써 아까 오래전에 집으로 돌아갔건만 나는 어름 위에서 더 나아갈 수가 없다. 푹푹치 못한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의 어리석으면서도 고지식한 - 말하자면 - 나의 우직한 성품이 아버지가 사다주신 스케이트 때문이 아닌가 싶다.

11. 어느날 방과후에 상급생이 우리교실에 들어오셨다. 2,3년 윗사람이다.

무슨 참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지 앵이요?”

“그렇습니다”

“양이 그렇습니까?”

“이거 보오다” 등등...

말씀은 지극히 겸손하고 예의바른 말씀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야아, 상급생이 우리에게 아니 아직 어린 1학년한테 경어를 쓰다니...?!’

그후 나는 상급생에 대한 경의는 남다른 사람이 되었다.

물론 스승이나, 사회명사나, 유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12. 나는 우리나라 표준말에 대하여 반감이 강하다.

「부역」을 「정지」, 「간장」을 「지렁」 그밖에 여러 낱말들이 우리나라

라 전국에 걸쳐 쓰여지고 있었는데, 표준말에 밀려나서 아주 자취를 감추고 있다. 36년간 일제의 지배하에 우리말 자체가 말살될 뻔한 과거가 분하다. 함경도말이 내 고향말과 똑같은 말이 많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13. 그해 3월

입학시험 며칠 전에 함흥 ○○여관이 만원이라 거기서 안내해준 상급학생 하숙집에 묵으면서 그때 3학년 선배의 코치를 받아서인지 필기시험이 너무 쉬웠다.

나는 합격발표가 나붙어 있는데도 내 눈을 의심하여 그 자리에 내 수험번호 26번을 눈을 비비고 봐도 틀림없는데...

그때부터 나는 쉽게 이루어진 모든 일이 모두 다 의심스러워지는 사람이 되었다.

떨어진 애들은 울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인생살이는 어려운 것이 당연하거늘...

그때 그 3학년 상급생 선배님은 오로리 방면 그 위 북쪽, ○○읍 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나하고 몇 번 편지왕래가 있었다.

지금도 보고 싶은 그 선배!

그분은 학생 Strike 주모자로 퇴학당했던 모양이다.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불현듯 달려가 보고싶은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선배데...!!

아버지의 장례

金 淳 郁 (29回)

고향에 그대로 있었으면 그동안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여러분의 장례를 치렀을텐데, 그동안의 공백으로 그런일이 없다가 전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를 보내게 되었다. 자세한 순서를 장례사의 지시에 따르긴 한 것이지만 나는 그냥 병병히 5일장을 치룬 것이었다. 어떤날엔 나는 아버지가 즐겨 들으시던 멘델소온의 바이올린곡이나 슈베르트의 독창곡 같은 몇곡을 틀어 드렸으면 했는데, 한국 습관엔 장례에 음악은 나오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하는 바람에 내 의견을 발붙일 여지도 없었다. 그전에 보니까 어느 모친상을 당한분이 장례 중에 곡을 못하게 하고, 보통 쓰는 글씨병풍 대신에 화려한 그림 병풍을 쓰면서 이건 습관을 무시한 그러나 어머니의 뜻이라고 주장하고 파격예식을 치르는 경우도 본 일이 있으며, 나는 그때 그건 납득이 가는 일이라고 생각했었으나 일을 당하고 나니까 그런 저런 생각할 여지없이 날짜가 지나가 버렸다. 마지막 가는길은 누구나 그렇다지만 그날도 그냥 쓸쓸히 장의사 캐딜락 자동차에 아버지는 실려가셨다.

내가 장례 치르는 중에 우선 제일 참지 못했던 순간은 아버지가 누우신 관이 미리 파놓은 땅 속으로 스르르 내려가는 때였다. 그때

까지는 문상객들의 말씀들이나 교회인사들의 조의에도 담담하던 내 감정이 하관의 순간에 40여년 지나던 아버지와의 추억들, 영영 이제는 아버지를 다시 보지 못한다는 현실, 아버지는 다시는 땅위로 올라오지 못한다는, 그분의 이세상의 ‘최후’에 발을 구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아무리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법’이라지만 현실로 다가오는 이세상의 최후란 상상도 못했던 경악과 슬픔이었다.

준비된 카네이션 붉은 꽃송이를 참석자들이 관위에 놓을 때까지도 몰랐는데, 관이 미끄러지듯 땅속으로 들어가고, 마지막 꽃 한송이를 관위로 내가 던질때 나는 이미 울고 있었다. 그리고 막상 첫 흙 삽을 내가 아버지 관위로 던지는 순서가 왔을때, 나는 차마 이 일은 못하겠다는 마음이 들어 뒤돌아서야 했다. 내가 아버지 눈에 흙을 넣다니! 나는 예전엔 거의 그런일이 없었을듯 싶은 “아버지...” 하는 절규와 함께 통곡을 하기 시작하였다. 아버지를 다시는 못보는 세상으로 보낸다는 슬픔과 내가 아버지에게 잘못된 일들이 떠오르며 울음을 그칠수가 없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마구 솟구쳐 오르는 것이었다. 얼마나 그랬는지 모르지만 내가 다시 평정을 찾은 것은 아 내가 다가와서 다른 손님들의 순서가 있다고 달래는 말을 듣고서도 한참이나 지난 후였다. 나는 한 삽의 흙을 관위에 던졌다. 흙이 관위에 떨어지는 소리가 그렇게 크고, 무섭고 애절하고 무정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가족들과 친지들의 산토가 이어지면서 점점 관이 흙속으로 묻혀가는 것을 몰끄러미 보았으면서 “종말이다 종말이다”하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아아 아버지는 드디어 저 세상 -우리가 모르는 저 세상- 어떤이는 우리가 왔던 그 별로 돌아간다는 그럴듯한 곳 일런지 어딘지도 모르는 세상으로 가시는구나. 천국이란 현세라고 하는이도 있지만, 정말 하늘나라로 가는건가? 죽음은 삶의 연장, 죽

음은 삶의 완성이라는 허울 좋은 말들도 이순간 가소로왔다. 지금 당장 아버지가 땅속에 묻혀가는데...

어머니와 손님들을 차로 보내고 나는 아내와 동생과 함께 걸어서 아래로 내려왔다. 나는 힐끔 힐끔 산소 있는 쪽을 뒤돌아 보면서 걸음을 옮겼다. 이 산소를 구입할 때 내 나름대로 좌청룡 우백호는 상당부분 있다고 보았는데, 과연 어떨까? 아버지가 저 멀리 보이는 바다를 보실 수 있을까? 아까 삼으로 흙을 던질때 보니 살살한 모래흙은 아니었다. 오히려 진흙이 꽤 섞인 토질인것 같았다. 비가 오면 배수가 잘 되어야 할텐데... 얼마나 걸었는지, 인가가 있는 동네에 까지 왔는데 내내 아버지가 땅속에 누워 계시다는 생각만 가득했다. 아버지는 지금 얼마나 외로우실까, 얼마나 추우실까 코오프라도 입혀서 보내 드릴걸.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갑자기 시장끼를 느끼는 것이었다. 식당간판을 봐서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지만 마구 허기지는 것이었다. 이럴수가 있는가? 아무리 지난 며칠 변변히 먹은 것이 없다 치더라도, 아버지를 마악 땅에 묻고 내려오면서 나는 배가 고프다니. 나는 배고프다고 내 자신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내가 이마당에 살아 있다고 배가 고프다니, 어처구니 없고, 염채 없고 가없는 인생이라는 생각만 자꾸 들었다. 아버지는 앞으로 영영 굶으실텐데...

아버지는 은퇴후엔 상당히 생사에 관한 문제와 씨름하시는것 같았다. 생사문제란 반드시 죽고 살기의 뜻 뿐만아니라 자아(自我)의 발전, 마음을 비우는 자세(虛心), 애증(愛憎)의 문제 같은 원천적 갈등 같은것에 대하여 읽고 보고 듣고 하시는 모양이었다. 교회에 나가셨

지만 불교책도 읽으시고, 노장(老莊) 사상에도 많이 접근하셨다. 불교의 저작 ‘벽암록’의 여러 저자의 해설을 읽고, 가끔은 그속의 이야기를 들려주어 우리 형제들을 즐겁게 하였다. 어찌하면 생사라는 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에 흥미를 가지셨다. 일도출생사 일체무애인(一道出生死 一切無碍人)이라는 구절도 그분이 좋아하는 문구(文句)였다. 여러 역자의 노자 도독경을 읽으시고 11장, 41장 등은 휘호로 남아있을 만큼 좋아하셨다. 얼마만큼이나 달관하셨는지는 나는 모르지만 어느 인생이나 대개 그렇듯 미완인(未完人)이셨겠지 한다. 아버지는 희귀한 종류의 질환으로 한 4년 치료를 받으시다가 고통없이 예정한듯 돌아가셨다. 임종에서 어머니에게 ‘그동안 수고했소. 잘 지내다 가오’ 하시고 아무렇지 않게 눈을 감으셨다. 잘 지내다가오라는 말씀은 상당한 감동을 내게 남겼다. 가령 나 같으면 마지막 순간에 이세상을 한없이 잘 지내다 간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물으면 자신이 없는 것이다. 그전에 어느 재능이 무척 있던 스님이 ‘괜히 왔다간다’라는 제목을 그의 책에 남긴일이 있다. 그에 비하면 아버지는 정말 자기 일생에 행복감을 느끼신게 틀림 없다. 적어도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쪽으로 지내셨는가?

그날밤 나는 어머니 옆방에서 지냈다. 혼자 계시겠다는 어머니 방에 귀를 기울이면서 땅속에 누워계신 아버지 생각보다 어머니가 더 걱정스러웠다. 들려오는 소리는 별로 없었지만 자주 드나드는 아내의 말에 의하면 계속 소리 죽여 우신다는 것이었다. 그날밤 나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는 아버지가 누워있던 관속에 내가 누워 있는 것이었다. 그 궤짝이 스르르 미끄러지면서 파놓은 땅속으로 들어간다. 관위로 흙이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하다. 관 뚜껑이 덮여있다. 아아 숨이 막힌다. 눈앞은 캄캄 절벽이다. 누가 이 뚜껑을 열어다오!

열어다오! 손을 휘젓고 소리를 지르면서 잠에서 깨었다. 옆에 누웠던 아내가 놀라 깨면서 물었다. 왜 그래요? 꿈을 꾸었어요? 숨을 고르고 나서 얼마 있다가 증얼거렸다. 내가 관속에 누워 있었어. 죽음이란 무서운거 였어 외롭고 처량하고 으스스 했어 그렇지만 일단 잠들고 이세상의 경계를 넘으면 편해질지도 몰라. 자다가 깨서 잠이 오지않는 번거로움도 없을테고 눈이 오면 온 천지를 골고루 덮어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죽음이란 이 힘들고 고생스런 인생들을 다 덮어주고 훌훌 떠나게 하는거니 말이야. 하긴 죽음이 없으면 지친 인생이 갈 곳이 없겠지. 그나저나 내가 죽으면 내 자식들은 이 불효자식 만큼 이나마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할까? 아내가 대꾸한다. 암 그렇겠지요. 내가 혼자 생각한다. 정말일까? 난 무척 자식들에 대해서 자신이 없구나. 아니 그렇지 않은들 어찌랴. 아암 아무려면 어찌랴...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가 땅속에 혼자 누워 계시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잠이 들었다.

2009년 3월

두루미(丹頂鶴)

孟 厚 彬 (시인, 29回)

하얀 목

하늘 저 멀리 가웃거리며

두루미는 고옥고옥 운다

얼마나 아타까웠나

기다리기에

얼마나 기다렸나

임을,

그다지도 목이 길어지다니

해묵은 소나무는 네 천년의 벗

슬픔과 애달픔 영긴

삶의 뒤편길 이야기

도란도란 나누며

두루미는 고옥고옥 운다

네 몸가짐은 청빈한 선비

네 걸음걸이는 정숙한 여인

네 가룩한 기쁨은
소나무 그늘에
그윽히 어려 전설이 되고

예로부터 지극히 배달 민족
아끼고 섬긴
정중한 새 중의 새

네가 날아오르면
어디선가
천상의 가락 들리는 듯

머리엔 일편단심 붉은 점
하나만 새긴
두루미야

이 땅의 양금과 먼지 훑훑 털고
푸른 하늘 끝까지
날이라
긴 나래 활짝 펴고

어느 開院醫의 하루

韓 鎮 慶 (29回)

그의 하루는 월요일의 목욕탕 행으로부터 시작된다. 아침 6시 뉴스를 잠깐 본 후 곧바로 가는데 강한 비나 눈이 내리지 않는 한 거의 걸러 본 적이 없다. 아침 이른 탓에 목욕탕 안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 탈의실에서 옷을 벗은 후 체중계에서 체중을 잰다. 체중은 중요한 건강지수다. 머리를 감고 손발을 씻은 후 40도 정도되는 뜨거운 탕 속에서 목을 좌우전후로 돌리고, 팔, 다리를 꾸부렸다 폈다 하는 수중동작을 계속한다. 그후 폭포수 밑에 앉아 눈을 지그시 감고 명상에 잠기며 지난 일주일 동안의 생활을 반성도 해보고 새로운 일주일의 계획 같은 것도 세워본다. 늘 평안한 마음속에서 신앙생활이 이어지도록 기원한다. 이런 것들은 샤워 위주로 되어있는 가정집 욕실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목욕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에도 많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이렇게 뜨거운 물에서 나온 후에는 수염도 부드러워져 면도도 한결 잘되어 상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기분좋은 일주일 첫날 출근길이 되는 것이다.

병원으로의 출근은 걸어서 한다.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타면 지하철역 승강장 입구까지 곧바로 연결되어 있고 병원도 역 가까이 있어 지하철 이용이 아주 편리하지만 늘 걷는다. 그의 승용차는 주차

장에서 늘 ‘열중쉬어’다 일요일에 야외로 몰고 나가는데 시원한 공기
도 마시고 조용한 곳에서 쉬면 기분전환도 되고 운전감각의 둔화도
막아주게 된다.

걷기는 神이 인간에게 준 가장 좋은 선물이다. 가장 좋은 치료약
이 되면서 아무런 부작용도 없고 어린이에서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운동이다. 매일 꾸준히 걸으면 달리기
와 맞먹는 운동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운동시간과 공간이 부족한 도
시인에게 가장 적합한 운동이 되기도 한다. 걷기를 하면 각종 생활
습관병을 예방하거나 바로 잡는데 효과가 크다. 지방세포를 없애고
지혈증을 예방하고, 콜레스테롤을 정상수치로 되돌리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혈압을 낮춰준다. 근육과 뼈를 강화해 70대에서 골다공
증에 걸릴 가능성이 30% 이상 낮아진다. 당뇨병, 지방간, 비만예방에
도 좋다. 척추질환으로 인한 허리통증과 어깨결림 등을 완화하고 뇌
에 적당한 자극을 주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우울증 등 각종 정신질
환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꾸준히 걷기만 해도 대장암과 유방암에
효과가 높아 남자는 30%, 여자는 40% 정도로 암발병이 감소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바른 자세로 걸으면 척추가 곧게 펴지며 자세가
예뻐진다. 지방이 떨어져 나가고 근육이 알맞게 붙어 몸매와 옷맵시
도 좋아진다.

그가 걷는 시간은 대략 20분 좀 넘는다. 걷는 동안 그는 많은 사
람들로부터 인사를 받는다. 특히 여성들이 많아 기분이 나쁘지 않다.
그것은 여성들이 인사성이 더 좋기 때문이리라. 그런데 종종 전혀
기억이 없는 사람들한테서도 인사를 받는다. 그래도 그는 구면인양
반갑게 인사를 교환한다. 걸으면서 길가의 가게안 진열장 같은 것을
보고 싶어도 잘 안본다. 가게 주인들과 눈이 마주치면 일어서서 인
사를 하기 때문에 미안하게 된다. 한번은 병원 반대편에 있는 은행

에 불일이 있어 가는데 모르는 어떤 분이 마주치면서 “원장님 병원은 저쪽 편인데요”라는 것이 아닌가. 이 원장이 나이 들어서 벌써 ‘방향감각 상실증’에 걸렸나 생각하는 것 같아 좀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염려해주는 마음씨가 고마울 뿐이다.

간혹 길어서 병에 대한 상담을 해오는 사람도 있다. 전에는 길에서 무슨 진찰이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병원에 나오라고” 통명스럽게 대답하고 하였지만 지금은 쉽게 볼 수 있는 곳의 환부는 그자리에서 직접 보기도 한다. 피부과는 視診을 주로 하고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환부는 길에서도 진찰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등 치료방법을 가르쳐 드린다. ‘路上診察’이다.

그는 걸으면서 나지막한 소리로 부르는 애창곡이 있다. 흘러간 노래로 옛적 백년설씨가 부른 ‘나그네 설움’이라는 노래다. 고향 그리고 가족들과 헤어진지 오랜 그의 처지에 매우 어울리는 노래이기 때문이다. 독자 여러분을 위하여 여기에 가사를 적어본다.

오늘도 걷는다만은 정처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죽마다 눈물 고였다
선창가 고동소리 내님이 그리워도
나그네 흐를 길은 한이 없어라

그는 피부과 전문의다. 그가 피부과를 지망할 때 주위에서는 좀 탐탁치 않게 생각하였다. 외과의사가 ‘의사의 꿈’이라 하였고 그외 수입도 좋고 인기있는 과목도 많았는데 학업성적도 우수했으면서도 하필이면 피부과 같은것, 약국에서도 얼마든지 보는 별 불일없는 과로 여겨져 있었을 때 그는 피부과 의사의 외길을 걸었다. 그후 세월이 흘러 의료보험제도에 이어 2000년 7월 우리나라 의료계의 큰 혁

명적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상황은 너무나도 달라졌다. 피부과가 의과대학 학생들의 지망과 순위에서 일약 1순위로 올라섰고 반면 외과계는 '3D업종'으로 취급되어 하위로 쳐져 대학병원마다 수련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 수술을 받으려면 외국으로 가야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그의 병원은 신설동 로타리 근처 왕산로 대로변에 있다. 68년 5월에 개원하였으니 41년이 넘는다. 강산이 네번 바뀐셈이다. 그간 별사고없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늘 고맙게 생각한다. 간혹 환자들이 와서 “오면서 그 병원이 혹시 없어졌지나 않았을까 걱정하면서 왔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더욱 그렇다. “원장님 내내 건강하여 오래 오래 병원을 보세요” 하는 이야기에서 큰 격려를 받는다.

한번은 어떤 환자가 진찰실로 들어오면서 “의사선생님이 젊은 분이라면 도로 갈려고 했어요. 그간 몇 군데 병원에서 젊은 의사한테 진료를 받았는데 도무지 효과를 못 봤어요”라는 것이었다.

옛글에 ‘易少醫老’라는 말이 있다. 易人(점장이)은 젊어야 되고 醫員은 늙어야 된다는 말이다. 점장이라도 나이가 많아야 경험이 많아져 점을 잘 치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다. 점장은 대개 어렸을때 神靈한테서 내려받은 靈感이나 神通力 같은 것이 있다는데 그것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자꾸 증발 소실되어 잘 맞이지 못한다는 것이고, 의원은 나이 많아야 축적된 경험으로 병을 잘 고친다는 것이다. 혹시나 ‘골동품의사’로 취급되거나 않을까 하고 기가 죽을 필요는 없을것 같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환자들이 자꾸 많아지는데 애로점이 많다. 만성질환이 많고, 치료효과도 더디다. 굳이 필요없는 주사를 자꾸 놓아 달라고 요구한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간호사가 현관까지 부추겨 들어야 하고, 난청환자가 많아 큰 소리로 말해야 한다. ‘生老

病死' 어느 인생인들 그 고통을 면할 수 있으리오. 인내심을 가지고 더 친절히 대하리라고 그는 생각한다.

그는 또 처방전을 프린터에서 뽑지 않고 직접 쓴다. 환자 가운데는 처방전을 받으면서 “이 병원에서는 왜 처방전을 프린터에서 출력 안하세요?”라고 묻는 사람도 있다. 이에 간호사는 “그 처방전에는 원장님의 魂이 담겨져 있어요. 꼭 좋은 효과를 보실거예요”라고 말해준다. 근래 텔레비전만 보고 책이나 신문은 잘 안 보기 때문에 사 고력, 문장력이 떨어지고, 컴퓨터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글을 잘 못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신경정신 활동이 둔화 감소되면서 치매의 발생도 많아진다고 그는 믿고 있다.

퇴근길 물론 또 걷는다. 나즈막한 소리로 부르는 노래는 ‘나그네 설움’ 2절인데 더욱 가슴에 애달프다.

타관 땅 밟아돈지 십년넘어 반평생
사나이 가슴속엔 한이 서린다
황혼이 지터지면 고향도 그리워져
눈물로 꿈을 불러 찾아도 보네

그렇다. 꿈에서라도 그의 고향집 함주군 주북면 쌍송리 69번지에 가 봐야겠다. 마을동산에 올라 주위 과수원의 사과와 복숭아 꽃이 만발할 때의 봄, 녹음이 짙어질 때의 여름, 마당 한쪽에 있는 큰 은행 나무 잎이 황금빛으로 물들때의 가을, 흰 눈이 소복하게 쌓인 때의 겨울, 사시사철 어느 때 보다도 한 폭의 동양화와 같은 돌담길 고향 집을 그 기나긴 세월이 흘러갔어도 한시도 잊을 수 없다. 아- 歸巢本能의 恨은 끝내 못 풀어 볼 것인가!

2002년 6월 그는 3기 대장암의 대수술을 받았다. 그후 어려운 항

암치료와 5년여에 걸치는 추적관찰을 위한 많은 검사과정을 거치면서 용케도 살아남았다. 그리하여 2007년 7월 드디어 대망의 완치판정을 받았던 것이다.

그간 그는 자기의 몸 한구석이 망가져 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앞만 보고 달려왔던 것을 크게 반성한다. 덤으로 다시 사는 인생 이제는 좌우도 보고 뒤도 돌아봐야겠고 그리하여 주위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소외계층의 사람들에게도 눈을 돌려 따뜻하게 돌보는 데서 보람있는 삶을 찾으면서 그는 내일 또다시 이 길을 걸을 것이다.

이명(耳鳴)

김 용 철 (30회)

한밤중 잠결에
난데없는 총소리가 내 귀청을 울려
자리를 박차고 뛰쳐 나왔습니다.

사방 둘러봐도
칠혹처럼 캄캄한 이 밤은
죽은 듯이 고요한데
따다닥 따다닥 소리는
여전히 내 귀청을 난도질 합니다.

이건
퇴색한 전설로 물러간 그 날 새벽녘
잠든 서울을 침노한 인민군이 갈겨대던
잔혹한 따발총 소리인 게 분명합니다.

우리 역사의 책에서
내 손으로 지우고 또 지우던
6.25의 상흔(傷痕)이
반세기도 더 지난 이 날까지
내 귓속에 들어앉아
사정없이 나를 울리려나 봅니다.

한자(漢字)의 위력(威力)(1)

한만섭 (韓萬燮, 30회)

사람의 의사(意思)를 타인(他人)에게 전달(傳達)하는 방법(方法)으로 문어(文語, Written Language)가 통용(通用)된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선 신문잡지(新聞雜誌), 소설(小說), Monitor에 뜨는 Internet 내용(內容), 또 차(車) 운전할 때도 교통신호(交通信號) 등 온통 문어(文語)와의 접촉(接觸)이 태반이다. 오늘날 우리 생활 속에서는 시각(視覺)으로 의사전달(意思傳達)하는 것이 청각전달(聽覺傳達)하는 경우(境遇)보다 훨씬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형체(形體)의 전달매체(傳達媒體)가 시각적(視覺的)으로 빠르고 정확(正確)하게 의사(意思)를 전달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고래(古來)로 여러 가지 문어형체(文語形體)가 발명(發明)되었지만 그 추세(趨勢)는 대강 두 가지로 구분(區分)된다. 하나는 표음문자(表音文字)이고 다른 하나는 표의문자(表意文字)이다. 근래(近來)에 와서는 의사전달(意思傳達) 매체(媒體)로 문자(文字) 외(外)에도 많은 부호(符號)나 영상(映像, Image)들이 대용(代用)되는 경향(傾向)이다. 예를 들면 길 건널목의 「서시오」 「가시오」 하는 문자(文字) 신호(信號) 대신 @ (停止) 또는 ‘걷는’ 영상(映像)을 표시(表示)하여 의사전달(意思傳達)의 속도(速度)를 높인다. 간결(簡潔)한 영상(映像)은 문자(文字)보다 의사전달(意思傳達)의 효율(效率)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특

수(特殊)한 문자표나 기호(記號)가 정통적(正統的) 문어(文語)를 대신(代身)하는 때가 많다. 예 : ☺, ☹, ♡(love), 한글 Word icon ☐ 기타 PC Software icon, 각종 교통신호(交通信號)판 등등, Icon은 한자(漢字)의 특성(特性)과도 같은 개념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현대 생활(現代生活)에서는 영상(映像)이 뇌(腦)에 속달(速達)되는 의사전달(意思傳達) 매체(媒體)가 필연적(必然的)이다.

중국인(中國人)은 3천(千) 여년(餘年)전부터 한자(漢字)를 만들어 문어(文語)로 사용하여 왔다. 한자(漢字)는 모양(形)과 소리(音)와 뜻(意味)의 3요소(要素)로 구성(構成)된 문자(文字)이다. 모든 문자(文字)의 모양은 각각(各各) 특이(特異)한 영상(映像)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 문자(文字)의 구성(構成)은 어떠한 체계(體系)로 되어 있다. 서기(西紀) 100년(後漢時代)에 중국(中國)의 허신(許慎)이라는 대학자(大學者)가 당시(當時)까지 존재(存在)했던 모든 한자(漢字)를 종합(綜合) 분석(分析)하여 자전(字典)의 금자탑(金子塔)으로 불리는 『설문해자(說文解字)』라는 서적(書籍)을 발간(發刊)하였다. 9,353개의 한자(漢字)를 수록(收錄)하였으며, 그 해설(解說)에 쓰인 문자(文字)의 총수(總數)가 무려 134,441자(字)에 이른다. 전(全) 15편(篇)으로 된 대저(大著)이다. 허신(許慎)은 한자(漢字)의 구성(構成)을 문(文)과 자(字)로 구분(區分)하였다. 문(文)이란 일(日), 월(月), 산(山)과 같은 상형문자(象形文字)나 또는 상(上), 하(下)와 같은 지시문자(指示文字)를 일컫는다고 말했고, 이런 글자들은 한자(漢字)의 기본적(基本的) 모양(紋樣)을 이룬다고 했다. 그런 방면(方面)에 자(字)란 문(文)을 기초(基礎)로 하여 조합(組合)된 글자 강(江), 하(河)와 같은 형성문자(形聲文字)를 일컫으며, 여기서 「彳」은 「川」의 語義를 나타내는 의부(義符)라고 하고, 「工」, 「可」는 음가(音價)를 나타내는 성부(聲符)로 구성(構成)된다고 해석(解釋)하였다. 또 자(字)는 「신(信)」, 「무(武)」와

같이 두 개의 「文」의부(義符)를 합체(合體)하여 새로운 개념(概念)을 뜻하는 회의문자(會意文字)도 포함(包含) 된다고 보았다. 「信」은 「人」+「言」이고 「武」는 「창 과(戈)」+「止」로 된 글자로 풀이했다. 다시 말해서 문(文)은 물질(物質)의 원자(原字)처럼 더 이상(以上) 분해(分解)할 수 없는 글자들이고, 자(字)는 원자(原字)로 합성(合成)되는 분자(分子)처럼 문(文)으로 합체(合體)된 글자로 풀이하었다. 『설문해자(說文解字)』란 書名은 『문(文)을 설명(說明)하고 자(字)를 해석(解釋)한다』라는 데에서 유래(由來)했다. 또한 허식(許慎)은 부수법(部首法)을 창안(創案)하여 오늘날 옥편(玉篇)에서 한자(漢字)를 분류(分類)하는 방식(方式)의 기초(基礎)를 세웠다. 그는 한자(漢字)의 변(邊) 또는 의부(義符)가 같은 뜻을 갖는 문자군(文字群)을 한 데 묶어 부9部라고 불렀다. 오늘날 옥편(玉篇)이 「江, 河, 流, 湖」 등을 한 「部首」에 분류(分類)하는 것도 그의 창안(創案)에서 유래(由來)된 것이다.

고래(古來)로 말이 먼저 있고 그 말의 발음(發音)에 맞추어 문자(文字)로 표기(表記)하는 것이 일반적(一般的)인 통례(通例)이지만 한자(漢字)는 말보다 개념(概念)이 생기면 자(字)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특성(特性)을 갖고 있었다. 예를 들면, 물고기를 잡는 그물, 토끼를 잡는 그물, 개를 잡는 그물, 잡자리를 잡는 그물 등등을 각각 별개(別個)의 한자(漢字)로 표기하는 식(式)이었다. 이렇게 해서 한자(漢字)의 총수(總數)는 한정(限定)없이 늘어났다. 1716년에 발간(發刊)된 「강희자전(康熙字典)」에는 총(總) 47,000개의 한자(漢字)가 수록(收錄)되어 있다. 오늘날 한자(漢字)의 총수(總數) 중 형성문자(形聲文字)가 80~90%를 차지하고, 회의문자(會意文字)가 13%나 차지한다. 이렇기 때문에 한자체계(漢字體系)만 잘 理解하면 2,3千字 정도의 한자영상(漢字映像)을 두뇌(頭腦)에 입력(入力)해 두는 것은 별(別)로 어려운 일은 아니다. 보통(普通) 사람의 두뇌(頭腦)는 2,3천자(千字) 이상(以

上)의 한자(漢字) 영상(映像)을 저장(貯藏)해 둘 수 있는 용량(容量)을 갖고 있다.

한자(漢字)는 영상(映像物)이기 때문에 표음문자(表音文字)보다 인지(認知)하기 빠르고 정확(正確)한 의사전달(意思傳達)이 된다. 우리가 지인(知人)을 기억(記憶)한다는 것은 그 아는 사람의 용모(容貌)의 영상(映像)을 뇌리(腦裏)에 입력(入力)해 두는 것을 말한다. 그 지인(知人)을 길가에서 만났을 때 우리의 시각(視覺)과 뇌(腦)가 그 사람의 영상(映像)을 분석(分析)하여 이미 입력(入力)되어 있는 그 사람의 영상(映像)과 매치(match)하였을 때 그 사람을 인지(認知)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었고, 나와 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한자(漢字)의 경우(境遇)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한자(漢字)를 공부한다는 것은 한자(漢字) 개개(個個)의 영상(映像)을 뇌리(腦裏)에 입력(入力)해 두는 것을 말한다. 물론 각(各) 한자(漢字)의 음(音)과 뜻도 입력(入力)해 둔다. 우리가 「情」이라는 글자를 보면 그 영상(映像)을 두뇌(頭腦)에서 분석(分析)하고 이미 뇌(腦)에 저장(貯藏)되어 있는 「情」字의 영상(映像)과 매치하여 그 字의 뜻을 인지(認知) 또는 상기(想起)하고 발음(發音)도 상기(想起)한다. (때에 따라서는 발음(發音)을 상기(想起)하지 않아도 뜻만 알아내기도 한다.)

한자(漢字)의 장점(長點)은 일자단일의(一字單一意 또는 義), 일자단일음(一字單一音)의 원칙(原則)으로 되어 있는 문자(文字)이기도 하지만, 한자(漢字) 하나하나의 영상(映像)이 사람의 영상(映像)과도 같이 분별(分別)이 특이(特異)하기 때문에 그 영상(映像)도 두뇌(頭腦)에 분별(分別)있게 입력(入力)될 수 있다. 그런데 지인(知人)의 영상(映像)을 기억할 때 상세부(詳細部 예 : 눈썹, 코, 입술 등)의 모양 상세(詳細)를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지인(知人)을 만나면 알아차릴

수 있듯이, 한자(漢字)의 획(畫) 하나하나를 기억(記憶)해 내지 못하더라도 어떤 한자(漢字)를 보면 그 자(字)를 알아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한자(漢字)를 쓰(書)지 못해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한자(漢字)이다. 지인(知人)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리지는 못해도 그 사람을 인지(認知)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이런 것이 한자(漢字)의 특징(特徵)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한자(漢字)는 표의적(表意的) 영상(映像)이기 때문에 각개(各個)의 인지(認知)가 가능(可能)하다. 뿐만 아니라 두 한자(漢字)로 된 낱말의 영상(映像)(예 : 國家, 社會, 新聞, 日報, 記事 등)도 頭腦에 分別하기 좋게 잘 입력(入力)된다. 한자(漢字)는 이러한 장점(長點)이 있기 때문에 배우기 번거롭고 쓰(書)기 어렵지만 3천(千) 여년(餘年) 동안 지속(持續)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한자(漢字)의 위력(威力)을 알아낸 우리 조상(祖上)들은 고대(古代)로부터 한자(漢字)와 한자어(漢字語)를 도입(導入)하여 우리 문어(文語)로 써(用)왔다. 예(例)를 들면 광개토왕비문(廣開土王碑文, 서기 414년), 울진봉평신라비문(蔚珍鳳坪新羅碑文, 524년) 등이다. 그 비문(碑文) 중에서 약간의 이두(吏讀)로 우리 고유명사(固有名詞)를 표기(表記)하기도 했다고 한다. 고려시대(高麗時代)에 발간(發刊)된 삼국사기(三國史記, 12세기)나 삼국유사(三國遺事, 13세기)도 모두 한자(漢字)로 기술(記述)되어 있다. 15세기(世紀)에 훈민정음(訓民正音)이 창제(創製)된 이후(以後)에도 한자문(漢字文)은 조정(朝廷)의 공식용어(公式用語)로 사용(使用)되었다(예 : 이조실록 李朝實錄). 그리고 최근(最近)에 화제(話題)가 된 정조(正祖, 18世紀末)의 어찰(御札) 등 모두 한자문(漢字文)이다. 이조실록(李朝實錄)에 실린 문장(文章)을 중국인(中國人)들이 해득(解得)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고 하니 우리가 쓰던 한문(漢文)은 중문(中文)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意味)한다. 1894년에 관보(官報)에 한글을 사용(使用)하기 시작하기까지 우리의 공식

(公式, Official) 문어(文語)는 한자문(漢字文)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語彙) 중 80% 이상이 한자어(漢字語)이다. (단(單) 여기서 조사(助詞)나 접미어(接尾語) 등등을 빼고 순수(純粹)한 어간(語幹)만을 추산(推算)했을 때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한자어(漢字語)를 한글로 표기(表記)하는 문어(文語)는 많은 문제점(問題點)을 내포(內包)하고 있다. 한자(漢字)는 그 자체(自體)가 문어(文語)이지만 한글은 다만 발음부호(發音符號)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애」라는 글자에 접(接)했을 때 그 뜻이 ‘사랑 애(愛)’, ‘슬플 애(哀)’, ‘막할 애(隘)’, ‘티끌 애(埃)를 뜻할 수 있다. 또 ‘애 쓰다’의 「애」인 우리 고유어(固有語)도 4가지가 있다. 또 「정」字도 그렇다. ‘바를 정(正)’, ‘곧을 정(貞)’, ‘뜻 정(情)’, ‘고요할 정(靜)’, ‘정할 정(定)’, ‘우물 정(井)’ 등 60여개의 「정」을 뜻할 수 있다. 문장(文章) 줄기의 전후(前後) 관계(關係)를 살펴보고서야 어느 뜻을 나타내는 「정」인지를 짐작해 낸다. 두 한자(漢字)를 모아서 만든 한자어(漢字語) 낱말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면 「정의」로 표기(表記)되는 낱말을 사전(辭典)에서 찾아보면 9가지가 나타난다 (동아 새국어 사전, 이기문 감수의 경우). 한글 Word 2004가 한글-漢字 전환(轉換)으로 제시(提示)해 주는 「정의」의 가지 수(數)는 15개나 된다. 그 중에서 사전에 나타나는 9가지 ‘정의’만을 여기에 나열(羅列)해 보면 정의(正義), 정의(定意), 정의(廷議), 정의(征衣), 정의(定義), 정의(情意), 정의(情義), 정의(情誼), 정의(精義) 등이다. 또 「가사」의 예(例)를 한글 Word로 한자전환(漢字轉換)시키려면 19가지의 한자단어(漢字單語)가 나타난다. 이렇게 한글 문어(文語)는 일단어복수의(一單語複數意)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문구(文句)의 전후관계(前後關係)를 음미(吟味)해 가며 문장(文章)을 해득(解得)해야 한다.

따라서 독서(讀書) 속도(速度)가 느리게 마련이다. 한자(漢字)를 직접 우리 문어(文語)에 끼어 넣으면 전후관계(前後關係)를 살펴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문장해득(文章解得) 속도(速度)도 자연히 빠르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한자(漢字)를 쓰는 문장(文章)은 직접적(直接的) 해득(解得) 방법으로 읽고, 한글만으로 쓴 문장(文章)은 간접적(間接的) 해득(解得) 방법으로 읽는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한글 문어(文語)를 읽을 때는 이런 동음이의단어(同音異意單語)를 분간(分揀)하는데 뇌(腦)의 활약(活躍)이 많이 필요하고 에너지와 시간도 걸린다.

일본어(日本語) 문어(文語)를 배운 노년층(老年層) 중에는 한글 문어(文語)보다 일어(日語) 문어(文語)를 선호(選好)하는 이가 많다. 일어(日語) 문어(文語)는 표음자(表音字)와 한자(漢字)를 혼용(混用)하며 특히 중국(中國)에서 유래(由來)된 낱말은 모두 한자(漢字)로 표기(表記)하고 또 일본(日本) 고유어(固有語)도 한자(漢字)를 훈독(訓讀)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 한글 문어(文語)를 읽을 때에 요(要)하는 동음이의어(同音異意語)의 분간(分揀) 과정(過程)이 필요(必要)없이 문장(文章)을 읽어 내려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낱말의 오해(誤解)가 생기지 않는다. 우리의 문어(文語)에도 한자(漢字)를 섞어 쓰면 언어생활(言語生活)이 편의(便易)해지고 한글 專用으로 인한 誤謬도 犯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글 한자(漢字) 혼용(混用)은 현대생활(現代生活)에서 문어소통(文語疏通)이 圓滿해 진다는 이야기가 되겠다.

순수(純粹)한 우리 고유어(固有語)의 文語를 생각해 보자. 글을 ‘쓰다’, 연장을 ‘쓰다’, 맛이 ‘쓰다’에서 모두 같은 「쓰」로 표기하지만 한자(漢字)에서는 글을 ‘쓸 서(書)’, 연장은 ‘쓸 용(用)’, 맛은 ‘쓸 고(苦)로 표기(表記)하고, 중국어(中國語)에서는 우산을 ‘쓰다’, 모자를 ‘쓰다’는 각각 다른 한자(漢字)로 구분(區分)해서 표기(表記)한다. 이렇게 한 글 표기(表記)에서는 뜻은 달라도 같은 발음기호(發

音記號)를 사용(使用)하는 경우가 수다(數多)하다. 3,4千年전(前)에 이집트 인(人)은 표음요소(表音要素)로 구성(構成)된 상형문자(象形文字, Hieroglyphic)로 된 문어(文語)를 썼는데 동음이의어(同音異意語)를 구분하기 위하여 특이(特異)한 방법을 썼다. 말하자면 글을 쓰는 「쓰」 옆에 펜 그림을 붙여서 서(書)를, 연장을 쓰는 「쓰」 아래에 손바닥 그림을 붙여서 용(用)을 뜻하는 표기체계(表記體系)를 채택(採擇)했다. 언어학자(言語學者)들은 이런 펜 그림, 손바닥 그림 등을 Determinative라고 부르는데, 한자(漢字)의 자획(字畫)은 Determinative와 유사(類似)한 성격(性格)을 띠고 있다. 예를 들면 江(강), 河(하), 泳(영), 池(지), 汗(한) 등의 글자 삼수변(三水邊)이 바로 Determinative와 유사하다. 또 中國人은 동음이의어(同音異意語)를 구분하기 위해서 또 다른 形式의 Determinative를 쓰다. 예를 들면 中國語의 ‘어머 媽(mā)’와 ‘꾸짖을 罵(mà)’는 같은 ‘마’발음(發音)으로 읽지만(실은 약간의 악센트 차이는 있지만), 마(媽)의 마(馬)는 음소(音素)이고 녀(女)는 Determinative이고, 罵자(字) 역시 음소(音素) 마(馬)와 그 상부(上部)에 口字 둘(즉 Determinative)을 붙여서 만든 글자이다.

이렇게 동음이의어(同音異意語)를 구분(區分)하기 위하여 고래(古來)로 중국인(中國人)이나 이집트 인(人)은 Determinative 체계(體系)를 채택(採擇)했다. 표음문자(表音文字)인 알파벳을 쓰는 영어(英語, English Language)에서는 일단어단일의(一單語單一意, one word on meaning)를 시도(試圖)하기 위해 spelling을 조정(調整)하여 동음이의어(同音異意語, Homonym)를 만들어 그 단어(單語, Word)의 영상(映像), image)이 분별(分別)있게 뇌(腦)에 입력(入力)되는 방식(方式)을 채택(採擇)하고 있다(예 : for, four). 이렇게 영어(英語) spelling은 한자(漢字)의 영상(映像) 만들기와 유사(類似)한 면(面)이 있다.

한글은 매우 우수(優秀)한 표음문자(表音文字)이다. 1930년대에 제 안된 한글맞춤법은 받침을 조정(調整)하여 동음이의어(同音異意語)를 분별(分別)하는 한글 문어(文語)를 만들어냈다. 예 : 낫, 낮, 낮, 날. 또 쌍받침을 많이 도입(導入)하여 우리 문어(文語)를 영상화(映像化)했다. 예 : 삶(生), 있(在), 늙(老), 앉(坐), 읊(卽, 밟(踏)), 옳(正), 많(多) 등등. ㅎ받침(終聲)을 도입(導入)해서 문어(文語) 영상화(映像化)를 시도(試圖)했다. 예 : 낳(生), 넣(入), 놓(放), 좋(好). 이런 영상화(映像化)된 낱말은 한글 문장을 읽는데 더러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런 영상화(映像化)된 우리 고유어(固有語)는 우리말 전체(全體) 어휘(語彙) 중에서 적은 비중(比重)을 차지하여서, 한글만으로 쓰는 문어(文語)는 신속(迅速)하고 정확(正確)한 뜻을 전달(傳達)하는 문어(文語)로서는 매우 부족(不足)한 점이 많다고 느껴진다. 물론 다른 기존(既存)의 문어(文語)에 비(比)해서 말이다.

우리 한글이 입력(入力)하기에 가장 간편(簡便)한 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우수(優秀)한 글이라는 주장(主張)을 많이 본다. 이런 주장을 핸드폰이나 PC에 입력(入力)하는데 편리(便利)하다는 이야기 이지 독자(讀者)의 관점(觀點)에서 보는 입장(立場)은 아니다. 신문(新聞) 잡지(雜誌)나 소설(小說)은 몇몇 전문가(專門家)의 편집(編輯)과 입력(入力)으로 만들어지지만 독자(讀者)의 수(數)는 몇 십만배(十萬倍)나 된다. 입력(入力) 과정(過程)에 소요되는 노고(勞苦)와 시간(時間)은 전체 독자(讀者)의 그 것에 비하면 극소(極小)하다. 독자(讀者)가 읽기 좋고, 정확(正確)한 의사(意思)를 빠르게 해득(解得)할 수 있는 문어(文語)가 우선(優先)되어야 하지 입력(入力)의 간편(簡便)이 문어(文語)의 우수성(優秀性)을 재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 현재 한자(漢字)의 PC 입력(入力)은 로마자(字) 타자(打字)방식을 써서 불편(不便)한 점이 많지만 전자(電子)패드(pad)에 직접 첫 획(畫)

몇 개만을 쓰(書)기 시작하면 나머지 자획(字畫) 전체(全體)가 나타나는 방식(方式)이 개발되면 Keyboard 입력(入力) 방식(方式)보다 훨씬 간편(簡便)한 한자(漢字) 입력(入力) 방식(方式)이 될 것이다. 이 때는 한자(漢字)의 위력(威力)이 더욱 과시(誇示)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성명(姓名)은 한자(漢字)로 지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집안 어른이 머리를 짜서 깊은 뜻을 나타내는 한자(漢字)를 골라 작명(作名)한다. 그런 성명(姓名)을 한글로 읽을 때와 한자(漢字)로 읽을 때 사이에는 천양지차(天壤之差)가 있다. 한글 이름을 읽을 때는 뇌(腦)속에서 그 소리만 생각하게 되지만, 한자(漢字) 이름을 읽을 때는 한자(漢字)의 뜻까지 생각하게 된다. 예를 들면 조선후기(朝鮮後期)에 ‘정약용’이라는 실학자(失學者)가 있었다. 초·중등(初,中等) 학생(學生)이면 그저 ‘정약용’이라는 발음(소리)으로 그를 기억하거나 좀 나이가 ‘약’은 먹는 ‘약’이나 용은 ‘용’은 짐승 ‘용’ 정도를 연상(聯想)할지 모른다. 그러나 한자(漢字)를 배운 계층(階層)은 그의 이름을 ‘丁若鏞’으로 읽을 때는 발음(發音) 외(外)에도 若의 뜻(갈을 若)과 鏞의 뜻(큰 쇠북 鏞)까지를 음미(吟味)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름을 한글로 읽는 것은 마치 미켈란젤로의 미술품(美術品)을 흑백(黑白) 그림으로 보는 것과 같고, 한자(漢字)로 읽는 것은 그의 천연색(天然色) 미술품(美術品) 자체(自體)를 감상(鑑賞)하는 것과 같다. 한자(漢字)의 위력(威力)을 우리 문어(文語)에 섞여 쓰면 우리의 문어(文語) 생활(生活)은 한결 풍요(豐饒)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언어문화(言語文化) 수준(水準)도 일단계(一段階) 향상(向上)될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主要) 참고문헌(參考文獻)

- (1) The Cambridge Encyclopedia of Language, 2nd Edition, David Crystal, 1997.
- (2) 漢字と中國人－文化史をよみとく－大島正二 著 岩波新書 2003

8.15 解放前夜の 興南工場과 우리들(2)

1945년 4월 우리는 함남중학 3학년에 진급했다. 日帝가 敗亡하기 수개월 前이다. 이 때는 이미 태평양전쟁이 막바지에 이른 시점이었다. 3월 9,10일 양일간 B29 300대가 19만발의 燒夷彈을 東京에 떨어 뜨려 市街는 全燒, 사망자 10만명을 냈고, 또 같은 3월에 硫黃島에서는 日本군이 玉碎했고, 4월에는 미군이 오끼나와 本島에 상륙했다. 日本해군은 가미가제 特攻隊로 발악을 쓸 때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3학년생은 學徒動員에 끌려가서 흥남공장 地帶에 내려갔던 것이다. 우리는 龍興工場에 배치되었는데, 이 공장은 興南과 本宮 사이에 있었고, 朝鮮窒素肥料 龍興공장으로 알려져 있었다. 원래 이 공장은 日本 海軍 戰鬪機 燃料 특히 이소옥탄(Isooctane, C₈H₁₈)을 카바이드로부터 人造合成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이소옥탄 合成工程 : Carbide-Acetylene-Acetaldehyde-Butanol-Isooctane) 공장은 3 分工場 즉 ND(Acetaldehyde 공장), NB(Butanol 공장), NA(Isooctane 공장)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우리는 이들 공장의 어디선가 일했고, 우리 일년 선배(29회生)들이 水銀이 많이 보이는 공장에서 일하는 것 보았고, 그外 城大豫科生들도 여러 군데 흩어져서 일했다. 나는 觸媒로 쓰인 망강을 회수하는 공장에서 일했다. 하는 일은 가스탱크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壓力器를 보아가며 밸브를 손으로 조절하는 일

이었다. 자동제어가 없었던 시절이라 우리 학생근로자들은 일일이 수동으로 이런 일을 했던 것이다. 나중에 일본 천왕의 玉音放送을 들은 곳도 이 공장 사무실에서였다. 아직도 머리 수그리고 玉音を 들던 광경이 내 腦裏에 남아 있다.

우리 舍員은 おおとり(鵬)寮에 수용되었는데 이 舍宿所는 일본식 다다미방으로 한 방에 4명이 起居했고, 日人경영자들이 寮를 운영하였다. 아침저녁은 숙소에서 제공하는 잡곡밥과 미소시루를 먹었는데, 때로는 그 야채 국에 삶은 배추벌레가 똥똥 떠 있어서 국을 마시지 못해 배고팠던 적도 있었다. 정심은 공장에서 제공하는 벤또밥을 먹었다. 하나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극성을 부리는 이(風しらみ)를 복멸하는 일이었는데, 寮에 나무로 만든 蒸氣가마가 있어서, 이따금 우리 內衣를 그 가마에 넣고 찌서 입었던 기억도 있다. 나는 공장근무를 시작하기 前에 방공호를 짓는 일을 했는데, 흙과 자갈을 軌道 ‘토록고’로 날라야했다. 이 때 나의 부주의로 발가락 負傷을 입어서 출근을 못하고 낮에 寮에서 놀고 먹기를 몇 주간 했다. 그래서 寮의 事情을 잘 기억한다.

밤에 寮에서 자다가도 공습경보가 나면 일어나 소음으로 만든 모자(防空ずきん)를 뒤집어쓰고 인근 야산에 수평으로 뚫어 놓은 방공호에 들어갔어야 했다. 실제 미군기의 폭격은 없었고, 다만 흥남灣에 水雷를 投下했을 뿐이라고 들었다. 다행히 우리 오오도리寮 隣近에는 濠洲병사 포로수용소가 있어서 폭격을 피하는 덕을 보았는지 모른다. 포로들이 카바이드 제조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우리 2甲반이 겨울 방학동안 집에서 통근하면서 本宮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이 공장이 포로들이 일하던 카바이드 공장(높은 굴뚝이 4-5개 있는 곳) 가까이에 있었다. 이남표가 포로에 접근하여 영어회화를 시도

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 본공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煤煙이 근처 野山の 소나무뿐만 아니라 定和陵의 소나무, 백로마저 다 죽여 버렸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1945년 8월 15일 正午 龍興공장에서 日人 직원들과 함께 나도 日天皇의 玉音放送을 들은 후 전쟁이 끝난 줄 어렵듯이 알게 되었고, 이어 우리의 합숙소인 おおとり(鵬)寮에 돌아가게 되었다. 그날 저녁 우리 학생들은 총집합했고 선임자인 韓恂鉉 선생이 대표 ‘훈시’를 했는데 그의 말씀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다. “이 전쟁은 일본이 졌지만은 언젠가 동양인과 서양인간의 전쟁은 또 있을 것이다.” 일본말로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일인선생도 옆에 있고 해서 전적으로 우리 조선이 해방되어 기쁘다는 자극적인 언사를 피한 것이겠지. 그 때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걸 알게 됐고, 아마 다음 날 우리는 모두 기차로 귀가하였던 걸로 기억한다.

우리 30회와 29회 동기생들은 이렇게 龍興工場에 끌려가 學徒勤勞奉仕를 하던 중 8.15해방을 맞이했다. 그러면 그 당시의 興南工場의 規模는 얼마나 됐을까? 1945년 해방 당시 興南地區工場群의 스케일은 참으로 컸다. 設備能力面에서 世界第一의 水電解공장을 위시해서, 硫安공장, 油脂공장, 火藥공장 등 多數의 공장 등으로 日本第一의 規模였다. 龍興工場은 그 막대한 공장 콤플렉스의 한 구석에 있었던 것이다.

당시 興南工場長이었던 大右武夫는 그의 회고록(日本誌 ‘化學工業’ 1951년 1월호 特輯興南工場)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終戰時 會社가 갖고 있던 土地는 5백수십만평, 舊廣島市보다 넓은 면적이다. 그 半分은 工場敷地, 半分은 社宅用地이었다. 종업원은 社外者를 포함해서 4만6-7천人, 會社從業員 以外에도 勤勞報國隊, 人夫, 學

徒(小學校에서부터 大學까지), 囚人(成年囚, 少年囚, 女囚), 捕虜, 最後로는 軍隊의 應援까지 있었다. 使用電力 50만KW, 工場用水 120만톤, 使用石炭은 原料用 燃料用 合計 年間 約 100만톤, 취급하는 水素가 스 一日 100만m³ 以上, 生成되는 肥料가 各種合計 年間 100만톤…”

아래 제1표는 8.15 해방 당시(1945년)의 興南工場의 製品과 生産能力을 말해 준다. 가치 그 막대한 規模를 짐작할 수 있다.

工場名	製品	能力	製品	能力	製品	能力
興南肥料工場	硫安	500.000	燐安	14.000	글리세린	3.360
	암모니아	130.000	燐酸	1.200	脂肪酸	37.200
	硫酸	450.000	過燐酸石灰	50.000	洗濯石鹼	36.000
	硫燐安	160.000	硬化油	81.000	化粧石鹼	3.600
興南金屬工場	알루미늄	8.000	人造黑鉛電極	3.000	銑鉄	36.000
	알루미늄	6.000	天然黑鉛電極	4.800	鋼塊	86.400
	弗化알루미늄	3.500	아크 카아본	180	시멘트	46.800
	亜鉛	3.600	카보런덤	1.000		
日窒마그네슘金屬	마그네슘	1.000				
日窒寶石	人造寶石 (캐럿/日)	50.000				
本宮工場	鹽酸	28.800	소다灰	10.000	아세톤	1.080
	晒粉	16.660	肥料用鹽安	10.000	에틸렌 글리콜	720
	液体鹽素	2.680	카바이드	93.600	研磨劑알런덤	2.400
	苛性소다	15.000	石灰鹽素	18.000	암모니아	64.000
	工業用鹽安	2.880	아세틸렌Black	2.880		
日窒燃料電興工場	이소옥탄 (kl)	18.000				
朝窒火藥	다이나마이트	13.300	黑色火藥	700	硝安	8.400
	硝安爆藥	700	稀硝酸	30.625	過鹽素酸爆藥	1.750
	導火線(km)	78.750	濃硝酸	14.700	雷管(千個)	105.000
	綿火藥	3.500	(硝酸은98%換算)			
日窒鉱業開發興南製鍊所	金(kg)	2.700	銅	3.200	鉛	4.800
	銀(kg)	40.000				

제1표 1945년 해방 당시의 흥남공장의 제품과 그 생산능력(톤)
(자료출처 : 1970년 8월 일본誌 時事通信士)

아래 제2표는 해방 당시의 흥남공장의 각 공장별 종업원 분포수를 표시하고 있다. 龍興工場 學徒 399명 중에는 우리도 들어있다.

敗戰時興南地區各工場別人員數

事業場	種別	職員 (社· 願員)	工員	學徒	産報隊	囚人	捕虜	臨時 人夫	合計
製 造 本 部		586	385	—	—	—	—	—	971
研 究 所		73	203	—	—	—	—	—	276
興 南 肥 料		1,389	6,581	617	514	290	—	500	9,891
興 南 金 屬		1,388	5,739	450	500	200	—	500	8,777
航 空 精 器 (宝 石)		13	116	—	—	—	—	—	129
마 그 네 습		55	464	—	—	—	—	—	519
本 宮		1,463	5,533	192	545	217	350	650	8,950
竜 興		640	2,764	399	300	200	—	400	4,703
火 棗		575	2,480	401	170	120	—	159	3,905
製 鍊 所		298	1,292	—	—	—	—	200	1,790
日 空 運 輸		185	305	—	—	—	—	400	890
新 興 鐵 道		229	959	—	—	—	—	—	1,188
合 計		6,894	26,821	2,059	2,029	1,027	350	2,809	41,989

- 註 1. 이 표는 日空鹽野, 咸興合同木材의 從業員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숫자를 보태면 6~700명 증가한다.
2. 職員과 工員은 在籍者數를 표시한다. 그 중 약 4,000명은 入營召集되어 있어, 實際 人員數는 그만큼 적다.
3. 그 외에 建設 등을 위해 5,000명의 人夫가 일하고 있었고, 또 1,000명 정도의 軍人이 일하고 있었다.
4. 結局 總人員 4만5천명 정도가 일하고 있었다는 셈이 된다.

제2표 1945년 8월 해방 당시의 흥남공장 종업원 分布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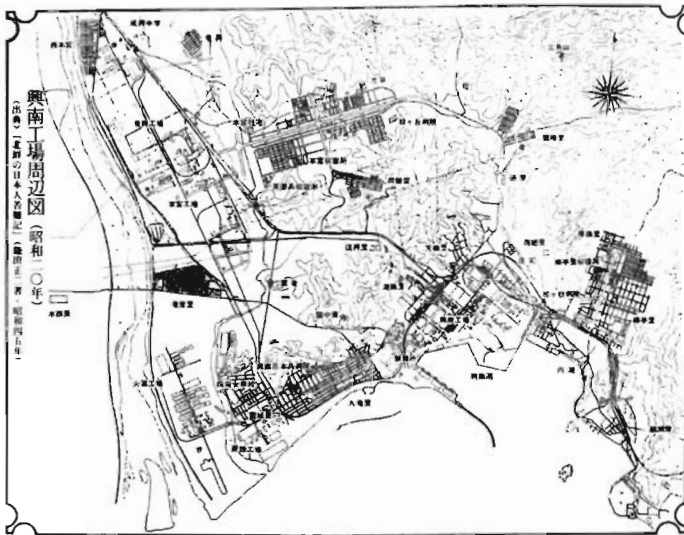
(1970년도 (日)時事通信社 자료)

日本人, 朝鮮人別工員構成

事業場	日本人	朝鮮人	合計	備考
興南肥料	987 (17.8%)	4,554(82.2%)	5,541(100%)	1945年3月
興南金屬	887 (19.0)	3,791(81.0)	4,678(100)	1945年5月
本宮	761 (17.2)	3,651(82.8)	4,412(100)	1945年6月
竜興	577 (25.4)	1,698(74.6)	2,275(100)	1945年6月
火薬	465 (27.8)	1,207(72.2)	1,672(100)	1945年5月
製鍊所	91 (9.4)	873(90.6)	964(100)	1945年6月
合計	3,768 (18.8)	15,774(81.2)	19,542(100)	

제3표 1945년 해방 직전의 흥남공장의 日本人-朝鮮人 비율(자료출처:同上)

마지막으로 1945년 당시의 흥남공장 地帶의 지도를 아래에 첨가한다.



1945년 해방 당시의 흥남 공업지대 지도

서울 숲

김 면 섭 (30회)

뚝섬 서울숲 옆에 이사온지가 올 해로 46년이 된다. 그러니까 80살 된 내가 삶의 절반 이상을 이 뚝섬에서 살아온 것이다. 그렇다면 내 고향이 뚝섬 서울숲이라 한들 잘못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고향이 뚝섬 서울숲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고향이란 역시 어릴 때 친구들과 뛰 놀고 자라던 곳이어야 하나 보다. 내가 뚝섬에 처음 이사 올 때는 좁은 단선 궤도를 터덜터덜 다니는 한 량의 전차가 동대문에서 출발하여 광나루까지 한 시간에 한 번 정도 다녔다. 그 전차는 뚝섬에서 나는 밭 농산물을 나르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였다. 이 전차에는 기적 같은 것도 없어 종을 땡땡 치면서 차의 움직임을 남에게 알리기도 했다. 또 하나의 교통수단으로는 낡은 버스가 있었다. 내가 뚝섬에 이사오게 될 무렵에 한국주택공사에서 AID 차관으로 국민주택을 지어 분양하였는데 15년 연봉로 갚는 조건이어서 집 마련에 적당하다고 생각되어 입주를 결정하였다. 지금 내가 사는 집은 버스가 다니는 큰 길가였다. 바로 내가 구입한 집 앞이 버스 정류장이었다. 나는 큰 기대를 갖고 무리하여 이집을 사게 되었다. 그런데 큰 길이라 해봐야 겨우 8미터 폭의 도로에 지나지 않았고 나중에 큰 자동차 길이 새로 생기면서 내 집 앞길은 뒷길이 되어 별 빛을 보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런대로 지금까지 만족하게 이

집에 살고 있다. 집은 처음에는 15평이었으나 아이들이 커가면서 방이 필요해 조금씩 늘려서 지금은 약 30평 정도가 되었는데 아들, 딸들이 달리 나가 살다보니 지금은 집사람과 둘이서 넓게 사용하고 있다.

서울숲은 내가 사는 집에서 100미터도 안된다. 독섬 경마장이 과천에 옮겨졌고 그 지리에 간이 9홀 골프장이 생겼는데 이 골프장을 없애고 만든 것이 서울숲이다.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을텐데 큰 잡음 없이 공사를 마친 것은 잘 한 것이라 생각된다. 골프장 주위에는 무허가 공장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하였는지는 몰라도 별 잡음 없이 철거되었고 골프장을 없애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을텐데 이것도 큰 일 없이 끝냈으니 잘 된 것이라 생각된다. 서울숲은 전국에서 좋은 나무들을 사와서 심어 우거진 숲 모양새를 갖추고 있고 지금은 관리도 잘되어 있다. 넓이는 약 사십만평이 되는 서울에서 올림픽공원 다음으로 큰 공원이라고 한다. 많은 주민들의 놀이터로 되었고 운동하기도 알맞은 곳이다. 나도 거의 매일 한시간 걷기를 이곳에서 즐기고 있다. 나의 운동장인 셈이다.

그래도 서울숲이 나의 고향이 될 수는 없다. 나의 고향은 역시 내가 멋모르고 뛰어 놓던 함흥 또는 할아버지가 농사 지으시면서 계셨던 함주군 삼평면 수흥리이다. 수흥리는 내가 어렸을때 자주 놀러다니던 곳으로 함흥 우리집에서 만세교를 지나서 가면 멀지만 성청강을 철교 밑으로 건너가면 얼마 걸리지 않는다. 서울숲이 아무리 깨끗하고 놀기 좋다하더라도 내 고향 함흥이나 수흥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나는 믿는다. 그 곳이 나의 고향임에 틀림없고 나는 서울숲은 내 고향에 비할 곳이 못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좋은 내 고향을 지금 찾아가 직접 볼 수 없으니 더욱 내 고향이 좋다고 내가 고집하는 지도 모르겠다. 내 고향에는 반룡산이 있다. 그렇

게 높은 웅장한 산은 아니더라도 녹음이 우거진 아름다운 산이다. 그 산 중턱에는 구천각이 옛부터 세워져 있어 끝없이 펼쳐진 곡창 함흥평야를 내려다 볼 수 있다. 성창강의 맑은 물은 어렸을 때에 우리들이 발가벗고 물장구 치고 헤엄치며 즐겨 놀던 곳이다.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 교정에는 큰 포프라나무가 한그루 서 있었다. 그 나무 그들은 더운 여름날 우리 아이들의 쉼터였다. 이런 추억들이 서울숲에서는 생겨날 수 없을 것 같다.

작년 여름에 세계올림픽경기가 중국 북경에서 성공적으로 화려하게 펼쳐졌다. 그 올림픽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셨는데 그 때 서울숲에 오셔서 방문 기념식수를 하셨다. 높이가 약 3미터 되고 둘레가 약 6미터 되는 아담한 부채꼴 소나무인데 내가 보기에다 참 아름다운 나무라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나무이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이웃하고 있어 서로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 인연이라기 보다는 우리나라는 중국의 침략을 끊임없이 받아 왔다.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얼마나 못살게 했는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묵묵히 잘 참고 견디어 왔다.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 중국의 국가 주석이 우리 나라에 와서 중국과 우리 나라가 동등한 나라임을 입증하는 행사를 서울숲에서 가졌다고 나는 믿고 있다. 우리 나라가 중국을 앞선 적은 없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지금은 국토가 작고 인구가 적다는 것 외의 모든 면에서 우리 나라가 중국을 많이 앞서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 사람들이 지난 50년간 너 나 할 것 없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우리들이 애써 이루어 놓은 이 나라의 부강함을 그릇되게 하려하고 있다는 정조를 여러 방면에서 느끼게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우리 나라 사람들이 울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올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 한 우리 나라는 더 잘 살게 되리라 믿는다.

내가 1960년 말에 일본에 갔을 때는 일본이 동경올림픽을 끝내고 경제가 부흥되어 잘 살기 시작했을 때다. 그런데 그 때 우리 나라는 왜 그렇게도 못살까 하는 생각이 더욱 심하게 나를 괴롭혔다. 신주 구교엔(新宿御苑) 히비야(日比谷)공원 등 잘 정돈된 아름다운 휴식 공간이 시민들을 위해 잘 가꾸어져 있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보다 잘 산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우리 나라에는 창경원 등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넓은 공간이 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잘 가꾸이지 않아 시민들의 좋은 휴식처가 되지 못하고 있었다. 4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도 잘 살게 되었으니까 창경원도 시민들의 휴식과 건강관리 터로 손색없이 가꾸어졌다. 그 뿐만 아니라 서울에는 올림픽공원 서울숲 등 많은 공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 손색 없이 다듬어졌다. 우리 나라는 국민들이 생각만 올바르게 가진다면 무한히 번영할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잘만 하면 머지않아 일본 만큼 잘 살게되리라 믿는다.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 나라는 모든 면에서 일본과 비등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당시 일본에는 명치유신이 있었고 우리나라는 개화의 바람은 불었으나 성공하지는 못했다. 그 때 우리 나라에도 크게 번영할 수 있는 변화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가져본다. 이와같은 일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역사의 흐름이라 생각하고 마음을 달랠 수 밖에 없다. 아직까지도 일본 사람들 중에는 일본 사람은 우수한 사람들이고 한국 사람들은 열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 나라 사람이나 일본 사람의 본질에는 별 차이가 없어야 맞다.

나도 늙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쭈시고 다리가 저리고 말

로 다 할 수 없는 괴로움을 겪곤 한다.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자 감기를 조심하느라 두툼하게 입고 서울숲에서 걷기 운동을 약 1시간 정도하고 국민학교에 다닐 때 배웠던 유연 체조를 20분 정도 하고 나면 아픔이 많이 가시곤 한다. 그러니까 서울숲이 나에게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2009년 봄

부산 피난 정부시절의 서울대학교 편입시험 실시와 아버지

趙 哲 (30回)

동기(30회)동문 尹東榮군이 부친을 찾아온 연유

1951년 어느날 낮, 먼 인척간이기도 한 윤동영 군이 나의 부산 피난살이 집인 東大新洞, 우리 식구 다섯이 지내고 있는 6조 방에 南中 및 대학 친구 몇 명과 함께 나의 아버지를 찾아와(이때 집엔 아버지와 나만 있었다) 서울 대학교 편입시험이 한 번으로 끝남은 사리에 맞지 않으니 회 수를 늘려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사연인즉, 전쟁으로 북에서 남으로 내려온 학생들은 갈 곳이 없었다. 나는 윤 군이 아버지를 찾아온 날의 얼마 전에 정부 긴급조치로 시행된 월남한 학생 受容(서울대) 편입시험에 아버지의 지시로 응시하였지만 대부분의 월남 학생은 편입시험에 관한 광고에 접하지 못하여 응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대구, 부산을 최후의 보루로 삼고 혈전 중이던 긴박한 시절이어서 신문, 방송 등을 통한 광고(보도)가 미흡했기 때문이었다. 나의 기억으로는, 편입시험 광고는 동대신동 전차 종점 근처의 공설 운동장 위쪽 산기슭에 자리한 군용천막 임시교실 옆 학교 사무실 바깥 2m×3m 크기의 판자 게시판에 게시된 고시문이 전부가 아니었나 싶다. 그 혼동기에 이 광고를 월남한 학

생 가운데 몇이나 읽을 수 있었을까? 다행히 나의 경우는 서울대학교 법대의 申泰換 교수(후일 서울대 총장)와 자주 만나고 계시던 아버지의 지시로 응시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응시하지 못하였음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때의 응시자는 나를 포함해 열서너 명이었는데 함경도와 평안도 출신이 半半 정도였으며, 함흥사범 출신의 흥남공대 1년 후배도 있었다. 2,3학년엔 한정되어 실시된 편입시험 결과는 세 명(네 명?)이 응시한 3학년엔 나만 합격, 나머지 합격자는 모두 2학년 응시자였다.

편입시험에 합격한 후에 동대신동 산기슭 근처의 단칸방에서 가족과 함께 피난살이를 하고 계시던 金東一 교수(東京帝大, 工博, 平安道)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오라는 아버지 말씀에 따라 박사님을 찾아뵈었지만 얼떨결에 인사만 드리고 왔었다.

윤 군이 아버지를 찾아와 “편입시험은 한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고 돌아간 후, 2,3주 지나서 제2차 편입시험 실시가 발표되어 윤 군 등 다수 월남 학생이 편입의 기회를 얻었다.

서울대생이 되어 환도한 후, 아버지는 생전 한번도 본 적이 없는 趙廣河(東京帝大, 工博, 成均館大 總長) 再從兄님을 만나고 오라고 하셨다. 동승동에 있던 상공부 중앙 공업연구소에 찾아뵈고 인사하였더니 재종형님은 의자에서 일어나시며 “네가 짬이냐!” 웃으시며 반갑게 맞이하여 주셨다. 아마 아버지께서 편입시험 이야기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미리 하신 것 같았다.

회고하건데 대구, 부산으로 떠밀려온 국가 위급 시에 민초는 먹지 못해 굶는 판국에, 누가 똥단지 같은 월남 학생 문제를 산더미 같이 많은 중한 일들을 제쳐놓고 집요하게 제기하였을까? 비슷한 성격의 편입학 시험의 선례로는 8.15후의 해외 귀국학생 대상의 편입시험이

있긴 했었다. 그러나 당시는 부산 피난시절 같은 다급한 전시가 아니었다.

도대체 누구였을까? 전쟁 중 대학생 자녀와 함께 월남한 피난민들이 협력하여 서로 인맥을 찾아 요로 인사들과 접촉, 자녀의 대학교육이 계속되도록 문교부에 꾸준히 호소한 결과였을 것이다. 아버지는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 가족에게 이야기하시는 일이 거의 없었기에 확인할 수는 없지만 편입시험 시행에 일조는 하지 않았을까? 모두의 운 군이 아버지를 찾아온 연유가 혹시 이 의문을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3,4년 전에 서울의 윤 군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그의 건강상태가 이에 대답할 형편이 못되어 물음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를 그리는 追想(해방 전후부터 부산 피난시절까지)

아버지(趙永星)는 우리 동문이다. 아버지 이름은 1990년 서울에서 발간한 동창회지 8회생 명단에는 있지만, 해방 전인 1940년 발간 교우회지의 1926년 졸업생(崔在緯 박사<경성제대 의학부/서울대 의대 교수>이하 58명) 명단에는 없다. 동맹휴학 주도로 중퇴한 것이다. 40대에 혼자가 되신 할머니의 막내아들로 태어났는데 집안 살림은 넉넉했다 한다.

사상문제로 함흥형무소에 수감되셨다가 다른 곳으로 이송되어 가시는 아버지를 여러 사람들 틈에 끼어 형무소 출문 밖에서 아기 동생을 업은 어머니 손을 잡고 바라보며 서 있었던 기억이 난다. 개운치 않은 날씨의 오전이었다. 그 이상한 세모꼴 벚짚의 죄수 갓을 쓰고 포승에 손목 묶여 줄서 가는 흰 죄수복의 10명 내외의 행렬 가

운데 제일 큰 키의 아버지가 우리를 알아보시는 양 쳐다보며 걸어가셨다.

어느 초여름 맑은 하늘의 오전, 조용한 분위기 속에 잠겨 있는 집에 興南 경찰서 형사들이 들이닥쳐서는 토족(土足)채로 아버지 서재에 난입, 서가에서 소위 불온사상 서적들을 제멋대로 뽑아 포대 자루 두개를 가득 채워, 갖고 온 리어카에 싣고 돌아가는 것을, 本宮에서 제일 큰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 넓은 앞마당을 향한 남쪽 마루에 아버지와 한두 팔 가량 떨어져 물끄러미 함께 바라보던 일도 추상의 한 컷으로 생생하다.

서가 서적의 저자 이름 가운데는 Stümer, Kropotkin, 大杉 榮, 幸徳 秋水 등등의 이름이 보였다. 아버지는 무정부주의자였고, 3.1운동 당시(등)에는 서울에서 비밀리에 내려 보낸 권기문 등의 함흥지방 配布 責任者였었다고 조선일보사 사회부 기자였던 尹鼓鍾씨가 전하고 있다. 아버지는 日本警察의 要視察人物이었다.

함흥고보 시절에는 축구부에서 center-ford로 활약했으며 당시의 축구부 지도교사 韓恂鉉(한자이) 선생님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본 적이 있다. 한 선생님은 아버지를 ‘본궁 조 선생’이라고 부르고 계셨다. 1960年代에 (구)서울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동창회 축구시합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때 선심을 보셨다.

해방 후 아버지는 잠시(해방다음해의 7~8개월간) 함경남도 인민위원회에서 일 하시다 마음에 들지 않아 단신(가족을 두고) 월남하셨다.

월남 후 청우당 창당에 협력하여 계획부장을 맡으셨다. 아버지 외

에 재정부장엔 內從姉夫인 金鏞千동문(12회, 京城 高商), 그리고 朴範集 동문(18회, 공군 장성)도 정부 및 군과의 섭외 일을 도왔었다. 6.25전쟁 발발 후, 아버지는 복진하는 UN군/국군을 따라 함흥 집에 돌아와 어머니의 환대와 냉대를 함께 받게 된다. 아버지의 긴 단독 외출에서의 귀가는 전쟁 발발로 집을 떠나 있었던 아들(필자)이 집에 돌아오기 삼사일 전의 일이었다. 아버지가 함흥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청우당(?)이 정부 및 군 등과 서로 많은 협력을 했었다. “註; 이항은 필자가 고향 거주 중의 일이어서 서울에 거주한 내종 등의 친지로 부터 후일에 들은 이야기라고 한다.<편집위원>”

(평양에서) 함흥에 돌아와 보니 黃金町 三丁目の 큰 집은 美 공군의 城川江 鐵橋 폭격의 여파로 서쪽 1/4가량이 무너져 사촌 형(趙昇楨. 19회 동문, 동맹휴학으로 중퇴, 모교 교사)의 서재가 깔려져 있었다. 아버지는 民間修復問題 때문인지 매일 분주하게 출타하셨는데 박범집 장군이 朱北의 작은 비행장에서 직접 조종, 이륙하던 단엽 프로펠러 정찰기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불상사가 돌발했다. 중공군 개입으로 전세가 불리해지기 시작, 전 가족이 연포의 작은 어항에서 명태 잡이 모선을 타고 일찌감치 남을 향해 떠났다(12월 4일?). 동해의 험한 겨울 풍랑을 만나기도 하면서 무사히 부산 자갈치 어항에 닿을 내리고 우리 가족의 피난살이는 동대신동 6조 방에서 시작되었다.

咸山幼稚園

申 裕 恒 (30回)

여러해 전 그러니까 2004년에 나는 참으로 귀한 벗 한 사람과 작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故人이 된 金炳浩 동창의訃音 소식을 듣고 여행에서 집에 돌아온 동기생 바리톤 가수 邊成燁은 피로도 잊은 채 곧바로 제주도로 날아가 고별예배에 참석하여 조가를 불렀으니 동석했던 모든 이의 가슴을 메이게 하였다.

우리 세 사람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함께 다녔을 뿐만 아니라 유치원(16회)도 함께 다닌 흔하지 않는 인연으로 맺어진 사이이다.

김병호 동창은 과묵하면서도 성실하고 사려깊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매사에 빈틈 없는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는 말년에 대장암 수술을 받고 뜻한 바 있었는지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가족도 함께 제주도로 이사가 묘목을 키우면서 조용히 전원생활을 보냈다.

나와는 서로 생각나면 전화로 안부도 묻고 일상의 생활이야기로 잡담을 늘어 놓기도 하였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날 간단한 편지를 보내왔다. 생각나서 적어 보낸다는 것이다.

그 내용인즉 함산유치원가 가사이다. 가사내용은 이러하다.

咸山幼稚園歌

1. 半萬年 歷史는 우리의 자랑
三千里 半島는 우리의 江山
倍達의 꽃송이 우리 어린이
곱게 곱게 힘차게 자라나도다
2. 北쪽의 盤龍山 半空에 솟고
西쪽의 城川江 大海에 흘러
咸興城 中荷리에 우뚝 선 집은
어린이의 뛰노는 咸山幼稚園

흐트러짐 없는 글씨로 꼬박꼬박 써 내려간 유치원가 가사를 읽으면서 나는 놀랐다. 옛그제 일어난 일도 생각나지 않아 찢찢매고 답답해 하는 나에게는 초등학교(錦町公立國民學校) 교가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혀 생각나지 않고 중학교 교가는 어렵풋이나마 기억은 남아 있는데 확실하지 않다. 하물며 유치원 가사는 꿈에도 생각날 리 없다. 어떻게 70여년전에 불렀던 가사를 지금도 잊지 않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까. 참으로 나와 같은 머리로서는 믿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일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 TV 프로에 나올법한 일이다. 그의 초인적인 기억력에 나는 탄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는 혼자 알고 지내기가 아쉬워 같은 유치원 동창인 변성엽 가수에게 복사해 보냈다. 그에게서 즉시 전화가 왔다. 받아보아 고맙다는 인사말과 함께 감격하고 놀라 야! 야! 그저 감탄사를 늘어 놓을 뿐 말을 잊지 못하면서 어린시절을 회상하는 것 같았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린 나이에 “반만년 역사는~” 하면서 목청높이 유치원 가를 불렀다니 참으로 믿어지지 않는다.

또 생각나는지 편지를 보내왔는데 열어보니 장미 손질하는 법을 복사한 그림과 함께 자세히 설명한 내용이다.

얼마 후에 또 생각났는지 편지를 보내왔다. 무슨 내용일까 궁금해 지기도 했다. 내용인즉 정원수로 알맞은 나무 종류를 적은 것이다. 우리 집에 틀어 있는 것을 보고 조경에 참고하라는 배려였다. 화초 가꾸기에 남다른 솜씨가 있음을 익히 알고 있는 터라 고마웠다.

또 얼마 지나 이번에는 작심한 듯 A4용지 4장에 나와 함께 지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있었던 여러가지 일들을 펍 소상하게 적어 보내왔다. 내용인즉 우리가 유치원 다니던 시절에 함흥에는 함산유치원 외에 大和町의 中央教會 附設 中央幼稚園과 춘일정(春日町)의 雲興教會 附設 雲興幼稚園이 있었으며 咸山幼稚園 원장은 자수성가한 함흥의 명사이며 會上里에서 一興農園을 경영하시던 韓泳鎬先生으로 저명한 피아니스트 韓東一氏의 할아버지라는 사실과, 유치원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함흥시내 3개 유치원 共同記念行事로 해마다 운동회가 열렸는데 달리기, 세발자전거 경주 등이 있었고 변성엽 동창이 늘 세발자전거 선수였다고 한다. 어릴적부터 변성엽 동창은 예체능에 두각을 나타냈음을 알 수 있었다.

그외 초등학교, 중학교 때의 담임선생님에 대한 인상과 학교에서 일어난 여러 잡다한 일들을 써 내려가면서 끝으로 자기가 월남하여 겪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적으면서 나와 함께 교유하였다는 것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겠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이 편지 수신한 날짜가 2003년 11월 12일이다. 그에게서 받은 마지막 편지이다. 내가 함산유치원 16회이니 남중 선후배 가운데에는 함산유치원 다닌 동문이 계시리라 믿어 공감의 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그는 편지마다 서두에 아직 뚜렷한 병 증세는 없고 평소와 같이

잘 지내고 있다고 쓰고는 있으나 이미 마음 한구석에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음을 예감한 듯 나에게 생각나는대로 회고록 비슷한 글을 남기고 이승을 떴다.

평소 깔끔한 성격이라 주변을 정리한 것 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지식과 기억마저도 털고 떠나는 그의 모습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다.

참으로 착하고 다정다감하며 남다른 재능을 지닌 벼를 떠나 보낸 나의 마음은 한 없이 허전하고 쓸쓸하다.

6.25라는 미증유의 민족의 대비극속에 채 어른이 되기도 전에 고향을 떠나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재능을 발휘하여 꿈을 이룬 이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이도 적지 않다. 김병호 동창이 바로 후자의 경우라 할 것이다. 애석하다!

벼는 갔지만 미망인과 자녀들이 해마다 어김없이 연하장을 보내 나의 안부를 걱정한다. 고인의 집안 분위기가 어떠했음인지 짐작케 한다.

글을 쓰다보니 갑자기 보고 싶고 그리운 생각이 든다. 지금쯤 어디 계시오! 잘 있소?

映像으로 가보는 咸興

한 만 섭 (30회)

오늘은 정치적 장막을 뚫고 내 고향 咸興으로 가보기로 한다. 고향을 떠나 온지 60여년이 되었지만 그 곳이 얼마나 변했을까 하는 것이 항상 나의 호기심이다. 그런데 다행히도 미국 Google이란 회사가 인터넷상에 제공하는 함흥 인공위성 사진(일명 Google map)의 덕분으로 고향에 가볼 수 있게 됐다. 2-300Km 상공에서 찍은 인공위성 사진이지만 함흥 시가를 달리는 자동차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한 평면 사진을 무료로 탐색할 수 있다. 거기에서 내가 여러 해 동안 습득한 영상조작 기술(특히 Photoshop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Digital Imaging Technique)을 이용하여 함흥 상공에서 市街를 내려다 보는 조감도(鳥瞰圖)를 만들어 여러 독자들과 함께 고향 탐방을 하기로 한다. 여기서 보는 Google map 사진은 2009년8월에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아래 그림1은 반룡산 상공에서 함흥시가 전체를 남쪽으로 바라보는 조감도이다. 함흥시가는 60여년 前보다 대강 4배정도 팽창한 것 같다. 특히 會上里방면으로 많이 팽창했다. 왼쪽에 옛 일본군대의 練兵場과 定和陵을 보면 그 팽창을 알 수 있다. 성천강과 호련천이 만나는 데서 그 한 뼘던 '연대다리'도 보인다. 여기에 쓴 地名은 모두 우리에게 익숙한 옛 이름들이다.



그림 1 - 盤龍山 상공에서 내려다보는 威興附近 항공사진

위 그림2는 우리가 함흥을 떠나올 때(1945-50년경)의 市街地 조감도이다. 크게 변한 것은 만세교에서 옛 市廳까지 일직선으로 新作大路가 생긴 것이다. 舊도청, 군청, 재판소, 錦町소학교, 日人官舎 등을 싹 쓸어서 新作大路를 만들었다. 이 大路는 시청에서 조금 구부러져 會上리쪽으로 연장된다. 한편 시청 앞에서 함흥역까지 大路가 생겼다. 시청 뒤에 母校 자리가 보이고 그 동쪽에 도청, 영생중학이 보인다. 도청과 영생중학 사이에 또 大路가 보이는데 이 길은 옛 형무소 서쪽에서 시지작하여 永中뒤에 있던 옛 乘馬구락부를 관통하여 산 쪽으로 좀 올라가다가 新廳舎를 만난다. 이사진에는 함남고녀, 日人 함흥여고, 방송국 자리도 보인다. 또 옛 山手町 水源池 자리도 보인다. 벚꽃 夜景을 보러가던 생각도 난다. 저수지 물을 성천강에서 퍼 올리는 수로 흔적도 보인다.

다음 그림3은 위 그림에서 보는 新廳舎로 가는 大路가에 세워진 아파트 건물 사진이다. 위 조감도에서 보다시피 官廳근처에 고층 아파트를 길가에 세운 것 같이 보인다.



그림 3 - 함흥시(배경 건물은 영생중학교 북쪽 새 廳舎)



그림 4 - 옛 함흥 中心지역의 상세한 조감도(鳥瞰圖)

위 그림4는 舊함흥 중심지역의 조감도이다. 우리 기억에 익숙한 옛 軍營通, 大和町길, 本町길이 그대로 보인다. 만세교와 시청을 잇는 新作大路는 옛 도립병원 뒤로 관통하고 있다. 옛 재판소, 舊도청, 군청, 만세교 동쪽 市場 일대를 大公園으로 만들었고, 함흥의 명소 樂民樓는 옛적 자리에 그대로 있는 듯하다. 樂民樓 북쪽에는 옛 新昌里 언덕을 깎아서 김일성 동상을 세운 臺地가 들어섰다. 여기에 나의 生家가 있었다. 臺地 남쪽으로 옛 黃金町길과 잇는 大路가 생겼다. 흥남으로 이르는 길이다. 그 臺地 동쪽에는 옛 영생고녀와 제혜병원이 그대로 남아 있다. 또 宣化堂과 옛 함남고녀 자리도 보인다. 옛 公會堂(시민회관)은 軍營通 동쪽 끝, 新作大路 남쪽에 보이는 듯하다.

다음 그림5는 반룡산 언덕에서 남쪽으로 바라보는 함흥市街 사진이다. 두 사진을 합성하여 한 파노라마로 편집한 것이다. 외쪽에 黃金町길에 이르는 大路가 보인다. 이 사진과 그림4를 비교해 보면 재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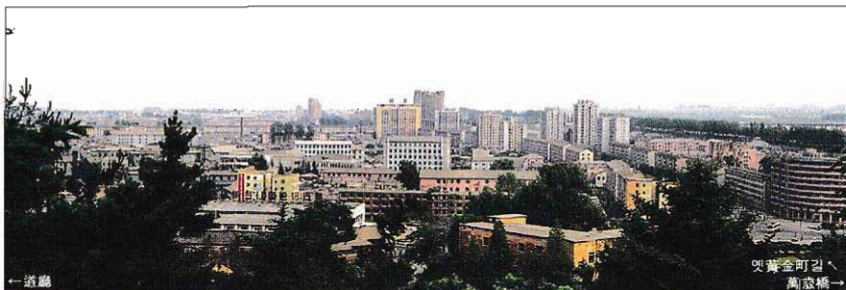


그림 5 - 함흥市街 사진(반룡산에서 남쪽으로 본 파노라마 사진)

아래 그림6은 위의 옛 黃金町길에 이르는 大路를 정면으로 찍은 사진이다. 교차로 왼쪽에 보이는 고층 건물은 舊東獨이 지어준 것이라고 전한다. 이 고층 건물은 그림4의 위성사진에서도 뚜렷이 보이지만 正面이 그늘에 가려서 흐려 보인다.



그림 6 - 舊도청 자리에 생긴 공원에서 옛 황금정 거리를 내다보는 사진

다음 그림7은 반룡산 언덕에서 西南쪽으로 바라보는 성천강과 그 너머로 함흥평야가 보이는 사진이다. 바른 쪽에 만세교, 왼쪽에 咸鏡線 철교가 보이고, 낙민루도 왼쪽에 보인다. 김일성 동상이 서있는 臺地는 수목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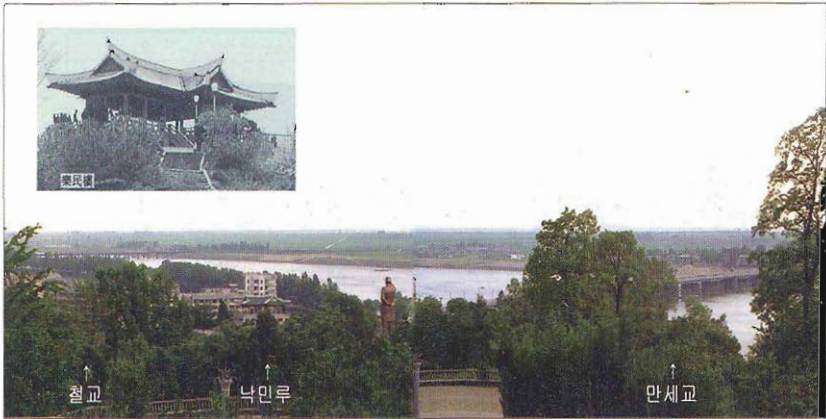


그림 7 - 반룡산에서 성천강 너머로 보는 광막한 함흥평야

다음 그림8은 옛 ‘만세교 시장’ 자리에 생긴 공원에서 낙민루를 쳐다보는 사진인 듯하다. 함흥 시민들은 지금도 낙민루를 함흥의 명소로 자주 찾는 곳이다.



그림 8- 옛 만세교 시장 자리에 생긴 공원에서 쳐다보는 낙민루

다음 그림9는 옛 新昌里로 올라가는 길가, 영생고녀 옆에 있는 宣化堂의 사진이다. 이 건물은 李朝時節 함경도 觀察使가 행정업무를 보기위한 지방官廳이다.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는 듯하다.



그림 9- 宣化堂 1416년 李朝 때 함남도 관찰사가 행정사무를 보기 위해 지은 지방관청 건물

다음 그림10은 옛 濟惠병원 사진이다. 이 병원은 기독교 선교사들이 세운 것으로 해방 직전에는 함흥 醫專병원으로 쓰인 적도 있는 이 건물은 지금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宣化堂과 영생고녀를 지나 옛 선교사들이 살던 山쪽으로 올라가면 왼쪽에 이 병원이 보인다. 나도 이 병원에서 태어났다.



그림 10 - 옛 濟惠병원의 모습

아래 그림11은 반룡산에서 西北쪽으로 바라보는 성천강과 그 너머에 펼쳐진 함흥평야의 사진이다. 이 그림 아래쪽에는 五老里-長津 방면으로 가는 성천강 연변 鐵路가 보인다.

아래 그림12는 새로 지은 만세교 사진이다. 옛날 우리가 다니던 옛 만세교를 허물고 새로 넓고 큰 다리를 가설했다. 옛날 다리의 교각이 아직도 보인다. 머리에 짐 보따리를 이고 가는 아낙네들의 모습도 보인다.



그림 11 - 함흥 西北방면 성천강과 연변 오로리-장진행 철도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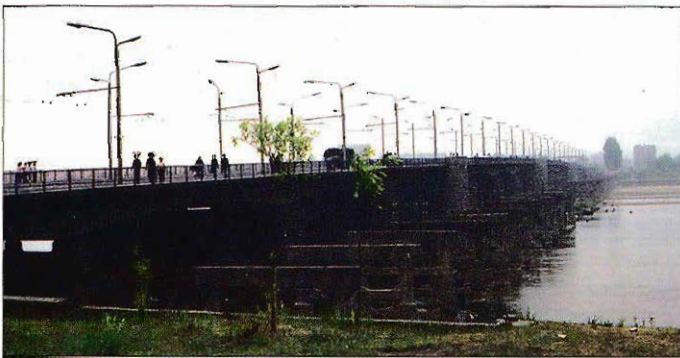


그림 12 - 새로 지은 만세교, 앞에 보이는 교각은 옛 만세교 흔적

끝으로 이 영상으로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함흥시가 사진들은 친형이신 한경섭씨께서 1991년도에 함흥 방문시 직접 촬영한 것임을 밝힙니다. 그림 6은 전 통일부 직원 정태웅 선생께서 제공해주셨음을 밝힙니다.

追憶속의 테니스

고 명 삼(30회)

나는 비교적 운동을 좋아하여 초등학교때 부터, 학급 친구들이나 동네 개구쟁이들과 함께 축구나 야구 또는 탁구를 운동장이나 탁구대가 있었던 강당에서 즐겼다. 이런 생활이 계기가 되어 중학교 1학년 때 테니스 부원이 되었고, 학교 정문 왼쪽에 있는 테니스 코트에서 매주 한 두 번 연식 테니스를 즐겼다. 당시 나의 테니스 실력은 1학년 학생으로서는 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좋았다. 그러나 日帝末期에 접어들어 문자부족과 敵性國스포츠 배척운동의 여파로 1학년 2학기부터 모든 球技運動은 폐지되었고 2학년부서는 매학기 수업시간의 약 1/3을 근로동원 혹은 봉공공장에 동원되어 準 기능공 혹은 소년노동자에 버금가는 노동을 하였다.

해방이 되자 각종 운동이 부활되었고, 나는 함남중학의 탁구선수로서 金昱균과 한조가 되어 맹활약을 하던 일이 지금도 잊그제 일처럼 내 머릿속을 스쳐간다. 해방 후 북한에서는 거의 테니스가 사라졌지만, 남한에서는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대한 정구 협회를 탄생시켰다.

1970년대초 정부는 운동 애호가들이 테니스로 餘暇善用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中央廳을 비롯한 정부기관과 대학 그리고 일부 기업체 등에 庭球場이 조성되었다. 당시 내가 소속한 서울工大에도 정구장이 네 면이나 신설되어 1944년 이후 약 40년 만에 테니스 라켓을 다시 잡을 수 있는 행운을 갖게 되었다.

1975년 7월 20일 전기공학과와 토목공학과 교수의 테니스 시합이 있었다. 두 학과의 교수 테니스 실력은 단연 토목공학과가 우승할 것으로 당시의 모든 교수들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합에 응한 이유는 승부보다 학과 대항전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테니스 시합에 비중을 두었기 때문이었다. 뜻밖에도 시합 결과는 우리 팀이 2:1로 승리하여 당시 테니스 실력이 전기과보다 훨씬 높은 토목과 교수팀이 왜 졌는지 큰 화제가 되었다. 시합 2주전부터 이문동 개인 테니스코트에서 생전 처음으로 특별 개인레슨을 받은 우리팀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되었다. 특히 개인전에서 당시 서울대 테니스 A조에 속한 노련한 정인준교수를 내가 물리친 것은 이번중의 이번이었으며, 지금도 가끔 우승순간의 감격이 내 머릿속을 스쳐가면 나도 모르게 환희에 빠지곤 한다. 이런 이유로 나는 7월 20일을 잊을 수 없는 나의 첫째 테니스날로 정하고 있다.

나의 둘째 테니스날은 내가 서울대학교 테니스 B조에서 A조로 승급한 1981년 10월 15일이다. 그후 합남테니스협회 임원들의 연락을 받고 고향테니스모임에 나가게 되었다. 1982년 가을 어느 일요일 박정덕교수의 연락을 받고 건국대학교 테니스코트에서 고향선배들과 함께 하루종일 테니스를 치던 일과 조용우고문이 제3대 합남테니스협회 회장직을 맡은 1983년도 대회 때 모든 참가선수에게 유니폼과

모자가 지급되었던 일이 떠오른다. 그 유니폼을 입고 모자를 쓸 때 마다 나로 하여금 고향에 대한 향수에 젖게 하며 자부심을 갖게 하여 새로운 힘을 솟게 한다.

1985년 이후에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테니스를 비롯한 운동을 그만둔 대신 週末山行을 가끔 하게 되었다. 1999년 4월 4일(日) 아침 일찍 마을 뒷산을 약 2시간 동안 등산하면서 8시경에 집에 돌아온 후, 효창동 운동장에서 개최하는 함남테니스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10시에 효창동의 테니스장에 가게 되었다. 테니스대회는 추침을 통해서 조가 형성되었고, 나는 김혁기고문과 한조가 되어 잘하면 오늘대회에서 등수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이었고 자기 자신의 年齡을 의식하지 않은 한 老人의 어리석은 욕심이 되고 말았다. 후위를 맡은 나는 첫 게임에서 상대방이 깊숙이 짜른 공을 받으려고 달려가다가 세발짜만에 넘어지면서 鎖骨折傷을 입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넘어지는 순간 어렸을 때 장난삼아 배운 柔道落法이 순간적으로 생각나 허리와 등을 비틀면서 거꾸로 넘어지려고 했던 것이 더 큰 잘못이 되었다. 아침 등산에 피로해진 70세 老人이 0.1秒를 다투는 曲藝에 몸을 거꾸로 던졌으니 부상은 자명한 일이었다. 결국 나는 鎖骨折傷 사고로 119를 타고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입원하게 되었으며 나의 세 번째 테니스날은 골절상과 119로 얼룩진 4월 4일이 되고 말았다.

나는 테니스를 통해 고향의 많은 훌륭한 선후배를 알게 되었고, 80대 老人으로서의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멸종위기 야생조류의 복원사업

- 한반도의 하늘에서 따오기의 복원을 바라보며 -

원 병 오 (30회)

인공사육번식이란 조류의 서식지를 보전하는 매우 복잡한 지정학적 과제를 매혹적으로 증원(增援)할 수 있는 즉효적인 사업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그것은 하나의 방향제시라고도 볼 수 있다. 이 사업이 절종되어가는 종들의 피할 수 없는 만연을 전반적으로 치유할 수는 없지만 절종위기의 조류에 대한 문제해결을 마련하는 하나의 길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인공사육 번식사업은 지구상에서 종족수가 계속 감퇴되어 가는데 대한 대안을 시도하는 기회의 제공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살아있는 인자은행의 설립에 그의 목적이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공번식사업은 야생상태로 복원하기 위해서 100개체 이상의 2세와 3세의 자손을 생산하는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사업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잔존하는 야생집단에서 적지 않은 수를 생포하여 번식한다. 그러나 번식시켜 사육중인 집단에서 도입해서 증식한 다음 방사하는 방식은 근래에 흔히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최근의 집계에 의하면 지구상에서 알려진 9700여종의 조류의 약 1/12에 해당하는 종이 동물원과 대학 소속 연구소에서 번식되어 왔다. 그와 함께 상당수에 이르는 사육 조류들이 계속되는 번식력 저

하와 고립된 사육 집단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을 알고 있었지만 야생 조류의 양금이란 측면에서 새로운 기술개발에 힘입어 태어난 주목되는 조류로 해서 종 보전에 있어서 고도의 기술적인 진전을 보아왔다. 일부의 조류는 사육하의 생존자를 유일하게 가까운 장래의 희망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인공사육번식과 야생으로 방사하는 사업의 전망이란 최근에 발전된 조류의 관리기술로 해서 매우 고무적이긴 하나 부당한 기준사육시설과 조류 사회·경제적인 기구, 그리고 야생성의 상실 등이유 때문에 힐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인공 번식된 야생조류 집단은 생물학적 보호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네가지 기능을 갖는다.

첫째로 집단생물학과 사회생물학의 기초연구에서 야생집단의 대행자로서

둘째로 시중(보호) 및 관리 기술 개발을 위한 야생집단의 대행자로서

셋째로 새로운 혈통의 획득이나 새집단의 설정을 통한 동물통계학적 및 유전적 저장소로서

넷째로 자연에서의 생존이 불가능한 종에 대한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 등으로 요약된다.

오늘날 이미 인공사육 번식사업을 통해 만족할만한 생산결과를 가져온 예는 적지 않다. 흰머리수리, 흰꼬리수리, 수리부엉이, 큰붉은따오기, 수염수리, 하와이의 네네기러기, 미국의 흰두루미, 미국산 매 등... 절종위기에 처해있는 조류의 종을 구출하기 위한 인공사육 번식사업은 앞에서 언급한 기능들을 예증해 주고 있다. 또한 절종위기 종의 보존을 돕기 위해 이용하는 사육된 비교적 흔한 다른 종을 대용종으로서 대리어미(대리모) 역할로 이용하기도 한다. 미국 흰두루미

미는 캐나다 두루미를 대역종으로 이용하였으며 중국에서는 검은파 오기를 대리모로 이용하였다. 미국 패터슨트 국립야생생물중앙연구소는 종의 복원을 위한 알의 저장소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

인자 저장소의 유지

인공사육 번식을 위한 종이 비교적 변화 없는, 장기간에 걸친 종의 유지를 지속한다는 것은 인자 저장소가 지니는 과제의 핵심이 된다. 전문가들은 인간이 21세기 말까지는 생태적인 안정상태에 도달될 것으로 내다본다. 그와 같은 추리는 불확실하지만 유익한 수준기표는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인자 저장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목표는 앞으로 약 100년간 정도라고 간파한다. 어떤 경우도 적은 집단이 장기간 유지하고 있는 집단은 대개 근친교배에 의한 번식력 감퇴의 증상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도입된 많은 종들은 확실히 적은 설립 집단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매우 드물게나마 그들 조류들은 곧잘 지탱해왔고, 단시일 내에 퍼져 나아가지도 않았다. 이것은 설립사육 집단의 크기가 반드시 집단 규모의 유지에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확인케 했다. 뉴질랜드에 도입한 꿩, 자고새 및 흑고니 등은 좋은 적은 집단으로부터 출발했다.

한편 대조적으로 동물원에서 장기간 사육되어 오는 과정에서 지난 수십년동안 부지기수의 조류가 희생되어 갔다. 그것은 대개 격리된 적은 집단의 통계학적 면에서 나타나는 추정통계학적 취약점과 근친교배에서 오는 번식력 저하에서 비롯되었다.

유적전 변화는 지연된다.

인공사육의 관리와 보호성과는 사육하에서 거의 대부분의 야생 조류의 기대 수명을 자연에서 보다 몇 배 더 연장시킨다. 그와 같은 모

순된 형상은 인공사육에 대한 관리기술개선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사육 하에서는 질병, 경쟁, 천이적 변화 및 포식위협 등이 최소화된다. 사육관리는 유전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킨다.

사육번식사업에서는 야생상태에서 보다 훨씬 긴 번식 기간에 걸쳐 더욱 많은 새끼를 낳으며 번식을 위한 어린 개체들이 더욱 많이 생존한다. 그러므로 사육하의 어미들은 그들의 유전자를 보다 많이 자손들에게 조성 계승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채란, 인공부화 및 대리모

성공한 집단에서 성공하지 못한 집단으로의 알의 이전, 보충산란을 위한 자극과 인공부화 등 방법이 이용된다. 번식결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인공수정과 인상붙이기(imprinting)를 한다. 인공부화는 여러 배의 알을 낳게 하는 방법을 통한 많은 조류에서 획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증식방법이다. 조류의 첫배나 처음 여러 배에서 알을 채취하여 인공부화 시킨다. 알의 채취는 보충 산란하도록 자극하며 그와 같이 숙입수는 대부분의 조류에서 가능하다. 뉴욕 브롱크스 동물원에서는 정상적인 두루미의 한배 대신에 최대로는 여섯배까지 산란했다. 인상붙이기는 부화 후 16-17시간(오리류)과 36시간(기러기류)내에 최초로 본 것에 추종하는(따라다니는) 기간이 있으며 그 이후에는 인상붙이기는 일어나지 않는다. 한 번 인상붙인 것은 영속적이며 개집에 인상붙인 기러기의 예도 있다.

행동학적 및 생태학적 요구

인공사육환경의 설계는 사육하에서 야생조류의 종특유의 행동-생태학적 요구에 대응하는 보다 세심한 것이어야 한다.

뉴욕 브롱크스 동물원에서는 일련의 자극적 서식지를 마련해 준

결과 많은 종이 번식을 시작했다. 그러한 종들은 반세기 동안 낡은 형태의 동물원 금사에서 단 한 알의 알도 낳지 못했었다.

열쇠가 될 수 있는 생태학적 ‘적절한 환경’은 조류들을 철야 번식 상태로 유도할 수 있으며, 적절한 동물사회적 무리의 유지는 적지않은 의의를 지닌다.

재도입의 필요성

절종위기종의 야생동물보호는 세가지 방법이 있다.

즉 서식지에서의 보전, 서식지 이외의 보전 및 재도입이다.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동물원(별도의 인공사육 번식시설을 갖고 있다.), 대학 및 연구소에서는 사라져가는 절종위기의 종들의 번식과 증식에 노력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성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행이도 우리나라에서도 때늦은 감은 있으나 사육번식과 증식에 대한 기술개발과 방사에까지 성공하고 있다. 산양, 수달, 두루미(서울대공원), 용인 에버랜드 동물원, 교원대의 황새 등.

이제 창녕군에서 시작된 따오기의 복원사업도 머지않아 성공적 성과를 올리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앞으로의 방향과 경고적 주의 사항 및 바람직한 사항 등을 여기에 요약해 본다.

일본에서도 수차례 실패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중국에서 분양 받은 따오기 두 쌍은 모두 죽었다. 세 번째가 성공한 것이다.

실패의 여러 가지 원인 중 주목될 사실은 TV방송사의 헬리콥터 이용 취재가 따오기를 죽게 하였고 사육번식지의 출입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불란서 남쪽에 자리한 카마르구(camargue)의 조류 보호지구에서 범한 보기로 대표적인 영국의 방송사(BBC)에서 의한 취재시의 방해로 새로이 조성한 보행조류(백로류와 해오라기류 등)의 후리새를 이용 유치한 서식지에서 모두 자취를 감추어 버린 사례

가 있다. 필자는 현자를 탐방하며 확인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일본 사도(佐渡) 인공 번식지에서 방사한 10마리의 따오기 중 작년(2008) 9월 25일 1개체는 니이가타현 세키가와촌까지 약 70km의 바다를 횡단 이동한 예가 있으며, 12월 26일에는 논에서 한 마리가 너구리에 의해 다리에 상처를 입고 희생되었다.

이외에도 두마리의 암컷이, 1개체는 니이가타현(新潟縣)에서 또다른 한 개체는 나가노현(長野縣)에서 새로이 발견되었다. 상자속에 가두었다가 갑자기 방사하여 놀라서 날아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중 하나의 암컷이 사도섬으로 돌아와 그곳 수컷들과 함께 노닐고 있다고 한다. 아마도 짝지어 번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오기의 서식지역에서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문제의 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청정지역으로서 농약과 화학비료 등 사용의 금지를 통한 유기 농업으로의 전환
2. 임지는 호두나무, 밤나무와 표고재배단지 및 경제림 등 조성
3. 따오기 먹이를 위한 불경기 담수 재배
4. 일정한 범위 출입금지, 취재불가지역 설정 등
5. 번식지 주변 생태환경조성-활엽수 식재 등 따오기 서식지의 자연과 일치된 경관 조성
6. 사육중인 조류의 먹이와 배설물, 깃털 등의 철저하고 지속적인 오염도 분석
7. 인간의 번식지 출입, 취재 금지 등의 철저를 유지한 인간 및 기타 방해 엄금
8. 창녕군을 시발로 유기농과 청정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아가며 국토가 옛모습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한 중앙정부의 물심양면의 지원을 촉구한다.

끝으로 본 따오기의 복원사업은 지난날 한반도의 남북한 전역에 수십마리에서 수백마리가 도래하였던(1911년 전북 옥구, 익산 등지) 대집단, 창경원 동물원에서 사육중이던 15여 마리의 따오기(1936년) 등을 원상복원하자는 사업이니 절종위기종 따오기의 복원사업은 시비나 주저할 일이 아니다. 온 국민의 격려와 후원이 요청된다. 따오기는 1968년 5월 30일 천연기념물 198호로 지정한 천연기념물이다.

이 외에도 두 마리의 암컷이 1개체는 니이가타현(新潟縣)에서 또 다른 잔 개체는 나가노현(長野縣)에서 새로이 발견되었다. 상자 속에 가두었다가 갑자기 방사하여 놀라서 날아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중 하나의 암컷이 사도섬으로 돌아와 그 곳 수컷들과 함께 노닐고 있다고 한다. 아마도 짝지어 번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오기의 서식지에서는...)



나의 이상 2 제

李 南 杓(30回)

운흥리교회 주일학교의 교사 이영일은 그의 이상인 영생(永生의 선배 강용홀(姜鏞訖)의 인물기를 어린 나의 뇌리에다 박아 넣었다. 어린 나에게 그것은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였다. 그의 입은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컸는데 이런 사람은 결코 남에게 뒤지지 않는 강한 의지의 소유자라고 하였다.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그는 永生高普 학생시절을 아주 어렵게 지냈다. 그러면서도 학교주변에 펼쳐져 있는 수수밭을 그린 풍경화에서 그는 자신의 웅대한 뜻을 잘 표현하는 독특한 솜씨를 보였다는 것이며 늘 큰 꿈을 안고 살았다. 마침내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미국유학을 가게 되며 공부를 마치고 난 그는 지금 2층 벽돌집을 짓고 미국에서 살고 있다는 성공담이었다. 나의 어린 시절에 미국은 천당 다음으로 가기 어려운 곳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거기 가서 강용홀은 크게 성공하였으며, 그의 저술인 초당(草堂)은 미국에서 최상급의 책으로 인정 받았다는 것이다.

나는 어렵사리 중학교에 들어가서 두 번째 이상을 얻게 된다. 형설지공(螢雪之功)을 상징하는 연호미상(年號未詳)의 동창회 표지를 처음으로 대하면서 지금까지 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 두 인물이 내 뇌리에 각인(刻印)된다. 거기에는 교기를 들고 직립부동의 자세로 서

있는 고명상(高明相 22회)의 우람한 모습이 나를 압도 하였다. 놀라지 말라. 그는 5년 개근(皆勤)에 5년 내내 1등의 기록을 세운 무서운 선배였다. 사족이거니와 이는 명삼(明三)의 백형이시다. 그러나 하늘의 무심을 탓할까? 일제의 만행을 탓할까? 불행히도 우리는 이 동량지재(棟梁之材)를 태평양전쟁 때 잃었다. 그의 위패가 말없이 집으로 돌아오던 날 오규정(吳圭楨)은 슬픔에 사무쳐 노두(路頭)에서 울었다. 사옹(沙翁)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 Man whom God love dies young. 나는 그와 함께 명삼의 집에 갔을 때 우리는 2층에 모신 영정 앞에서 숙연(肅然)하였던 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나는 이 동창회지에서 또 한 사람의 이름을 보고 압도된다. 어린나의 뇌리에 각인되는 제2의 우상이다. 나는 그 김재원(金載元)이라는 이름보다도 회지에 적혀있는 주소에 압도되었다. 베르기안토와쁘(일본어 가나로 표시됨). 도대체 이 세상 어느 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인가? 어떻게 그 곳에 가서 정착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는 나에게 신비스럽기도 한 존재였다. 후일 나는 그의 자서전을 읽고 크게 감탄했다. 그는 우리의 삶이 일제하의 칠흫 같은 암흑기에 뜻을 세워 큰 포부를 안고 부급만리(負芘萬里) 먼 이역으로 떠난다.

다정다감하던 학생시절에 그는 폐병을 앓게 되어 1년을 휴학하고 나서 20세에 함흥고보를 졸업한다. 그 때 그는 눈을 크게 떴다. 그리하여 그는 일본보다 더 먼 나라로 그리고 항일 청치사상과는 너무도 먼 음악공부를 한다는 핑계로 일본당국의 여권을 발급 받아 독일유학의 길로 떠난다. 그는 독일에서 교육학과 고고학을 연찬하는 과정을 거쳐 1934년 박사학위를 받은 후 1940년 까지 6년간 벨기에 안트와프에 체류한다. 중국청동기 연구로 저명한 학자 헨째교수를 도우

면서 그의 본격적인 고고학연구 생활이 여기서 시작되며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의 정세가 긴박하여지는 때까지 이어진다. 그러다가 그는 일제치하의 그 암울하던 시절 그가 웅지를 품고 고국을 떠난 지 꼭 11년이 되던 1940년 5월 환국한다. 고향에서 얼마 동안 지내다가 그는 서울에 와서 1941년 4월에 결혼하며 그야말로 “막바지로 치달는 일본사람들의 압세에 숨이 막히는” 일제말기의 몇 해 동안 보성전문학교의 독일어 촉탁강사로 지내면서 일제의 창씨개명 강요를 끝내 거부한다. (참조: 나의 글, 민족의 얼을 지킨 여당(黎堂). 盤龍 동창회지 제8호, 307-11).

8.15 광복 후 그 당시 그 지긋지긋한 서울의 혼란 속에 살던 어느 날 남대문시장에서 나는 우연히 이영일(李英一)과 마주치게 되어 놀라움과 반가움에 흠뻑 찬 인사를 드렸다. 넥타이를 단정하게 매고 말솜씨가 부드러우며 넓은 이마가 인상적인 그분의 인사 대꾸는 의외였다.

“남표야, 여기가 사람 살 곳이 아니다.”... 분명 그는 어머니와 처자식을 대동하고 월남하여 이어 나가는 서울생활에 지친 모습이었다. 그는 나에게 다시 함흥으로 돌아간다는 뜻을 뚜렷이 말하여 주면서 만나자 이별 격인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나는 후일 Ave et vale이란 말을 배웠지만 그 압축판의 하나가 이 장면이 아닌가도 회상한 적이 있다. 분명 그는 당시 미 군정하의 남한 살림에 실망하고 북으로 돌아선 것이다. 그 분의 독실한 믿음이 북으로 다시 가서 편안하지 못할 것을 짐작하면서도, 그는 기어코 이렇게 마음을 잡은 모습에 나는 측은할 뿐이었다. Tomorrow and tomorrow, creeps in this pretty pace from day to day를 함께 읊었던 한광철(28回)이 소리 없이 월북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48년 5월 선거를 앞둔 어느 날 나는 동자동에 사는 선배 한 분을 찾아갔다. 그 때 “가스가 안 들어 온다”고 아주머니가 몹시도 불편한 심기를 말하면서 화제가 강용홀을 비치게 되었다. 그가 지방의 어느 여학교에 가서 학생들 앞에서 한 말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아버지의 애인을 아들이 사랑할 수 있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의 말을 토설한 그에게 선배부부는 몹시도 실망한 어투였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앞으로 다가 오는 선거를 감시하기 위하여 UN 감시단이 왔는데 거기에는 엘사르바돌이라는 금시초문의 작은 나라의 대표가 있다는 화제를 나눴다.

어느 날 나는 충무로에 있는 헌 책방 한 곳에 들렀다. 의젓한 신사 한 사람이 영문 서적 한 권을 손에 든 채 서가 맨 위에 꽂여져 있는 日書 支那人名辭典全集을 내려 놓으라고 이르고 있다. 많은 책을 팔게 되어 책방주인이 굵실거리면서 책을 내려놓았다. 그가 주인에게 이르는 말에서 나는 그가 “강용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분명 들었다. 나는 귀를 의심하였다. 그는 넓은 전의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으며 그 빨간 넥타이가 유달리 나의 시선을 끌었다. “아 아 그 이름 강용홀.” 그런데 저런 日書を 요란 떨면서 사고 있다니... 주인에게 이르는 말을 마치고 책방 밖으로 나서자 나도 따라 나섰다. 나는 그에게 다가서면서 넉적 절을 하였다.

“저는 어려서부터 선생님의 이름을... 함흥의 운흥리 교회에서.....” 하는 식의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나의 초라한 신색을 보는 그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묻는다. 마지못해 하는 소리다. 머뭇거리며 나를 보면서 그는 돌아선다. “아 아 그 이름 강용홀”의 실인물 앞에서 나는 이렇게 초라하게 물러섰다. 그 후에 나

는 우연히도 어느 미국인에게서 잠시 강용홀의 초당(Grass Roof)를 빌려보게 되었다. 그런데 거기에는 내가 어려서 주일학교 시절에 배운 까치의 결초보은(結草報恩) 이야기가 들어 있는 정도의 글이기도 하여 크게 가슴 벅찬 감격을 얻지는 못하였다.

그 후 오랫동안 강용홀은 나의 뇌리에서 사라졌다가 1960년 8.15 축하행사 때 뉴욕에서 모인 한인들의 모임에서 나는 강용홀의 늙은 모습을 보았다. 전이 넓은 소프트를 쓰고 유난히도 붉은 넥타이를 매고 위세 당당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다. 마침 그 자리에는 안익태(安益泰)가 있었다. 그는 무대에 뛰어 올라서서 모두가 애국가를 더 힘차게 부르자고 선창하면서 열정적으로 회중을 인도하였다. 이때 나의 눈에 비친 강용홀은 미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닌 참으로 초라한 독거노인의 모습이었다. 사실상 그는 미군정(美軍政) 당국의 초청을 받고 한국문제의 자문역으로서 고국에 돌아왔다. 그러나 그는 신생조국의 앞날을 위하여 미군정당국의 정책수립에 공헌한 바 없으며, 우리 정부의 수립직후에 “경찰국가”라는 말로서 이를 매도함을 서슴치 않았다. 그가 서울에서 동양외국어전문학교를 세웠으나 그것은 개점휴업 꼴이 되고 만 부실한 기도였다. 뉴욕대학의 비교문학교수라는 이름을 떨친 사람의 소위가 이렇다고 보니 그러한 전력의 그를 말할 때 나는 그를 가까이 가서 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 때 김재만이 뉴욕 한인사회의 올드 타이머라고 알려진 강환모(姜浣模)를 보게 되어 그의 앞에 가서 절을 하였다. 그에게 나는 그의 동생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학위가운을 입고 짙은 형님의 사진액자를 벽에 걸어 두고 자랑하며 그리워하던 동생의 소식을 전하는 나에게, 그는 거의 무표정으로 그러냐는 식의 짧은 말 한 마디의 반응뿐이었다. 듣자니 그는 옛 타운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생물학 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부인은 흑인이라고 하였다. 내가 무안을 당하

는 기분이어서 나는 속으로 “에이라 이 강가자(姜哥者)들아!” 하고 발길을 돌렸다. 그 자리에는 젊은 혼혈여성 한 사람이 있었는데 듣자니 정부수립 초기에 재무장관을 지낸 김현철의 딸이라고 한다. 그 자리에 있는 어느 여성에게 무슨 공부를 하느냐고 묻자 그녀는 “직업심리학”이라고 대답하였다. 이 말을 듣자 이철승은 머뭇거리다가 “그런 공부도 있느냐”고 반문하였다.

각설하고 나는 이 시절 뉴욕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인물에 관해서 알게 된다. 천혜의 호기라 할 것이다. 중일전(中日戰)에서 패망한 일본군 첩보기관의 중국공작대장 ‘난베 다이사꾸’의 글을 나는 일본잡지에서 읽었다. 등장한 김형극(金濤極)의 인물기에 나는 압도된다. 일제하 급행열차 “히까리”의 폭파사건, 군항 “아오모리”의 폭파사건등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지휘한 인물을 ‘난베’는 혈안이 되어 추적하였으나 끝내 패전에 이르고 만다.

그는 아주 특이한 인물이다. 평안북도 강계태생(1918)으로 일제하에 만주에서 남만주 철도회사가 설립한 봉천중학교를 졸업하였다. 그가 5학년 때 어느 날 공원의 벤치에 앉아서 대학진학의 꿈을 그리며 명상에 잠겨 있었을 때에 만났던 사람이 있다. “젊은이가 무슨 일로 그렇게 깊은 상념에 잠겨있느냐?” 하는 물음을 받고 만주의과대학 진학을 고민중이라고 대답한 바 “나라의 병을 고치는 일도 젊은이가 하는 일이오!”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말을 듣고 충격을 받는다. 다시 만난 이 인물은 임시정부의 의정원장 홍 진(洪震)이었다. 이 만남이 그로 하여금 상해로 가서 김구(金九)와 만나게 한다. 청년의 준수함을 살펴본 김구의 분부로 滬江大學을 거쳐 조선사람으로서 진학하기 어려운 일본 동경상과대학에 진학하라는 것이었다.

봉천중학교 기숙사생활을 통하여 일본식 생활이 몸에 배인 김형극

은 완벽하게 빈틈없는 일본사람이 되어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 정부의 판임관이 되어 내무성관리로 발령을 받는다. 이 때 동기에 일본 수상을 지낸 나카소네 야스히로가 있었으며 전시체제의 내각으로 육군대장 도죠(東條英機) 수상이 내상을 겸하고 있었다. 이렇게 합법적인 신분을 구축한 김형극에게 김구는 밀령을 내린다. 국내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는 백산 안희제(白山 安熙濟)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있는 갑부 경주 최씨가 조선총독부의 토지수용령 때문에 겪고 있는 문제를 풀어주라는 지시라든가, 일본육군의 731 부대가 세균전을 위한 인체실험의 기기를 함경북도 무산(茂山)에 두기로 하고 세균배양기를 이송하는 열차를 폭파하라는 지시와 또는 일본북단에 있는 아오모리 해군기기를 폭파하라는 지시등이다.

일본의 동맹국인 나찌독일의 국영통신사 동경특파원의 합법적인 신분을 가장하여 동경에서 활약하던 미국전략정보국의 앤더슨은 김구의 압호 69 비밀첩자인 김형극과 접선하여 그에게 초미니 카메라와 공작도구를 제공한다. 김형극은 내무성 관리로서 조선총독부에 출장하여 김구의 밀령을 모두 수행한다. 그의 막하에는 김정균(金貞均) 남의태(南義泰)와 같은 유능한 첩자가 있었다. 김정균은 황포군관학교 출신으로 대립(戴笠) 휘하의 남의사(藍衣社) 요원이기도 하며, 그는 천의 얼굴을 가진 사나이로 때로는 일본육군 또는 일본해군 장교로 위장하여 또한 중국군 장교신분으로, 일본, 조선, 중국대륙의 땅을 종횡무진으로 누벼가며 신출귀몰의 활약을 하여 적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김정균은 일본의 패전 직후 중국에서 중국인 배신자의 총격을 받고 불행하게도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이 생겼을 때 난베는 비로써 그토록 신출귀몰하던 적의 정체를 알게 되어 혀를 찼다. 이제 패자가 된 그는 저승으로 떠나간 승리자 앞에 머리 숙여 공대하였으며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는 김정균의 유택을 마련한 후 일본으로 돌아갔다. 후년 김형극은 일본에서 난베를 만났을 때 김정균의 유택 마련에 대하여 정중하게 사의를 표하였다. 그는 난베에게 생전에 한번 한국에 다녀가기를 권하였다. 난베는 한국에 지은 죄가 많으므로 그 땅을 다시 밟을 수 없노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남의태의 생사를 궁금히 여기는 나의 질문에 대하여 “구름 속에 숨었다”고 하였다. 천근의 무게와도 같이 굳게 잠긴 김형극의 입에서 흘러나온 신비스럽기도 한 대답이었다. 그는 김정균과의 관계를 바늘과 실로 비유하면서 그가 없는 세상에 홀로 사는 비통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였다. 나는 60년대 초 이래로 이분에게서 폭 넓은 교우 관계의 귀중한 이야기를 듣고 많은 감명을 받아왔다. 그는 동문선배 박남운(白南雲)의 월북권고를 일축하였다.

말미에 일제삽입(一題插入). 광복후 한국초에 이승만(李承晩)은 태평양전쟁 말기 중국에서 미국의 전략정보대(OSS)의 비밀첩자였던 김형극을 찾았다. 비서 윤치영의 주선으로 실인물을 대한 그는 “이렇게 젊은 사람이냐”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그의 공로를 치하 하였다고 한다.

성천강에서 월미도와 관악산까지

俞 焘 (30回)

1. 黃金町 小學校

필자는 함흥의 황금정 소학교를 졸업하고 제30회로 함남중학교에 입학했다. 집이 서상리(西上里)였으므로 매일 만세교를 건너 먼 거리를 소학교에 통학했다.

겨울에 성천강이 얼면 어름위로 가로질러서 학교를 가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으므로, 한 겨울 추울 때에는 곧잘 어름 위로 학교에 가곤 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 때라고 기억되는데 겨울에 날씨가 좀 풀려서 강 한가운데는 얼음이 일부 녹아서 물이 졸졸 흘러 내렸다. 되돌아가자니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졸졸 흘러내리는 곳을 뛰어 넘으려 했으나 얼음이 얇아서 강에 빠져 떠내려갔다.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건져주어 서함흥역의 기관수 대기실 같은 데에 데려다 주어 불을 쪼여서 몸을 녹이도록 해주었다. 친절하게도 이 분은 필자의 아버지에게 연락해주어 아버지가 옷을 가지고 와서 갈아 입고 뒤늦게 학교에 출석한 일이 있었다.

황금정 소학교는 금정(錦町) 소학교보다는 작았으나 함흥에서 금정 소학교 다음으로 큰 학교였으며, 한 학년이 3개 반인가 된 것으로 기억한다. 우리 반 담임인 박 선생은 5학년 때부터 2년간 담임을 계속하여 지도를 잘 하였으므로, 우리 반은 10여명이 함남중학에 합

격하여 그 해 황금정 소학교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올린 반이 되었다.

2. 咸南中學校 時節

함남중학에 입학한 기쁨은 잠시였으며 태평양 전쟁 중이라 일본인 교사들은 소집되어 나가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교사가 부족하여 2개 반이나 3개 반이 합반하여 수업하는 등 수업이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영어를 담당했던 ‘사고’라는 이름의 일본인 교사는 영어시간에 들어와서 영어수업은 제대로 하지 않고, 소년항공병(少年航空兵) 지원을 적극 독려하였으나 별로 지원자가 없었는데, 한 사람이 지원자가 나타나자 영어교사는 많이 기뻐하며 영어점수를 잘 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부실하기는 했으나 1·2학년은 수업을 그럭저럭 했으나, 3학년 때에는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의 패색이 짙어진 때였으므로 흥남질소비료공장에 동원되어 거의 수업은 받지 못하였다. 질소비료공장의 공원들이 유숙하는 기숙사에서 기거하면서 근로동원에 종사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의 항복방송도 이 근로동원 현장에서 들었다. 점심때 중대방송이 있다하여 큰 강당 같은 방에 집합하여 방송을 들었는데 잡음이 많아 제대로 알아듣기 어려웠으나 일본이 항복하였다는 얘기가 돌았다.

그 다음 날인가 함흥으로 돌아왔으나 학교가 정상화되고 수업이 시작되는데는 시일이 걸렸다. 수학을 담당하는 한 선생님이 교장으로 취임하고, 과거부터 근무하던 한국인 교사 외에 주로 함남중학 출신의 교사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보충되어 수업은 서서히 본궤도에

올라섰다.

그러다가 1946년 3월 함흥 학생사건이 발발하여 우리들은 구호를 외치며 시가행진을 계속했다. 그 때에 몇 발의 총성이 울리면서 소련군이 출동하여 시위대에 발포하였다. 우리는 제대로 저항도 못하고 혼비백산하여 길가 점포의 쇼윈도의 유리창 문을 박차고 들어가 피신하였다.

이 사건 후 필자는 학교에 제대로 나가지 않았으며 아버지가 이미 남하하여 자리 잡은 仁川으로 내려갈 준비를 서둘렀다. 함남중학 1학년이었던 동생과 둘이서 월남을 인도할 아버지의 옛 부하였던 아저씨의 안내로 우리는 1946년 5월경에 기차를 타고 남하하여 3·8선 근처에서 육로로 연천 동두천을 거쳐서 월남하였다. 3·8선을 넘어서니 미군들이 월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DDT를 온 몸에 뿌려주었다. 우리는 다시 교통편을 얻어서 서울을 경유하여 仁川에 도달했다.

3. 仁川中學校 時節

(1) 편입학

얼마 후에 편입시험을 치르고 인천중학교에 편입학하게 되었다. 인천중학교는 서울중학교와 같이 일정시대에는 주로 일본인 학생들을 교육하던 학교로 해방 후에 새로 출발하게 되었다. 1945년 11월 21일 吉瑛羲 선생님이 인천중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여 11월 27일 길교장 자택에서 학생 60명, 교사 6명으로 수업을 시작했다. 그 후 인천시립도서관을 임시 교사로 쓰다가 1946년 인천 신흥 소학교 후관으로 옮겼다. 필자가 인천중학교에 편입한 것은 이 때였다. 1946년 8월 29일 야전병원으로 사용하던 인천중학교 교사를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

1946년 9월 11일 신제도에 의한 6년제로 개편됨에 따라 우리는 6

년제 4학년으로 진학하게 되었다. 우리 반은 해방 전에 입학한 몇몇 사람과 필자와 같이 외부로부터의 편입생으로 구성된 지극히 이질적인 집단이었다. 개학초 부터 편입생은 계속해서 들어 왔는데 인천상업학교에서 대량으로 편입해 들어온 경우도 있었다. 다른 한편 전학해 가는 사람, 가정형편으로 자퇴한 사람, 낙제한 사람 등 탈락자도 적지 않았다. 특히 길영희 교장의 엄격한 평가 방침으로 낙제자가 비교적 많았는데 낙제하고도 계속 다닌 사람도 있었으나 대부분이 타고로 전학 가버렸다.

(2) 月尾島와 仁川閣

한국전쟁전의 인천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인천을 상징하는 것 두 가지를 들라면 월미도와 인천각을 들 것이다.

월미도는 관광지로서 널리 알려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인천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품과 같았다. 해방직후 한동안 미군이 사용하여 출입이 일부 제한되었으나, 그 후 개방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인천 사람들의 산책지로서 사랑을 받았다. 필자가 북성동에 살았을 때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송월동으로 이주한 다음에도 월미도 산책을 자주했다.

울적할 때나 공부에 지쳤을 때 파도소리를 들으면서 월미도 산책을 하고나면 머리가 개운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얼마 전에 앨범정리를 하다가 인천중학교 동기생 몇 사람이 소월미도에서 찍은 사진을 보고 고민이 많았지만 즐거웠던 시절을 회상해 보았다.

월미도는 많이 변형되어 옛날의 모습을 전연 찾아볼 수 없기는 하나 그래도 아직 남아 있기는 하다. 그러니 지금은 그 형태조차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인천각 「뽕죽집」이다. 만국공원 제일 높은 곳에 우뚝 솟아 있었던 인천각은 서울의 63빌딩과 같이 인천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발견하는 상징물이었다. 특히 바다로 인천에 입항하는 사람들이 멀리서 인천각의 뽕족집이 나타나면 인천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덕적도(德積島) 등에 갔던 사람들이 배 위에서 인천각 뽕족집이 보이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필자는 중학교 5학년(현재의 고등학교 2학년) 때에 학교에서 여름에 덕적도에 해양훈련을 간 일이 있다. 여름이 다 지나갈 무렵이어서 밤에는 텐트 속이 추워서 새벽에는 추위에 떨었고, 강훈으로 배도 고픈 때가 많아서 모두가 집에 돌아가기를 학수고대했다. 마침내 훈련이 끝나서 인천으로 돌아오는데 배 위에서 인천각 뽕족집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자 모두가 함성을 지르면서 기뻐했던 기억이 난다. 그런 인천각이 1950년 9월 연합군의 인천상륙시 인민군이 인천각에서 저항을 했든지, 함포사격과 폭격에 의해선지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려 애석하기 그지없다.

(3) 卒業과 進學

전술한 바와 같이 인천중학교 우리반은 해방전 인천중학교에 입학한 몇 몇 사람과 해방 후 편입학한 학생들로 구성된 이질적인 집단이었다. 그리하여 한때 40명 정도에 달했던 학급이 전학, 낙제, 자퇴 등으로 1949년 6학년 졸업할 때에는 25명에 지나지 않았다. 길교장의 엄선과 철저한 교육으로 입학시험 준비를 별로 하지 않았으나 전원이 대학에 진학했다. 필자는 졸업할 때에 경기도지사상을 받았으며 부상으로 상아 도장도 받았다.

필자는 중학교 3·4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의과대학이나 공과대학에 진학할까 생각했다.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원자폭탄의 영향을 들 수 있겠다. 미국이 일본의 廣島와 長崎에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써 일본 본토까지 사수하겠다는 일본이 무조건

행복한 사건이 어린 필자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자연과학이 정치를 굴복시켰으며 앞으로의 세계는 자연과학이 지배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둘째는 페니실린의 발명이다. 1946년경까지만 하더라도 페니실린은 한국에서 만병통치약으로 생각되었다. 어린 학생이었던 필자는 페니실린의 발명으로 인간의 대부분의 질병은 다 극복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의학의 발전에 경탄을 금할 수 없었다.

셋째로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담임을 맡았던 박 선생님이 수학 시간에 필자에게 자연과학을 전공하면 우수한 과학자가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오랫동안 필자에게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필자는 고급중학 4학년(지금의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의과대학이나 공과대학에 진학하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5학년 때부터인가 의과대학이나 공과대학 보다는 법과대학에 진학하겠다는 쪽으로 선회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친구인 김성훈 군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 김성훈 군은 법과대학을 졸업하여 유능한 변호사가 되어 불우한 사람들을 변호하겠다는 결심이 일찍부터 확고하게 서 있었으며, 필자에게도 법과대학에 같이 가자고 꾸준히 권유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필자도 김성훈 군과 같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심하고 수험준비를 서두르게 되었다. 입학시험이 다가와서 우리 25명의 인천중학교 졸업예정자들은 지망대학을 선정했는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지망자는 김성훈 군과 필자 외에 두 사람이 더 있어 4명이었다. 입학시험날 필수과목은 그럭저럭 넘어 갔는데 선택과목이 문제였다. 김연선 군 한사람만 독일을어를 선택하고 나머지 3명은 심리학을 선택했는데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되어 심리학을 선택한 사람들은 고역을 치렀다. 필수과목에서 점수를 잘 맞은

덕택인지 4명 전원이 합격의 행운을 얻었다.

4. 法科大學 時節

(1) 入學과 韓國戰爭

이와 같이 1949년에 법과대학에 입학한 필자는 인천에서 통학했으며 다음 해인 1950년에 2학년에 진학했다. 1학년은 영어, 국어, 문화사, 경제학 등을 위시한 교양과목이 많았으며 전공과목은 헌법, 형법, 민법 등 몇 과목에 지나지 않았다. 2학년부터는 전공과목 위주였으며 본격적으로 법률공부에 몰입하려고 하는데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한국전쟁 중에는 미 해병 제1사단 제1 Shore Party 대대의 통역으로 한 1년 정도 근무했다. 인천에서 미 해병대에 들어가 이 부대와 함께 元山에 갔다가 咸興에 올라갔으며, 미군이 후퇴할 때 마산에 와서 잠시 쉬다가 중부전선으로 올라갔다. 필자는 한 1년만에 인천 집으로 왔다가 미 육군의 트럭 운송부대 한국인 총책임자로 몇 달 근무했다.

이때에 모교인 인천중학교 길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 모교에서 서양사교사로 교편을 잡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다. 즉석에서 면접시험을 보시더니 만족하셨는지 시간강사 발령을 내주셨다. 이리하여 법과대학 재학 중에 인천중학교 교사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는 동안에 부산에 다녀온 사람들에게서 대학들이 부산에서 개교했으며 빨리 복학하지 않으면 졸업이 늦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부산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하였다. 법과대학에 등록하고 졸업하기 위하여 학점을 열심히 취득했다. 학교에서는 우리와 같은 복학생들에게 한 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수를 크게 늘려 주었다. 공과대학에 다니는 동생과 둘이서 자취를 시작했는데, 처음 한 학기를 東

大新洞에서 방을 얻었으나 방학 때에 이집에서 철수하고 다음 학기 부터는 아버지 친구인 부산고등학교 교장 金夏得 선생 누이동생 집에 방을 얻어 부산에서 서울로 철수할 때까지 자취를 했다.

(2) 高試合格

부산생활의 특징은 한 마디로 말해서 열심히 고시 공부하는 일이었다고 하겠다. 도서관이 별로 없었으므로 방과 후에는 학교 빈 교실에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 열심히 공부했다. 방학 중에는 동생은 인천 집에 가고 없었으므로 혼자서 밥해가며 공부했다. 한국전쟁 중 2년 정도 책을 놓았다 나서 그런지 공부가 더 어려웠다. 1953년 여름 방학 중 처음에는 집에서 밥해먹고 15분 정도 걸리는 학교에 갔으나, 나중에는 학교 근처 식당에서 밥을 사먹고, 담요를 가져다가 학교에서 자면서 공부했다. 시험을 앞둔 막바지에는 하루 4시간 정도 자면서 최선을 다했다. 시험을 부산에서 보았는데 발표는 환도 후 서울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다. 대학도 서울로 올라갔으므로 시험이 끝난 다음 인천 집으로 돌아갔다.

일요일 아침이었는데 고등학교 후배이며 법과대학 후배인 龍文植 군이 인천 집으로 찾아왔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 전날 예정보다 일찍 고등고시 합격자 발표가 있었는데 필자가 합격했다는 것이다. 그 후배는 자기의 합격여부를 알고 갔는데 자기는 불합격이었지만 선배인 필자가 합격한 것을 보고 기쁜 나머지 아침 일찍 찾아왔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하여 어렵게 제5회 고등고시 행정과에 합격했으나 이런 저런 이유로 공무원은 하지 않고 대학원에서 법학석사를 받은 후 서울 대학교에서 행정대학원 설립을 위한 교수요원을 미국 미네소타대학에 파견하는 계획에 선발되어 1957년 미국 유학을 떠났다.

5. 大學校授生活

(1) 교수생활의 시작

미네소타대학에서는 3년 정도 걸려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다음, 논문까지 쓰고 돌아가는 것으로 예정하고 모든 것을 진행했다.

그러나 1959년 4월에 개교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은 제1학기 과목은 사전에 귀국한 사람들과 외부강사로 담당교수를 충당했으나, 9월에 시작하는 제2학기 과목부터 담당교수 충원에 문제가 있다하여, 법과대학장과 행정대학장을 겸하고 계시던 申泰煥 원장이, 1959년 5월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우리들에게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하면 논문 쓰는 것은 뒤로 미루고 귀국하라는 소환령을 내렸다.

이리하여 우리들은 종합시험을 보고 1959년 8월 말에 귀국하여 9월에 시작되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제2학기 강의부터 담당하게 되었다. 함께 귀국한 朴東緒 교수와 필자는 전임교수 발령 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강의에 전념했는데, 그 당시에는 조교수 발령도 대통령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1959년 12월 19일에 조교수 발령이 나와 비로소 안정된 마음으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2) 博士論文

1959년 8월에 귀국하여 9월부터 강의와 외부출강에 바빠 쫓아다니다가 미네소타대학의 Short 교수의 추천으로 하와이의 동서문화센터에서 시작한 국제발전페로십(International Development Fellowship)을 받게 되었다. 이 페로십은 미국 대학에서 소정의 과정을 끝내고 논문 쓰는 것만 남은 발전도상국 학생이나 발전도상국에 관해서 논문 쓰기를 희망하는 미국인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1963년 하와이에 건너가 약 3개월 체류하다가 미네소타에 가서 논문을 마치고 1964년 6월에 다시 하와이에 와서 잠시 체류하다가 7월 4일 귀국했다. 1964년 7월 16일자로 된 Ph.D. 학위기는 그 후 우편으로 수령했다.

(3) 敎務課長과 院長 職務代理

논문쓰고 귀국한지 얼마 안되어 행정대학원 金曾漢 원장의 권유로 1964년 7월 24일자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무·학생과장에 취임했다. 교무과장 재임 중에 「논문 제출에 관한 세칙」을 제정했는데 이 세칙은 오랫동안 행정대학원의 내부 규칙으로 채택되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65년 말 김증한 원장의 행정대학원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원장 문제가 대두하였다. 그 당시 행정대학원 내부에서 원장이 나오기는 이르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외부에서 다시 영입할 수밖에 없었는데 행정대학원의 교무학생과장이었던 필자는 예산국장재무부차관대사 등을 역임한 함흥 永生中學을 졸업한 李漢彬 교수를 劉基天 총장에게 추천했다.

그러나 여러 여건이 잘 맞지 않아 이한빈 교수는 연세대학교에 적을 두고 하와이에 있는 동서문화연구센터의 선임연구원으로 떠나게 되었으며 그동안의 공백을 메우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유기천 총장이 행정대학원의 정교수 몇 사람과 협의한 결과 교무학생과장이었던 필자를 원장 직무대리로 임명했다.

이한빈교수가 하와이에서 돌아오고 연세대학교에서 노임을 받은 후 행정대학원에서는 이한빈교수를 행정대학원 교수로 특별채용하는 절차를 밟았으며, 그것이 끝나자 대학본부는 1966년 11월 1일자로 이한빈교수의 행정대학원 원장 보직 발령을 내게 되었다. 이리하여

필자는 36세의 젊은 나이에 1966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개월간 행정대학원 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유기천 총장은 이한빈 교수를 행정대학원 원장으로 임명함과 동시에 필자를 대학 본부의 교무 부처장으로 임명했다. 학생시위가 격화하자 유기천 총장의 사표가 수리되고, 상과대학장인 崔文煥 교수가 총장으로 임명되었는데 필자는 유기천 총장의 사임과 동시에 교무 부처장을 사임했다.

(4) 著書의 刊行

필자는 1960년부터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저서를 내기 시작했는데 1960년에는 중앙대학교의 白尙健 교수, 尹天柱 교수 등과 공저로 『행정학 강의』를 출간했다. 필자는 이 책의 「재무행정론」을 담당했다. 학계의 대선배 중에 교과서 저술을 미루다가 나중에 자기 능력이 명성을 따라가지 못한 분들의 경우를 거울삼아 부족하지만 교과서를 일찍 내기로 결심하고 법과대학 동기 동창인 법문사의 金性洙 사장(작고)을 찾아가 교과서의 출판을 부탁했다. 김성수 사장이 흔쾌히 승낙하여 행정학원론에 착수하게 되었다.

행정대학원 학생들의 교재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1960년 1학기에 만든 프린트와 『행정학강의』의 재무행정론 등을 토대로 하여 1961년 5월 『행정학원론』을 간행했다. 그 후 1963년 8월 『재무행정론』을 단행본으로 내놓았으며, 1968년에는 『공기업론』을 간행했고 1973년에는 박영사에서 『예산제도론』을 발간했다.

1960년대 후반부터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형성론이라는 과목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교재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6명교수의 공저로 1976년에 『정책학개론』을 간행했으며, 1982년에는 공저자의 구성에 다소 변동이 있었으나 다시 6명의 공저로 『정책학--과정과 분석』을

내놓았고 1986년에는 단독 저서로 『정책학원론』을 간행했다. 이 밖에도 2009년까지 여러 권의 저서를 저술했는데 상세한 것은 생략하기로 한다.

(5) 教授協議會 副會長

필자의 대학교수 생활에 있어서 특기할 사건이 많으나 지면이 한정된 관계로 한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그것은 1973년 4월부터 3년 정도 재임한 교수협의회 부회장이다. 1973년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장에 당선된 柳達永 교수의 요청으로 교수협의회 의 현안 사업인 교수아파트 문제를 담당하기로 하고, 교수협의회 부회장을 맡기로 하였다.

필자는 이때부터 주택공사와 계속적인 접촉을 가지면서 교수아파트 문제를 풀어갔다. 朴正熙 대통령이 주택공사에 서울대학교 교수들에게 300세대의 아파트를 지어주도록 지시하였는데, 300세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할 수 없어 우선 주택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신대방동의 대지 3,170편에 25.7평형의 아파트 130세대를 건축하기로 하였다. 입주희망자를 모집하여 신대방동 아파트문제는 해결되었다.

다음에 170세대를 건축할 부지를 주택공사 崔周鍾 사장과 필자가 물색하고 다녔으나 마땅한 대지가 없자, 주택공사측에서 반포에 건설중인 주공 아파트 중에서 170세대를 특수분양 할 수 있다는 제의를 해왔다. 필자가 관계자들과 협의한 끝에 이 제안을 받기로 하였으나, 문제는 반포아파트의 특수분양이 건설부의 승인사항이라는 것이다. 필자가 대학 후배이고 고시 후배인 건설부의 정재석 차관에게 간청을 해서 특수분양에 관한 승인을 얻어냈다. 그 다음에는 교수들이 원하는 용자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남았다. 주택공사를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을 융자해줄 용의가 있는데 이것도 건설부 승인사항이라는 것이다. 이 역시 정재석 차관의 배려로 해결하였다.

서울대학교 교수들은 구반포에 건립되는 32평형 아파트에 세대당 200만원의 융자와 대통령 하사금 50만원의 혜택을 받아 입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1인당 250만원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입주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교수들이 많아 170세대 전부를 소화하지 못하였다.

(6) 院長과 停年退任

전술한 바와 같이 필자는 1966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는데, 꼭 10년 후인 1976년 11월 26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에 취임하였다. 필자가 취임하기 전에 신설된 행정학 박사과정의 교과과정을 정비하고 박사과정 재학생들이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다음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거쳐야 할 종합시험제도를 정비하는 등 행정학 박사과정에 관한 준비를 마쳤다.

다음에 행정학과 단일과로 되어 있던 행정대학원에 정책학과를 신설하고 교수정원을 늘리는 등 행정대학원의 확장에 힘쓰게 되었다. 대학 본부와 교섭을 버렸으나 정책학과의 설치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정책학 전공의 설치에 만족하여야 했다. 덕분에 교수정원을 늘려 원장재임 중에 5명의 교수를 신규 채용했다. 1982년 12월 6년간의 원장임기를 마치고 평교수로 돌아갔으나 연구와 저술에 힘써 1994년 정년퇴임까지 2권의 단독 저서를 간행했다.

1994년 8월 말 35년의 대학교수 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임하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되었다. 1959년 동승동 캠퍼스에서 대학교수 생활을 시작했으나 1975년 3월 서울대학교가 관악캠퍼스로 이전함에 따라 정년퇴임은 관악 캠퍼스에서 했다.

보청기에 대한 불평

朴 鎰 忠 (31回)

충주호 유람선을 타 볼 생각으로 아내와 함께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택시를 잡고 그다지 멀지 않은 동서울 터미널을 향해서 1킬로미터쯤 갔을 때 나는 “아차, 보청기를 두고 왔네!”라고 했다. 그러자 아내는 “어떻게 하지요! 집에 돌아갈까요?” 한다.

“돌아가긴 뭘 돌아가. 당신이 하는 이야기에 들을 게 뭐가 있다구. 다른 여자하고 간다면 또 모를까!” 했다.

그러자 앞의 30세쯤 되어 보이는 운전기사가 힐끗 뒤돌아 보면서 “히, 히, 히이익!”하고 처음은 웃음소리 같았지만, 끝에 가서는 비명 같은 소리를 내는 것이었다. 그는 그런 불손한 말을 한 내 처지가 걱정이 되었는지, 혹은 한 순간 내가 아니라 자기가 그런 말을 하고, 또 뒤에 앉아 있는 할머니는 자기 아내 같은 착각을 하고, 이제부터 벌어질 불상사에 겁을 집어먹은 것인지도 모른다. 아내는 나의 그런 망언, 폭언에 일일이 신경을 썼더라면 이 나이까지 살 수 있었을 것 같으나 하듯이, 남의 일처럼 “그래, 다른 여자와 갈 때에는 잊지 마세요!”하고 받아넘긴다. 그러자 운전기사도 이제 마음이 놓이는지 안도하는 표정으로 “두 분 재미있으시네요!” 한다.

다음 두 인물은 청각에 장애가 있다. 한 사람이 낚싯대를 맨 다른

사람을 만나자 묻는다.

“낚시하러 가는 길이야?”

“아니야, 낚시하러 가는 길이야.”

“그래! 나는 또 낚시하러 가는 길인 줄 알았지.”

제법 우스운 이야기지만 최근에 청력이 아주 나빠진 나는, 이 두 사람이 이런 말을 주고 받을 때 속으로 자기가 동문서답, 판소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얼마나 불안해했을까를 잘 안다. 그들 같은 불안감 때문에 사실 나는 요새 사람들이 뭔가를 나에게 물어오는 것이 두렵다. 나의 대답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 같으니 말이다.

커피숍을 경영하는 아주머니, 45세는 넘은 것 같지만 아직도 아름답다. 어느 날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것을 보고 내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을 보더니,

“베르사체에요. 좀 야해 보이지요? 제 나이에 어울리지 않겠어요”하고 묻는다.

나는 “예”한다.

다음은 어쩐지 “예”라고 하면 정답이 아닐 것 같아서

“헬스클럽에 나가서 땀을 많이 흘렸더니 요새는 살도 좀 빠졌어요. 전보다는 좀 말라보이지요?”

“아니, 아니요!”

위의 물음들의 정답이 모두 반대임은 물론이다. 그리고 여성들의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진실은 무엇이든 절대로 답을 틀려서는 안 된다.

친구들이 모이는 자리에선 나는 자연히 침묵을 지키는 일이 많아졌다. 무슨 말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괜히 끼어들면, ‘이 친구는

아까부터 동문서답에 똥판지같은 소리만 하네! 치매에 걸렸나?’ 하는 오해를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안 하다 보니 한때 나는 그들에게서 ‘점잖아졌다.’ ‘제법 인격자가 되었다’는 평을 듣게 되었다. 그건 누가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는데 내가 부처님같이 평화로운 표정과 미소만 짓고 있었기 때문이란단다.

침묵 이외에 몇 번 해본 방법은 나 혼자만 떠들어대고 남에게는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다. 이런 때는 말을 중단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이 입을 열지 못하게 한다. 실수로 틈을 주어서 상대방이 말을 하게 된다 해도, 말의 내용을 내가 정하고 있으니 저쪽에서 나올 말은 추측이 가능해서 대개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본래 체력, 정력이 약한 나에게는 여간 고되지 않다는 것이 난점이고, 또 혼자만 떠들어대면 동석한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된다는 점 때문에 결국 그만두고 말았다. 식견도 대단치 않은 주제에 화제를 독점하려 드는 인간에 대한 증오가 대단한 것을 깨달았기에.

당신, 자꾸만 잘 들리지 않는다고 녀두리를 늘어놓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보청기 쓰면 되지 않느냐고 하실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보청기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보청기는 고장 난 라디오처럼 잡음만 많고, 주위의 자동차나 중장비의 기계소리는 엄청나게 크게 들리게 하지만, 사람의 음성은 제대로 들리게 해주지 않는다. 안경을 쓰면 근시, 원시, 난시 할 것 없이 모두 잘 보이게 되는 것과는 다르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보청기라는 것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눈치채기 위해서 하나의 단어, 키워드라도 잡아볼까 해서이다. ‘우리 회사 보청기 기가 막히다, 최신기술이다’하는 광고가 많이

난다는 것 자체가 보청기라는 것이 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 회사 안경 기가 막히다, 잘 보인다’하는 광고는 세상에 없지 않은가.

이런 주제에 무척 비싸서 귓속에 넣는 디지털 보청기는 3백만 원이나 한다.

약 3개월 전에 나는 보청기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사실은 그때 보청기에 관한 에세이를 쓰려고 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겨 에세이 내용이 전혀 판판이 되고 말았다.

그때 그것을 잃었을 때 나는 방안 구석구석을 살살이 살펴보고 침대 밑에 머리를 처박고 회중전등으로 비춰보고, 서랍 속에 있는 것들을 모두 방바닥에 털어보고, 밤에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호주머니 속을 손가락으로 훑어보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런데 한 일주일쯤 지나서 지하철 역 계단을 내려가다가 호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손가락 끝에 뭔가가 닿았다. 그때의 그 황홀한 감촉! 그리고 그때 내가 생각한 것은, 그 호주머니에는 열 번도 더 손을 넣어보았지만 분명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홀연히 보청기가 출현하였으니, 이걸 필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넣어주셨다는 것이었다. 바로 그때 이 에세이를 쓰려했고 그 글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의인(義人), 선인에게 베푸시는 섭리가 이다지도 은혜롭고 오묘하다는 내용을 담으려고 했다.

그런데 그 후 보름도 채 되지 않아서 일은 고약하게 되고 말았다. 이번은 정말로 그 보청기를 잃어버리고 만 것이다. 그래서 그 쓰려던 에세이도 그 고상한 내용을 담을 수 없게 되고 말았다. 화가 나 죽겠는데 그런 고상한 글이 나올 수 있겠는가. 지금도 그 보청기에

관련해서 하나님과 선인, 의인의 관계를 생각해 보려 하면 머리가 혼란스러워져서 뭐라고 했으면 좋을지 통 모르겠다. 이 에세이도 이 부분을 쓰는 것이 제일 어려워서, 몇 번을 고쳐 썼는지 모른다. 그래도 혼란 속의 장고 끝에 얻게 된 결론은 선인이나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잃어버린 보청기 돌려주시는 일 따위)은 틀림없는데, 문제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정한 그 의인, 선인의 기준에 달했느냐 하는 것이다.

얼마 되지 않는 액수지만 마누라는 세계적인 자선단체에 매월 기부하고 있지만 (이건 내가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것만 가지고는 아무래도 선인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고, 또 의인에 관해서 말한다면 나 자신은 그런 것이 되어 볼 기회도 별로 없었다. 의인 하면 지금도 머리에 떠오르는, 지난 번 대통령 선거 때의 그 가짜 의인에 대해서는 친구들과 “그 테이프는 조작한 게 틀림없고, 테이프 조작은 곧 들통이 나게 되어 있어. 내 말이 틀리나 두고보라구. 이런 조작을 하는 자들은 워터게이트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무식쟁이들이야.” 하고 비난했는데, 가짜 의인을 비난했다 해서 비난한 사람이 자동적으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 선인 의인되기에는 나는 역시 자격미달이다. (그 의인 이야기는 더 쓰지 않는 게 좋겠다. 그는 선거 때 수감 중인데도 검찰 병역비리 수사팀에 끼어서 활약하였다니 교도소 출입은 자유자재인 모양이고, 지금도 수감되어 있다 해도 ‘잠깐 다녀와야겠다’하고 나에게 찾아올까 무서워서이다.)

그 후 최고품 아닌 것도 2백만 원 가까이하는 보청기를 또 산다는 것이 억울해서 좀 싸게 사는 방법이 없나 하고 알아보았더니, 이비인후과에 가서 검사를 받고 청각장애가 있다는 판정을 받으면 국가

에서 다소 보청기 구매 보조금이 나온다는 것이었다. 그렇지, ‘국가가 그 정도의 배려는 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지난번에는 정보력이 약해서 바보처럼 전액을 다 주었구나’ 생각하면서 병원을 찾았다. 이 비인후과에서는 공중전화 부스 같은 곳에 나를 들여보내더니, ‘이제부터 여러 가지 소리를 보내니까, 들릴 때마다 내손에 쥐어준 리모콘 버튼을 누르라!’ 한다. 삐- 삐- 좀 약하게 삐- 약하게 붕- 강하게 붕 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버튼을 눌렀더니 실망스럽게도 경도난청이라는 판정이 나왔다. 측정을 담당한 레지던트는 난청자로서는 관록이 모자란다고 우습게 보는 투로 그 정도로는 구호대상은 어렵도 없다, 구호대상자가 되려면 앞으로 나이도 귀도 10년은 더 먹어야 될 거라고 하는 것 같았다. (이 부분 잘 들리지 않았음). 실망을 안고 병원 문밖을 나오면서 나는 ‘삐- 붕- 이 들렸을 때 괜히 버튼을 눌렀다, 들려도 가만히 있을 걸 그랬다. 나는 항상 그 허영심이 문제다’ 하면서 자신을 나무랐다.

다음에는 보청기 회사로 갔다. 청력검사 결과 때문에 기분이 고약해진 나는 처음부터 시비조가 될 수 밖에 없었다.

“전번에는 정가라고 하는 값 다 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싸게 해주셔야겠소. 얼마요?”

“특별히 170에 해드리지요.”

“도대체 콩알만한 놈이 왜 그렇게 비싸요? 그거 금으로 만들어요,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요? 걸은 플라스틱으로 콩같이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칩을 넣었을 뿐인데...” 칩이 뭔지도 모르면서 당신들 만드는데 물건 별거 아니라는 것 다 안다 하는 투로 압력을 가했다.

“그 칩이 외국에서 비싸게 수입하는 것이라서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또 본사에서 만드는 것이고 하니 저희 지사에서 마음대

로 가격을 깎을 수도 없구요.”

“덩치도 모양도 그럴 듯하고 부품이 수백 가지나 든 텔레비전도 50만원이면 살 수 있는데 콩알만한 보청기 가격이 그렇게 비싸다니 이게 말이 돼요?”

“그게 부가가치란 거죠.”

“뭐라구요. 바가지라구요. 바가지란 건 아는구만. 미국에서는 보청기를 처음 살 때 등록을 시키고 그 후엔 보청기를 분실해도 등록번호만 대면 무료로 새것을 주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뭐난 말이요. 또 보청기회사와 정부가 어떻게 짜가지고 이러는지는 모르지만 중증(重症)이 아니면 보조금도 줄 수 없다니! 이런 엉터리 복지정책이 어디 있소? 중증이 된 후에 보청기 끼워봤자 무슨 소용이요? 그때 가면 보청기가 아니라 보청기 할아버지를 끼운다 한들 소리가 들리겠느냐 말요!”

“경증도 구호대상에 넣으면 국가의 부담이 너무 커져서 그렇겠지요.”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요, 국가에서 좀 보조해 준다고 안 사용해도 될, 멀쩡한 사람들이 일부러 그 비싼 보청기를 사서 귀에 끼울 것 같소? 보청기가 무슨 다이아몬드 귀고리라도 된단 말요?” 이 날 나의 주장은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로정연(理路整然)했다.

그 사장도 나의 이론에 감명을 받았는지, 아니면 앞으로도 자꾸 잃어버리고는 찾아올, 그래서 놓치고 싶지 않은 봉으로 보았는지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으나 잠시 후 음성을 낮추면서 속삭이는 시늉을 하면서 깎아줄 금액을 말했다. 나는 난청이 되면서 목소리가 커졌고 또 그는 나 같은 사람들만 상대하니까 소리 지르는 것이 버릇이 되어버려서, 그가 이때 속삭였다 해도 그건 남들에게는 고통 소리로

밖에는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튼 그가 속삭인 값은 깎았다고 할 수도 없는 액수였다. 그러나 그가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세요”라고 했을 때 옛날부터 어떤 속삭임이든 속삭임에는 무척 약한 나는 그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내가 이번에 얼마로 샀건 보청기 값이 너무 비싸고, 난청자들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 지금 보청기가 필요해도 구입할 엄두도 못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데 생각이 미쳤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 노인들이다. 나는 업자들의 가격인하와 국가의 실질적인 보조를 얻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다, 만년에 한번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해야지. 내 사진이 신문에 크게 나고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그리고 “한국 사회운동사” 같은 책이 있다면 그 책에도 보청기 운동가로서 나에 대한 언급이 몇 줄 나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얼마동안 나는 황홀경을 헤매고 있어서 운동의 구체적인 계획을 짜지 못했다. 좀 지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실천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으나 그게 또 영 잘되지 않았다. 그 흔한 운동권도 한번 못해 보았으니 경험부족으로 계획이 잘 짜여질 리가 없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상의하는 K선생에게 점심을 사면서 보청기에 관한 캠페인을 하고 싶은데 하고 고견을 청했다. 이분은 나의 중학교 2년 선배로 약 5년 전에 고교 교장을 정년퇴직했지만 지금도 책 많이 읽고 생각도 여간 깊지 않다. 이분의 두뇌의 명석함과 판단의 정확성에 대해서 나는 언제나 감탄해 마지않는 바지만 한 가지 불만은 이분이 나의 면전에서 나를 함부로 망신 주는

어휘를 종종 쓴다는 점이다.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나자 그는 빙긋이 웃으면서 “생각은 좋소만 우선 그 운동을 추진할 동지들을 어떻게 규합하느냐가 문제요. 그 운동의 잠재적 동지들은 대부분 노인들이고 또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분들일 거요. 종묘 근처에 가면 좀 모을 수 있겠으나 글썄, 하나의 세를 형성할 정도가 될까? 다행히 동지들을 모을 수 있어서 쫄기대회를 열게 된다 해도 문제는 간단치 않을 것 같소. 구호를 외친다고 해도 모두 귀가 시원치 않으니까 리더가 선창하는 구호도 제대로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구 말이오. 옹지, 리더가 깃발을 신호로 쓴다? 그래서 빨간 깃발 들면 “타도하자” 노란 깃발 들면 “인하하라”라고 외친다? 또 보통 노동조합에서 투쟁대회를 할 때에는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른 애들이 공영방송의 저질 오락프로에서처럼 무대 위에 올라가 꺽충 꺽충 춤을 추는 것이 통례이고, 옛날부터 푸닥거리를 해야만 기세가 오르고 신이 나는 민족이니 그런 춤꾼들도 있어야 할 것인데 동지들이 모두 나이가 많은지라 이것도 잘 될 것 같지 않군.”

한 가지씩 검토 분석해 나갈수록 막연한 생각이 들어 짜증이 났는지 여기서 또 K선생의 나쁜 버릇이 나왔다. “당신 몇 달 조용하더니 또 씩치(등신을 뜻하는 함경도 방언)같은 생각을 하고 있군!” 그에게서 이 말을 들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도, 지금 다시 듣자 나는 마음이 크게 동요하고 잠시 멍해져서, 그 이름을 대면 그가 조건반사처럼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한 인물의 이름을 불쑥 입 밖에 내고 말았다.

“종로 xx보청기에 가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회사 보청기를 사서 사용한다고 그분의 사진이 걸려있는데, 그를 고문으로 추대하고

대회 때는 연단 위에 모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분도 보청기를 쓰니까 동병상련이라고 우리 처지를 이해하고 기부도 좀 해주실 지도…”

이 말을 듣자 K선생은 버럭 화를 내면서 “또 언디(바보라는 뜻의 함경도 방언) 같은 소리하네. 그 양반 모시겠다하면 종묘근처의 동지들은 대부분 싫다고 달아나버릴 거요. 그가 보청기를 샀다구? 글썄, 보청기 값은 냈을까? 그와 기업의 관계로 말하면 그는 항상 받는 쪽이었지 주는 쪽은 아니었지 않소. 그가 기부해줄지도 모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참, 기부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그 운동의 자금은 어떻게 하겠소? 돈 대줄 기업도 없을 게고… 당신 사재를 털겠소? 당신한테 무슨 돈이 있다고”

이상과 같은 K선생의 비관적인 견해와, 야단치는 것 같은 어조와, 더군다나 두 번이나 나를 씩치, 언디라고 하는 말을 듣자 나는 풀이 죽었고, 결국 나중에는 도대체 내가 그런 운동같은 걸 꿈꾼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는 생각과, 마침내는 큰 죄라도 지은 것 같은 기분이 되는 것이었다.

(<http://ilchoong.com.ne.kr>)

健康과 물

林 浩(31回)

1. 물의 중요성

사람 몸속에 오염된 물과 공기, 자외선, 방부제, 소독약, 살충제 등의 나쁜 환경이 좋은 환경에서의 신진대사 때보다 더 많은 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노폐물이 더 많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배설되지 못한 노폐물은 부득이 고체화되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몸속 어디에서 조금씩 쌓이게 된다. 배설되지 못한 산성 노폐물의 적립과정이 바로 우리 몸이 늙어가는 과정인데 각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서 노폐물을 적립하는 곳이 다를 수 있다. 어디에 노폐물을 적립하는냐에 따라서 무슨 성인병이 발생하느냐가 결정된다. 노폐물이 적립되지 않는다면 늙지도 않을 것이다. 이 산성 노폐물을 중화하여 배설을 촉진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알칼리 환원수이다. 알칼리가 산성을 중화시킨다는 것은 이미 상식적인 사실이며 학술적으로는 일본 큐슈대학에서 임상실험으로 증명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연세대의대 교수로 계시는 김현원 박사께서 “물의 신비”라는 책에서 이미 소개해 준바 있다.

2. 허준선생의 교시(동의보감)

① 사람들이 물을 흡수하는데 이것은 물이 하늘에서 생긴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다.

② 사람마다 건강과 수명이 다른 이유는 마시는 물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허준선생은 물의 종류가 33가지가 있으며 약을 달이는 물도 새벽, 낮, 밤 등의 샘물을 사용 환자 치료에 활용했다.
- 우리가 마시는 물이 이렇게 건강과 수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좋은 물-알칼리성 환원수를 열심히 마셔야 한다.
- 몸속에서 독소와 노폐물들이 배설되지 않고 쌓이면 ㉠ 두통, ㉡ 피로, ㉢ 통증, ㉣ 거친 피부 ㉤ 만성질환 ㉥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③ 사람의 몸은 저녁 8시~새벽 4시 사이에 혈액과 영양분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④ 새벽 4시~낮 12시에 노폐물이 많다 <이 시간에 많이 마신다>
낮 12시~밤 12시 사이에 소화효소분비가 가장 왕성하다.

- 물은 잠자리에 들기 전과 아침에 일어난 직후 공복상태에서 마시면 특히 좋다.
- 밤새 위벽에 쌓여있던 노폐물을 씻어줘 위의 활동을 촉진시키며 식사 30분 전에 알칼리성 환원수를 1컵 마시면 위액을 분비시켜 식욕을 도와준다.

3. 어떤 물이 몸에 좋은 물인가?

- 좋은 공기를 마시면 가슴이 상쾌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처럼 좋은 물은 갈증해소, 수분공급 이외에도 인체에 유익한 역할을 한다.
- 세계의 장수촌에 있는 물은 좋은 물도 유명하다는 것에 비워볼 때 물은 건강과 분명한 연관관계가 있음을 할 수 있다.

- 좋은 물이란?

물분자(water molecular structure)의 크기가 작고 미네랄과 활성수소 육각수를 풍부하게 함유한 물, 체액과 같은 약 알칼리성을 띤 물로,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을 공급하고 각종 질병과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힘을 가진 물을 말한다.

- 기적의 샘물로 알려진 프랑스의 루르르 샘물, 독일 노루데나우의 물 또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활성수소가 풍부한 물로 이미 널리 알려진 바 있다.

4. 인체는 물 덩어리!

인체는 물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

- 태아=99%, 신생아=90%, 젊을때=70%, 중년=65%, 노년=60%
※ 그 이하로 수분이 떨어지면 사망에 이른다.

- 장기의 물분포 비율

폐와 간=86%, 뇌·심장·근육=75%, 신장=83%, 뼈=22%, 혈액=83% 인체의 수분을 70%로 볼때 인체 중요 장기는 수분이 더 많은 물덩어리라는 것을 알수가 있다.

-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수분(물)이 산성화(PH7.0) 이하로 떨어지면 각 장기의 기능이 떨어져 질병 및 만성질환, 성인병이 걸리기 쉽게 되는 산성체질이 된다.
- 수분이 부족하면 몸속에 노폐물과 독소가 쌓여 각종 질병이 발생한다.

5. 물로 인체를 치료하는 병원(일본/참고)

- 일본에는 현재 4개소의 물 치료병원이 있으며 환자에게 약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알칼리 이온수”만 마셔서 치료를 하고 있으

며 그 효과도 매우 좋다고 한다. (한국에도 불원간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

일본 물치료 병원; (일본에서는 매우 유명한 병원임)

- ① 아가이시(明石)병원
- ② 교와병원(協和)
- ③ 고베병원(神廳)

6. 물에 관하여 선후배께 꼭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위에서 이미 소개해 드린 좋은 물(알칼리 환원수)을 꼭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강하신 분은 계속 건강을 유지할 것이고 혹시 몸이 불편하시거나 병으로 다소 고생하시는 분도 많은 물을 계속 복용하시면 꼭 회복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드시는 양은 : 하루 건강하신 분은 약 2ℓ /약 8~10컵 드시면 되고,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서 좀 고생하시는 분은 하루 약 15 컵 정도의 물을 드시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확인합니다.

저주의 38선은 이렇게 확정되었다

韓 東 相 (32回)

일본제국주의 식민지하에서 수 많은 우리나라 애국지사들이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며 독립운동과 무장투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 스스로가 독립을 쟁취하지 못하고, 미·소 두 강대국의 힘에 의하여 해방되므로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또 다시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들 강대국들의 손아귀에서 그들 마음대로 결정 짓는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한반도의 38도선에서의 분단은 미국이 먼저 소련에 제안했으며 소련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확정되었다.

미국과 영국, 소련은 전후 세계 세력권재분할 목적으로 1945년 2월에 흑해 크레미아반도의 얄타에서 회담을 개최하였다. 이때는 독일이 항복하기 전이며 또한 원자탄도 만들어지기 전이었으므로 독일이 항복하는데는 앞으로 1년반 이상인 1947년 중반까지 갈 것이라고 연합군에서 예측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회담에서 미국은 소련의 대일본 공격을 원했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일본 본토 공격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한반도에 있는 약 70만의 일본군을 일본이 본토에 재 배치하는 것을 소련군이 만주와 한반도를 공격함으로써 그것을 막아주어 미국이 일본 본토를 공격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다. 당시 미국은 일본 규슈 상륙작전을 그해 11월 1일 실시할

것을 계획하였다. 미군의 손실을 막기 위해 소련군의 대일 참전을 제의했으며 그것을 참작하여 작전이 짜여져 있었다. 이에 스탈린이 독일이 항복한 후 3개월내에 대일 참전을 할 것을 미국에 약속하자 미·영연합참모부는 소련이 되도록 빨리 대일전에 참가해 주기를 원했다. 1944년 11월에 열린 테헤란(Tehran) 회담에서는 시한을 제시함이 없이 독일이 항복하면 소련군이 대일전에 참전하겠다고 말했으나 이번 회담에서는 3개월이란 시한을 못 박았다. (독일은 1945년 5월 중순에 항복하였다.) 그러나 당시 소련군은 자기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하여 일본이 항복하기 얼마전인 8월초에 일본에 선전포고 한후, 중국북방의 만주와 한반도 북방의 청진항과 라진항에 상륙하면서 일본이 자랑하던 관동군을 격파, 무장해제 하면서 파죽지세로 남하 하고 있었다. 곧이어 소련군은 평양, 함흥, 원산을 점령하고 계속 남하하자, 이러한 전황을 검토하고 있던 미국무성과 국방성관리들은 이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수일내에 한반도 전체를 점령, 소련군이 한반도를 독차지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차단하기 위해 한반도의 북위 38도선에서 남하하는 소련군을 저지할 것을 고안하고, 이 묘안을 트루먼 당시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리처드 휠란(Richard Whelan)이 쓴 “한국전쟁과 38선긋기”(The Korean war, 1950~1953, Drawing the Line)에는 한반도를 반세기 이상(현재는 65년 이상) 갈라놓고 있는 38선이 도대체 어떠한 경위로 생긴 것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는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일본군의 항복교섭이 들어온 바로 1945년 8월 10일 밤이었다. 미국무성, 국방성과 해군성 조정위원회가 전황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대책회의를 하고 있을때, 그 회의에 참석하고 있던 두 젊은 대령, 즉 후에 미군 참모총장이 된 ‘찰스 본스틸’(Charles H. Bonesteel) 대령

(정책과장)과 훗날 국무장관이 된 ‘딘 러스크’(Dean Rusk) 대령이 한반도 지도를 펴놓고, 북위 38도선에 잣대를 정지시킨 후 38선이 대략 한반도의 중간쯤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를 자르자’고 말했다고 한다. 38선 이남에 한국수도 서울이 있게 되어 미국으로서는 만족스러웠다.

본스틸대령의 처음 구상은 가능한 한 소련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의 범위까지 북으로 경계선을 39도선까지 그으려 했다. 그러나 그는 미군이 남한에 도착하기 전에 소련군이 한반도 최남단까지 점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때 미군은 한국에서 600마일이나 떨어진 오키나와에 있었다. 소련군은 그때 일본군을 무장해제하면서 물밀듯이 한반도를 남하하고 있는 중이었고, 소련군 제25군의 일부 부대는 이미 38선 가까이에 도달하여 수일내에 서울을 점령할 태세에 있었다. 미군은 아직 한반도에 상륙할 준비가 안되어 이쯤 상태에서 그러한 제안을 소련에 하는 것은 소련의 한반도 독점을 막고, 미군의 희생없이, 소련군을 38선에서 묶어두는 것이, 당시 미국으로서는 전술상 최상의 묘책이었다.

38선 분할안이 잠정적으로 확정된 일반명령 제1호는 본스틸과 그 일행에 의해 완성되었고 8월 11일 이른 아침 합동기획처로 넘겨져 토의 되었다. 이렇게 해서 확정된 38선이 포함된 일반명령 제1호는 마침 일본이 1950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하자 트루먼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미국은 이 일반명령 제1호를 즉각 소련 스탈린 수상에 보냈으며 미국은 그의 회답을 긴장속에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중 8월 16일 스탈린은 의외로 별다른 이의가 없다는 답신을 보내왔다. 사실 당시의 전황으로 봐서 소련군은 마음만 먹으면 수일내에 한반도 전체를 점령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제안에 스탈린이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은 우려하고 있었다고 한

다. 그러나 스탈린은 예상외로 쉽게 동의 하더라고, 미국무성 비망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은 소련군이 38선까지의 진군을 약속해 놓고도 부산까지 계속 진격하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하였으나 그들은 약속대로 38선에서 멈춰섰다. 우리민족에게 민족분단의 아픔과 국토분단으로 인해 야기된 민족상잔의 비극과 고통의 멍예를 안겨 주었던 38선의 분단은 이렇게 비교적 간단하게 그어졌다.

던 러스크와 본스틸대령의 아이디어에서 38선 분단이 창안되었지만 미국은 어떻게 하면 한반도 전역을 소련군의 점령으로부터 최선의 방책으로 막아 볼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며 초점은 그곳에 맞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이 운명적인 38선을 확정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단 30분이었으며, 이 30분이 우리 민족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던 것이다. 우리 한반도에서 비극적인 민족상잔의 6:25 동란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과 소련이 그어놓은 이 38도선에 의한 남북분단과 미군과 소련군의 남북 분할 점령으로, 정치적으로 남과 북에 서로 다른 두 친미, 친소정권이 수립됨에 따른 필연적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38선에서의 분단은 이 땅의 주인인 우리 민족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들 강대국들의 손에서 간단하게 그들의 편리대로 결정지어지는 비극적인 분단선이 되고 말았다. 그 결과 우리 민족은 65년 동안의 기나긴 민족분단의 아픔과 민족분열의 고통을 안게 되었으며, 지난 한국전쟁과 같은 동족상잔의 비극적 참상을 겪게되었다.

역사적으로 분석해 보면,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의 고통은 알고 보면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이조말엽에 거슬러 올라가 외세의 존자들에 의한 당파 싸움과 이로 인하여 국방에 소홀하고 국력이 쇠퇴하고 약해지므로서 주변의 강대국들의 침략야욕을 불러 일으켰으

며 결국 일본제국주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그 역사적 배경의 여파로 오늘날 계속 한반도의 분단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헐어빠진 옛 한반도 지도를 앞에 놓고 한참 쳐다보다가 북위 38도선이 대략 한반도의 중간쯤으로 된다고 지목하고 오일 펜으로 38도 선상에 일직선으로 그은 두 대령중의 한사람인 던 러스크(후에 국무장관)는 후일 1990년 1월, 한국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38도선을 기준으로 한 미·소 분할점령 방안은 결국 미국무성과 국방부 사이의 타협의 산물이었다. 38선을 그은 것은 비교적 간단했다. 거기에는 아무 복잡한 장애가 있을 것이 없었다. 서울 이북에서는 38선 밖에 발견하지 못한 우리는 다시 회의실로 돌아와, 38도선을 미군과 소련군의 분할선으로 건의했으며 그것이 그대로 채택되었다. 그 선이 결국 한반도의 장기적인 분할선이 되어 버렸고, 영구적 분단으로 이어졌다.”

이 저주의 38선이 훗날 한국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고, 만리장성보다 더 튼튼하고 난공불락의 철책 휴전선이 될줄이야 그 누가 알았으랴! 지도상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은 선 하나 때문에 세계 수십개 나라가 서로 치열하게 싸운 동서냉전의 국제적 전투장이 되었고, 막대한 재산피해와 수백만의 젊은이들과 무고한 백성의 피가 이 땅위에 뿌려졌다. 그러므로 다시는 이땅 위에서 그러한 비극적인 동족상잔의 전쟁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다. 전쟁의 비참함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필자로서는 우리 후대들에게 또다시 한국전쟁과 같은 동서냉전의 대리전 비극의 참상을 경험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일념에서 남북한의 화해와 평화 그리고 나아가서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전쟁은 과거 6.25전쟁과 같은 구식전쟁이 아닐 것이다. 고도로 발달한 현대무기의 가공할 파괴력은 순식간에 한반도 전체를

폐허로 만들 것이며, 따라서 인명피해는 상상 초월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 한반도에 또다시 동족상잔의 전쟁이 발생한다면 국토가 초토화되어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나라중의 하나가 될 것이며, 그것을 다시 복구하는데는 또다시 수십년의 세월이 소요될 것이다. 우리 남북한은 이념의 차이를 넘어 서로 화해하여 그 어떠한 대가를 치루더라도 전쟁의 대재앙만은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다.

홍남 대철수 작전

韓 東 相 (32回)

<눈물의 홍남부두>

Almond 중장 휘하의 미 제 1해병사단과 X US군단이 함경남도 북부 장진지방에서 한만국경으로 진격하고 있을때 그해에는 유난이도 산에 눈이 많이 내리는 혹한의 겨울이었다. 압록강을 건너온 중공군 12만 병력의 제 9군단과, 인민군 2개군단이 합세하여 미군과 유엔군을 포위 공격하였다. “미 제1해병사단은 제2차대전때 태평양에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풍부한 전투경험을 가진 우수한 미군전투부대였다. 함경남도 북부 산악과 고원 지대인 장진지방의 하갈우와 고토리에서 미공군기들의 폭격지원을 받아 잘 싸웠으나, 숫적으로 우세한 중공군과 인민군에게 포위공격을 당해 악전 고투끝에 겨우 빠져나와, 많은 희생끝에 퇴각을 시작하여 미국 군사역사상 최악의 패전이며 최악의 피해를 입었다”고 미군사역사가인 로이 애플맨(Roy Appleman)이 말하였다.

홍남 대철수작전은 12월 하순의 엄동설한에 함흥을 거쳐 홍남에 후퇴한 미군과 한국군을 홍남부두에서 1백32척의 미해군함정과 민간선박으로 전쟁물자와 9만명의 피난민들과 함께 후송한 대이동 작전이었다. 이것이 세계적으로 그 유명했던 소위 홍남 대철수 작전이라고 이것은 미군역사상 최대의 군 철수작전이었다. 후퇴 직전에는 약

59만 톤의 폭약을 흥남공장들과 시내에 장전하여 흥남시대 거의 전체를 폭파했다. 아울러 약 9만1천명의 함흥과 흥남지방의 피난민들을 부산과 거제도 지방에 미군함정과 민간수송선으로 후송했다. 이 흥남철수작전은 도일(Doyle) 미 해군 제독이 총지휘하였다.

후송된 피난민의 숫자 : 흥남부두에서 9만1천명 성진부두에서 1만2천명 합계 : 10만3천명 이었다.

그리고 흥남과 성진사이의 여러 포구와 해변가에서 개인 어선들을 타고 남하한 피난민들의 수는 약 10만명이다. 흥남 철수 작전에서 병력외에 차량 1만3천여대, 연료 2만9천여 드럼, 탄약 9천여통 등 6만톤의 화물과 군사장비까지 싣고 떠났다.

흥남부두가에는 피난민들의 대열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러나 미해군 수송선마다 미군병력과 장비를 먼저 싣고 남은 빈칸에 피난민들을 수용했기 때문에, 차례를 기다리다 배에 타지 못한 가족끼리 서로 헤어져, 수송선이 차례로 떠날 때마다 떨어진 사람들과 어린아이들은 발을 동동 굴렀으며 가족들끼리 서로 이산가족이 되는 찰라 흥남부두는 눈물바다가 되었다. 부모형제가 서로 떨어져야 하는 이산가족들의 슬픈 현장이었다. 가까스로 배에 올라타긴 했으나, 부두에 남은 부모형제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는 어린 소년 소녀들도 많아 그야말로 부두는 눈물바다로 변하였고 그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굳세어라 금순아”의 한국 유행가요는 이 눈물의 이별장면을 노래한 것이다. 그런가하면 배를 타고 멀어져가는 부모형제들을 서로 바라보며 울부짖는 광경을 많이 볼 수 있었으며 울부짖다가 선창가에서 차가운 바닷물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많았다. 바닷물에는 많은 시신이 보였으며 차마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없는 이별의 참상이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잠시만 남한에 피난갔다 오면 고향

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또한 국군들이 그렇게 말하고 권유하므로 앞으로 있을 미군의 폭격을 피하여 아무 부담없이 고향을 떠났는데 그 무정한 세월이 근 60년이란 세월이 부질없이 흘러갔다. 이들 피난민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었고 무슨 정치적이고 사상적 이유에서 보다, 첫째, 그동안 미군기들의 폭격에 너무 시달려 폭격 노이로제에 걸려 미군들의 철수 후에 있을 미공군기들의 폭격과 원자탄을 피하기 위해서 임시적 피난을 했으며, 둘째, 한국군 군인들이 뼈라를 뿌리면서 피난갈 것을 적극 권장했다. 그들이 말하기를 “미군과 한국군이 후퇴한 후에 대규모 폭격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전세가 불리하면 미군이 원자탄도 사용할 것이다. 살기 위해서는 남한에 잠시만 피난갔다 오면된다”라고 권유하므로 그 말을 믿고 피난민들은 안심하고 노인들과 어린 아이들은 집에 남겨 놓고 고향을 등지고 임시로 남한으로 피난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그 남겨두고 온 부모형제와 어린 자식들과 뜻밖에 이산가족이 되어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가슴에는 두고 떠난 자식들과 부모형제의 그리움과 죄책감에 멍들어 있다. 물론 미국의 국력과 현대화된 미군의 군사장비들을 보고 미군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작용한 것도 사실이었다. 그리고 공산주의 북한이 싫어서 피난 나온 사람들도 있었다. 아마도 북한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의 사정이 대략 거의 비슷했으리라고 생각된다. 미공군기들의 폭격이 워낙 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폭격노이로제에 걸려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잠시 동안만 남한에 피난갔다 오면 되겠지 하는 생각에 노인들과 어린 아이들만을 집에 남겨 놓고 귀중품과 재산목록을 장농속에 넣고 열쇠를 잠그고 떠난 그 세월이 어언 60년이 흘렀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이산가족이 되어 부모형제와 두고 온 어린자식들의 생

사조차 모르고 지낸 지난 60년의 세월이 이산가족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하고 원망스럽기만 하다. 나 자신 역시 부모형제와 떨어진 이산가족의 한사람으로, 그들 이산가족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더구나 그 이산가족 중의 많은 사람들이 남북한을 막론하고 이제 연세가 많아 이산의 한을 품고 이미 고인이 된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 2006년 대한적십자사의 통계에 의하면 이산가족 면회 신청자수가 처음에 12만9천명이었는데 그동안 5만9천명 이상의 신청자들이 이미 사망하여 고인이 되었으며 매년 더 많은 신청자들이 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년뒤에는 이제 이산가족이란 말과 단어조차 없어질 형편에 놓여 있다. 참으로 원망스럽고 가슴 아픈 일이다. 하루 속히 더 많은 숫자의 이산가족들이 상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염원한다.

당시 미군과 한국정부 당국에서 될 수 있는대로 많은 숫자의 북한 주민들을 남한에 피난 갈것을 권장한 것은 순수한 인도주의 면에서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그 실은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북한 정권을 등지고 대한민국에 넘어 오므로서 북한 공산정권에 인적타격을 주고 또한 자본 민주주의가 공산 사회주의 체제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전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 또한 그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될 수 있는대로 많은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피난하기를 권장했다고 미국 역사학자 Malkasan은 그의 저서에 솔직하게 기술하고 있다.

實錄小說 〈北韓38度線〉 顛末記

鄭 源 石 (32回)

小説 <北韓38度線>은 少年 빨치산 成日耆를 主人公으로 하는 實錄 小説이다. 2006년에 上梓되었다.

筆者에게 白色 빨치산(KLO, 서울의 중학교동창) 酒友가 있는데 還 都後 一週日에 두어 차례 만났다. 그때부터 同席한 寡黙한 少年이 바로 이 主人公이니 그와도 50년 酒友인 셈이다. 그는 左翼이라고 해서 그저 反共 捕虜쯤으로만 알고 지냈으니 참 명칭하기 이룰데 없는 일이다.(便宜上 少年이라고 하나 그는 1933年生이다.)

어느날 新聞에 ‘金正日의 妻男이 서울에 산다’는 記事가 나면서 그는 一躍 有名해졌다. 그의 正體가 들어나 人氣가 上昇하자 그의 이야기를 쓰겠다고 나선 作者가 十指를 넘었다. 그러나 新聞이 시들 해지니 쓰겠다고 作者들도 슬그머니 다 물러서 버렸다. 그런데 한번 傳記 이야기가 나더니 少年이 몸이 닳아, 애꿎은 나를 붙잡고 너박에 기댈 데가 없다며 보챘다. 내가 그중 얼뜬하게 보였던 모양이다. 만날 때마다 懇請을 되풀이하니 意志薄弱한 筆者는 할 수 없이 受諾하고 말았다. 그는 당시 地下室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를 地上生活로 끌어올린다면 좋은 일 하나 한다는 생각이었으니 역시 세상을 쉽게 보았던 탓이다. 내가 勤務하는 病院 길 건너 회추막에 당골 순대국집이 있었다.

筆者와 少年은 每日 만났다. 술꾼이 술집에 앉았으니 用談은 5분 만에 끝났다. 받아쓰기란 지루하고 재미도 없어서 몇 마디 캐묻다가 집어치웠다. 그래도 어느 時點에 와서 內容을 檢討해보니 이것은 單純한 例事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야기가 波瀾萬丈하여 처음에 간단한 戰記나 쓰려했는데 大河小說 자료인 것이다. 그럴 時間도 끈기도 없어서 實錄을 固執하였다.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라서 속아낸 것이 뒤에 가서 중요한 내용임이 밝혀져 追加하는 일이 허다했다. 일단 글을 마치고 보니 反共主義者가 써서 그런지 김이 썩 내용이 되고 말았다. 苦肉之計로 빨갱이 공부를 시작하여 빨갱이 立場에서 써서 겨우 마무리가 됐다.

資料收集에 만 6년, 마무리에 5년이 걸렸으니 記述하는 文章에도 時差가 나타날 만큼 긴 歲月이었다. 이미 假綴本이 近代韓國 解放前後史 論文에 引用된 바 있다. 빨치산 關聯資料로서 이만큼 充實한 教本은 아마 없을 것이다. 筆者는 事實을 確認하고 考證하기 위해서 現地踏査를 했고 當時 社會風俗圖를 가능한 한 敷衍하는데 留意했다. 이 小說의 德目は 居住地가 다르고 體制가 다를 뿐 그들도 同族이며 다만 그들의 統治者가 同胞로 扮裝한 ‘反民族的’ 人物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다. 그는 鎖國主義와 獨裁로 無辜한 同族을 失明시켰다. 斷絶된 民族을 反間하여 憎惡케 하고 人倫마저 破壞했다. 北韓의 同族들은 오직 飼育中인 奴隸일뿐이다. 南韓에도 그들과 接觸하여 나라를 팔아 私服을 채운 惡德業者가 있다. 南美의 마약 밀매업자를 뽑치는 不逞首長이 지금 代를 이어 盛業하고 있다. 그들에 대한 微溫的인 處斷은 그들의 不正을 通過 儀禮로 定着케 할 분더러 그들의 追從者를 鼓舞시키고 繁殖시킬 뿐이다. 南北 共히 最高統治者(現在 또는 過去)는 모든 橫領疑獄에 대해서 潔白해야 하며 그들의 不正에 대해서는 時效없이 平生 追窮되어야 한다. 反民族·拜金主

義 首長에 限해서 一事不再理의 惠澤도 例外的으로 없다. 有罪가 確定되면 無條件 孤島에 圍籬安置시킨다는 立法을 서둘러 遡及適用해야 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慶尙南道の 한 大地主 一家의 沒落史를 從으로 南勞黨의 運命的인 肅淸과 越北한 文化人들의 悲慘한 自滅을 背景 삼았으나 그 焦點은 6·25戰爭이 결코 北侵이 아니며 南侵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있다. 參戰國의 主要機密文書의 公開 및 要人들의 回顧錄도 大충 出版되어 南侵이 確證되었건만 아직도 解放戰爭을 云云하며 북한을 事大하는 左派敎授와 그 追從勢力을 滅種시키지 못하는 事實은 한 마디로 屈辱이다. 보호받을 價値가 있는 人權이라야 人權인 것이다.

黃昏의 삶을 더욱 豊饒롭게(1)

宋 榮 達 (33回)

人生 80은 막바지가 아닙니다.

아침에 뜨는 해가 燦爛하긴 하지만, 夕陽에 지는 해도 아름답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哺乳動物 중 가장 壽命이 긴 人間의 腦는 大概 25歲까지 成長합니다. 大部分 動物의 限界壽命은 腦 成長期間의 5배이므로

$25 \times 5 = 125$ 라는 等式이 나옵니다.

30年 以上을 人間의 老化에 대하여 研究中이신 美國TEXAS州立大 老化研究所長 劉秉八博士도 “125歲까지 걱정말고 살아라”고 力說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20~30年은 어떻게 사시렵니까?

2~30年은 웬만한 사람들의 一生일 수도 있습니다.

自身이 ‘늙었다’고 認定하는 사람이 ‘늙은이’ 입니다.

마음이 늙으면 몸도 더 빨리 늙기 마련입니다.

“男子는 마음으로 늙고, 女子는 얼굴로 늙는다”라는 英國의 俗談이 있습니다.

黃昏에도 熱情的인 사랑을 나누었던 괴테(1749~1832)는 老年에 관한 有名한 말을 남겼습니다.

老年의 삶은 喪失의 삶이다. 그러나 늙어가면서 健康과 돈, 일과

親舊, 그리고 꿈을 잃지않는 限 黃昏도 豐饒로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孟子 (BC372~289)는 老年人生의 세가지 즐거움으로

첫째는 本人은 물론 家族들이 다 健康한 것이요

둘째는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는 것이요

세째는 天下의 英才를 얻어 教育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또한 秋史體로 有名한 阮堂 金正禧(1786~1856) 역시 세가지 즐거움을 말했습니다.

첫째는 一讀이라, 책 읽고 글 쓰고 恒常 배우는 선비 精神을

둘째는 二色이라, 사랑하는 사람과 변함없는 愛情을 나누고

세째는 三酒라, 벗을 請해 술잔 나누며 世上과 人間事 얘기하며 歌舞와 風流를 즐기는 것이라 했습니다.

勿論, 사람마다 살아가는 生活의 PATTERN이 다르고 思考方式이 달라 老年의 追求하는 즐거움을 이것이다 라고 똑 잘라 正義하긴 어렵겠지만, 나 나름대로의 즐거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 첫째는 健康, 健康하지 못하면 人間事 끝장이다. 온 家族의 健康을 함께 즐기는 것이요

두번째는 讀書와 趣味活動으로 꾸준히 自己啓發을 하며 꿈을 잃지 않고, 繼續的인 知的 活動으로 腦를 젊게 하는 것이요

세번째는 親舊와의 持續的인 사귄이니, 무료함, 외로움을 가시게 하는 스스럼없는 親舊와 함께 술, 道樂 등을 비롯한 風流를 즐기는 것이요

네번째는 사랑이다. 죽을 때까지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사랑이며, 사랑에는 精神的인 애뜻한 사랑도 重要하지만 肉體的 사랑, 즉 SEX를 진솔하게 즐기는 것의 兩面性을 잘 調和시키면서 즐기는 것

아울러 마지막으로 남을 配慮하면서 謙遜한 삶으로 品位를 維持하며 사는 즐거움일 것이다.

“주름살과 함께 品位가 갖추어지면 尊敬과 사랑을 받는다”라는 빅톨 유고의 말처럼 더더욱 멋지고 堂堂하게, 謙遜한 마음의 香氣와 人品의 薰氣가 自然스럽게 우리나라는 黃昏의 삶을 알차게 가꾸어 나가도록 합시다.

2009. 2. 平愚 宋榮達

子息을 위한 祈禱文(2)

世界2次大戰의 英雄 맥아더將軍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靑春이란 人生의 어느 期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樣相을
말한다.

薔薇의 모습 붉은 입술, 날렵한 손발이 아니라
凜凜한 意志, 豊富한 想像力, 불타는 精力을 말한다.”

라는 첫 句節과

“머리를 높이 들고,
希望의 波濤 위에 올라 있는 한
八十歲라 할지라도,
그대는 靑春으로 끝날 수 있다.”

라는 마지막 句節로 이뤄지는 SAMUEL ULLMAN의 詩

“靑春 “原文 中間에 自作詩句
“사람은 信念과 더불어 젊어지고
疑惑과 함께 늙어 간다
確信과 더불어 젊어지고
恐怖와 함께 늙어 간다
希望과 더불어 젊어지고
絶望과 함께 늙어 간다”

라는 한 句節을 插入하여, 自己 冊床 앞에 붙여놓고 아침저녁으로 暗誦하였다 함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 맥아더장군의 子息을 위한 祈禱文은 너무 가슴을 때리는 懇切한 祈禱文이다. 한 人間으로 태어나서 다음 祈禱文의 內容대로 살 수만 있다면 그는 幸福하고 보람있게 산 사람이 아닐까 한다.

<저의 子息을 이러한 人間이 되게 하소서

弱할 때 자기를 잘 分別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을 勇氣를 가지고, 正直한 敗北에 부끄러워 하지 않고 泰然하며, 勝利에 謙遜하고 溫柔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僥倖과 安樂의 길로 引導하지 마시고 困難과 苦痛의 길에서 抗拒할 줄 알게 하시고 暴風雨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며 敗한 者를 불쌍히 여길 줄 알도록 해 주소서.

그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目標는 높게 하시고, 남을 다스리기 前에 自身을 다스리게 하시며, 未來를 指向하는 同時에 過去를 잊지 않게 하소서.

그 밖에 유머를 알게 하시어 人生을 嚴肅히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自己自身을 너무 드러내지 않고 謙遜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고 참으로 偉大한 것은 素朴한 데에 있다는 것과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銘心하도록 하소서.

그리고 그의 아비인 저는, 헛된 人生을 살지 않았노라고 나직이 속삭이게 하소서.>

*** 우리가 젊었을 때 많이 들어 본 이야기이지만 나이 들어서 다
시 吟味해 볼만하기에 보내드립니다 ***

2008. 9.

平愚 宋榮達 드림

통한의 흥남 대탈출

朱 宣 淳(33回)

수도 서울의 아침은 질주하는 차량의 홍수에서 시작하여 현란한 자동차 헤드라이트와 네온의 불빛 속에 밤이 깊어간다. 하늘을 치솟는 수 많은 빌딩 숲 속을 헤치며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이리저리 밀려가고 밀려오며 저마다의 생활궤도를 따라 바쁘게 움직인다.

어언 간에 궤도에서 벗어난 나는 오늘도 숨을 몰아 쉬며 뒷동산 오솔길을 거닐고 있다. 서산에 지는 낙조는 가도 가도 따라오는 미련이 아쉬워 오늘도 붉게 노을 지는 것일까. 지나온 발자국들 뒤돌아보면 탄식과 눈물이 고여 있구나. 인생의 운명과 갈림길은 모름지기 기로마다의 스스로의 판단과 용기 있는 선택이 그 향방을 결정하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믿음과 노력이 그 성패를 가늠하리라. 내 생애 가장 잊을 수 없는 중대사건은 흥남 탈출이다. 청천벽력 같은 6.25동란으로 모든 것은 풍비박산 바람과 함께 살아지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열아홉 나이에 부모님과 생이별하고 기약 없는 방랑의 길로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의 후손들이 전쟁세대가 걸어온 통한의 길을 다시는 걷지 않기를 염원하며 소중한 기록들과 가슴에 묻어온 추억을 더듬어본다.

미 동부 노포크시에 소재하는 맥아더 기념관에는 흥남탈출에 관한 전쟁사료가 수 천건 있는데 그 중에는 흥남 철수작전 책임자인 에드

워드 알몬드 미 10군단 사령관과, 민사고문관인 현봉학 박사의 보고서가 영구보존 되어 있다 한다. 맥아더는 상륙작전 전문가들로 미10군단을 편성하고, 그가 신뢰하는 알몬드를 사령관으로 임명하여 20%의 가능성 밖에 없는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킨다. 1950년 9월 28일 서울을 탈환한 맥아더는 알몬드에게 미10군단을 이끌고 한국군과 함께 함경도 지역으로 진격하도록 명령한다. 국군은 1950년 10월 17일 미군은 10월 28일 함흥에 입성하는데, 11월 20일 이승만 대통령의 함흥방문에 즈음하여 알몬드는 영어가 유창한 현봉학을 미10군단 민사 고문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두 사람의 운명적 만남이 시작된다. 미10군단 선봉부대는 험난한 삼수갑산 길 320km를 영하20도의 강추위 속에 주파하여 백두산 영봉 밑 국경 혜산진을 수복함으로서 북진작전의 절정을 이룬다. 11월 30일 국군3사단 22연대는 혜산진을 인수한다. 장병들은 강 건너 만주별관을 향해 만세삼창을 불렀다. 미제1해병사단 2만 여명은 북진을 계속하여 장진호 계곡에 들어섰으나 3개사단 10만 명의 중공군 인해전술에 포위되어 영하30도의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6,0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미해병대 전사상 최악의 전투로 기록을 남긴다.

중공의 모택동은 1950년 10월 19일 이미 압록강 도강명령을 내리고 18개 사단 20만 명이 넘는 정규군은 험준한 삼악계곡을 따라 동진하며 접근하고 있었던 것이다. 중공군 제3야전군 9개 사단 일부는 낭림산맥을 타고 내려와 동부전선과 원산지구 육로 연결을 단절시켰다. 맥아더는 중국 본토 폭격과 중국연안 봉쇄를 주장했으나 워싱턴의 생각은 달랐다. 12월 10일 미 해병대 7사단이 장진호 계곡에서 간신히 빠져 나왔다. 전황은 급변 되었다. 알몬드 군단장은 예하 전부대에 철수 명령을 내렸다. 철수기간은 1950년 12월 14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함흥 서호진 항에서의 철수순서는 미제1해병사단, 한국

군 수도사단 미7사단, 미3사단 순으로 하고 함흥교두보 확보를 위해 3중 방어선 편성, 미5공군의 출격 엄호 등이 하달되었다.

미군철수와 함께 북한 땅을 탈출하려는 피난민 수가 늘기 시작했는데 5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중공군 12개 사단과 인민군 2개 군단이 함흥 흥남 교두보를 압박해 왔고, 흥남 앞 바다에서는 미군함의 함포사격이 계속되고 함재기의 기총사격,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아이들과 여자 등 수많은 피난민들이 영하 20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미군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고 굶주림과 싸우며 며칠씩이나 부두 가에서 떨고 있었으나 승선은 허락되지 않았다. 알몬드 사령관의 작전참모이며 미 해병대에서 가장 탁월한 수륙양용작전 전문가인 에드워드 포니 대령은 흥남철수를 위한 모든 과정을 계획했는데 그는 절친한 미10군단 현봉학 민사고문관을 가장 많이 도와주었다. 두 사람은 함께 알몬드 사령관에게 민간인을 꼭 탈출시켜야 한다고 간곡히 설득 하였다. 배를 잘 아는 포니 대령은 LST수송선에 군수물자를 먼저 싣고 그 여유공간에 피난민을 태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포니대령의 제안은 피난민탈출의 방법을 찾고 있던 알몬드 사령관에게 결정적 도움을 준다. 알몬드 사령관은 12월 14일 드디어 피난민을 배에 태우기로 결정한다. 미국 5개 사단 8만명과 한국군 2만 명등 10만 명이 먼저 흥남항을 떠났다. 그리고 98,100 여명의 피난민을 태운 수송선단은 남으로 남으로 항진하여 탈출에 성공했다. 흥남철수 작전에 동원된 선박은 모두 132척이라 하며 동해안 포구에서 민간선박으로 탈출한 피난민을 합치면 20만 명의 민간인이 북한땅을 바닷길을 통해 탈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후일 알몬드 장군은 이렇게 회상했다. 민간인을 구출할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는 것, 상부로부터 아무런 지시나 명령도 없었다는 것, 그리고 피난민을 태울 수송수단이 없었다는 것, 등 어렵던 일을 술회했다.

마지막 수송선이 흥남항을 떠날 무렵 미군 공병대에 의해 구룡리 제련소 굴뚝과 흥남 부두 일대는 굉음을 울리며 폭파되어 버린다. 구약성서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이루는데, 분명 흥남 대탈출은 에드워드 알몬드 장군과 포니대령 그리고 함흥출신 현봉학박사에 의한 놀라운 기적이며 특히 한국의 모세라고 불린 현봉학박사의 동포애와 간절한 기도와 헌신적인 노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세 사람은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며 10만명에 이르는 민간인 구출을 성공시켰고 전후 30년 가까이 우정을 나누었다 한다.

결국 국군과 미군은 6.25당시 불과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북한땅에 진격하여 많은 피를 흘리며 사상자를 내고, 그 댓가로 자유를 갈망하는 북한동포를 공산치하에서 구출하는 거룩한 사명을 완수한 셈이다. 흥남 대탈출의 기적을 이루고 중장으로 예편한 알몬드 장군도, 포니 대령도 지금은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에 잠들고 있으나 그들의 고귀한 위업은 한국 실향민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며 미국 전사에 찬란히 빛날 것이다.

2005년 5월 27일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에서는 “흥남 철수작전 기념 조형물 준공식”이 거행된바 있는데 주최측에서는 알몬드 장군의 손자, 포니 대령의 유족, 현봉학 박사 등 당시의 주인공과 유족들을 초청하여 그 은덕을 기리며 성대한 감사를 표한바 있다.

1946년 9월 관북 지방 명문교인 함중에 입학한 후 눈동자를 반짝이며 학문에 전념하던 학우들은 전쟁이 나자 인민군에 입대하여 죽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 거제수용소에 있다가 다시 북으로 끌려 가기도 하고, 남하 후 한국군에 입대하여 자유수호를 위해 용감히 싸우기도 하고, 팔자 사나운 친구들은 인민군에서 도망쳐 나와 남에서 북으로 총대를 바꿔 메고 총질도 하고, 좌우지간 철없는 나이에 파

란 만장한 가시밭길을 헤매기도 하였다. 1950년 12월 16일 석양이 질 무렵 흥남항을 떠나는 LST 수송선을 타고 남하한 나는 그 후 해군에 입대하여 한국함대 기함에 승선하고 동해에서 작전중인 미7함대에 합류하여 동해 바다를 북상 항진하며 순항경계임무를 수행했다. 달 밝은 밤에는 아득히 보이는 흥남항 육지 저 너머에서 불효자식을 기다리며 외로이 계실 어머니 아버지를 그리며 추위도 잊은 채 몇 시간씩 고향 하늘을 응시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1953년 7월 27일 휴전 후로는 북한 영해에 다시는 갈수 없게 되었다. 많은 격동의 세월들이 흘러갔다. 나는 이제 슬픔과 통한을 접고 감사와 기쁨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겸허히 맞으려 한다. 흥남을 탈출한 실항민들은 억척같이 살면서 자유 대한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의 사랑스런 2세 3세들이 열심히 배우고 일하며 이 땅에 뿌리내려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다. 밤이 가고 새벽이 오면 밝은 태양이 동해수평선에서 힘차게 솟아오르듯 언젠가는 망향의 한을 풀어줄 환희와 영광의 날이 반듯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대 탈출! 그것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절규이다. 1989년 8월 19일 동독난민 600여명이 헝가리 오스트리아 국경을 통해 탈출하던니 동서독은 1990년 10월 3일 분단 45년 만에 통일되었다. 1975년에 공산화되어 패망한 자유 월남은 사이공 함락 후 천만 명 넘게 처형되거나 죽고, 탈출한 109만 여명은 나라 없는 보트 피플이 되어 바다를 떠도는 신세가 되었다. 분단 된지 64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에서는 목숨을 건 탈출이 계속되고 있다.

참고문헌 및 기록물 : 정일권 회고록 6.25비록 “전쟁과 휴전”

KBS수요기획 “한국의 신들러 현봉학과 흥남 대탈출”

사랑과 정

李 七 煥 (33回)

사랑은 인간 세상의 불합리와 부조리를 순화시키며 특히 사랑은 여성에게는 생활의 전부다. 남성은 이 순수한 사랑을 때때로 포용력 있게 받아드려야 할 경우가 생긴다. 이런 경우 주저 말고 화끈하게 받아드려야 한다. 부부간의 사랑에 관해 사람들은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 중에도 “칼지브란”은 “현대인의 성경”이란 책에서 다음과 같이 부부간의 애정을 표현했다.

[그대들의 공존에는 거리를 두라 공간의 바람이 그대들의 사이에서 춤추도록 함께 서 있으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말라]고 충고한다. 누구나 경험했듯이 초혼의 사랑은 열 뭉치로 차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을 하면서 주위 환경에 따라 사랑도 서서히 식어간다. 그렇다고 사랑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나의 결혼생활 50년을 회고해보면 사랑은 정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깨닫게 한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의 진실이다. 사랑은 때로는 육체를 통하여 전달되기도 한다.

어느 목사의 이야기를 귀뜸해 본다. [어느 주일 남편 혼자서 예배를 갔다오더니 그날밤 늦도록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내를 열렬히 사랑해주었다. 1라운드… 2라운드… 오랜만에 기분이 흠족해진 부인은 남편을 보면서 물었다. 당신 오늘 웬일이요? 예배시간에 많이 느꼈

어... 하고 대답한다. 아내가 생각하기는 어젯밤 일이 필시 목사의 설교영향을 받아 느꼈으리라 짐작하고 아내는 비싼 과일 바구니를 사 들고 쏘살같이 목사를 찾아갔다. [목사님 고마워요. 그리고 어젯밤 설교가 참 좋았다죠.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설교였던가요?] 그러자 목사님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아니라는 뜻으로 대답했다. [아닌데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설교였는데요] 아내가 잘못 이해했는가 남편이 잘못 행동했는가 둘 중 하나였을 것이다. 나는 평소에 생각하기를 부부간이 되려면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성격 그리고 사랑과 경제력의 순이다. 사람은 남녀간에 사귀다 보면 시간과 더불어 정이 든다. 어떤 변덕스러운 친구는 말하기를 [나의 변덕과 관한 흥분에도 적절히 맞장구를 쳐주고 내가 평온해 지면 부드럽고 세련된 표현으로 충고를 해주는 아내가 되기를 바란다.]고 한다.

변덕스러운 성격을 가진 남편이 아내에게 화를 내면 현명한 아내는 남편의 흥분을 잘 참아가면서 응대해 준 후 이튿날 평온해지면 부드럽고 세련된 표현으로 남편에게 충고를 해주는 아내가 결국 남편을 압도하고 가정을 평온하게 이끄는 훌륭한 아내다. 옛부터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다]라고 표현했다. 이 말은 지금은 잘 통하지 않는 격언인지 모른다. 그러나 그 뜻은 깊다. 일백번 베어낸 물은 곧 잔잔해 질 뿐 싸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금슬 좋은 아내를 표현하기를 궁핍을 채워주는 식탁 같기도 하고 아늑한 집과 같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어찌 하다가 아내가 친구들과 긴 해외여행이라도 가면 아내가 없는 빈 공간이 선명하게 들어난다. 그 빈자리가 마치 산을 오르는 사람에게 산을 벌판에서 바라볼 때 더욱 그 산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과 같이 너무나 뚜렷하게 느껴진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오직 한 사람과 끊어지지 않는 인연으로 죽기까지 계속되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사람의 마음은 요사스러운 것, 어찌보면 많은 남자들은 자기의 행복만을 추구한 나머지 아내를 자기 삶의 상대역으로만 생각했을 뿐 아내의 삶을 존중하려고 하지 않은 타성이 우리사회를 오랜 세월 지배해 왔다. 어느날 TV인터뷰에서 앵커가 아내에게 물었다. 만약 당신이 이 세상을 다시 산다면 지금의 남편과 다시 결혼해 살겠는가? 했더니 아내는 그 지긋지긋한 남편과 다시 살지 않겠다는 답변이다. 같은 질문을 남편에게 물었다. 남편의 대답은 한결같이 다시 살겠다는 대답이다. 이유인즉 지난날에 아내에게 못해 준 것을 다시 산다면 아내에게 마음껏 위로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 싶다는 것이다. 이것을 들은 아내는 남편의 의외 답변에 멍멍하고 너무 고마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한다. 대부분의 남편들은 아내에게 무관심하기 쉽다.

남편의 무관심은 같이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를 가진 아내에게 일종의 잔혹한 행위다. 만약 지난날을 일방통행으로 살아왔다고 참회한다면 하루 한시라도 서둘러 사랑이 담긴 삶으로 전환해서 끊어지지 않는 정으로 푹푹 뭉친 새로운 인생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두 부부는 그 보금자리 속에서 새롭고 참다운 보람을 다시 찾아 느끼면서 여생을 즐겁게 보내게 될 때 이것이 사랑과정이 서린 진정한 행복이며 참신하고 아름다운 인생이다.

나의 투병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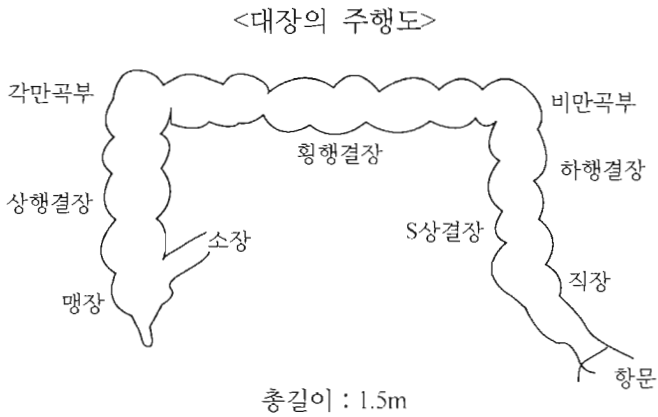
염 창 록 (33회)

나는 두메산골 단천(端川)산이며, 장형(高 昌俊)이 함남도청(월남직 전엔 주북 소재 잠엄시험장장)에 근무했던 관계로 초등학교 4학년때 함흥에 올라와 반룡(錦町)초등학교에 전학하였으며 후에 함남중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반룡지”에 투고할 것이 마땅치 않아 고심하던 끝에 동문 여러분에게도 다소나마 일조가 될것 같아 그간 본인이 겪었던 “대장암”의 쓰라린 경험담을 두서없이 적어 보기로 하였다. 이 글을 쓰면서 「대장암」(저자 : 사하라 리끼사부로 교수)의 책자를 구입, 참조하였다. 지금부터 11년전인 1998년 12월 어느날 고향 친구들과 함께 때때로 즐겨 찾던 동해안 주문진에 놀로 갔었다. 해변가에서 파도치는 바다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회에 젖어 생선회와 술을 즐기고 귀로에는 설악산을 거쳐 탄광지대인 태백시에 둘러 개고기에 소주를 만취가 되도록 마시고 왔던 때의 일이다. 아랫배가 살살 아프고 화장실이 다급한지라 강변역에 내려 터미널에서 배변을 보게 되었는데 뜻밖에 많은 양의 혈변(血便)이 아닌가? 귀가 뒤에도 여러차례 혈변을 보게 되어 최종적으로 서울대학병원에서 내시경검사 결과 “대장암”이라는 진단결과를 확인하고는 본인은 물론, 온가족이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 입원이 쉽지않아 초조하게 기다린 끝에 '99년 2월 22일 서울대학

병원에서 주치의 박재갑 교수(국립암센터 이사장 겸직) 집도로 수술을 받게 되었다. 후에 가족을 통해 수술 경위를 듣게 되었는데 다음 도표와 같이 직장의 조금 윗부분에 암이 발생하였고, 3기의 오래 진행된 상태였지만 불행중 다행으로 수술할 수 있는 부위였다. 직장쪽에 더 내려간 위치에 암이 발생하였더라면 항문을 없애고 인공항문을 달고 살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기에 무척 다행이라 생각된다.

대장의 총길이가 1.5m인데 S자 결장부위에서 3분의 1인 약30cm를 절제 하였다.



취식한 음식물은 소장에서 대부분 흡수되고 남은 찌꺼기는 대장으로 이행한다. 이 찌꺼기는 대장의 시작부분에서는 물렁한 액체상태이지만 대장을 따라 이동하면서 수분은 대장으로 흡수되고 조금씩 단단해져 변과 같은 상태가 된다. 따라서 대장의 주요활동은 수분을 흡수하고 변을 한데 모으는 것이다. 또한 소장에서 미처 소화가 다 되지 못한 것은 대장내의 세균에 의해 분해·흡수되며, 칼륨이나 나트륨 등의 미네랄도 이곳에서 흡수된다. 이렇게 변이 직장까지 도달하게 되면 변의(便意)를 일으키고, 항문으로 배출케 된다. 내가 수술을

받은 뒷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반환자의 경우 수술시간이 2~3시간이면 족한데 나는 무려 8시간이 걸렸다한다. 그 이유는 장을 절개하고 보니 소변을 보는 방광쪽 전립선에 이르는 곳에도 암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그 연결통로 일부도 절단할 필요가 생겨 수술을 일시 중단하고 가족의 동의(아들)를 받고난 후에야 수술을 계속하여 마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환자 본인은 마취상태라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나 간병하고 있던 가족들은 얼마나 초조했을까? 당시의 식구들의 심경에 대해 이 기회를 통해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하고 싶다. 사실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난 후에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이미 꽤 오래전부터 징후가 있었던 것이 떠올랐다.

처음 징후가 있었던 것은 배변습관의 변화였다. 건강하던 때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가서 한번 시원하게 용변을 보아오던 것이 어느 때인가 아침에 용변을 보고 나면 시원치 않고 회사에 출근하여 커피 한잔하고 한참 지나서야 다시 용변을 보게 되는 습관이 생겼던 것이다. 그리고 배변습관의 변화 외에 변의 굵기가 그전에 비해 작아졌고, 때때로 배변에 혈흔이 있어 동네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물어보면, 치질 기운이 좀 있다는 말과 함께 소화제, 지사제 등을 처방해주는 것이 아닌가? 아마도 평소 술을 가까이 하는 습관에서 오는 현상이려니 오판하고, 충남 청양에서 광산을 운영하는 친구에게 부탁하여 “구기자”를 구해서 이를 차로 끓여 먹으면서 스스로 안도했던 것이다.

국무원사무국(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한 수습행정원 시험에 합격, 처음 발령받은 곳이 상공부(광무국)였다. 중석 등의 금속광물과 산림녹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한바 있는 석탄광업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였다. 당시 사회전반의 접대문화가 술좌석을 갖는 것이 관행이었을 뿐만아니라 광업분야야 말로 노가다라 하여 음주습관이 특히 심하던 시기였다. 원래 술에 약한 체질이었던 나로서는 매일 마셔야

하는 술좌석이 그리 즐겁지만은 않았다. 병에 걸리게 된 것이 폭음 탓이 아니었나 추리해 본다. 책에서 기술된 대장암의 초기증상을 보면 설사나 변비같은 변통이상과 혈변, 하혈 등은 대장질환의 중요한 초기신호라 한다. 다만 증상만으로 질병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스스로 판단치 말고 반드시 전문의사의 진찰을 받기를 권유하고 있다. 또한 의심되는 질병으로 장관내의 혹(대장폴립, 대장암 등), 복관내 유착, 장관협착(염증성, 반흔성), 장관 밖에 생긴 혹에 의한 압박 등을 들수 있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가느다란 변도 장관내에 대장암이나 폴립이 생겨서 장관 내부가 좁아진 결과인지도 모르니 전문병원에 가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다. 내가 겪은 바로는 내시경검사가 다소 거북하고 번거로울뿐 견딜만하다. 수술 당시엔 “수면내시경검사”가 보편화 되어 있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모든 종합병원에서 수면내시경검사가 일반화 되고 있다. 동행한 보호자가 모니터 화면에 비치는 장면을 판독토록 하고 장본인은 수면상태에서 아무 고통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대장내시경을 통해서 용종이 발견되면 이를 사전에 제거하면 대장암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장질환의 증가는 식생활의 변화로 지방이 많은 육식습관이 늘어나고 식물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식습관이 줄어들게 원인인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스트레스로 인한 영향도 적지않다.

주치의는 내과 방영주교수(암연구센터 소장 겸직)였는바 본인에게는 좀 미안한 이야기겠으나 그는 환자에게 매우 매정하게 대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소유자로 기억된다. “이전에 비해 많이 좋아졌습니다!”라는 말한마디에 환자는 크게 위로받게 마련인데, 보호자의 물음엔 일체 답변 안하고 몇가지 짤막하게 필요한 사항만 답하는 스타일이었다. 그는 서울의대 수석졸업에 경기고에서는 월반한 수재로 알

려져 있다.

수술 후 회복하는 과정을 두루 적어 보기로 하겠다.

여섯번에 걸쳐 항암주사를 맞았는데 당시 식욕이 없고 체중이 수술전에는 65kg였는데 52kg까지 내려가고 휘청거렸던 일들이 생각난다. 통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여기 저기로 음식점을 찾아다녔을 때의 기억들이다. 한일관에서 냉면, 을지로3가의 을지면옥, 도가니탕이 유명한 서대문의 대성집이며, 추어탕, 해장국집 등이 생각이 난다. 그리고 더욱 견디기 힘들었던 일은 온몸의 관절이 퉁퉁 붓고, 체온이 40도 내외로 오르내리면서 잠을 자지 못했던 일들이다. 뿐만 아니라 조금 피곤하다 하면 궁둥이며, 허리부분에 혹이 생겼다가 며칠 후면 감쪽같이 없어지는 증상이 수시로 나타났다. 네 차례나 병원응급실을 드나들었던 괴로운 순간이 생각난다. 한번은 대전에 사는 장녀(사위는 충남대 임용표 교수)집에 바람을 쐬 겸 나들이 갔던 때의 일이다. 아침에 화장실에 갔는데 어지럽고 현기증이 심하게 나면서 검은색의 변을 보게되어 그날이 마침 명절휴일이었지만 온 가족에게 비상이 걸리고 급히 충남대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결과 심한 저혈압으로 수혈(3병)을 받았으나 온몸의 균형이 안잡혀 부득이 119 앰브란스에 실린채 서울대학병원에 왔었다. 항암주사를 맞는 과정에서 뒤에 언급하게 되는 “루프스”라는 희귀한 병을 얻게된 것이 이때의 수혈과정에서 생긴것이 아닐까 추리해 본다. 수술중이나 응급실에 실려 입원했을 때 대전의 장녀(선혜)가 당시 고2, 중3의 손자들 뒷바라지에 바쁜데에도 모든 일을 사위에게 맡기고 상경, 아내와 교대로 간병했었는데 어찌나 다정다감하게 간병하였던지 주위에서 세컨드가 아닌가 하고 수군대는 해프닝도 있었다. 기왕 가족이야기가 나왔으니 몇가지를 부언해 보기로 하겠다.

장남은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논문 작성 중이어서 내가 귀국

하는 것을 강력 반대하였기 때문에 현지에서 애타게 문병하던 일이며, 차남(성곤)은 당시 직장 일이 바쁜 가운데 일본 유학문제가 결정된 상태였지만 이를 뒤로 미루고 열심히 간병하던 일이다. 후에 일본 동경대학에서의 학위 수여식에 참석하여 여러가지 생각이 교차하여 눈물을 흘렸던 일이 어제일 같이 회상되기도 한다. 아무튼 일단 병에 걸리게 되면 이는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온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리도 클줄은 미처 모르고 살았었다. “건강이 첫째야” 하는 말을 되씹어 보아야 할 것을 새삼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그저 고마웠다는 말밖에 따로 할말이 없다. 최종적으로 판명된 병명은 뜻밖에도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루프스”였다.

보통 이 병은 80% 이상이 여성에게 오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필 나에게 이러한 희귀 질병이 왜 왔는지 지금도 납득이 안된다. 이와같은 희귀한 병을 추가로 얻고 보니 회복하는데 많은 시일이 걸린 것은 물론, 본인이나 간병하는 아내를 비롯한 여러분이 많은 고통을 감내 할수 밖에 없었다. 이 “루프스”라는 질병은 “류마티스”의 일종으로 세균의 감염에 약한 질병(감염되기 쉬운병)인 관계로 병원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문병오는 친구들도 기피하다 보니 가망이 없지 않나? 하고 말하고 다니는 친구들도 여럿이 있었다. 어떤 루프스환자는 손, 발을 쓰지 못하고 모든 것을 타인에게 의존하는 무기력한 병이다. 병의 상태가 각양이고 치료가 어려운 질병인지라 환자끼리 루프스협회를 조직하여 상호정보교환과 상부상조하고 있다. 나는 이런 조직에 가입할 정도는 아니였다. 루프스란 병명이 생긴것은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으나 지금으로부터 13~15년전에 명명된 질병이다. 주치의는 내과의 송영욱 교수였으며 나는 의사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실천하였다. 모범생인 셈이다. 즐겨먹은 음식을 보통의 식사외에 토마토와 야채 그리고 여러 과일을 즐겨 먹었으며 큰 사돈이

보내준 스쿠알렌을 열심히 복용하였다. 생선회와 물고기 등 날것을 피하고 끓여서 먹고 있다. 등푸른 생선을 많이 섭취하고, 동물성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한 것을 피하고 무잎사귀를 말린 씨레기와 된장찌개, 두부, 청국장 등 식물섬유가 풍부한 재래식사를 주로 하고 있다. 개고기가 별세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주위에서 권유하길래 이를 의사에게 문의하였더니 먹지 말라고 하여 현재까지도 일체 입에 대지 않고 있다. 루프스환자는 특히 직사광선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챙이 넓은 모자를 애용하는 습관이 생겼으며, 평소부터 등산을 즐기는 편인 나는 가까운 야산에 등산하는 습관이 일상화 되고 있다. 너무 높은 산에의 등산은 가급적 피하고 몸에 피로를 느끼는 심한 운동도 삼가하라는 주치의의 말도 준수하고 있다. 수술한지 10년이 경과한 작년 3월 20일 진료를 마치고 나서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대장암 절제수술을 집도하였던 박재갑 교수가 내미는 악수에 나는 감동을 받아 그저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남기고 물러섰다. 3년 뒤에 건강검진 견해 오라는 것이었다.

앞에서 말한 “루프스”도 많이 호전되어 거의 정상에 가까워졌다.

장절제수술 이후 일상생활에서 주의할 점을 책에서 발췌해 보겠다.

1. 퇴원후 1개월 정도가 되면 보통환자의 경우는 체력이 거의 일반적인 상태로 돌아온다. 강렬한 운동은 안좋지만 가벼운 작업정도라면 퇴원후 10일 정도가 지나면 할 수 있다. 항문을 부착한 사람의 경우, 무거운 것을 들거나 옮기는 노동을 피하는 게 좋다.
2. 배변시 힘을 너무 주지 말고 변이 너무 딱딱한 경우에는 변비약을 복용토록 한다.
3. 폭음·폭식을 피하고 음식은 70%~80% 정도로 섭취한다.
4. 목욕은 몸의 회복을 촉진시키므로 자주한다.

수술후에 내 신변의 변화된 것은 술·담배를 절대 멀리하는 한편, 새로운 종교를 가지게 된 것이다. 집 사람이 고교시절에 천주교 세례를 받은 신자였지만 결혼 후에는 나와 같이 불교를 믿도록 강요(?)해 왔던 나였기에 투병하면서 인생관이 많이도 변했구나 하고 스스로 놀라면서 천주교의 세례를 받고(안드레아) 주말마다 성당에 다니고 있다. 수술 직후엔 앞으로 5년정도 더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지만 병세가 점차 호전되면서 10년으로 목표를 수정하고, 최근에는 다시 20년으로 수정해 가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고마운 친구들이 여럿이 있으나 고향친구 김흥구 형을 빼놓을 수 없다. 대학교수를 지낸바 있는 그는 주말마다 산악회를 조직, 활동했던 경험을 가진 터라 그를 따라 산행을 하게 된 것이 지금처럼 건강이 거의 정상으로 회복케 된데 기여하였으며, 또한 33회 동기인 서윤환 군도 산행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었기에 항상 고맙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오래토록 산행을 함께 하게 되길 소망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의 덤 인생을 도와준 분들에게 늘 감사하면서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즐겁게 살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친구들을 챙기면서 낮은 자세로 살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내 몸을 아낄 줄 모르고 대장암이라는 병까지 얻게 된 자신을 깊이 뉘우치면서 그간 간병에 고생 많았던 아내와 가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덤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때때로 우리 가혼을 되새기면서...

가혼

충효위절(忠孝爲節) 불구허영(不求虛榮)

돈목위업(敦睦爲業) 안빈자오(安貧自娛)

주 : 고려때 사셨던 菊坡公 할아버지가 지은 것인바 노력은 하나 잘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日本語의 悲劇」

徐 潤 煥 (33回)

< 목 차 >

- 一. 日本語는 慶尙道 方言이다.
 - ① 命令形 「하세요」와 「セヨ」
 - ② 「한다케도」와 「ケド」
 - ③ 「이마구」와 「イワク」
 - ④ 「새 벌」과 「サツボロ」
- 二. 日本語의 形成
- 三. 日本語의 悲劇
 - ① 漢字의 簡略化와 數의 縮小
 - ② 日本語의 悲劇
 - ③ 사라진 세 母音
- 四. 韓國語의 루트를 찾자.
- 五. 附錄
 - ① 任那(미마나)의 檢證
 - ② 50音圖 アイウエオ의 秘密
 - ③ 칼의 文化

글을 올리면서

參考文獻

一. 日本語는 慶尙道 方言이다.

日本語와 韓國語는 文法이 매우 비슷하고 語順도 거의 同一하다. 日本語 單語와 이에 相應되는 韓國語 單語를 對照 比較하여 보면 「日本語는 慶尙道 方言」으로 構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慶尙道 사투리의 최대의 特色은 「HA의 脫落」 「H→K」로의 轉化, 그리고 促音化 하는 것이다.

慶尙道 사투리의 日本語化的 實例를 들면

① 韓國語의 命令形에 「하세요」 「하시오」 「하시라」 「하세」 등이 있는데 여기엿 「하」를 떼어내면 日本語의 「セヨ」 「シヨ」 「シロ」 「セ」가 되어 명령형의 語尾가 된다.

② 「한다케도」에서 「한다」가 脫落하여 日本語의 「ケド」 「ダケド」로 轉化하여 “그러나” “그렇지만”의 意味를 지닌다.

③ 「이바구」는 「イワク」로 轉化, 「왈 가로사되」를 意味하게 된다. 또한 「イワク ツキノ オンナ」는 「과거가 있는 여자」가 된다.

④ 아이누語도 原始朝鮮語로 간주된다. 北海道의 「サツポロ」는 새 벌 즉 「새 土地」란 뜻을 지닌다. ‘サ=ス+ア’는 「보다 좋은, 보다 새로운」이며 포로는 バル(벌)로 「들, 土地」이며, ツ는 促音이다.

⑤ 日本語에서 「말」(언어)을 칭하는 「言葉」(kotoba)의 「koto」는 「語」라는 뜻이며 「ba」도 또한 「語」라는 뜻이어서 言葉는 異音同義語의 複合名詞이다.

ba는 bai의 末音脫落으로 이루어진 말이다. 語根 「밭」의 祖語形은 「분」이다. 「분」은 音, 聲, 語의 뜻을 지니고 있다. 例를 들어 거짓말의 사투리 「거짓부리」의 「부리」가 「말」이란 뜻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 特히 注目할 것은 「이바구」다. 「이바구」는 慶尙道 獨特한 사투리로서 韓半島의 다른 地方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말이다. 「이바구 손족」이면 「イワクガ アル」가 된다.

二. 日本語의 形成

慶尙道 中央을 흐르는 洛東江의 南部 流域에서는 BC 600年頃, 6伽倻聯盟이 번성하고 있었다.

이 地域은 肥沃한 土地, 灌溉의 利, 好適한 氣候 등으로 일찍 農耕文化가 發達하였고 더군다나 良質의 鐵을 생산하였다. 當時의 「鐵의 文化」는 지금으로 말하면 「核」을 가진 強大國을 만들었다.

秦나라는 中國의 邊方國家이면서도 中國을 統一할 수 있었던 것도 「鐵의 文化」 때문이라는 學說도 있다.

이들 伽倻人들은 「倭」로 건너가 勢를 擴張(鐵의 技術, 先進文化的 技術 등으로) 하면서 原住民을 同化시켜가며 「倭人化」가 進行되었다. 따라서 慶尙道 方言을 母國語로 使用했을 것이다.

日本의 벼농사의 起源은 B.C 250年頃으로 그 以前에 있었던 古代 日本語인 「ヤマト言葉」에는 漢字音이 전혀 섞여있지 않고 있으니 B.C 600~500年頃에 이미 ヤマト言葉는 慶尙道 方言에 의해 同化하기 시작되었다고 推測된다.

두 개의 文明이 겹쳐진다거나 衝突을 일으킬 때는 言語는 高度의 文明을 지닌 쪽이 支配하는 법이다.

따라서 渡來人의 權勢가 점차적으로 九州로부터 시작하여 日本列島로 擴張됨에 따라 渡來人의 言語(古代朝鮮語)가 原住民言語의 影響을 받아 약간의 混沌이나 變化를 일으키면서 「大和言葉」를 形成해 나갔다고 본다.

※ 저자는 “굳이 말한다면 日本列島에 대한 「騎馬民族에 의한 征服說」보다 「伽倻族에 의한 日本列島 開拓」이라는 表現을 쓰고 싶다”라고 저술하고 있다.

三. 日本語의 悲劇

① 漢字의 簡略化와 數의 縮小

日本은 奈良時代까지 吏讀方式으로 漢字語를 使用해 왔다. 知識人은 이 방대한 漢字를 習得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漢字를 배우는데 많은 세월을 소비하였다. 이 繁雜에서 벗어나기 위해 생각해 낸 것이 50音圖였고 이들 漢字마저도 簡略化하여 만들어 낸 것이 「アイウエオ」 50音圖다.

② 日本語의 悲劇

「カナ」가 急速히 보급되면서 글을 쉽게 배우고 기록할 수 있게 됨으로써 日本文學의 새 地평이 열렸으며 文學의 發展에 한 획을 그었던 것이다.

이것은 日本語의 발음을 실제로 45 字數 안으로 몰아 넣어 가두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니 日本語의 悲劇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日本의 어린이는 어려서는 發音이 自由로우나 學校에 들어가 50音圖, アイウエオ를 배우면서부터 ‘言語不具者’가 되니 불행하다고나 할까?

③ 사라진 세 母音

日本語學界에서는 日本語의 時代區分을 奈良朝(708~806年) 以前과 平安朝(806~1199年) 以後로 나누고 있다. 奈良朝까지는 여덟 개의 모음이 存在하고 있었으나 平安朝 以後로는 지금까지 세 모음이 消滅되어 다섯 母音만을 쓰고 있다.

消滅된 것으로는 ‘ㄱ’ ‘ㄴ’ ‘ㅇ’의 3母音이며 그 중의 ‘ㄴ’의 경우는 지금도 일부 문자 중에 살아남아 있다.

즉 ‘ㅅ’行의 ‘스’는 「수」로 발음되어야 하는데도 「스」로 발음되고 있다. 또한 ‘ㅈ’行의 ‘쯔」도 「쭈」가 아니고 ‘쯔」가 된다. 이것은 分明 없어진 發音 「ㄴ」가 「ㄷ」 속에 숨어 살아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

대신에 字數의 테두리에 갇히어 「수」·「쭈」가 숨어 버렸다.

또한 총 8母音 中에서 3母音이 살아졌다는 것은 37.5%가 줄었다는 계산이 된다.

한편 韓國語는 한글 창제로 8母音에서 21母音으로 162.5%나 急增하였다. 그 結果 奈良朝까지 거의 비슷했던 古代 日本語와 韓國語가 오늘과 같이 相異하게 된 것이다.

四. 韓國語의 루트를 찾자.

日本語는 古代朝鮮語를 基幹으로 形成된 以來 日本列島가 外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原形 그대로 殘存하게 되었다.

한편 韓國은 中國大陸政權의 변천에 따라 자주 침략을 받았고 文化的으로도 자주 漢字의 影響을 받아 순수한 우리 말의 原形은 처참한 정도로 변형되고 消失되었다. 韓國人의 옛 祖上들이 쓰던 말이 어떤 것이었을까?

돌이켜 古代朝鮮語를 알 수 있는 방법은 日本語의 語源을 배우는 외는 다른 方法이 없다.

純粹 韓國語의 消滅 危機를 벗어나고 韓國語와 韓國人의 루트를 알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日本語의 語源에서 古代朝鮮語의 原形을 찾고 그 復元作業을 서둘러야 안된다.

五. 附錄

① 任那(미마나)의 檢證 正

「日本書紀」에 의하면 大和政權은 四世紀 中葉부터 朝鮮 南部의 洛東江流域 加羅(伽倻) 地方에 「任那」란 支配地를 갖고 朝鮮 西南部의 百濟와는 和親하고 東南部の 新羅 및 北部의 高句麗와는 抗爭하였다

고 한다. 그 軍隊가 大和政權의 것이라고는 斷定할 수 없으며 혹시 北九州의 政權의 것인지도 모른다.

또한 北九州人과 南朝鮮人은 서로가 바다 건너로 移住往來 하였음으로 前記의 倭軍들이 全部가 日本種族이라고도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最近에는 大和의 倭王도 加羅 出身이라고 하는 說도 있다.

그런데 「日本語의 悲劇」의 著者は 「語源的인 接近」으로 이를 考證하려고 試圖했다.

즉, 「任那」(미마나)의

「미」는 「神聖한 者, 天皇」

「마」는 「眞實의」

「나」는 「那, 國」의 뜻으로

「天皇의 眞實의 나라」라는 의미를 뜻한다.

또한 任那의 音讀 「임나」도 「大君의 나라」라는 뜻을 지닌다. 따라서 天皇의 진짜 나라는 「伽倻國」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임으로 任那가 日本의 植民地였다는 것은 터무니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50音圖 アイウエオ의 秘密

50音圖가 日本語를 表記하기 위한 알파벳트 라면 母音이 여러개 겹쳐져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즉, 「이」가 세 개, 「우」가 두 개, 「에」가 세 개, 「오, 오」의 같은 발음이 두개로, 4種의 發音이 50音圖 속에서 10자리나 차지하고 있다.(傍点 參考) 따라서 이것은 단순한 알파벳트만은 아니다 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이것을 慶尙道 方言으로 읽기로 해 보았다.

50音圖와 읽기

アイウエオ	아! 이(렇게) 우에오
カキクケコ	가기(佳着)꾸게고
サシスセソ	사(자) 시스세소
タチツテト	다쳤데도
ナニヌネノ	나 아니 놀래노
ハヒフヘホ	하 히후미 호
マミムメモ	마 미음 매 먹어요
ヤイユエヨ	야 이(렇게) 우에요
ラリルレロ	라리 올 레 로
ワイウエヲ	와 이(렇게) 우네오
ン	응

이것을 다시 童謠形式으로 再정리하여 보면

ア行 : 아- 왜 이렇게 울지요

カ行 : 고은 옷을 꾸기고

サ行 : 자- 씻으세요(손 발을 씻으면서 작으만한 상처를 발견하다.)

タ行 : 다쳤데도(흔히 다치니)

ナ行 : 나는 놀라지 않아요

ハ行 : 하- 히후혜(아기) 호-

マ行 : 마- 미음 매 먹어요

ヤ行 : 야는 왜 이렇게 그치지 않나요

ラ行 : (무서운) 귀신(=라리)이 올래요

ワ行 : 와 이렇게 울까요

ン : 응?

위와 같이 자장가의 童謠가 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古代 朝鮮語로 고쳐 再構成하는데는 牽強附會의인 점도 있지만 또한 그럴듯한 面도 있다.

그래서 「50音圖」라 하기 보담 「50音 童謠」라고 부르고 싶다.

③ 칼의문화

日本은 縮小志向의 文化(이어녕 교수)이며 또한 [칼의 文化]라고도 한다.

戰國時代 末(1550년대)에 이르러 劍術을 잘 하는 武人들이 「劍道」라고 칭하면서 「칼의 文化」를 일구어냈다. 사실 사람을 활치거나 죽이는 칼의 技術을 [劍道]로 승화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武術을 익히는 과정에서 精神的인 수양이 되는 면도 있겠지만 劍術은 어디까지나 사람을 베는 技術이다.

한편 劍術의 발달은 刀工術의 향상과 이에 따른 文化를 만들고 領域言語의 발전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칼에 연유한 여러 가지 熟語가 생겨났으며 또한 殘忍한 民族性도 표출되었다.

다음에 칼에 관한 熟語를 상식의 範圍에서 적는다.

劍カ峰	칼날 같이 날카로운 산 봉우리
劍カ峰に立つ	고비판에 서다
劍呑	위험하다
劍先	칼 끝. 뾰족하게 된 부위
劍突く	타박을 주다
劍幕	무섭고 사나운 얼굴
劍難人の相	칼부림음을 당할 상
兩刃の劍	자기에게 이로운 존재지만 때로는 위험한 존재이기도 하다
元の鞆に収まる	이혼한 부부가 다시 합치다.
鞆当たり	시비를 걸기 위한 시비. 체면상의 시비

鞘当て	한 여자를 놓고 두 남자가 다툼
鞘をとる	중개하면서 가격 차이의 일부를 이익으로 취하다
鞘を払う	중개료를 지불하다
反りを打つ	칼자루를 흰 쪽을 밑으로 돌려서 잡다
反りが合わず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
振り返る	저만스럽게 몸을 뒤젓힘
真剣勝負	사상결단. 목숨을 건 승부
刃傷沙汰	칼부림
裏切り	배신
千人斬り	(어떤 염원으로) 천 사람 베이기. 천명의 여자를 상대하기
拜み斬り	칼로 상대의 전면을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 베기
袈裟斬り	상대의 어깨로부터 비스듬히 내려 베기
試し斬り	칼이 잘 드는가를 시험하기 위해 사람을 뺨
辻斬り	칼이나 무술을 시험하기 위해 밤거리에서 사람을 베는 일
自腹を切る	비용을 자기 주머니 돈으로 지불하다. 생돈을 몰다
鎧を削る	각축하다 [刀身の 불력한 부분이 닳도록 말찰하며 싸우다]
介錯	割腹하는 사람의 뒤에서 목을 치는 일
詰め腹	강제적으로 사직을 당함. 싫은 일을 강요당함
手討ち	영주가 손수 사람을 베어죽이다
切腹	할복
押取り刀	[칼을 찰 틈도 없이] 바쁘게 서둘다

* 「元の鞘に納まる」「裏斬り」「鞘を取る」 등은 재미있는 표현이다.
「千人斬り」「辻斬り」「手討ち」 등은 好色性이나 残忍性を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글을 옮기면서

이 글은 「日本語の悲劇」(朴炳植 著 情報センター出版國, 86. 7. 20)의 一部를 抄譯한 主內容을 옮긴 것이다.

古代言語에 對한 모든 論證이 그렇듯이 「日本語の悲劇」도 推理하고 論證하는 過程이 매우 複雜하다. 따라서 이 抄譯에서는 繁雜함을 피하여 그 過程을 省略하고 「確定的」形態로 記述하였다.

2009. 6. 8

參考文獻

清張 古代史記

「日本語」上·下

古代朝鮮と倭族

우리말의 뿌리

「日本の歴史」上·中·下

日本語の悲劇

부 록

同窓會 會則

同窓會基金 贊助內譯

同窓會誌 第9號 發行을 爲한 贊助 內譯

同期別 名單

海外 同窓會 會員 名簿

作故者 名單

編輯後記

咸興 高等普通學校(咸南中學) 同窓會 會則

第一章 總 則

第一條 本會는 咸興高等普通學校(咸南中學)同窓會라 稱한다.

第二條 本會는 서울特別市에 둔다. 但, 地方에 支會를 設置할 수 있다.

第三條 本會는 會員 相互間의 親睦을 圖謀하는 同時에 協調 團結을 公高히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四條 本會 會員의 資格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 私立咸興高等學校, 私立咸興高等普通學校, 官立咸興高等普通學校, 咸興公立高等普通學校, 咸南公立中學校 및 咸興中學校 卒業者와 同校에 在學한 者로서 同期幹事의 推薦에 依하하여 任員會가 認定한 者.

(2) 特別會員 : 母校에 在職하였던 教職員

第五條 本會의 會員은 選舉權 및 被選舉權을 갖는 同時에 會務에 關한 發言權과 決議權을 갖는다. 但, 特別會員은 選舉權 및 被選舉權이 없다.

第二章 任 員

第六條 本會의 任員과 그 職務는 다음과 같다.

- (1) 會長 1名
- 副會長 3名
- 監事 1名
- 總務 1名
- 副總務 1名

- (2)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여 會務全般을 管掌하며 任員會의 議長이 된다.
- (3)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務를 分擔한다.
- (4) 會長 有故時 最年長 副會長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 (5) 總務는 會長의 指示에 따라 會務全般을 總括運營하고, 財政 會計事務를 管掌한다.
- (6) 副總務는 總務를 補佐하고 本會의 諸般 書類를 保管 管掌한다.
- (7) 監事는 本會의 運營, 財政狀況을 隨時監査하여 會長과 總會에 報告한다.

第七條 本會는 本會發展에 有功한 會員中에서 名譽會長 및 顧問 若干名을 推戴할 수 있다.

第八條 本會의 任員은 定期總會에서 選任한다.

第九條 本會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任員 有故時는 任員會 및 期別幹事 合同會議에서 選任한 任員이 殘餘期間동안 會務에 參與하고 次期總會에서 認准를 받는다.

第十條 各 期間의 會務連絡을 위하여 期別幹事 1名式을 選定하여 任員會에 報告기로 한다.

第三章 會議

第十一條 本會의 會議는 다음과 같다.

- (1) 定期總會：每年 十月에 開催하고 歲入歲出의 承認 任員 選出, 會則改正 및 主要 案件의 承認
- (2) 臨時總會：任員會 및 三十名以上 會員의 要請이 있을 때 開催한다.

- (3) 任 員 會 : 會 長 이 必 要 하 다 고 認 定 하 였 을 때 隨 時 로 召 集 할 수 있다.
- (4) 幹 事 會 : 各 期 別 幹 事 의 會 議 로 서 任 員 會 의 要 請 으 로 開 催 할 수 있다.

第 四 章 財 政

- 第十二條 本會의 經費는 贊助金 및 總會時 會費로 充當함을 原則으로 한다.
- 第十三條 本會의 基金은 會長 名義로 公認 金融機關에 預置한다.
- 第十四條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十月一日부터 翌年 九月 三十日로 한다.

第 五 章 補 則

- 第十五條 本 會 則 第 二 條 의 支 會 를 設 置 하 고 자 할 때는 該當支會의 會則 및 會員名簿를 任員會에 提出하여 承認을 받아야 한다.
- 第十六條 本會의 會計에 關한 收入 支出은 任員會의 決議로 處理하고 此를 總會에 報告하여 追認을 받는다.
- 第十七條 本 會 則 의 改 正 은 總 會 出 席 委 員 3 分 의 2 以 上 의 同 意 를 얻어야 한다.
- 第十八條 本 會 則 의 未 備 點 은 任 員 會 의 決 議 에 依 據 處 理 키 로 한다.
- 第十九條 本 會 則 은 通 過 된 날 부터 施 行 한다.

制定 一九七〇年 十月 二十四日

改正 一九八四年 十月 九日

同窓會基金 贊助內譯

咸興高普(咸南中學) 同窓會基金 造成 沿革은 同窓會誌 第4號, 第6號 및 第7號에서 記述하였으므로 省略한다.

基金은 特別히 募金하지 않고 年例行事인 春季臨時總會와 秋季定期總會 그리고 이번까지 아홉번째에 걸친 同窓會誌發行과 같이 그때 그때 必要한 經費를 充當하기 爲하여 뜻이 있는 會員 여러분들의 醵出로서 造成되었다.

姓名	同期別	金額	備考	姓名	同期別	金額	備考
朴昌均	23	200,000		金銀式	25	300,000	
李漢淳	23	200,000		金昊麗	25	200,000	
趙誠福	23	200,000		劉炳千	25	100,000	
崔宗相	23	250,000		劉炳敏	25	500,000	
黃忠炫	23	100,000		金珉河	25	250,000	
李世得	23	100,000		金仁鶴	25	100,000	
金斗埜	23	100,000		金熙宰	25	50,000	
徐正溶	23	150,000		朴鼎惠	25	50,000	
玄鳳學	23	100,000		劉長得	25	100,000	
周憲銓	24	2,150,000		趙成國	25	50,000	
金廷圭	24	200,000		崔浩益	25	150,000	
高明元	24	200,000		韓相豹	25	50,000	
柳炯極	24	500,000		金聲進	25	100,000	
廉仁必	24	1,300,000		韓承五	25	950,000	
韓時坤	24	1,400,000		韓鼎燮	26	1,430,000	
朴泳馥	24	300,000		李三悅	26	2,780,000	
金性均	24	100,000		金塔煥	26	100,000	
崔昌彬	24	200,000		石東壽	26	270,000	
韓承銀	24	100,000		河烘權	27	1,150,000	
韓學繪	24	100,000		元章煥	27	1,100,000	
金東勳	24	300,000		劉 鋼	27	2,000,000	
黃炳峻	24	100,000		金明壽	27	300,000	
朴承咸	25	60,000		朴澈善	27	200,000	
盧庚昞	25	2,730,000		朴昭會	27	100,000	
權宅淵	25	400,000		安 滉	27	200,000	

姓名	同期別	金額	備考	姓名	同期別	金額	備考
韓淳輔	27	300,000		林鍾一	29	200,000	
廉聖龜	27	200,000		韓春熙	29	100,000	
沈鳳燮	27	300,000		孟厚彬	29	200,000	
朱炳七	27	100,000		文昌基	29	100,000	
李鴻範	27	200,000		宋徽林	29	100,000	
趙誠國	27	100,000		李盛茂	29	200,000	
尹元基	27	100,000		朴升鐸	29	150,000	
金允善	28	930,000		朱相彥	29	50,000	
李命英	28	7,100,000		李善植	30	1,400,000	
宋榮冕	28	50,000		李元鏞	30	1,950,000	
趙東喆	28	380,000		朴溶夏	30	1,550,000	
魯一協	28	600,000		朴世雄	30	200,000	
吳哲求	28	250,000		李鏞汪	30	100,000	
韓炯周	28	900,000		高明三	30	600,000	
高明東	28	100,000		白晒烈	30	800,000	
申道均	28	400,000		李寅華	30	1,600,000	
金鳳湜	28	310,000		都相豹	30	100,000	
朱赫淳	28	600,000		韓相淇	30	100,000	
鄭哲周	29	2,130,000		崔嘉鳳	30	300,000	
金熙國	29	100,000		金光彬	30	100,000	
趙 鎰	29	200,000		李 河	30	100,000	
林舜均	29	200,000		李承奎	30	100,000	
韓鎮慶	29	800,000		申裕恒	30	100,000	
韓錫元	29	500,000		金秉喆	30	200,000	
金光浩	29	700,000		金冕燮	30	400,000	

姓名	同期別	金額	備考	姓名	同期別	金額	備考
柳承敦	30	200,000		金炳鉉	32	50,000	
李南杓	30	200,000		尹明鎮	32	50,000	
尹東榮	30	100,000		徐康洛	32	100,000	
全龜淵	31	105,000		柳榮潁	32	50,000	
金致敬	31	500,000		金桂碩	32	300,000	
金明哲	31	1,200,000		李相龍	32	200,000	
都址石	31	200,000		李大鍾	33	900,000	
朱繪淳	31	500,000		李七煥	33	300,000	
金泰	31	500,000		姜在錫	33	300,000	
朴炳哲	31	350,000		朱宣淳	33	100,000	
李炳泰	31	200,000		韓永喆	33	500,000	
全夏鏞	31	100,000		尹炳陽	33	200,000	
林浩	31	300,000		廉昌錄	33	300,000	
柳榮龜	31	100,000		宋榮達	33	150,000	
柳俊馨	31	400,000		金相龜	33	200,000	
辛應夏	31	100,000		申東虎	33	200,000	
朴鑑忠	31	100,000		崔熙仿	33	400,000	
金陽	32	100,000		金相球	33	100,000	
朴承宰	32	2,050,000		金桂淑	33	505,000	
鄭在銓	32	200,000		外 26名			
千龍範	32	50,000		小計		92,138,000	

其他贊助者：5回：金桂淑，趙澤元 6回：朱源 7回：姜錫福，金世偉，朴洋煥，金昌洙
9回：朱翼淳，咸泰元 11回：朴忠鎮 12回：朱元鏞
13回：金鼎鉉 14回：安容彪 16回：金聖河 18回：朱東雲
19回：朴旻會 20回：金明植，文哲 22回：李舜益，崔龍煥
23回：崔敏煥，朴昌浩，李雙杓 24回：金泰錫，金鉉五
28回：邊道燁，金鉉鎬 以上 27名

2. 回期別

同期別	金額	備考	同期別	金額	備考
15	150,000		26	4,200,000	
16	100,000		27	5,170,000	
19	150,000		28	4,930,000	
20	350,000		29	4,950,000	
21	2,050,000		30	5,640,000	
22	1,730,000		31	5,020,000	
23	3,400,000		32	5,040,000	
24	4,300,000		33	5,135,000	
25	4,670,000				
함고이사회	100,000		小計	57,085,000	

3. 海外 同窓 個人別

姓名	同期別	金額	備考	姓名	同期別	金額	備考
馬鍾國	8	\$ 120		朱翰裕	21	\$ 20	
金子勳	15	\$ 200		文相駿	21	\$ 130	
金滢次	15	\$ 500		玄鳳學	23	\$ 150	
都相禧	19	\$ 30		金會鎬	23	200,000원	
文錫垠	19	\$ 100		宋基澈	23	200,000원	
		60,000원		金應浩	24	\$ 200	
韓大淑	20	\$ 700		吳正喜	25	100,000원	
金壽永	20	\$ 200		金秉萬	26	\$ 30	
崔潤煥	20	\$ 300		李柱衡	26	\$ 80	
金時彥	21	\$ 80		吳炳憲	26	\$ 20	
						100,000원	

姓名	同期別	金額	備考	姓名	同期別	金額	備考
朴在彬	26	100,000원		金雄植	29	\$ 150	
金澤濟	26	\$ 100		韓萬燮	30	\$ 170 400,000원	
金東萬	26	\$ 30		高勝榮	30	\$ 200 800,000원	
李根虎	26	126,252원		曹秉均	30	\$ 50	
孫陽鳳	26	80,000원		金恭根	30	\$ 80	
曹圭榮	27	\$ 50		趙 哲	30	243,974원 \$ 80	
朴昭會	27	\$ 100		金龍澈	30	51,350원	
李英得	28	\$ 20		申森熙	30	\$ 30 124,000원	
李澈男	28	\$ 400 408,280원		金庚台	30	149,249원	
金和極	29	\$ 100 100,000원		李仁根	30	\$ 50	
張聖洛	29	202,190원		黃載鎮	31	\$ 100	
李通堦	29	\$ 100		朴炳元	31	\$ 150 200,000원	
韓世鎬	29	\$ 100		楊炯春	31	\$ 100	
韓 極	29	50,000원		權鎮均	31	200,000원	
朴浩高	29	\$ 100 202,190원		韓碩惠	32	\$ 50	
金淳都	29	\$ 130 900,000원		權炳池	33	100,000원	
金在楨	29	\$ 180 196,561원		在美一同		2,259,803원	
李培石	29	\$ 50 100,000원				7,653,849원	
金弘杓	29	\$ 100				\$ 5,600	

二. 特別 贊助

故 李命英 同門(28)(막내딸 李智妍 博士)
2,000,000원(2009. 5)

三. 同窓 會誌 第九號 發刊을 爲한 募金 內譯

合計金額 14,165,437

1. 個人別 7,900,000

(2008.10.24~2009.10.1)

同期別	姓名	金額	同期別	姓名	金額
15	蔡奎燦	100,000	28	朱赫淳	300,000
19	朱槿源	100,000	28	申道均	300,000
20	金興洙	100,000	29	魯一協	300,000
21	朱軫淳	100,000	29	韓鎮慶	100,000
22	趙在衡	300,000	29	李盛茂	100,000
23	任昱彬	100,000	29	孟厚彬	100,000
24	周喜銓	100,000	29	金光浩	200,000
24	崔昌彬	50,000	29	文昌基	100,000
25	韓承五	300,000	29	韓錫元	100,000
25	權宅淵	100,000	29	鄭哲周	300,000
25	金珉河	100,000	30	高明三	100,000
25	崔洗益	100,000	30	李南杓	100,000
26	李三悅	1,000,000	30	金冕燮	100,000
26	石東壽	100,000	30	白晒烈	200,000
26	韓鼎燮	300,000	30	李元鏞	300,000
27	河洪權	200,000	30	尹東榮	100,000
28	韓炯周	300,000	31	朱滄淳	100,000

同期別	姓名	金額	同期別	姓名	金額
31	金明哲	200,000	33	廉昌錄	200,000
31	李炳泰	200,000	33	李七煥	100,000
31	朴炳哲	100,000	33	申東虎	100,000
31	朴鎰忠	100,000	33	尹炳陽	100,000
31	林 浩	100,000	33	金相球	100,000
32	鄭在銓	50,000	33	金相龜	100,000
32	李相龍	100,000			

2. 期別 3,000,000원

同期別	姓名	金額	同期別	姓名	金額
24		300,000	29		300,000
25		300,000	30		300,000
26		300,000	31		300,000
27		300,000	32		300,000
28		300,000	33		300,000

3. 在美會員 3,265,437원

同期別	姓名	金額	同期別	姓名	金額
26	吳炳憲	100,000	29	金在禎	145,211
26	朴在彬	100,000	30	韓萬燮	200,000
26	李根虎	126,252	30	金庚台	100,000
28	李澈男	100,000	30	高勝榮	300,000
29	金淳郁	300,000	30	趙 喆	243,974
29	韓 極	50,000	31	權鎮均	200,000
29	朴浩高	100,000		在美會員一同	1,200,000

同期別 名單

第 15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CP	出生地
蔡奎燦	122-060	恩平區 龜山洞 2-32 전우빌라 101	359-5489			定平

第 18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CP	出生地
金完龍	140-751	龍山區 西水庫洞 新東亞APT 10-105	797-6995			咸興
李中性	132-030	道峯區 雙門洞 現代APT 101-604	906-9036			北青
趙漢龍	110-340	鐘路區 益善洞 91	765-3577			咸興
韓蒙淑	122-070	恩平區 驛村洞 75-25	359-0480			咸興
韓翊洙	132-023	道峰區 放鶴洞 新東亞APT 9棟 701號	956-3210			洪原

第 19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CP	出生地
朱權源	136-060	城北區 敦岩洞 609-1 한신APT 112-408	924-2338			咸州

第 20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CP	出生地
金興洙	110-846	鐘路區 平昌洞 111-16	(011) 9259-2212		(017) 764-2710 (치제)	咸興
李基炯	137-775	서초구 서초동 1682 서초래미안 101-1004	596-3649			咸州

第 21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CP	出生地
李英環	150-080	永登浦區 道林洞 186-9	833-9593			惠山
全明洙	477-800	京畿道 加平郡 加平邑 邑內里 637-4	(031) 581-9259		(016) 620-9259	咸州
朱軫淳	138-775	松坡區 松坡2洞 16 미성APT 3-401	2203-7751			咸興
韓喬石	138-240	松坡區 新川洞 11 장미APT 28-201	423-4241			咸興
韓東允	402-022	仁川市 南區 龍峴2洞 삼익APT 2-101호	(032) 882-2667			咸興

第 22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CP	出生地
金聖翰	156-786	銅雀區 新大方洞 우성APT 13-1702	848-8061			豐山
金禧庚	137-896	瑞草區 良才2洞 312-1 메트로APT 101호	579-7202			永興
金東輝	463-030	城南市 盆唐區 盆唐洞 셋별마을 우성APT 310-802	(031) 707-7759			端川
安 霖	135-086	城北區 普門洞 6街 118	992-3903			咸興
柳炯容	431-085	安養市 東安區 법계동 新東亞APT 903-607	(031) 387-9909			咸興
趙在衡	156-830	銅雀區 上道1洞 7-22	814-2059			永興
趙成植	100-827	中區 新堂洞 345-452	2252-0977			海州
韓暉洙	463-721	城南市 盆唐區 養峴洞 87 三星示範APT 131-1101	(031) 701-0491			洪原
李炳一	697-110	濟州道 西歸浦市 평환동 392 新世界빌라 205	(064) 739-1036			北青

第 23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CP	出生地
金瑛河	425-171	安山市 常綠區 사동 1533 글루콘(금강APT) 110-102	(031) 502-6334		(019) 325-6334	咸興
徐日榮	413-833	坡州市 교하읍 외동 6리 603-10	(031) 943-9775		(010) 3020-9770	咸興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CP	出生地
李燮杓	600-081	釜山市 中區 보수洞1街 116	(051) 256-8125			咸興
任昱彬	411-751	安陽市 一山區 주림동 뉴삼익APT 1601-204	(031) 921-6697			咸州
趙誠福	139-242	노원구 공릉2동 747 두산APT 101-1304	972-7173			北青
崔宗相	403-080	仁川市 부평구 갈산동 361-4 대동APT 101-406	(032) 518-7348			文川
黃忠炫	483-745	東豆川市 생인2동 부영APT 509-801	(031) 858-5606			咸興

第 24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CP	出生地
姜基喆	427-050	果川市 富林洞41 住公APT 802-1005	504-4559			北青
朴聖熙	151-055	冠岳區 奉天洞 1712-1 관악드림타운 삼성APT 148-1602	3285-7197			咸州
廉仁必	137-888	瑞草區 良才1洞18-16 현대빌라 205호	579-9146			利原
柳炯極	110-541	鐘路區 昌信洞 447-12 우미빌딩 4층	762-6663			新興
周熹銓	446-940	龍仁市 器興區 보정동 동아솔레세티APT 132-802	(031) 266-1795			安邊
崔昌彬	138-240	松坡區 新川洞 장미APT 12-707	413-3096			咸興
黃圭錫	445-940	京畿道 華城市 장안면 석포리 941	(031) 358-1055			新興

第 25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CP	出生地
權宅淵	156-020	銅雀區 大方洞 501 大林APT 104-1501	825-2582	高麗大 名譽教授		咸興
金珉河	476-800	京畿道 楊平郡 楊平邑 白安1里 366-5	(031) 771-5355		(011) 9166-5356	咸興
金熙宰	110-523	鐘路區 明倫洞3街 1-973	762-4970			咸州
趙成國	133-121	廣津區 자양동 46-43	464-1907			咸興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CP	出生地
崔浩益	411-820	경기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742 한라 빌라트 A동 811호	(031) 913-1890		(010) 4551-7610	咸興
韓承五	449-534	京畿道 龍仁市 水枝邑 신봉동 LG자이APT 220-401	(031) 897-7226		(010) 2245-0980	黃海 谷山

第 26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CP	出生地
金元鐸	122-200	은평구 진관동 20 은평뉴타운 상림마을 830-911	583-0249			咸興
石東壽	431-062	인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6 평촌그라데아 506호	(031) 383-2285		(010) 3108-1282	咸興
柳榮海	463-772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87 한신아파트 127-1202	(031) 701-3946		(019) 311-3946	咸興
李三悅	121-270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파크아파트 710-1304	3147-2797		(011) 284-4692	咸州
韓炳瑚	135-280	강남구 대치동 935-29	567-2111			定平
韓峯淑	449-582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 쌍용아파트 109-502	(031) 274-8122			咸興
韓鼎燮	120-113	서대문구 인회3동 성원아파트 103-1401	6383-5824		(010) 9303-5824	咸興
黃珪石	158-055	양천구 목동 903 목동아파트 309-703				咸州
洪鉉壽	157-031	강서구 등촌1동 라인아파트 102-2002	3661-9212		(010) 2667-9212	咸興
朴在彬	440-816	수원시 영화동 44-1 甘泉莊(감천장)	(031) 245-1078		(011) 9731-0348	永興

第 27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CP	出生地
金明壽	138-222	송파구 잠실2동 22 리젠트아파트 203-1501	2051-9202			북청
朴澈善	743-955	경북 상주시 락동면 락동리 772-1	(054) 532-7733			정평
沈鳳燮	140-201	용산구 이태원1동 청화아파트 2-1106	793-6883			북청
尹元基	137-979	서초구 잠원동 70 신반포4차아파트 208-405	591-8999			함흥
李洙灑	448-533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LG자이1차APT 114-901	(031) 263-3329			함흥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CP	出生地
趙誠國	463-480	용인시 분당구 금곡동 영남APT 102-2101	(031) 716-3232	하이마산업(주) 777-7741		북청
河烘權	110-054	중구 사직동 181	736-9789			함흥
韓淳輔	435-706	군포시 상봉2동 1091-1 목련우방APT 1235-301	(031) 397-0521			함주
洪昌疇	137-070	서초구 서초동 1612-11 2층	581-5855			갑산
朴昭會	110-012	종로구 평창동 435-2 산정빌라 3층	379-4315			長津

第 28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CP	出生地
高景榮	435-720	군포시 궁내동 롯데호텔향아파트 938-403	(031) 393-6993			咸興
高明東	137-130	서초구 양재동 7-57 현대빌라 301호	575-2364		(010) 8212-2802	咸興
金翊南	463-940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97-2 서울시니어타운 702호	(031) 719-7414		(010) 7709-7414	咸州
金允善	110-062	종로구 신문로2가 1-222 (주)법한서적	737-1421		(011) 733-8357	咸興
金鉉鎬	130-650	동대문구 서울청량우체국사시합 133호	929-1145		(010) 4773-6644	定平
魯一協	138-791	송파구 잠실3동 갤러리아팰리스 B동 4402호	379-6798		(011) 212-8745	定平
毛麒喆	361-768	청주시 흥덕구 보평동 주공4차아파트 402-505	(043) 275-9726		(011) 467-6030	咸興
朴英傑	431-774	안양시 동안구 법계동 목련선경아파트 106-605	(031) 386-2709		(010) 3736-2709	咸興
申道均	449-534	용인시 신봉동 신IG자이2차아파트 213-1603	(031)897-6 311		(019) 462-6390	定平
吳哲求	136-020	성북구 성북동 166-2	762-1725 (사)2263-2501-5		(010) 6343-1725	安平
張成筭	426-789	안산직 상록구 월피동 현대2차아파트 204-301	(031) 401-6117		(031) 391-6509	咸興
曹翼奎	411-716	고양시 일산구 카두2동 강촌마을아파트 302-602	(031) 811-2449		(010) 8211-2440	咸興
朱赫淳	430-019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 홈아브라운빌아파트 102-1001	(031) 448-8061		(010) 3396-8061	咸興
蔡憲哲	482-843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476 양주길리교회	(031) 871-3390			咸興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CP	出生地
太範植	138-797	송파구 잠실7동 86 아시아선수촌아파트 11-603	413-7510		(010) 8840-7510	鐘路
韓鳳鍾	121-869	마포구 연남동 509-13(5층)	324-3501		(010) 3105-2501	咸興
韓忠錫	120-788	서대문구 홍제4동 홍제원현대아파트 115-201	394-5350			甲山
韓炯周	449-906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490 삼성노블카운티 A동 1415호	(031) 208-9291 (병)923-8811		(011) 9043-4548	咸興
黃慶鎭	449-911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백현마을 코이무아파트 2203-1601	(031) 899-0710			忠南 舒川

第 29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CP	出生地
金光浩	608-010	부산 남구 남천동 비취맨손APT 215-605	(051) 469-0470		(011) 861-5831	원산
金北之	120-092	서대문구 홍제동 82 한양APT 106-901	737-9742			북청
孟厚彬	158-863	양천구 신정3동 1177-26	2697-4753		866-0395	함흥
文昌基	132-012	도봉구 도봉2동 625-21 햇빛산빌딩 관리사무실	954-2220 925-3691			경북 고령
朴升鐸	157-030	강서구 등촌동 669-1 서울 시니어즈타워 1108	3662-3425		(010) 2247-3425	함주
白萬鍾	437-070	의왕시 오전동 21번지 진달래APT 104-1105	(031) 456-4997		(010) 9240-4997	영흥
白昌烈	134-023	강동구 천호3동 54-9(36/7)	478-6528			함흥
徐昌政	136-752	성북구 동소문동 한신휴APT 120-201	925-3691			개성
柳吉鏞	463-773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우성APT 215-201	(031) 709-5898			함주
李甲杓	410-911	경기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동문2차APT 202-1401	(031) 924-6246			홍원
李炳杰	139-202	노원구 상계6동 주공APT 305-602	931-4591			함주
李盛茂	217-800	속초시 교동 619-33 설악현대APT 103-204	(033) 635-9495		(017) 202-5061	북청
李垣植	139-201	노원구 상계1동 미주APT 101-1204	951-0020			홍남
李殷鳳	142-075	도봉구 수유5동 408-18	902-3692			함흥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CP	出生地
鄭哲周	121-110	마포구 신수동 190 성원APT 101-1708	714-2729 2274-0928		(019) 9214-2729	함주
朱東雲	122-829	은평구 녹번동 91-7 글라시온 12002호	354-9050		(011) 334-9050	이원
朱相彦	431-081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503-2 복련단지 선경APT 107-606	(031) 385-0411			함주
崔學洲	423-014	광명시 광명4동 49-24	2682-1786			함주
韓錫元	449-906	용인시 시흥읍 하갈리 467 노블카운티 1502호	(031) 208-9307			함흥
韓昇輝	443-769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LG빌리지 2차 204-402	(031) 205-3881			함주
韓依天	137-062	서초구 방배2동 948-20	584-0386			함주
韓鎮慶	110-824	종로구 승인동 76 롯데캐슬 인동 802호	3670-6037		923-5042	함주

第 30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CP	出生地
高明三	463-470	城南市 盆唐區 宮內洞 중앙하이트빌리지 203-301	(031) 714-5270			咸興
權甲周	138-785	松坡區 風納洞 413-1 風納現代APT 102-501	471-6430			咸州
金光彬	121-806	麻浦區 노고산동 40-13	715-4374			咸興
金斗燦	110-103	鐘路區구기동 85-5	394-4223			興南
金冕燮	133-824	城東區 聖水洞 1街 2동 668-10	464-6951			咸州
金秉喆	137-829	瑞草區 方背洞 774-19 방배맨피스 현대APT 101-503	534-1300			咸興
金始源	157-834	江西區 내발산동 657 우장산 힐스테이트 127-1104	3662-5208			咸興
朴世雄	449-913	龍仁市 구성읍 보정리 성원APT 107-302	286-6871			咸興
朴溶夏	411-837	高陽市 一山區장항동 881 호수마을 현대APT 213-402	(031) 907-9821			咸州
朴定仁	463-030	城南市 盆唐區 盆唐洞 장안타운 건영APT 105-1602	463-030			新興
白炳烈	448-120	龍仁市 水枝區 東川洞 910 대우A 102-1402	(031) 263-0377			咸興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CP	出生地
邊成燁	209-807	江原道 화천군 상서면 장촌리 630	(033) 441-7511		(019) 9180-9821	咸興
申裕恒	476-831	양평군 옥천면 신북3리 249-3	(031) 771-0500			咸興
延河龜	135-976	江南區 狎鷗亭洞 288 현대APT 120-901	548-2179			甲山
俞 焄	137-813	瑞草區 盤浦本洞 盤浦APT 95-507	533-2411			咸興
柳承敦	157-839	江西區 등촌1동 632-4 삼삼한사랑APT 102-1801	2659-1541			咸興
尹權孫	133-070	城東區 杏峯洞 349 한신APT 112-102	2291-0141			咸興
元炳昨	138-737	松坡區 오금동 2 대림APT 3-1404	407-2789			平南
李圭喆	612-738	釜山市 海雲臺區반여1동 왕자APT 15-405	(051) 523-7106			咸興
李南杓	463-750	城南市 盆唐區 盆唐洞 38 우방APT 311-1506	(031) 709-4697			咸興
李承奎	139-847	노원구 월계동 534-43	918-7860			咸州
李演熙	463-020	城南市 盆唐區 수내동 24 양지마을 한양APT 528-1702	(031) 711-4455			北青
李寅華	137-882	서초구 서초4동 1685 상풍APT 12-303	533-6866			洪原
李元鏞	143-802	廣場區 廣場洞 148-3	457-4898			咸州
李鎬汪	135-971	江南區 道谷洞 467-6 대림아크로빌APT A-1501	572-1101			新興
趙雄善	413-870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태능리 94	(031) 958-0319			定平
崔嘉鳳	412-717	高陽市 덕양구 행신1동 973 샘터마을 동신APT 108-104	(031) 973-8924			三水
韓均弼	130-769	東大門區 典農3洞 10 SK APT 112-906	3394-4257			興南
韓 震	150-760	永登浦區 大林3洞 大林 우성APT 2-101	833-3205			咸興
韓台龍	459-120	平澤市 신장동 298-126	(031) 662-8839			

第 31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CP	出生地
金明哲	136-829	城北區 장위2동 68-70	916-8712			永興
金聲鎬	150-875	永登浦區 汝矣島洞 21-1 서울APT 2-202	786-6489		(011) 382-0975	利原
金英鎭	402-866	仁川市 南區 학익2동 50 新東亞8次 APT 103-1001	(032) 864-9509		(010) 2298-9509	咸興
金永煥	156-836	銅雀區 上道1洞 345	814-6151			咸興
金溶浩	448-530	龍仁市 水枝區 성북동 723 성남마을 변산첼시빌 507-1501			(011) 9095-6417	興南
金致敬	405-232	仁川市 南東區 九月1洞 文化빌딩 5층	(032) 462-9662			咸興
金 泰	132-074	江北區 水躑4洞 576	993-8758		(019) 243-8758	咸州
盧敬鎭	411-746	高陽市 一山區 주엽1洞 강선마을 1705-402			(011) 695-4694	여주
都相默	427-050	果川市 富林洞 住公APT 809-107	503-0927		(019) 384-0901	咸興
都址石	158-070	東大門洞 長安1洞 394-1	2245-1363			咸州
朴道一	602-022	釜山市 사하구 장림2동 186-1 동원3차APT 101-713	(051) 264-2956			咸興
朴炳哲	138-240	송파구 신천동 장미APT 13-302	413-9396		(019) 292-9396	新興
朴諡忠	143-210	광진구 광장동 극동APT 6-610	3437-8072 6215-8075		(010) 2717-8073	咸興
朴祚烈	150-010	永登浦區 汝矣島洞 示範APT 8-56	780-3534		(016) 441-3543	咸州
辛應夏	614-863	釜山市 釜山鎭區 전포3동 362-64 한라비발디APT 102-1201	(051) 804-9934		(017) 552-7110	利原
柳俊馨	137-030	서초구 잠원동 70 신반포4차APT 207-808	536-6117			咸興
李達全	706-921	大邱市 수성구 신매동 139-1 신화빌라트 104-1505	(053) 792-1915			咸興
李炳泰	446-566	龍仁市 器興區 보정리 포스홈타운 210-1002	(031) 897-2367		(011) 767-1347	興南
李柱成	440-301	水原市 長安區 정지1동 덕산APT 424-1902	(031) 268-7322			永興
李熙高	446-557	龍仁市 器興區 마북동 629	(031) 275-4395			咸州
林 浩	613-764	釜山市 水營區 남천2동 3-5 협진태양APT 1-802	(051) 611-8878		(011) 886-3108	咸興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CP	出生地
全龜淵	446-742	龍仁市 器興區 동백동 호수마을 윌트메리디안APT 1601-202	(031) 899-6490		(019) 418-5088	咸興
鄭漢祐	412-022	고양시 덕양구 성사2동 16-729 신원당삼보APT 801-810	(031) 968-0107		(01) 7395-0107	咸興
曹源根	121-020	麻浦區 공덕동 462 파고파리스2 1902호	704-7981		(010) 5149-7981	咸興
朱源道	110-620	鐘路區 흥지동 32-9 금성빌라 302			(016) 365-9415	興南
朱炳德	100-400	中區 雙林洞 182-3	2279-4426		(011) 9957-4426	咸興
朱 一	137-070	瑞草區 瑞草洞 한양APT 2-1006	537-4322			咸興
朱繪淳	411-820	고양시 마두2동 796 선경APT 713-201	(031) 903-4871			咸興
韓熙邦	157-798	강서구 염창동 東亞2次APT 103-1305	3665-1789			咸州

第 32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CP	出生地
姜顯珏	627-831	밀양시 산내동 원서리 983-3	(055) 353-6559			興南
姜 俊	156-762	동작구 대방동 501 대림아파트 103동 601	725-3188			洪原
高昌岩	441-440	수원시 권선구 탑동 792-1 우리APT 3차 203호	(031) 295-2866			甲山
金桂碩	427-070	과천시 중앙동 주공APT 117-206	503-6143			咸興
金錫定	427-804	과천시 부림동 41 주공APT 809동 1508호	3679-1309			咸州
金映昭		속초시 중앙동 주공APT 11동 1101호	(033) 637-0234			咸州
金仁和	143-96	광진구 구의1동 230-24 (203호)	454-7107			咸州
金熙康	411-320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1479 탄현마을 한신APT 605동 1401호	(031) 916-2794			新興
朴東塾	611-735	부산 연제구 거제1동 한양APT 3동 403호	(051) 505-7302			
孫政達	463-060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10 이매촌 동신9단지APT 910동 1103호	(031) 702-6842			北靑
徐康洛	139-863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501-2 중계그린APT 102동 1010호	948-8596			高原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CP	出生地
徐星進	427-799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608 중흥S클라스APT 2203동 801호	(031) 511-1251			咸興
徐廷守	607-838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4동 485-7	(051) 623-7211			
宋政雄	443-92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35 탑마을 대우APT 212동 102호	(031) 706-7168			咸州
俞東在	421-814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179 세종APT 205동 409호	(032) 673-0285			咸興
柳榮潾	137-842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08-9 유립B/D 4F	586-7070			新興
李庚厚	449-84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서흥마을 한화APT 304동 501호	(031) 306-0157			咸興
李相龍	133-825	서울시 성동구 성수1가 685-201	465-6409			定平
李昇陽	425-140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강남마을 하나비발디APT 906동 1604호	(031) 287-1749			咸興
李承杓	415-270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유현마을 현대프라임APT 216동 901호	(031) 989-5035			咸州
李令載	132-072	서울시 성북구 수유2동 237-17	993-9963			서울
李龍哲	464-910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413-61	484-3488			咸興
李銀淑	157-702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도시개발APT 411동 1103호	688-3832			新興
李長得	611-82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7동 1999-2	(051) 851-3439			咸興
李澈和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현대랜손APT 2동 102호	544-0827			咸興
尹明鎭	435-751	경기도 군포시 수리동 계룡APT 832동 302호	(031) 421-0719			咸興
鄭源石	463-06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이름마을APT 515동 401호	(031) 707-6586			咸興
鄭在銓	446-557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629 삼거리마을 삼성래미안1차APT 109-402	(031) 283-2721			新興
趙躍燮	135-280	강남구 대치동 은마APT 20동 101호	556-0843			咸興
朱洙烈	613-764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2동 협진태양맨션 2동 902호	(051) 622-4012			咸興
秦正洙	137-040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7차APT 333동 804호	537-0467			高原
韓明均	403-772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2동 뉴서울APT 101동 305호	(032) 522-6420			咸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CP	出生地
韓錫彰	138-772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쌍용APT 102동 503호	482-2618			咸興
韓泰欽	449-84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리 700-1 현대APT 111동 306호	(031) 263-9302			咸州

第 33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CP	出生地
강동구	138-797	서울 송파구 잠실7동 86 아세아신수촌APT 10동 503호	414-9789		(016) 263-9789	홍남
강해원	411-320	경기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1485 진로APT 101동 1304호	(031) 914-5504			함흥
고수진	411-350	경기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715 백마마을 쌍용APT 506동 1305호	(031) 932-6132			함흥
길명원	121-190	서울 마포구 창전동 독막길 200 서강쌍용예가APT 101동 602호	717-8742		(011) 9993-8740	홍남
김기원	136-041	서울 성북구 삼전동 1가 217 현도하이츠빌라 4층 401호	762-9698			함주
김봉택	140-858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0-19	793-8620			함흥
김상구	140-858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청화APT 6동 302호	792-0406		(011) 9447-6347	함주
김상球	449-913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694 연원마을 성원APT 113동 802호	(031) 307-3250		(011) 353-7192	함흥
김형배	200-150	강원 춘천시 우두동 강변코아투APT 106동 201호				함흥
김형인	425-772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91 주공APT 1108동 201호	(031) 480-4189		(011) 241-0110	해산
맹수철	139-750	서울 노원구 상계1동 수락현대APT 102동 302호	939-6427		(011) 9981-6427	홍남
박병정	463-763	경기 성남시 분당구 처현동 219 효자촌 동아APT 202동 1001호	(031) 706-0792		(011) 252-9385	함흥
박영지	415-755	경기 김포시 풍무동 759 유원마을 프라임빌 217동 1501호	(031) 998-1257		(010) 4724-8214	신흥
박홍식	122-895	서울 은평구 역촌동 49 엠에스빌 A동 302호	354-5357			함흥
서윤환	411-320	경기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19-8 미주APT 5차 나동 410호	(031) 921-0104		(010) 2309-8486	홍남
송열달	136-102	서울 성북구 정릉2동 203-1	919-5891		(011) 9123-5891	함흥
염창록	449-567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현대아이파크APT 208동 901호	(031) 898-3724		(011) 9811-3724	단천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CP	出生地
위성국	700-444	대구 중구 남산4동 2466-1 보성황실APT 108동 502호	(053) 254-2310			함흥
신광희	431-714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광양1동 1396-1 현대APT 10동 702호	(031) 384-0440		(010) 4440-3803	홍남
신동호	137-041	서울 서초구 반포1동 701 영창반포빌APT 105동 702호	545-4142		(011) 243-4142	정평
신봉연	139-221	서울 노원구 중계1동 롯데 우성APT 103동 801호	931-7401		(016) 382-7401	신흥
신한균	121-829	서울 마포구 상수동 329-5	334-6312		(011) 9897-6311	신흥
유국배	134-071	서울 강동구 명일1동 삼익가든APT 1동 103호	3426-6006		(사)2275-8786	신흥
유동수	140-751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41 신동아APT 16동 303호	794-2626		(사)515-7522	북청
윤병양	135-270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캐리스 E동 3705호	574-1768		(011) 217-1766	함흥
이성남	142-875	서울 강북구 수유1ed 486-282	989-4749		(018) 249-8725	함흥
이철환	121-886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6-2 현대하이츠APT 3층 307호	336-2394		(011) 223-2394	함흥
임석현	609-350	부산 금정구 청룡동 45-1 아카데미빌라 401호	(051) 508-2686			함흥
전집종	430-070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초원APT 707동 901호	(031) 4760863		(010) 7504-0863	함흥
주선순	151-828	서울 관악구 봉천9동 635-285	877-7915		(011) 896-7915	홍남
최희방	130-050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7-3	966-0801			함흥
한수관	130-050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6-19	965-7813		(010) 3080-7813	함주
한승학	150-093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가 1 국화APT 2동 1103호				
한옥섭	600-094	부산 중구 대청동 4가 70-64	(051) 462-6585			함흥
한형근	681-230	경남 울산시 중구 북정동 67				함흥

海外同窓會 會員 名簿

第 21 回

姓名	英文綴字	電話番號	住 所	出生地
安省信	SUNG SHIN AHN		544 Golfview Ct, Staten Island, NY 10314-5982	咸州
朱翰裕	HAN YU JOO	570.459-2771	10 Harmony Dr., Hazleton, PA 18201	咸州

第 22 回

姓名	英文綴字	電話番號	住 所	出生地
黃石峯	SUK BONG HWANG	213.413-0228	2000 Miramar St. #507, Los Angeles, CA 90057	慶源
文相駿	SANG JOON MOON	562.926-0216	12537 Pinegrove Ln. Cerritos CA 90703-2000	咸興
李基億	KIUCK LEE	920.727-0423	419 Bosworth Ln, Neenah, WI 54956	咸興
徐甲承	KAPSYUNG SEO	773.275-9097	4500 N. Clarendon Ave. #905, Chicago, IL 60640	興上

第 23 回

姓名	英文綴字	電話番號	住 所	出生地
金曾鎬	JOONG HO KIM	7043.266-9710	6418 Melstone Ct. Clifton, VA 20124-2437	咸興
宋基澈	KEECHUL SONG	415.931-8241	3350 Taraval St. San Francisco, CA 94116	

第 25 回

姓名	英文綴字	電話番號	住 所	出生地
徐甲成	KAP SUNG SEO	808.839-6417	3215 Ala Ilma, #A-812, Honolulu, HI 96818-2905	興上
吳正喜	JUNG H. OH	770.621-0348	2438 Kings Ct. NE, Atlanta, GA 30345	咸興
劉秉千	BEONG CHEON YU	313.681-0005	2650 Pineview, W. Bloomfield, MI 48324-1972	忠北
趙程崙	JUNG RYUN CHO	410-435-0365	6401 Loch Raven Blvd #318, Baltimore, MD 21239	北青

第 26 回

姓名	英文綴字	電話番號	住 所	出生地
金澤濟	TAIK CHAE KIM	571.261-2224	13635 Holly Ridge Ln, Gainesville, VA 20155	高原
朴在彬	CHAE B. PARK	808.395-2270	7103 Pilla Place, Honolulu, HI 96825	永興
安景烈	KYONG YOL AHN	619.2346-390	1730 3rd Ave. Apt. 1406 San Diego, CA 92101	長津
吳炳憲	BYUNG HUN OH	781.862-6066	155 Old Spring St. Lexington, MA 02421-8021	鍾城
李根虎	KEUN HO LEE	310.534-3711	2420 250th St. Lomita, CA 90717	北青
李柱衡	CHOO HYUNG LEE	828.437-0493	247 Camelot Dr. Morganton, NC 28655	興南
李浩敏	HO MIN LEE	949.559-0774	33 Choate St. Irvine, Ca 92620-3320	咸興

第 27 回

姓名	英文綴字	電話番號	住 所	出生地
盧興德	HUNG TOK NO	405.787-8878	6700 N 57th St. Bethany, OK 73008	咸興
朴昭會	SOW HEY PARK	860.928-4447	196 Liberty Hwy, #2, Putnam, CT 06260	長津
元章煥	JANG HWAN WON		221 18th Ave., S #706 Seattle, WA98144	定平

第 28 回

姓名	英文綴字	電話番號	住 所	出生地
金雙楨	SOP CHONG KIM	206.363-3063	11024 14th Ave. NE, Seattle, WA 98125	咸興
李英得	YOUNG DUK LEE	614.880-0433	180 Cameron Ridge Dr. Columbus, OH 43235	新興
李澈男	CHUL NAM LEE	770.603-1818	2016 Pine Forest Ct. Jonesboro, GA 30236	咸興

第 29 回

姓名	英文綴字	電話番號	住 所	出生地
金淳郁	SUN WUK KIM	714.840-3563	4221 Humboldt Dr. Huntington Beach, CA 92649	咸興

姓名	英文綴字	電話番號	住 所	出生地
金雄植	UNG SIK KIM	614.889-8873	301 Tree Haven Ave. Powell, OH 43065-8513	咸興
金在楨	ZAE ZEONG KIM	414.632-5161	461 W. Sunnyview Dr. #13, Oak Creek, WI 53154	咸興
金和極	ABRAHAM KIM	715.461-8372	157-35 26th Avenue, Flushing, NY 11354	咸興
朴浩高	HOSURL PARK	443.319-5273	8610 Snowden River Pkwy, #226, Columbia, MD 21045	咸州
李培石	BAE SUK LEE	513.769-3627	3151 Brinton Trail, Cincinnati, OH 45241	咸興
李仁錫	IN SOK LEE	540.289-5769	226 Gatewood Ct. McGaheysville, VA 22840	利原
李通堦	TONG HOON LEE	704.543-4476	6800 Bevington Brook Ln. Charlotte, NC 28277	新興
張聖洛	SONG NAK CHANG	440.835-4219	319 Dover Center Rd. Bay Village, OH 44140	永興
韓 極	KUK HAN	510.490-6773	2681 Driscell Rd, Apt E116, Fremont, CA 94539	咸興
韓在壽	CHAE SOO HAN	213.989-1544	1709 W. 8th St. Apt. 213, Los Angeles, CA 90017	咸興

第 30 回

姓名	英文綴字	電話番號	住 所	出生地
姜禮根	RAE KEUN KANG	718.761-8671	120 Wellington Ct. Apt. 3F, Staten Is., NY 10314	咸興
高勝榮	SEUNG YUNG KO	201.750-5139	14 Patton Lane, Closter, NJ 07624	咸興
金庚台	KYONG TAI KIM	215.641-4654	1251 Rossett Ct. Ambler, PA 19002	咸興
金龍澈	YONG-CHOL KIM	831.642-0555	14 Stratford Pl., Monterey, CA 93940	洪原
申森熙	SAMUEL H. SHINN	518.782-7046	5 Shamrock Circle, Latham, NY 12110-3739	興南
梁昶模	CHANG MO YANG	773.509-1799	3940 West Bryn Mawr Ave, #409, Chicago IL 60659	高原
李性伯	SUNG BAEK LEE	703.451-2543	9608 Old Keene Mill Rd. #224, Burke, VA 22015	咸興
曹秉均	BYOUNG G. CHOH	216.524-9635	6967 Carol Drive, Independence, OH 44131-5309	洪原
趙 哲	CHUL CHO	773.588-1177	6010 N. Lawndale Ave. Chicago, IL 60659	咸興
韓萬燮	MANSOP HAHA	408.725-0176	20488 Stevens Creek Blvd. #1616, Cupertino, CA 95014	咸興

第 31 回

姓名	英文綴字	電話番號	住 所	出生地
權鎮均	JENE K. KWON	714.389-3474	15 Galena, Irvine, CA 92602	三平
金亨述	HYUNG SOOL KIM	713.432-0778	4437 Effie St, Bellaire, TX 77401	咸興
朴炳元	BENJAMIN PARK	805.778-0115	354 Avenida de Royalle, Thousand Oaks, CA 91362	咸興
徐甲敏	KAP KYUNG SEO	808.373-4081	170 Wailupe Circle, Honolulu, HI 96821	興上
徐泳煥	YOUNG HWAN SEU	713.466-1385	8134 Ivan Reid Dr. Houston, TX 77040	興南
楊炯春	HYUNG C. YANG	614.891-2200	683 Westray Drive, Westerville, OH 43081	咸興
李英鎬	YOUNG HO RHIE	413.596-4691	83 N. Mountain Rd., Wilbraham, MA 01095	惠山
李元鏞	WON YONG LEE	510.524-4043	616 Vistamont Ave, Berkely CA 94708	咸興
李培善	BAE SON LEE	909.861-0026	22820 E. Hilton Head Dr. #76, Diamond Bar, CA 91765	咸興
李哲敏	CHUL MIN LEE	949.715-7361	38 Talmont Newport Coast, CA 92657	咸興
黃載鎮	JAEGENE HWANG	914.472-2753	15 Penn Blvd. Scarsdale, NY 10583	忠南

第 32 回

姓名	英文綴字	電話番號	住 所	出生地
金武燦	MARTIN M. KIM	907.727-7408	1100 W. Benson Blvd, Anchorage Alaska 99503	咸興
金泳昭	YOUNG SO KIM	253.927-1552	4714 Fairwood Blvd. NE, #401, Tacoma, WA 98422	五老
李東輝	DONG HWEE LEE	734.812-3628	930 John R. Road, Apt 2323, Troy MI 48083	咸興
차철영	CHARLES CHA	813.920-8801	17425 Equestrian Trail, Odessa FL 33556	
韓東相	DONALD HAN	702.263-6072	2734 Chokecherry Ave, Henderson NV 89074	咸州

第 33 回

姓名	英文綴字	電話番號	住 所	出生地
權炳池	BYUNG JI KWON	714.590-9606	9900 Acacia Ave #75, Garden Grove, CA 92841	咸興
金澤秀	TAEK SOO KIM	347.426-4551	212-07 75th Ave. #3M, Bayside, NY 11364	興南
宋錫根	SUCK KEUN SONG	301.216-0681	9 Earth Star Place, Gaithersburg, MD 20878-2778	咸興
崔昌松	CHANGSONG CHOI	203.677-8363	15 Copper Beach, Farmington. Ct 06032	咸興

日本

姓名	日文名	電 話	住 所
徐昌仁	泉山昌仁	022-263-303 264-3570	仙台市 青葉區 中江町 1丁目 10-18 仙台 中江 病院

카나다

姓名	日文名	電 話	住 所
金元謙	WON KYUM KIM	204.269-1952	23 Michigan Ave., Winnipeg Manitoba, Canada, R3 T3 V1
崔哲根	CHOI KEUN CHOI	416.226-0488	251 Otonabee Ave., Toronto, Ont, Canada M2 M2S9

1. 在美州同窓會 任員 및 期幹事

- 會 長 金淳郁(29回)
- 副會長 朴浩高(29回)
- " 權鎮均(31回)
- 總 務 韓萬燮(30回)
- 幹 事 趙程崙(25回)
- 李浩敏(26回)
- 李澈男(28回)
- 金雄植(29回)
- 申森熙(30回)
- 朴炳元(31回)
- 韓東相(32回)
- 宋錫根(33回)

會誌編輯室

郵便番號：100-230

서울 中區 水標洞 47-6(天壽빌딩 1008號)

稅務法人 **티 & 에이**

代表稅務士 鄭哲周 事務所

(019-9214-2729)

本會副會長

電話番號：2274-0928, 2266-8305, 2273-6937

F A X：2266-8306

作故者 名單

第 1 回

朴楨淵 朴定杰 李東準

第 2 回

金文憲 金明學 金化燮 金禮鎬 尹相德 盧炳瑚
林在苑 韓國溥 朴海龍 韓泰然

第 3 回(舊制)

韓澤柱 李範海 李之鎬 李英一 李種英

第 4 回(舊制)

朱幹欽 金載鼎 尹範模

第 5 回(舊制)

韓昌源 朴重剛 金桂淑 吳正根 李廷浩

第 6 回(舊制)

韓參淵 金楨龜

第 6 回(新制)

崔榮根 姜洙楠 李鳳寅 朱 源 金聲遠 李鍾圭

第 7 回(舊制)

韓桔容 咸興基 李在鵬 崔炳島 朴興陽 趙啓聖

第 7 回(新制)

韓道淑 韓鎮億 林壁榮 蔡洙崗 金世偉 姜錫福

第 8 回(以下 新制)

金昌洙 金溶鉉 崔正憲 張錫林 張永相(舊 興萬)
崔在緯 崔浩英 盧鍾九 朱德淳 柳載昊 金龍背
池鏞夏 馬鍾國 金鍾偉 李經濟 趙永星 金仁燮
金龍涉 池鏞夏 朴在極 朱洛璋

第 9 回

金基漸 金相涉	金信遠 金載元	李鎬亨 朱翼淳	朱洛瓚 金述奎	朴台三 咸泰元	高承普
------------	------------	------------	------------	------------	-----

第 10 回

金應錫 南相協 尹鍾杰	金義昌 金正中 咸錫玖	金昌善 劉正學 蔡熙甲	宋相益 李東沂 金淳業	朴義鉉 朴俊基 金聲近	吳昌淑 俞鎮河
-------------------	-------------------	-------------------	-------------------	-------------------	------------

第 11 回

金永鎮 朴用善 尹明海 朴源誠 金永商	金明鎮 方亨練 鄭致鎔 張鉉稜 黃起然	金致源 宋義鏞 趙容昊 姜澤瓚 金塾堂	南鳳淳 李炳逸 韓明功 金基燮 都遠涉	盧忠吉 李東洙 韓湖石 金弘鎮 李壹敦	朴文燦 梨應麟 朴忠鎮 金炯澤 李在玉
---------------------------------	---------------------------------	---------------------------------	---------------------------------	---------------------------------	---------------------------------

第 12 回

金鏞千	朱之鎬	朱元鎬	崔弼憲	李升圭	文希樂
-----	-----	-----	-----	-----	-----

第 13 回

姜龍彬 朱 葉 李大林	金教寅 韓吉鎬 黃東駿	文天洙 金竣宋 蔡永福	安壽吉 李炳文 李永植	李潤生 韓鐘韶	張仁奉 金鼎鉉
-------------------	-------------------	-------------------	-------------------	------------	------------

第 14 回

廉禮寬	俞孝植	李秉植	黃德駿	安鎔彪
-----	-----	-----	-----	-----

第 15 回

金道俊 李容成 李日赫 金子勳	李永昊 李永秘 高聖均 金滢次	李求翰 金信德 金熙春 金基惠	李弘均 趙來春 盧瑞玉 金信熙	李祖甲 韓麟植 咸潤根 朴俊燮	李成洙 李寬英 金永燮
--------------------------	--------------------------	--------------------------	--------------------------	--------------------------	-------------------

第 16 回

秦承國 金連珪	申明燮 金聖河	韓秉子 李東秀	太學基 崔昌集	朱洙元 韓弘林	朱鍾式 姜穩求
------------	------------	------------	------------	------------	------------

金洪集	金斗漸	金麟河			
第 17 回					
朴重治(舊重玉)		李祥生	盧鍾閑	金智赫	金禹燮
韓昌淑	金漢苑	韓萬堦	高允明		
第 18 回					
玉文鉉	朴範集	柳炳達	韓祥鳳	沈澤星	李寬燁
李泰榮	金義鉉	徐永昱	朴謙會	朱東雲	崔英植
韓宗鎬	金寅彪				
第 19 回					
金炳七	金生賓	金松瑩	金秀行	金益浩	金鍾浩
金植軫	金漢奎	金亨泰	金豪南	朴鵬榮	申泰實
李明煥	李秉泌	李致德	張衡武	全榮林	韓秀會
朴燦國	朱基鍾	朴旻會	文錫根	金河駿	李在亨
韓 策	都相禧	朴炳驪	韓景鎮	韓弼夏	李勇墳
第 20 回					
文 哲	邊普燁	申東俊	李昌協	全世經	金亨穆
鄭宗殷	權泰弘	白萬吉	崔仁根	朱忠墳	崔淳祚
太厦基	韓 榆	黃載駿	金明植	咸 哲	金世龍
林炳書	曹圭福	朴蒼鎮	徐光洙	洪澆杓	崔玉德
朴演珽	金宗海	孫浚得			
第 21 回					
韓台集	李東機	林根燁	李基鍾	朴東振	金昇奎
柳培殷	金鏡煥	崔昌奎	韓近淑	朱仁鎬	劉 喆
元勳基	尹君昌	李林學	金駁鉉		
第 22 回					
金亨信	金載璉	李權洙	朴聖煥	申衡均	申鉉和
全銘鶴	朱榴鎮	朱鍾喆	韓秉濠	韓讚植	張榮國
崔俊楨	金旻奎	金東成	孔守範	韓 湧	韓鎮洙
高明相	韓淳海	劉 鎰	朴演喜	崔昌奎	李舜益
張秉珉	陳忠國	崔龍煥	朱 乾	李敦憲	洪德熙
申泰燦	洪昌杓	金祐燮	廉元德		

第 23 回

金教吉	金基壁	金南鶴	金東炫	金桑根	金泳杰
金佐謙	徐載卿	尹士榮	李仁勳	李廷輯	崔相國
崔儀憲	崔熙澤	韓鎬權	李光熏	韓東湖	崔敏煥
池昌龍	韓 信	朴昌浩	朴昌均	崔宗仁	趙有衡
申泰薰	李根孝	金斗埴	林陽均	李世得	李漢淳
鄭良殷	朴東昂	徐正溶	朱圭演		

第 24 回

金鍾鳳	盧永達	朴文卿	李基赫	金鉉五	趙在龍
崔溶憲	韓錫武	韓永根	洪鉉基	玄斗映	金泰錫
韓錫範	李漢國	金聲堦	魏在珪	南哲祐	黃炳峻
金應浩	李萬鎬	金性均	金廷圭	韓承銀	高明元
金東勳	朴泳馥	崔 雄	崔 皓	韓時坤	韓學鎰

第 25 回

文 虎	朴承咸	秦秉洛	朱恒斗	洪相瑜	趙 曄
金世翊	朴鼎憲	金仁鶴	金吳麗	劉長得	盧庚炳
李圭元	趙載高	金炳乙	金聲進	金銀式	劉炳敏
韓相豹					

第 26 回

申南均	李學守	金熙燦	玄斗鎰	禹 一	韓秉喆
梁泰鱣	金秉萬	魯永吉	崔華聖	金瑤煥	金鍾麟
朴一均	林祥榮	陳一憲	洪德泳		

第 27 回

韓鐸聲	千宗玉	玄鳳燕	韓栽永	曹圭榮	丁基苑
韓明洙	李炳國	張元龍	邊 焄	李 填	安 滉
廉聖龜	劉 鋼	李鴻範	朱炳七	朱舜五	韓泓模

第 28 回

金教一	金泳八	金鎔九	林珍洙	邊道燁	宋守根
劉大植	李密森	邊永根	金在乾	金 鐸	宋榮冕
盧惠圭	金庚彥	金景俊	朴載陽	朴承棒	尹治玉
金東鳳	朴吉淵	朴在勳	吳聖昱	劉衡均	尹允燮

李樂斌 金鳳湜	李命英 趙東喆	洪鉉杰 李載淵	金鍾股 金漸煥	金連熙 林鎬燮	元炳日 崔仁鎬
------------	------------	------------	------------	------------	------------

第 29 回

金秉熙 楊仁道 玄斗正 金弘杓 洪邊 朱格 韓世鎬 金熙國 林鍾一	金潤鎬 李東哲 徐尙郁 朴在炯 千歲林 鄭治島 劉澤鍾 崔錫勳 金正宰	金鎮鎬 韓祥喆 陳伯林 윤용준 趙鎰 韓春熙 韓鴻吉 高惠榮	文杓周 李楨得 都重浩 金鳳舜 南萬松 全龍洙 李求輪 金炯宇	辛基壽 張炳九 李正昊 柳惠一 李芳秀 朴在容 鄭景鍾 金載範	安永吉 韓祥珏 安震 鮮于碩河 鄭炳殷 李鎬允 宋徵林 林舜均
---	---	---	--	--	--

第 30 回

高昊式 李始鐘 盧甲炳 張亨龍 李圭煥 金信根	金泳夏 張時珍 崔昌杰 李昌植 朱泰河 都相豹	金英根 鄭峻 金聖治 李河 崔聖珉 吳承泰	金寬植 趙弘汀 金基南 金炳建 韓相淇 李鎬植	朴壽淵 陳國永 崔斗吉 金秉浩 朴永鎬 林滄彬	朴哲 韓增鎬 金永善 羅雲龍 李仁根 鄭林植
--	--	--------------------------------------	--	--	---------------------------------------

第 31 回

高義哲 韓秉極 梁泰龜 朱鍾和 李鳳植 韓東柱 裒聖喆 崔千德	李弘根 李城洙 劉濬成 崔德俊 李柱七 柳榮龜 李璣勳 李致和	林鳳來 金弘潤 嚴鎔洙 崔燦在 白庚鍾 金載昆 全承浩 金東勳	弼珠光 盧善 李相稷 魚演昌 金聖斗 金宇泳 高庚式	韓泳運 徐三澤 李星九 權由周 梁柱龍 朴永洙 全夏鏞	金玉金 安培植 李容均 金周鉉 高明鎬 金教誠 李哲範
--	--	--	--	---	---

第 32 回

金聖南 朴河基 崔夏楨	金載坤 金東一 崔熙仁	池一權 金仁涉 韓龍彬	金致浩 禹宗均 韓亮淑	崔心煥 田春三 申泰均	元俊熙 趙鍾南 金炳鉉
-------------------	-------------------	-------------------	-------------------	-------------------	-------------------

金晟楨
鄭浩鏞

金壽喆
崔慶明

朴承宰
崔炯英

吳成基
崔洪昶

李熙烈
韓敏相

鄭允廷
千龍範

第 33 回

吉明河
尹在敬
朴寅赫
朴溶郁

李遠鍾
林茂連
姜在錫
韓永喆

崔琳活
廉義龜
召念卍
韓澈柱

任縞彬
李元鍾
劉昌根
韓龍大

朴淳三
韓元松
李大鍾

金福雙
金賢修
李長弘

編輯後記

2009年 드디어 咸鏡道 사나이들이 꿈에도 그리는 盤龍동산에 어엿한 九層塔을 세웠네요! 「盤龍9號」! 얼마나 대견합니까?

우리 배달겨레는 어릴때부터 “九(아홉)이란 數字는 너무나 흔하고 親하고 福되고 情겹고 너그러워 우리 몸과 마음에 깊숙히 무르녹아”가보잡았다! 九萬里長天 九天 九泉 九死一生 九重深處 九九 九折羊腸 九牛一毛...“ 따위 우리 입에 膾炙되는 그 높고 넓고 크고 길고 정겹게 우리의 情緒를 얼마나 너그럽고 부드럽게 淨化시켰던가?!

그래서 오세 늙은이들 사이에 ‘九九八八二三四’란 웃기는 流行語가 흘러다닌다. 여기에도 九字가 2개나 끼어있다.(아흔아홉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日만 앓고 죽(4:死)으란다) 참으로 배포도 좋고 慾心도 어지간하여 苦笑가 터진다.

어쨌거나 이나이의 老童들이 이 동산에 이 탑을 세우기 위하여 情誠어린 玉稿를 보내주신 여러분과 特히 稀貴한 寫真蒐集에 애써주신 高明三 在美 韓萬燮 同門에게 깊이 感謝드리며 또한 大手術後 病床에서 누워있어야 할 處地의 몸으로 本事業에 決然 投身奉仕한 金明哲 監事에게 우리 모두 뜨거운 感謝와 快癒를 비는 拍手를 보냅니다. 아울러 會長을 비롯한 任員 여러분과 二和情密의 任職員 여러분의 勞苦에 感謝드립니다.

咸高同門 여러분! 가 없는 동녘하늘 바라보아라 노래불러 벗이 되

어 於焉 七八十年이 넘었구려 白髮 휘날리며 지팡이 짚고 이 동산에
한 마리 파랑새 되어 날아들어 盤龍야! 城川내야! 크게 크게 외쳐봅시다.

2009年 晩秋 九層塔 앞에서

韓承五 올림



同窓會 連絡處

會 長 02-3147-2797, 011-284-4692

李 三 悅

副會長 02-2266-8305, 019-9214-2729

鄭 哲 周

監 事 02-916-8712

金 明 哲

總 務 031-898-3724, 011-9811-3724

廉 昌 錄

盤 龍

2009년 10월 20일 인쇄

2009년 10월 30일 발행

발 행 처 함흥고보(함남중학)
총동창회

편집및인쇄 이화피앤디
(등록 1989. 2. 14)

비매품(회원용)



定和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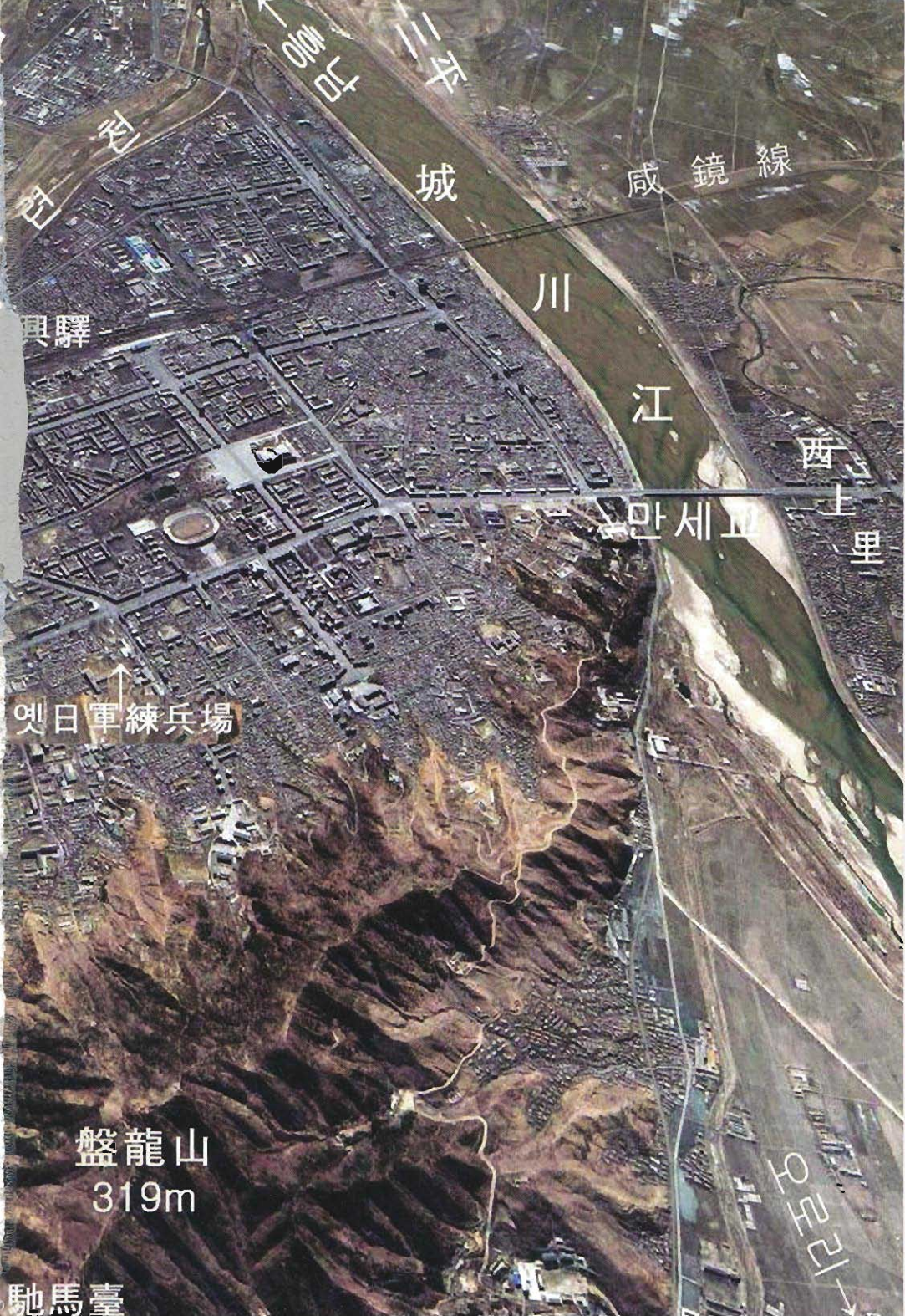
土水里

瑚璉川

會上里

德山

會陽里



加山

興驛

咸鏡線

川

江

西上里

曼世里

舊日軍練兵場

盤龍山
319m

馳馬臺

안동리

盤龍 9號誌 (274p)

實錄小說 〈北韓38度線〉 顛末記
추가(요약) 부분

要約

1.

1950년 6월 24일 저녁이었다.

少年 빨치산 成日철는 부대와 함께 저물어가는 東草港을 떠났다. 그들이 탄 鐵船은 두 척인데 南道富, 姜正秀 두 司官이 이끄는 빨치산 부대 600명이 分乘하고 있었다. 그들보다 한발 앞서 吳振宇 大佐가 이끄는 正規軍 部隊가 注文津을 향해 떠났다.

빨치산들은 대부분 以南出身들이었다. 南勞黨員들은 그전까지 南勞黨 學校에서 教育 받았으나 共產黨이 公開的으로 彈壓된 이후 이북에 江東政治學院이 설립되어 학생들도 越北했고 그 教育經歷은 黨內에서 높이 評價되었다. 少年이 越北한 1949년 여름에 平壤에 戰爭勞働氣가 高調되더니 別안간 動員令이 내렸다. 咸北 會寧에 빨치산 養成所인 제3軍官學校(3개월 教育)가 새로 설립되고 모든 南韓出身 青年은 무조건 빨치산(遊擊隊) 부대에 入隊하라는 指示가 내렸다. 少年도 그래서 입대했다.

소년의 아버지는 남노당 財務部長이었다. 周圍의 空氣가 尋常치 않아지고 刑務所 出入이 잦아지자 身邊의 威脅을 느낀 아버지는 아들을 單身 越北시켰다. 以北에는 女盟 文化部長이던 어머니가 江東政治學院 講師로 있었다. 外務副相 李康國은 아버지의 中學校 同期同窓인데 少年 成日철가 越北하면 바로 모스크바 留學을 周施하기로 約束돼 있었다. 그러나 그가 간지 얼마 뒤, 李康國은 左遷되고 벼락같은 動員令이

내린 것이다.

그는 17歲였다. 正規軍志願에는 年齡制限이 있으나 遊擊隊는 年齡制限이 없었다. 그는 제3軍官學校를 卒業한 가을에 同期生 300명과 함께 江原道 華川郡 史倉里에 제200支隊를 創設하는 成員이 됐다. 그는 중학교 3년을 막 마쳤으며 그 學歷이 인정되어 分隊長에 任命되었다. 그의 所願은 工夫를 열심히 해서 大學에 가는 일이다. 이왕 入隊했으나 근무 후 어떻게 벗어나는가가 問題였다. 服務年限이 명시되지 않았으니 事態는 流動의인데 赫赫한 功勞을 세우는 길밖에 벗어날 길은 없을 것 같았다. 1950년 이른 봄, 그들은 東海岸 襄陽에 集結命을 받았다. 이윽고 北上中인 金達三部隊를 掩護하라는 命을 받아 方臺山-五臺山으로 갔다. 鄭鑑錄에 避難處로 점 찍힐 만큼 人跡이 드문 深深山谷에서 그들은 한 달 동안 버텼으나 彈藥과 食糧이 떨어져 衆寡不敵으로 全滅하기 直前 後退했다. 그의 2分隊는 奇蹟의으로 全員 無事해서 少年은 제1小隊長이 된다. 그동안 襄陽은 新型武器와 戰略物資가 山積했고 兵士들도 수많이 모인데다가 中國 東北地方 朝鮮族志願兵들이 充員되었다.

그들은 再充電 되었으며 새 部隊編成으로 南道富部隊로 編入되었다. 그는 政治委員(指導員) 安哲의 連絡兵이 되었다. 安哲은 그가 아직 어려서 戰鬪 參加는 이르다고 配慮한 것이다. 그는 反對하다가 모젤 拳銃을 준다는 통에 受諾했다. 그는 그의 分隊員들이 昇進하여 氣分이 좋았다. 모두 戰意가 드높아 散華한 戰士들의 怨讐를 갚기 위해서 出陣하는 것이다.

그들이 탄 배가 떠난 직후에 少年의 어머니가 쫓아왔다가 水平線 위에 鐵船이 내뿜는 검은 연기만 바라보았다. 그것을 少年은 몰랐다.

2.

배에서 그들은 38선 沿線의 全線에서 人民解放軍이 南朝鮮 全域으로 一齊히 侵攻했음을 알고 歡呼했다. 그들의 豫想 上陸地點은 竹邊이었으나 航海士의 誤判으로 臨院津에 上陸하고 말았다. 그들은 마음이 焦急하여 錯誤된 時間과 距離를 되찾기라도 하듯이 좁은 海岸路를 破竹之勢로 南下하는데 南朝鮮은 戰鬪態勢가 하나도 돼 있지 않았다. 落伍兵이 續出했으나 그들은 前進을 繼續했다. 蔚珍을 지나 梅花里에서 海岸線을 버리고 內陸으로 향했다. 처음 敵軍과 遭遇한 것은 白岩里 지나서 七寶山에서였다. 雙方에 많은 被害가 있었으나 遊擊隊들은 쉬지 않고 移動했다. 그들은 淸송 普賢山에서 겨우 休息을 취했다. 移動中이어서 把握을 못 했는데 그동안 戰死傷, 失蹤, 落伍로 部隊員은 半으로 준 것을 알았다. 그들은 여기서 金達三(前 濟州道 4·3事件 主謀者)部隊와 接線하기로 했으므로 기다렸으나 그들은 오지 않았다. 金達三이 失脚해서 못 온 것을 안 것은 훨씬 후의 일이었다. 普賢山에서 南道富는 慶北戰區로 가는 姜正秀部隊와 헤어졌다. 往年의 200支隊長 金相浩는 姜正秀部隊 隊列參謀(人事參謀)로 左遷되어 失意에 빠져 있었다. 少年은 作別人事하러 갔다가 아끼던 夜光時計를 풀어서 金相浩에게 주었다. 時計가 品貴하던 때

였다. 게다가 모처럼 金日成首領이 모든 指揮官에게 激勵調
로 시계를 下賜했는데 그에게는 차지가 오지 않았으니 金相
浩의 感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는 成日철의 어머니가
女記者란 것을 記憶했다가 먼 後日 그의 어머니를 만나서 아
들의 消息을 傳해주었다.

3.

그들은 彦陽으로 갔다. 이곳은 釜山-蔚州-梁山-密陽이
둘러싼 곳으로 지금 ‘慶南 알프스’라고 불리는 神佛山-天山
山-載藥山 一帶로 옛날부터 人跡이 드물고 義兵將 申丕石이
倭軍을 피해 避身했던 곳이다. 그들은 이곳에 東海南部戰區
司令部를 설치했다. 그들은 여기서 待機했다가 釜山으로 進
擊할 態勢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洛東江의 砲聲은 점점
멀어져 갔다. 한참 洛東江 攻擊戰鬪가 熾熱하던 때였다. 그들
은 隸下에 3개 獨立戰鬪部隊를 편성했다. 尹鍾求部隊(梁山·
東萊地區), 洪吉童部隊(蔚山·慶州地區), 成三成部隊(清道地區)
다. 이들은 各隊가 自律的으로 分散해서 主要交通網을 掌握
하고 車輛을 奇襲하고 兵力에 被害를 주었다. 한 때 이들의
奮戰으로 釜山·慶州間 動脈인 輸送補給路가 完全 遮斷되었
고 晝夜로 閉鎖되기도 했다. 戰鬪部隊의 눈부신 活躍이 奏效
하자 警察討伐隊의 決死的인 追擊戰이 벌어졌다. 그러나 그
들은 事件이 發生해야 事後出動하므로 언제나 遊擊隊보다 한
발이 늦어서 束手無策이었다. 그 때 즈음 해서 洛東江의 砲擊
이 멀어졌다.

그들에게는 無線施設이 없었다. 그들에게 支給된 蘇聯製 ‘사벨’(北) 無電機는 神主처럼 모셔왔는데 막상 稼動시켜보니 反應이 없는 쇠덩어리에 不過했다. 그 뒤로 그들은 ぜ카(黨中央)와는 完全 隔離된 存在가 되고 말았다. 그 때문에 간신히 入手한 命令文書가 發行 後 一年 만에 到着한다는 珍事件이 發生했다. 얼마 뒤 人民軍의 戰略的 後退라는 撤收消息이 전 해졌다. 部隊의 運命을 두고 열띤 討議가 있었다. 그들도 人民軍을 따라 北上할 것이냐? 아니면 南朝鮮에 남아서 再侵할 때까지 기다리느냐? 그들은 美軍의 參戰에도 不拘하고 無敵 人民軍의 捲土重來를 믿고 疑心치 않았다. 그들은 殘留하기로 決心했다.

4.

그것은 하나의 아이러니였다. 潛行과 奇襲을 基本으로 하는 遊擊隊가 아닌가. 그들은 事件現場에서 잠시 正體를 드러 낼 뿐, 바로 모습을 감추고 定處 없는 것이 그들의 本領인데, 이제 와서 집짓고 定着하면서 正體를 白日下에 드러내놓겠다니 驚天動地할 노릇이었다. 騎馬民族이 牧畜民族이 되는 것 만큼이나 놀라운 일이었던 것이다. 司令官은 神佛山의 한 戰略的인 高地를 점지하여 宿營地로 決定했다. 夜間에만 作業하기 때문에 몇 달이 걸려서 陣地構築이 完成되었다. 司令官도 이번은 決心을 단단히 한 것 같았다. 司令官은 宿營指針을 만들어 隊員들의 몸에 익히게 하느라고 徹頭徹尾 되풀이 지시했다. 만약에 한 隊員이 기침을 하면 그것은 온 산에 울

러 퍼지고 만다. 기침하는 動物은 人間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의 所在을 滿天下에 公開하는 것이 되므로 全隊員은 生命의 威脅 앞에 서게 된다. 結局 빨치산과 非·빨치산 間의 立場이 完全히 뒤바뀌어 攻擊手가 守備로 돈 것이다.

戰局이 安定되어 가는 탓인지 警察의 活動이 차츰 活潑해졌다. 平壤으로부터의 通信이 끊긴 이후 그들에게는 一切의 補給이 끊겼다. 上陸時 300명이 半減했다가 自進入隊한 男女學生이 여럿이 있었으며 落伍兵, 智異山에서의 轉入兵 등 승해서 한때는 다시 300명으로 육박했으나 아무리 急襲이 主인 遊擊戰이라 해도 死傷者가 생기게 마련이었다. 戰鬪를 하면 할수록 部隊員數가 좃불 심지가 타들어가듯 줄어들었다. 그들이 懇切히 바랐던 것은 兵力의 補給이었으나 아무리 上申해도 答信이 없었다. 그들은 南朝鮮 臨時首都인 釜山の 목을 죄는 위치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力不足으로 行動할 수가 없었다. 그들이 金井山 東萊나 洛東江 河口 梁山에서 혹은 吐舍山 慶州에서 또는 毖瑟山 大邱에 出沒하며 냄비 쟁개 비 두드리며 “人民軍 만세. 人民軍이 온다!”고 高喊 몇 번 지르고 돌아와도 戰戰兢兢한 民心은 魂飛魄散하고 갈팡질팡할 것이다. 그러나 성냥불로 전쟁할 수는 없다. 그들의 立地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隊員들은 정말 隔靴搔癢의 안타까움과 분통을 이길 수가 없었다.

司令部의 補給은 戰鬪現場에서 自給自足했다. 戰鬪部隊가 擄獲品으로 自隊充電이 끝나면 剩餘物이 後送되어 司令部 需要를 充當했다. 戰鬪가 없어도 밥은 먹어야 한다. 本部人員을

먹여 살리는 補給鬭爭이 敵의 包圍網을 뚫고 繼續 敢行되었다. 補給鬭爭도 戰鬭이었다. 完全武裝한 敵陣을 橫斷하므로 그들도 完全武裝하여 한번 出動하면 平均 二十名 以上이 動員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隱密한 行動이라도 人員이 많으면 꼬리가 잡힌다. 그것은 偶然이 아니라 必然이었다. 아무리 操心해도 漏水現象이 있게 마련이다. 그것은 거의 運命的인 것이었다. 補給鬭爭을 자주 다니는 게 발미되어 警察에게 어느덧 神佛山 宿營地의 存在가 綻露나고 말았다.

5.

1950년 12월 宿營地에 警察討伐隊가 襲擊해왔다. 難攻不落의 要塞에 자리잡은 司令部는 옛날에 비하면 補給도 넉넉했고 잘 아는 地利形勢라 士氣衝天해서 바뻘었다. 討伐隊는 많은 犧牲者를 버리고 후퇴했다. 遊擊隊도 被害가 적지 않았으나 무엇보다도 배고프고 疲困했다. 밥을 먹고 나니 졸린다. 모두 들어 누우려는데 난데없이 出發命令이 떨어졌다. 分明히 그들이 이긴 戰爭인데 어디로 가는가?

“討伐隊는 내일 새벽에 우리를 奇襲해온다. 싸워도 좋지만 우리 被害도 크니 일단 避해서 損害는 보지 말자”

그들은 눈앞 咫尺인 앞산으로 피했다. 山도 아닌 하이킹코스다. 그런데 이튿날 동이 트자 司令官의 豫言대로 奇襲이 있었다. 討伐隊는 야금야금 깡이처럼 高地를 기어서 占領해 보니 그때는 이미 撤收한 뒤라, 쥐새끼 한 마리 없어서 놀랐다. 口수소리 叱咤소리가 온 산에 亂舞하며 遊擊隊員을 찾아

헤맷지만 虛事였다. 그들은 바로 앞산의 特等觀覽席에 편히 앉아 悠悠히 觀戰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루는 司令官이 소년을 불러 戰鬥部隊의 레보(連絡兵)와 接線하라고 지시했다. 한 밤중에 地形을 잘 아는 가까운 距離에서 만나는데 초저녁에 내보내는 것이 이상했다. 보니까 女隊員 金常善이도 따라오는 게 아닌가. 少年은 영문을 알 수가 없어서 고개를 기웃거리자 上선이가 自白했다. 그녀가 少年을 짝사랑하는데 少年은 하도 木石 같이 굳어 말을 붙이지 못하고 司令官에게 泣訴했던 것이다. 少年은 당황했으나 上선의 純情에 끌렸다. 戰爭이 끝나면 같이 살자고 約束만 하고 빨치산의 사랑은 덧없이 스러진다.

6.

少年은 慶南 昌寧의 萬五千石 하는 大地主의 宗孫으로 태어났다. 그는 서울에서 자라나 師範附屬國校와 普成中을 다녔다. 그의 아버지의 中學校 同期인 李康國(京城帝大 出身. 共產主義者) 때문에 집안이 左傾했다. 共産黨이 偽造紙幣事件으로 逮捕令이 내리자 ‘韓國의 마타하리’ 金壽任(李康國의 옛 愛人)이 遲滯없이 알려주어 朴憲泳 以下 南勞黨 幹部들이 일망타진을 免했다.

7.

南道富司令部는 衰微했지만 健在했다. 戰鬥部隊는 여전히 敵을 골탕 먹이고 怯주고 있었다. 1951년 12월 이번에는 白

善燁이 이끄는 討伐司令部가 神佛山을 奇襲했다. 그들은 이번엔야 말로 危機에 처했다. 敵들은 歷戰의 勇士답게 照準이 正確했다. 全部 一等射手요 狙擊手였다. 그들은 兵力을 交代하며 波狀攻撃을 加해왔다. 하루 종일 서서 交代도 없이 應射하는 遊擊隊員들은 疲勞가 겹쳐 쓰러져갔다. 敵들은 葡萄하여 눈앞에까지 肉薄해왔다. 그때 指導員에서 作戰參謀가 된 成日晝는 最後의 카드를 던졌다. 신주처럼 모시던 手榴彈을 풀어 窓밖에 굴렸다. 隊員들은 그를 따랐다. 창밖에 阿鼻叫喚 地獄이 벌어졌다. 討伐隊는 썰물처럼 빠졌다. 그날 밤 遊擊隊들은 또 한 차례 脫出을 試圖했다. 그들의 宿營地 四方은 개미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蠟燭을 밝혀 놓았다. 여기를 어떻게 빠져나가며 半 주검인 隊員을 어떻게 끌고 가는가. 그러나 그들은 다시 개울을 건너 一年前에 숨었던 곳으로 다시 移動하겠다는 것이다. 놀라는 成日晝에게 司令官은 웃으며 말했다.

“등불 밑이 어둡다 안카나 그것도 兵法이대이.”

司令官의 命令一下 그들은 一絲不亂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神出鬼沒 했다. 그들은 무사히 개울을 건넜다. 非夢似夢間에 감춰둔 쌀로 죽을 끓여먹고 뒤치닥거리를 하는데 司令官이 말했다.

“그만들 해뒤라. 대충하고 가자.”

痕迹을 남기지 않은 것은 諜報의 基礎常識이다. 前에는 없었던 일이었다. 參謀長은 잠시 머리가 混同했다. 게다가 그들은 이상하게도 오던 길을 敵을 향해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

이었다. 司令官이 돌아나 하는 생각마저 잠시 스쳤다. 그러다가 途中에서 進路를 또 바꿨다. U-턴이 아니라 S-턴을 한 것이다. 그는 司令官의 神算을 믿었다. 두고 보면 알 것이다. 이튿날 아침에 討伐隊가 와서 시끄러워서 잠이 깼다. 그들은 四方으로 튀며 搜索했으나 아무 것도 건진 것이 없으니 혼자 북치고 장구친 꼴이었다. 그러나 古參답게 앞산까지 꼼꼼히 뒤졌다. 그들은 U-턴한 길목 근처까지 와서 搜索을 펼쳤는데 바로 그 풀숲 벼랑 아래에 유격대가 엮드리고 있었던 것이다. 危機一髮의 瞬間, 멀리서 歡呼聲이 터졌다. 遊擊隊員들이 炊事한 痕迹을 발견한 것이다. 쫓기는 자는 恒常 앞으로 빨리 逃亡갈 窮理만 한다. 討伐軍은 속는 줄도 모르고 냅다 앞으로만 재촉하여 追擊해 나갔다. 그들은 끈질긴 掃蕩作戰이 失敗하자 이번에는 住民들의 俗信에도 귀 기울였다. 제 精神이 아니었던 것이다.

山에 遊擊隊가 3千名이 있다. 그들은 地下에 산다.

搜索隊는 밀져야 本錢으로 여기저기 땅까지 파보았으나 虛事였다. 그들은 그래도 수색을 斷念하지 않았다가 20餘日이 지나서야 그들이 餓死한 것으로 치부하고 撤收해 버렸다. 그러나 遊擊隊들은 건재했고 그때도 각자 열흘 분 食糧이 남아 있었다. 어느 안개 깊은 밤, 遊擊隊는 天皇山으로 해서 載藥山으로 移動했다. 우연히 密偵 하나가 그들을 發見하고 申告했으나 鬼神이 뜻할 노릇이었다. 討伐隊가 一網打盡한다고 부르며 到着했을 때는 그들의 行方은 다시 杳然했던 것이다.

1953년 7월 休戰協定이 成立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무런

寄別도 없었다. 漠然한 짐작이었으나 金日成이 南勞黨員을 전부터 고깝게 생각하고 홀대하는 기미가 있었는데 그것이 本格的인 政敵으로 몰려 모조리 肅清된 것으로 짐작되었다. 그러니 遊擊隊의 生死에 關心이 있을 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도 一縷의 希望을 가지고 隊員 하나가 白旗를 들고 敵陣에 協定하러 갔으나 돌아오지 않았다.

이제 生存한 隊員은 아홉 名뿐이었다. 司令官은 隊員들에게 部隊解散을 命했다. 그때쯤 해서는 巨物이면 射殺하지만 그 밖의 共匪는 逮捕되어도 調查後 放免하는 趨勢여서 負擔이 덜했다. 司令官은 少年에게 명령했다. 유언이었다.

“이 戰爭은 잘못된 전쟁이다. 同族끼리 이런 殺傷은 있을 수가 없다. 魔가 끼어도 분수가 있지. 이런 일은 絕對로 다시 일어나면 안된다. 너는 그 동안 쪽 내 곁에 있어서 전쟁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잘 안다. 이 이야기를 써서 記錄해 남겨라. 後代에 오는 同族들에게 傳하고 警告해야 한다.”

8.

成日철와 司令官은 下山하여 昌寧의 宗家 집에 숨었다. 成日철는 그동안 捕虜가 되거나 自首한 자들의 自白에 의해서 司令官參謀長으로 알려져 指名手配되어 있었다. 말하자면 둘 다 巨物로서 點鬼簿에 올라 있었던 것이다. 두 달 후 司令官은 大邱로 나갔다. 소년은 宗中에 累가 될까봐 조마조마했으나 사령관은 단 생각을 갖고 있었다. 둘 다 죽을 바에는 한

번 冒險해서 젊은 애 하나 살려놓고 가자. 어떻게 大馬를 살리느냐? 그는 어느새 바둑 對局의 妙手를 짜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苦心 慘憺한 賭博은 結實하여 金昌龍 防諜隊長을 움직여 少年을 救命했다. 司令官은 軍事裁判을 받고 1957년 刑場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는 죽을 때 ‘人民共和國 萬歲’를 불렀다. 그러나 그 人民共和國이 김일성의 공화국이 아니었음을 아는 사람을 알 것이다.

東海南部遊擊司令部 戰果는 대략 討伐군 殺傷 300餘命, 트럭 破壞 500餘臺, 武器 擄獲 2000挺이었다. 그 중에서 그들이 小兵力으로 열 배 가까이 많은 兵力의 발을 묶어두었던 것이 最高의 戰績으로 알려졌다.

少年은 放免되어 大學에 다녔다. 어느날 明洞의 한 茶房에 앉았다가 옛날 追憶이 되살아났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는 女人을 그는 記憶해냈다. 25年前에 헤어진 女戰士. 그는 躊躇하다가 겨우 일어섰다. 그녀는 나이의 變化를 보이지 않고 여전히 美貌였다. 衣裳만큼 몸짓이 裕福해 보였다. 그가 저를 잇고 문을 나서는데 乘用車 한 대가 미끄러져 와서 그녀를 태우고 사라졌다.

9.

少年은 2009년 지금도 健在하다. 자수한 뒤 世上物情도 알았다. 그는 越北하면서 헤어진 家族들과 再會하지도 못했다. 지금 모두 幽明을 달리고 큰 누이동생하나만 살았다. 그의 작은 누이동생 成惠琳은 金正男의 生母이다. 少年은 모스크

바로 가서 두 동생을 脫北시키려고 했으나 외톨이가 되는 아들을 念慮한 母情 때문에 좌절됐다. 그리고 몇 해 전에 죽었다. 큰 누이동생은 무사히 脫北했으나 그들 母子의 再會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미를 기다리던 아들 李韓永이 어느날 盆唐에서 他殺된 시체로 發見된 것이다. 그는 스위스에서 韓國機關員에게 拉致되어 왔는데 인터폴의 追跡이 두려워 같은 서울에 사는 外三寸(少年)에게까지 10年間이나 連絡을 끊고 알리지 않았다. 며느리와 손녀가 보고 싶은 母情은 盧政府에 의해 入國이 拒否되었다. 도대체 왜들 이 모양인가? 어떤 伏線이 있으며 어떤 曲線인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사는 世上은 너무나 不透明하고 不確實하다.



위 꽃사진들은 사진작가 故 趙載高동장(25회)이 남긴 작품들이다